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도시계획학박사학위논문

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 및 방문객의
이용행태와 만족도

Behavior and Satisfaction of Residents and Visitors
on Seoul Wall and Neighboring Areas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전공

유 석 연

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 및 방문객의 이용행태와 만족도

지도교수 안 건 혁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전공

유 석 연

유석연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요약(국문초록)

최근 서울성곽 복원 및 성곽길 개방으로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 성곽 주변 주거지 관리의 문제는 오래된 이슈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서울성곽을 등재시키기로 한 결정으로 주변 주거지의 환경개선에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곽 복원 및 성곽길 개방 등 최근 변화를 배경으로 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방문객의 환경인식·이용행태·만족도 사이의 관계와 구간별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용주체별·구간별 이용행태와 만족도의 차이가 성곽 및 주변부의 물리적 환경의 특성 차이에 의해 나타난 것임을 고찰하고자 한다.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거주자·방문객의 환경인식·이용행태·만족도는 각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곽 복원 및 성곽길 개방 등 최근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이용행태를 추동하며, 활발한 이용행태는 거주만족도 및 성곽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자·방문객의 환경인식, 이용행태, 만족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린환경 특성을 역사환경보다 자연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둘째, 향후 발전을 위해 거주자는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를, 방문객은 편의·안내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셋째, 거주자는 대체로 성곽산책을 많이 하고 있으며, 접근성이 방문객의 출발지 선택이유로 나타났고 등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주변 시설과의 연계이용행태가 방문활성화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연환경이 좋아 거주환경 및 성곽에 만족하며, 교통접근성은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한 반면 최근 변화에 대해서는 거주자만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곽과 주변부 물리적 환경특성에 따라 이용주체별, 구간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를 종합해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문객·거주자 모두 성곽 주변 근린환경 특성을 역사환경적 측면보다 자연환경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성곽답사보다 산책, 등산, 주변 조망 등의 이용행태가 더욱 많이 나타나며, 만족의 이유로 성곽의 정비·개방 등 최근 변화로 인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접근성의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4
1. 공간적 범위 설정	4
2. 구간 및 성곽-근린환경 관계 분석을 위한 경계의 설정	4
제3절 연구의 내용	8
제4절 연구의 방법	12

제2장 기존 이론 고찰 및 대상지 분석

제1절 선행연구 고찰	25
제2절 이론 분석	28
1. 중심성	28
2. 컨텍스트 및 행태장치로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이용행태	30
3. 만족	34
제3절 서울성곽 및 주변 근린환경 분석	36
1. 서울성곽의 환경변화와 그 의미	36
2. 서울성곽과 주변 근린환경 관련 분석	43

제3장 서울성곽과 주변부의 구간별 특성

제1절 분석의 목표와 방법	63
제2절 물리적 환경요인 분석	67
제3절 성곽-근린환경 관계의 분석	73
1. 성곽 중심성 지표의 차이	74
2. 성곽 구간별 평균값의 차이	75

제4절 구간별 특성 분석	81
제5절 소결	107

제4장 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의 환경인식 · 이용행태 · 만족도

제1절 분석의 목표와 방법	109
제2절 환경인식 · 이용행태 · 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	113
1. 거주자의 환경인식과 이용행태의 상관관계 분석	113
2. 거주자의 환경인식과 거주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	114
3. 거주자의 이용행태와 거주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	116
4. 분석종합	117
제3절 구간별 환경인식 · 이용행태 · 만족도 분석	118
1. 거주자의 환경인식 분석	118
2. 거주자의 이용행태 분석	127
3. 거주자의 만족도 분석	130
4. 분석종합	139

제5장 서울성곽과 주변부 방문객의 환경인식 · 이용행태 · 만족도

제1절 분석의 목표와 방법	143
제2절 환경인식 · 이용행태 · 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	147
1. 방문객의 환경인식과 이용행태의 상관관계 분석	147
2. 방문객의 환경인식과 성곽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	149
3. 방문객의 이용행태와 성곽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	150
4. 분석종합	151
제3절 구간별 환경인식 · 이용행태 · 만족도 분석	152
1. 방문객의 환경인식 분석	152
2. 방문객의 이용행태 분석	157
3. 방문객의 만족도 분석	164
4. 분석종합	169

제6장 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방문객의 구간별 이용행태와 만족도의 차이

제1절	거주자·방문객 차이의 해석	171
1.	성곽산책(방문)	173
2.	교통접근성 만족도	174
2.	성곽만족도	174
제2절	구간별 차이의 해석	176
1.	거주자 구간별 이용행태 및 만족도 차이의 해석	176
2.	방문객 구간별 이용행태 및 만족도 차이의 해석	185
제3절	소결	193

제7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197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203

■	참고문헌	205
■	부록I 설문조사 설계 및 응답자 기초정보	211
■	부록II 구간별 중심성 도해	219

〈표차례〉

표 1-1 구간에 따른 주거지 구분	6
표 1-2 연구의 전체 틀	11
표 1-3 설문조사 응답자	19
표 1-4 연구의 구조-거주자 변수 구성	21
표 1-5 연구의 구조-거주자 요인 구성	21
표 1-6 연구의 구조-방문객 변수 구성	23
표 1-7 연구의 구조-방문객 요인 구성	24
표 2-1 성곽의 중심성 변수	29
표 2-2 서울성곽 축성 및 보수	37
표 2-3 서울성곽 주변 주거지의 역사적 변천과정	53
표 2-4 서울성곽 주변부 관련계획	57
표 2-5 서울성곽 인근 정비구역	57
표 2-6 서울성곽 인근 정비구역 추진현황	58
표 2-7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현황(9개 구역)	59
표 2-8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현황(7개 구역)	59
표 2-9 뉴타운사업 현황	59
표 2-10 연도별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변화	60
표 3-1 성곽 주변 근린환경의 범위 설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변수	65
표 3-2 구간별 성곽 진입부 및 성곽영향권 행정동	66
표 3-3 성곽 구간별 물리적 환경요인	67
표 3-4 구간별 자연녹지 면적 및 비율	68
표 3-5 구간별 역사유적·건물	70
표 3-6 구간별 문화시설	71
표 3-7 구간별 교육시설	71
표 3-8 성곽의 중심성 변수	73
표 3-9 성곽-근린환경 관계 기술통계분석	75
표 3-10 구간별 성곽-근린환경 관계	76

표 3-11 성곽-근린환경 관계	78
표 4-1 거주자 환경인식과 성곽산책의 상관관계	114
표 4-2 거주자 환경인식과 거주만족도,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115
표 4-3 거주자 이용행태와 거주만족도의 상관관계	116
표 4-4 거주자 환경인식과 인구특성의 관계	118
표 4-5 마을과 주변 공간환경의 관계	119
표 4-6 성곽 이미지	121
표 4-7 근린환경 특성	123
표 4-8 마을발전을 위한 요구	125
표 4-9 성곽산책과 거주자 인구특성의 관계	127
표 4-10 거주자 성곽산책 여부 및 산책횟수	127
표 4-11 대중교통 지점에서 집까지 교통수단	129
표 4-12 대중교통 지점에서 집까지 이동시간	129
표 4-13 만족도와 거주자 인구특성의 관계	130
표 4-14 거주만족도	131
표 4-15 거주만족 및 불만 이유	131
표 4-16 성곽만족도	134
표 4-17 성곽만족이유 - 거주자 기술통계	134
표 4-18 교통접근성 만족도	136
표 4-19 최근 마을변화에 대한 만족도	137
표 4-20 최근 변화만족 이유	137
표 5-1 방문객 환경인식과 성곽방문의 상관관계	148
표 5-2 방문객 환경인식과 성곽만족도,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149
표 5-3 방문객 이용행태와 성곽만족도의 상관관계	150
표 5-4 방문객 환경인식과 인구특성의 관계	152
표 5-5 성곽 이미지	153
표 5-6 출발지 환경 특성	154
표 5-7 출발지 발전을 위한 요구	156
표 5-8 성곽방문과 방문객 인구특성의 관계	157

표 5-9 성곽방문 여부 및 방문횟수	158
표 5-10 성곽 이용목적	159
표 5-11 출발지 선택 이유, 출발지 및 목적지 이용시설	160
표 5-12 구간별 방문객 목적지	163
표 5-13 대중교통 지점에서 성곽진입부까지 교통수단	163
표 5-14 이동시간	163
표 5-15 방문객 만족도와 방문객 인구특성의 관계	164
표 5-16 성곽만족도	165
표 5-17 성곽만족이유	165
표 5-18 교통접근성 만족도	167
표 5-19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	168
표 5-20 최근 변화 만족이유	168
표 6-1 거주자 · 방문객 비교	172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의 범위 및 구간의 설정	5
그림 1-2 연구의 틀 다이어그램	10
그림 1-3 연구의 개념	12
그림 1-4 연구의 개념적 틀	13
그림 1-5 분석 모델	15
그림 2-1 도성과 주요 시설의 개념도	31
그림 2-2 서울성곽 현황	38
그림 2-3 서울성곽 관광안내지도	39
그림 2-4 서울성곽과 주변 지형 현황 (단면)	44
그림 2-5 성곽주변 표고	45
그림 2-6 성곽주변 경사도	45
그림 2-7 성곽주변 물길	46
그림 2-8 성곽주변 비오톱유형평가도	47
그림 2-9 성곽주변 용도	48
그림 2-10 성곽주변 층수	49
그림 2-11 성곽주변 노후도	49
그림 2-12 서울성곽 주변 주거지 관련계획 종합도	56
그림 3-1 중심성 분석을 위한 구간별 성곽 진입부의 설정	65
그림 3-2 구간별 자연녹지(B) 분포	68
그림 3-3 구간별 역사유적·건물(C), 문화시설(D), 교육시설(E) 분포	69
그림 3-4 구간별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79
그림 3-5 구간별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80
그림 3-6 1구간 현황사진	82
그림 3-7 1구간 현황도면	82
그림 3-8 1구간 성곽 접근동선	84
그림 3-9 창신·송인 토지이용 현황	85
그림 3-10 창신·송인 노후도	85

그림 3-11 2구간 현황사진	88
그림 3-12 2구간 현황도면	88
그림 3-13 2구간 성곽접근동선	90
그림 3-14 3구간 현황사진	93
그림 3-15 3구간 현황도면	94
그림 3-16 접근로 주변 시설	95
그림 3-17 3구간 성곽 접근동선	96
그림 3-18 3구간 이정표 현황사진 및 위치	98
그림 3-19 4구간 현황사진	99
그림 3-20 4구간 현황도면	100
그림 3-21 4구간 성곽 접근동선	101
그림 3-22 등산로 개방 전 기다리는 시민들	102
그림 3-23 5구간 현황사진	103
그림 3-24 5구간 현황도면	104
그림 3-25 5구간 성곽 접근동선	105
그림 4-1 분석의 단계-거주자	108
그림 5-1 분석의 단계-방문객	142
그림 5-2 방문객의 목적지 선택	163
그림 6-1 거주자·방문객 성곽산책 비교	172
그림 6-2 거주자·방문객 교통접근성 만족도 비교	172
그림 6-3 거주자·방문객 성곽만족도 비교	172
그림 6-4 거주자 구간별 이용행태 및 만족도의 차이	176
그림 6-5 방문객 구간별 이용행태 및 만족도의 차이	185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서울성곽 복원 및 성곽길 개방으로 순성(巡城)¹⁾ 행렬이 줄을 잇는 등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성곽 주변 주거지에 대한 관리 문제는 오래된 이슈였으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서울성곽을 등재시키려는 노력은 관리에 더욱 까다로운 기준을 도입할 수 밖에 없어 환경정비가 필요한 열악한 주거지로 알려져 있는 주변부의 향후 환경개선에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성곽은 내사산의 외곽 능선에 조성된 조선시대의 도성(都城)으로 수도 한양의 경계였다. 일제강점기부터 훼손되어 왔던 성곽의 보수는 1961년²⁾부터 시작된 후 최근까지 지속되었지만, 2012년 5월 서울성곽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겠다는 발표 이후 성곽복원 및 성곽 주변 근린환경의 관리³⁾가 큰 이슈로 등장하였다. 또 2011년 서울성곽길 전 구간 개방으로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성곽의 환경변화는 주변 근린환경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성곽 주변 근린환경은 19세기말 한양의 인구증가로 성곽외곽에 시가지가 형성되기 시작한 이후 20세기 초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이농민과 철거민의 토막촌과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피난민 무허가판자촌 등의 불량주거가 난립하여 시민아파트 건설,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이 시행되었고, 뉴타운 등 정비사업구역이 다수 지정되어 있는 등 지금까지 물리적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물리적으로는 성곽 내·외측 경사지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구릉 주거지로서 작은 필지들이 높은 밀도로 지형에 따라 불규칙하게 연속되어 있다. 과거 주거지 형성기에는 성곽 및 성곽이 입지한 내사산과 인접함으로써 성곽유적 및 산지를 훼손

1) 조선시대는 성곽을 하루만에 일주하는 순성(巡城)의 전통이 있었다.

2) 창의문 동측지역 성곽보수로부터 시작

3) 기존 문화재법에 의한 양각규정 및 문화재 심의 등 규제 외에, 주택의 담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곽의 멸실 구간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와 성곽 주변에 대한 경관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방식으로 조성되었다면, 이후 양각규정 등 문화재법에 의해 성곽으로부터 100m이내에 입지한 주거지의 자율갱신 및 재개발에 있어 행위 제한 및 절차 등의 어려움은 작건 크건 변화를 제약하는 조건으로 작용함으로써 열악한 주거지로서 인식되도록 하는 이유가 되어 왔다.

성곽길 개방 이후, 성곽답사 외에 산책, 등산, 서울조망, 데이트 등 다양한 이유로 성곽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주변 시설을 방문했다가 이어 성곽을 찾는 등 도심시설-성곽의 연계이용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성곽은 도심에 인접하여 주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자주 방문할 수 있는 환경요소인 것이다. 성곽 주변 거주자의 경우는 방문객과는 사뭇 다른 양상⁴⁾을 보인다. 성곽개방은 역사환경이 주는 문화적 의미 외에도 자연환경과의 연계성을 증진시킨다. 거주자의 경우 서울성곽의 개방은 내사산으로 진입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여 운동·산책·등산 등을 일상생활 중에 즐길 수 있도록 영향을 주었다.

생활환경에 인접하여 산·공원 등 자연환경이 형성되어 있고, 이를 통해 일상 장소에서의 조망이나 생활환경과 연계된 운동·산책 등 행태가 발생하였을 때, 정신적·물리적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만족도를 높인다. 거주하기 위해 인간은 “동, 식물이나 그 밖의 구경거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정원, 공원 그리고 그 외의 자연환경에 언제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⁵⁾, 주택의 기능, 건강 및 쾌적성의 독자적 추구보다는 주택이 놓이는 곳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이 공존하는 주거환경의 구축이 사회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요구된다.⁶⁾ 서울성곽은 도시환경에 인접한 역사환경이자 내사산에 입지하여 자연환경과 연계 행태를 발생시키는 복합적 환경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성곽의 복원·개방 등의 환경변화가 주변부 물리 환경, 거주자·방문객의 이용행태 및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개념적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는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4) 2012년 10-11월 중 실시한 심층인터뷰 내용 중 거주자의 답변 참조

5) Dubos, R, 1974, The Biological Basis of Urban Design, Anthropolopolis, New York: W. W. Norton & Co. p263.

6) 박철수, 2003. 풍요로운 일상생활공간의 계획과 방향.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2, p22.

대한 거주자·방문객의 환경인식, 이용행태, 만족특성과의 상관관계와 구간별 차이에 관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성곽은 역사자원으로서의 가치 외에 성곽이 입지한 내사산의 자연환경과 어울려 서울시민의 동적 행태를 발생시킴으로서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입체적 도시구조이다. 둘째, 폐쇄된 선(線)적 구조로서 도심의 경계를 형성하던 서울성곽의 개방으로 외부적으로는 방문객 증가, 성곽 이용행태의 다양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성곽 주변 환경개선, 공공장소 및 자족시설의 증가, 용도 변화, 교통편의성의 개선 등 성곽 주변 근린환경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셋째, 이 같은 환경변화는 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 및 방문객의 환경인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열악한 주거지라는 외부의 인식이 지속되었던 지역 특성으로 인해 거주자·방문객의 환경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 거주자·방문객의 환경인식은 미시적인 물리환경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구간별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넷째, 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방문객의 환경인식은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이용행태는 행태장치로서 환경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구간별 차이를 보일 것이다. 다섯째, 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방문객의 환경인식은 만족도⁷⁾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만족도는 환경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구간별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여섯째, 거주자·방문객의 이용행태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만족도는 환경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구간별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일곱째, 거주자·방문객의 이용행태는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환경인식과 만족도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요소일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성곽 복원 및 성곽길 개방 등 최근 변화를 배경으로 성곽과 주변부 거주자·방문객의 환경인식과 이용행태가 물리적 환경특성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며, 이용행태가 거주만족도 및 성곽만족도에 영향을 주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또한 이용행태와 만족도에 있어 거주자·방문객의 차이와 구간별 차이를 분석하며, 이것이 구간별로 다른 물리적 환경특성과 연관된 것임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 설문조사를 통한 거주만족도, 성곽만족도, 교통접근성 만족도, 최근변화에 만족도 등의 항목임

제2절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설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성곽의 북측 절반에 해당하는 홍인지문~낙산공원~혜화문~와룡공원~창의문~사직공원에 이르는 구간 및 주변부이다. 범위 내 모든 구간에 주거지가 다수 분포하며 상업지역은 일부 노선상업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다.

성곽의 전체 노선 중 제외된 구간은 사직공원~남대문~홍인지문 구간인 남쪽의 절반 부분으로 연구에서 제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성곽이 끊겨 있고 토지이용 특성상 주거지 보다는 상업·업무 등 중심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장충동 등 일부에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지만, 연구의 범위로 설정한 서울성곽의 북측 구간과 입지 상으로 떨어져 있다.

서울성곽은 내사산에 입지해 있는데,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한 구간에는 동측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낙산-북악산-인왕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남쪽에 위치한 남산은 제외되었다. 또 서울성곽의 주변부는 성곽이 위치한 내사산의 레벨·지형 등 물리적 환경특성에 따라 주거 입지에 불리한 지역을 제외한 구릉지에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다. 부암동, 성북동 등 일부를 제외한 지역에 조선 후기부터 하층민들과 서울로 상경한 이주민들의 정착촌으로 형성된 열악한 고밀주거지가 다수 형성되어 있다. 현재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나, 서울성곽의 영향으로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사업진행에 난항을 겪어 왔으며 구릉지에 고층고밀로 개발할 수 없는 까닭으로 사업성이 열악하여 최근 뉴타운 등 일부는 구역이 해제되었거나 해제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2. 구간 및 성곽-근린환경 관계 분석을 위한 경계의 설정

앞서 선정한 공간적 범위를 물리적 환경특성에 따라 5개의 구간으로 구분하고, 이를 분석의 기본 단위로 삼는다. 또한 제3장에서 성곽-근린환경 관계의 분석을 위하여 구간별 주요 성곽 진입부를 중심으로 반경 1km를 성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변부의 경계로 설정한다.

첫째,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서울성곽 북측 구간을 5개의 소(小) 구간⁸⁾으로 구분한다.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고찰하는 이유는 서울성곽의 입지특성 및 성곽과 함께 고찰하고자 하는 주변 근린환경의 성격이 구간별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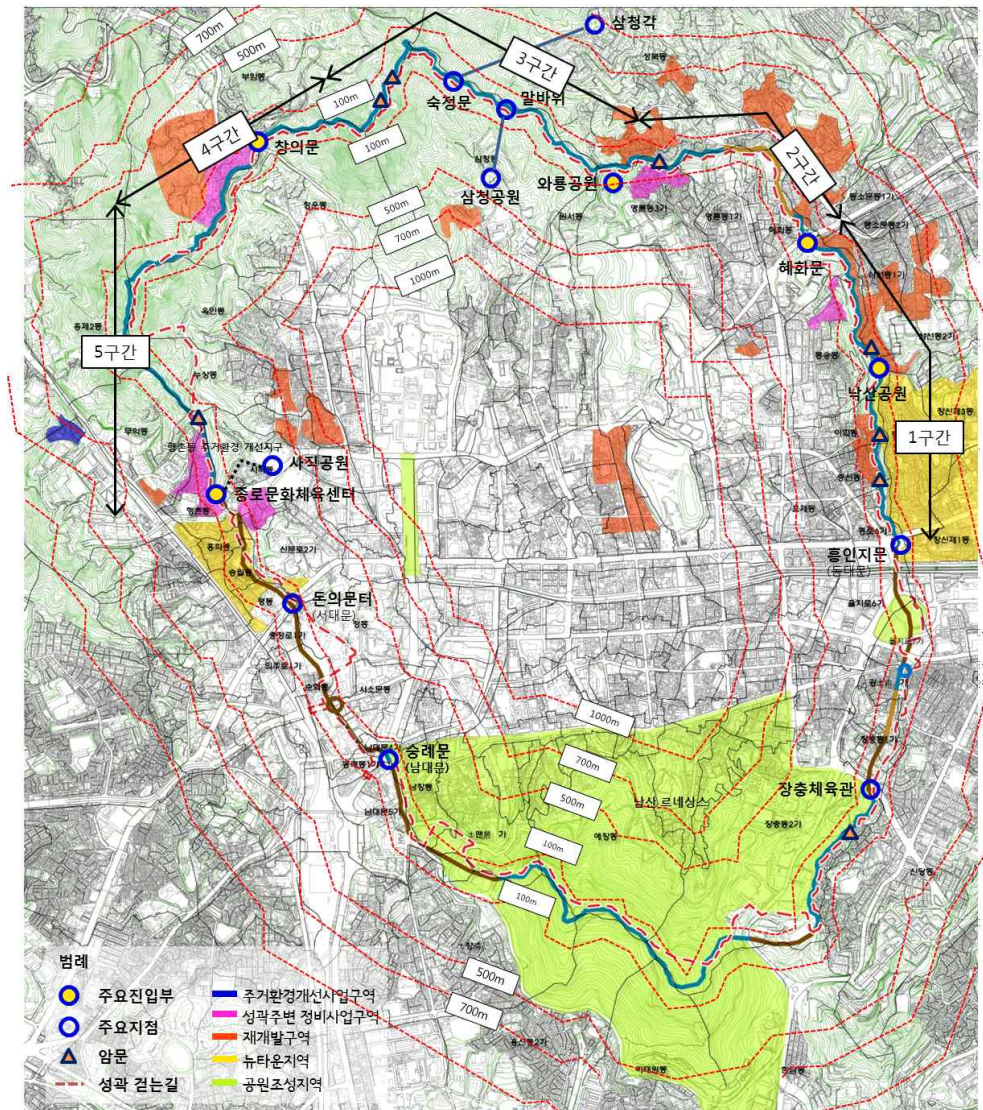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의 범위 및 구간의 설정

8)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한 서울성곽의 북측 구간을 편의상 5개의 소(小)구간으로 나누어 연구의 기본단위로 삼았기에 이후 서술에서는 이를 구간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성곽의 낙산구간 안팎-1구간-은 경사가 심한 구릉지에 열악한 주거가 고밀로 형성되어있다. 주거지의 블록 외곽에는 상업 중심지-동대문 패션타운, 대학로 등-가 위치하며 낙산공원 정비 후 여기로부터 많은 방문객이 유입되고 있다. 혜화문 부근은 왕복8차선의 창경궁로에 의해 성곽이 단절되어 있으며 낙산의 종점과 북악산 시점이 연결되므로 2구간의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혜화문에서 공원녹지가 거의 없는 열악한 구릉지 주거가 고밀로 형성되어 있고 성북로 및 혜화로에 갤러리와 식당이 다수 입지하는 와룡공원에 이르는 성곽구간의 안팎을 2구간으로 한다. 북악산의 녹지가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북동 일부와 삼청동, 가회동 등지에 고급 주거지와 한옥군이 형성되어 있는 와룡공원에서 북악산 정상까지의 성곽구간 안팎을 3구간으로 한다. 3구간 내에 위치한 북촌로 및 계동길에 고급식당, 갤러리 등 상업용도 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북악산과 인왕산 사이에 형성된 고급주거지와 창의문 주변 및 주거지 내부에 갤러리, 식당, 카페 등이 입지해 있는 부암동 등지를 4구간으로 한다. 창의문 남측 청운효자동은 주거지 레벨이 매우 낮아 높은 옹벽으로 창의문로와 단절되어 있고 진입도로가 창의문과는 쉽게 연결되지 않는 도시구조를 갖고 있어 물리적 환경분석에서는 제외한다. 인왕산의 녹지가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밀의 열악한 주거지가 급한 구릉지에 형성되어 있는 무악동, 행촌동, 사직동, 옥인동 등지를 5구간으로 한다.

연구의 범위로 설정한 서울성곽의 주변부는 주로 종로구와 성북구에 위치하는데, 구간별로 성곽의 안팎 어디에 입지하는 지에 따라 동별로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1-1)

표 1-1 구간에 따른 주거지 구분

구분	구간 기점	주거지 구분 (동)	
		성곽 내측	성곽 외측
1구간	홍인지문~혜화문	종로6가동, 충신동, 이화동, 혜화동	창신제2동, 삼선1가동, 삼선2가동
2구간	혜화문~와룡공원	혜화동, 명륜1가동, 명륜3가동	성북동(2구역 포함)
3구간	와룡공원~북악산 정상	북촌, 가회동, 삼청동, 계동	-
4구간	북악산 정상~창의문~인왕산 정상	청운효자동	부암동
5구간	인왕산 정상~종로문화체육센터	사직동	행촌동, 무악동

둘째, 위와 같이 성곽의 입지특성 및 성곽 주변 근린환경 특성으로 구간을 결정함에 따라 특성차이가 나타나는 경계를 성곽에 투영함으로써 구간을 나누는 기점을 정한다. 구간별 성곽기점은 성곽 주요 지점-홍인지문(동대문), 혜화문, 와룡공원, 사직공원⁹⁾ 등- 및 내사산 중 북악산과 인왕산의 정상으로 나타났으며 다음과 같다: 홍인지문에서 시계반대 방향으로 1구간 홍인지문~혜화문, 2구간 혜화문~와룡공원, 3구간 와룡공원~북악산 정상, 4구간 북악산 정상~인왕산 정상, 5구간 인왕산 정상~종로문화체육센터.

홍인지문(1구간), 혜화문(2구간), 창의문(4구간), 종로문화체육센터(5구간)은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내사산의 시·중점에 위치하고 있어 경사가 낮으므로 조선시대부터 한양으로의 접근로가 형성된 지점들이다. 지점들은 성곽 주변 근린환경의 관문역할도 하고 있다. 와룡공원(3구간)은 북악산의 동측에 형성된 공원이자 혜화문과 숙정문의 중간지점으로 현재 서울도심을 바라보는 전망대가 형성되어 있다.

셋째, 중심성(centrality) 분석을 통한 성곽-근린환경 관계의 분석-제3장 제2절-을 위하여 각 구간별 진입부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반경 1km를 중심성 분석의 대상지 범위로 설정한다.

구간별 진입부¹⁰⁾는 서울성곽길의 여러 진입부 중에 설문조사 결과로 결정한다. 1구간의 홍인지문은 주변부에 주거지 외에도 상업 등 중심지 기능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위와 같이 결정된 구간별 진입부는 다음과 같다: 1구간 낙산공원, 2구간 혜화문, 3구간 와룡공원, 4구간 창의문, 5구간 종로문화체육센터. 성곽 진입부를 중심으로 반경 1km를 중심성 분석의 범위로 설정한 이유는 제3장 1절에서 상세히 서술하겠지만 성곽의 안팎에 각각 다른 근린환경이 형성되어 있으며 각 근린환경 단위의 범위는 반경 4~500m가 일반적이며, 보행능력의 기준을 1/2mile로 본 건강보전 관련 이론¹¹⁾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9) 5구간 남측기점의 정확한 명칭은 종로문화체육센터이나 지명도가 낮아 흔히 사직공원으로 표현되곤 한다. 본 연구의 이후 서술에서는 종로문화체육센터로 표현하기로 한다.

10) 서울성곽길의 여러 진입부 중에 설문조사를 통하여 결정한다. 설문조사는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성곽 내 주요 장소’를 지목하도록 하였다.

11) 건강보전 관련 연구에서 “보행 능력의 기준” (Hakim et al., 1998)

제3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거주자 및 방문객의 이용행태와 만족도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성곽과 주변부의 물리적 환경특성과 거주자 및 방문객의 개인레벨 분석으로 환경인식·이용행태·만족도를 연계하여 고찰한다.

제3장은 성곽-근린환경 레벨 분석으로서 서울성곽과 주변부의 구간별 특성을 도출한다. 성곽 복원 및 성곽길 개방 등 최근의 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서울성곽과 주변부의 구간별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항목에 대하여 분석을 시행한다: 1)서울성곽과 주변부의 물리적 환경요인, 2)중심성(spatial centrality) 지표 분석을 통한 구간별 성곽-근린환경 관계의 차이, 3)서울성곽 주변부의 구간별 특성.

· [물리적 환경요인 분석] 서울성곽과 주변부의 물리적 환경요인을 고찰하기 위하여 성곽 진입부를 중심으로 반경 1km를 범위로 설정하여 성곽의 연결 상태, 구간별 자연녹지율, 역사유적·건물 개수, 문화시설 개수, 교육시설 개수, 성곽 진입부 주변 생활가로 형성 여부, 성곽 진입부 대중교통 연결 여부 등을 분석한다.

· [성곽-근린환경 관계의 분석] 서울성곽 진입부를 중심으로 4개의 중심성(centrality)-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지리적중심성, 인지중심성-지표를 도출함으로써 “서울성곽 주변 근린환경 내에서 성곽 진입부의 중심성”을 분석하며, 이를 통하여 구간별 성곽-근린환경 관계의 특성 및 차이를 도출한다.

· [구간별 특성 분석] 맵핑을 통한 물리적-공간적-환경특성 분석을 문헌·관찰조사 및 심층 인터뷰-거주자·방문객의 이용행태 등-를 통해 종합적으로 추론함으로써 구간별 특성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의 환경인식·이용행태·만족도를 개인 레벨에서 고찰한다. 각 항목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찰하며, 거주자의 환경인식·이용행태·만족도의 구간별 특성을 구간마다의 환경특성과 연계함으로써 해석한다.

· [환경인식 · 이용행태 · 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거주자의 환경인식과 이용행태의 상관관계, 환경인식과 거주만족도의 상관관계, 이용행태와 거주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이용행태가 환경인식과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 [구간별 환경인식 · 이용행태 · 만족도 분석] 구간별 거주자의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환경인식 · 이용행태 · 만족도를 분석한다. 세 가지 항목에 대한 거주자 전체와 구간별 지표를 도출하며 이를 종합함으로써 구간별 특성을 상세하게 도출한다. 또한 구간별 특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3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각 구간의 환경특성과 연계하여 해석함으로써 그 이유를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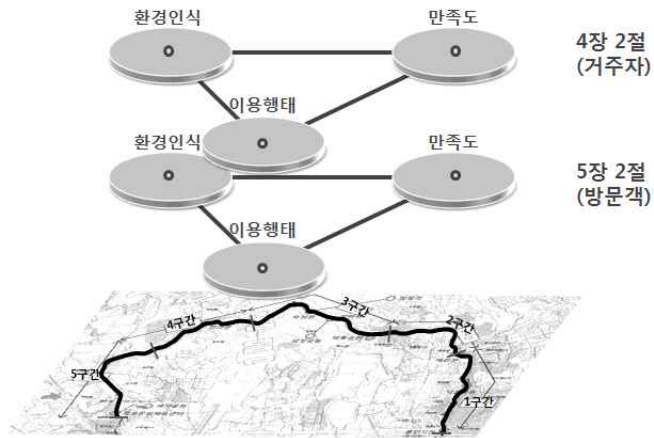
제5장에서는 서울성곽과 주변부 방문객의 환경인식 · 이용행태 · 만족도를 개인 레벨에서 고찰한다. 각 항목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찰하며, 방문객의 환경인식 · 이용행태 · 만족도의 구간별 특성을 구간마다의 환경특성과 연계함으로써 해석한다.

· [환경인식 · 이용행태 · 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방문객의 환경인식과 이용행태의 상관관계, 환경인식과 성곽만족도의 상관관계, 이용행태와 성곽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이용행태가 환경인식과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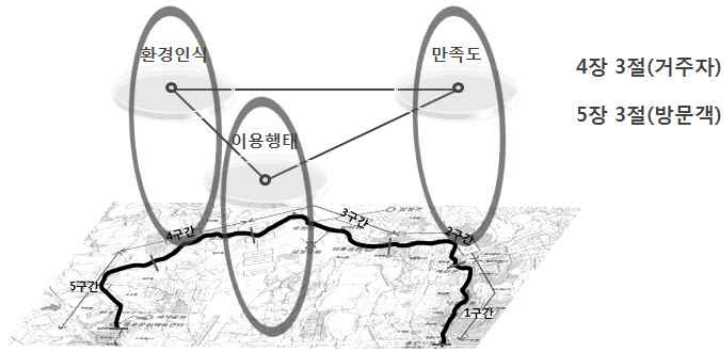
· [구간별 환경인식 · 이용행태 · 만족도 분석] 구간별 방문객의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환경인식 · 이용행태 · 만족도를 분석한다. 세 가지 항목에 대한 방문객 전체와 구간별 지표를 도출하며 이를 종합함으로써 구간별 특성을 상세하게 도출한다. 또한 구간별 특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3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각 구간의 환경특성과 연계하여 해석함으로써 그 이유를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제3장 [서울성곽과 주변부의 구간별 특성]과 제4,5장 [거주자 및 방문객의 환경인식 · 이용행태 · 만족도]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이용행태 및 만족도에 대한 구간별 거주자 · 방문객의 차이와 거주자 · 방문객 각각에 대해 구간별 이용행태 및 만족도의 차이에 대해 해석한다.

환경인식·이용행태·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



구간별 환경인식·이용행태·만족도 분석



거주자·방문객의 구간별 환경인식·이용행태·만족도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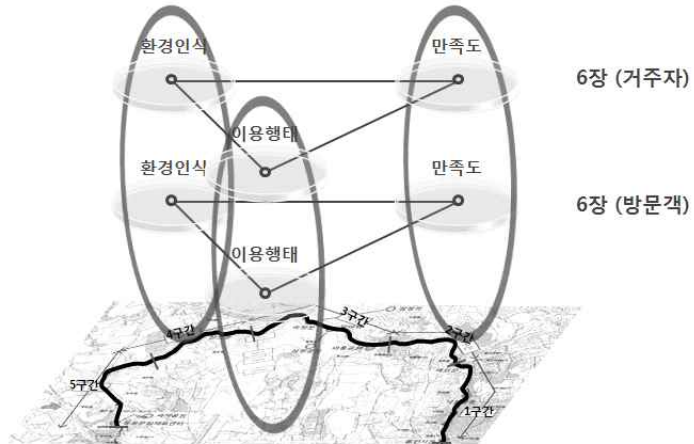


그림 1-2 연구의 틀 다이어그램

표 1-2 연구의 전체 틀

서론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p>기존 이론 고찰 및 대상지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 연구 분석 • 이론 분석 • 대상지 분석
본론	제3장	<p>서울성곽과 주변부의 구간별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환경요인 분석 • 성곽-근린환경 관계의 분석 • 구간별 특성 분석
	제4장	<p>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의 환경인식·이용행태·만족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인식·이용행태·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 • 구간별 환경인식·이용행태·만족도 분석
	제5장	<p>서울성곽과 주변부 방문객의 환경인식·이용행태·만족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인식·이용행태·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 • 구간별 환경인식·이용행태·만족도 분석
	제6장	<p>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방문객의 구간별 이용행태와 만족도의 차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간별 이용행태 및 만족도의 공간적 해석 • 구간별 이용행태 및 만족도 차이의 해석
결론	제7장	<p>결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요약 •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제4절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개념 및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4개의 차원을 갖는 ‘성곽-근린환경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1)인구집단 구성으로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거주하는 거주자 및 성곽을 방문하는 방문객, (2)이용행태, (3)물리적 환경장치(physical environment setting)로서 서울성곽과 주변부 환경변화와 이에 대한 거주자 및 방문객의 인식, (4)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거주자 및 방문객의 만족도-거주민족 및 성곽만족 등. (그림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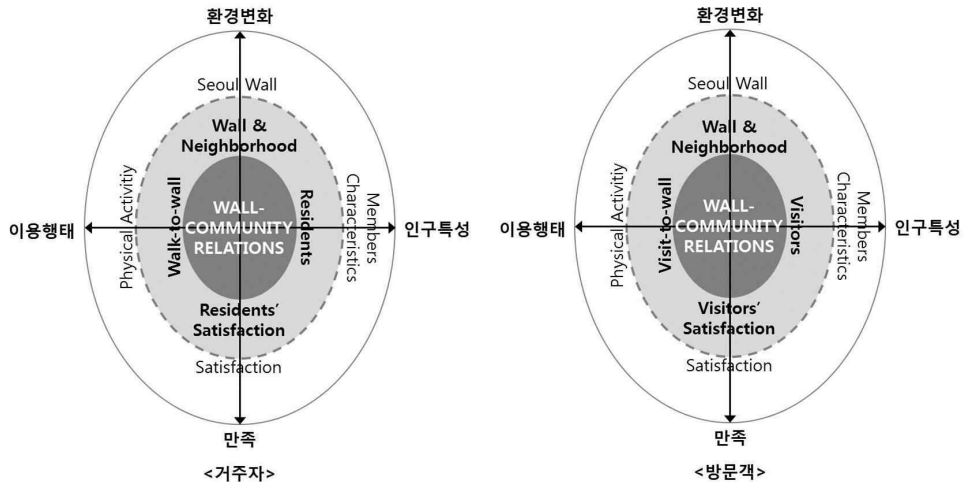


그림 1-3 연구의 개념

연구의 목적에 기초하여, 다음은 연구의 주요 가설 및 예비 가설을 각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 주요 가설 1.1 (H 1.1) :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환경인식은 거주자 및 방문객의 이용행태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 주요 가설 1.2 (H 1.2) :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환경인식은 거주자 및 방문객의 만족도(satisfaction)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 주요 가설 1.3 (H 1.3) : 거주자 및 방문객의 이용행태는 거주자 및 방문객 만족의 매개요소(mediator)일 것이다.

- 예비 가설 2.1 (H 2.1) : 성곽-근린환경 관계의 특징적 유형은 공간중심성 지표(spatial centrality indices)를 분석함으로써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 예비 가설 2.2 (H 2.2) : 객관적으로 측정된 중심성은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거주자·방문객의 인식중심성(perceived centrality)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 예비 가설 2.3 (H 2.3) : 거주자 및 방문객의 최근 변화에 대한 긍정은 이용행태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개념적 틀

본 연구는 성곽 및 주변 근린환경에 관련된 거주자와 방문객 각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논리적 단계로 연구의 틀을 구성한다.

1단계(제3장)는 성곽-근린환경 레벨 분석으로서,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환경요인, 구간별 특성, 성곽 진입부의 근린환경에 대한 공간중심성 및 인지중심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2단계는 개인 레벨(제4장-거주자, 제5장-방문객) 분석으로서,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환경인식과 이용행태, 그리고 만족도-거주자는 거주만족도, 방문객은 성곽만족도-와의 관계를 도출한다. 거주자·방문객의 환경인식은 물리적 환경-서울성곽의 복원·개방 등 최근의 변화를 포함한 성곽-근린환경 관계 등-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사용된다. 이는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물리적 환경요인을 직접적인 변수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물리적(공간적)-인지적 관계(Physical(Spatial)-Cognitive Relations)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1단계에서 분석한 물리적(공간적) 환경특성은 2단계에서 도출하는 거주자·방문객 각각의 분석 내용을 제6장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활용되어 설명력을 높인다.

3. 분석 모델의 구축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성곽-근린환경 레벨의 분석(1단계-제3장)과 거주자·방문객에 대한 개인 레벨 분석(2단계-제4장, 제5장)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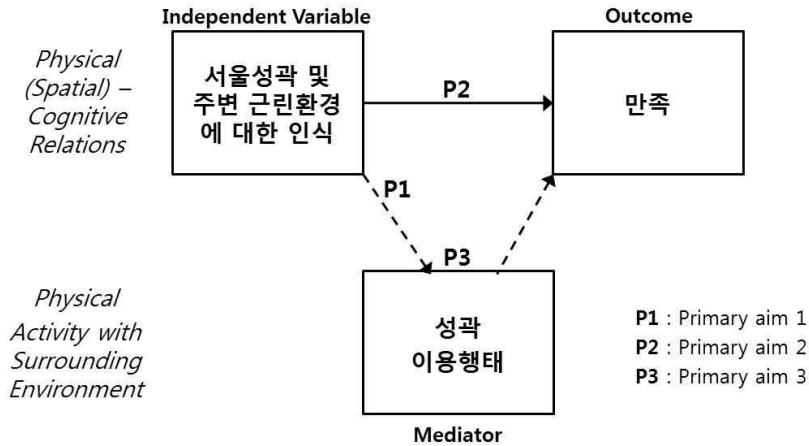


그림 1-4 연구의 개념적 틀

한다. 2단계는 거주자 및 방문객 각각에 대하여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환경인식·이용행태·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도출하는 횡단적(cross-sectional) 모델을 구축한다:

- [1단계] 성곽-근린환경 레벨 분석으로서, 서울성곽과 주변부 물리 환경요인, 성곽 진입부의 근린환경에 대한 공간중심성 및 인지중심성, 구간별 특성에 대하여 분석
- [2-1단계]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환경인식과 거주자·방문객의 이용행태와의 상관관계 도출
- [2-2단계]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환경인식과 거주자·방문객의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도출
- [2-3단계] 거주자·방문객 이용행태가 만족도-거주만족, 성곽만족-를 매개하는지 여부 분석

또한 (1)물리적 성곽-근린환경 관계(objective spatial centrality)와 인식적 성곽-근린환경 관계(perceived centrality) 사이의 연관관계와 (2)거주자·방문객의 서울성곽 최근 변화에 대한 긍정과 이용행태와의 상관관계도 중간 단계에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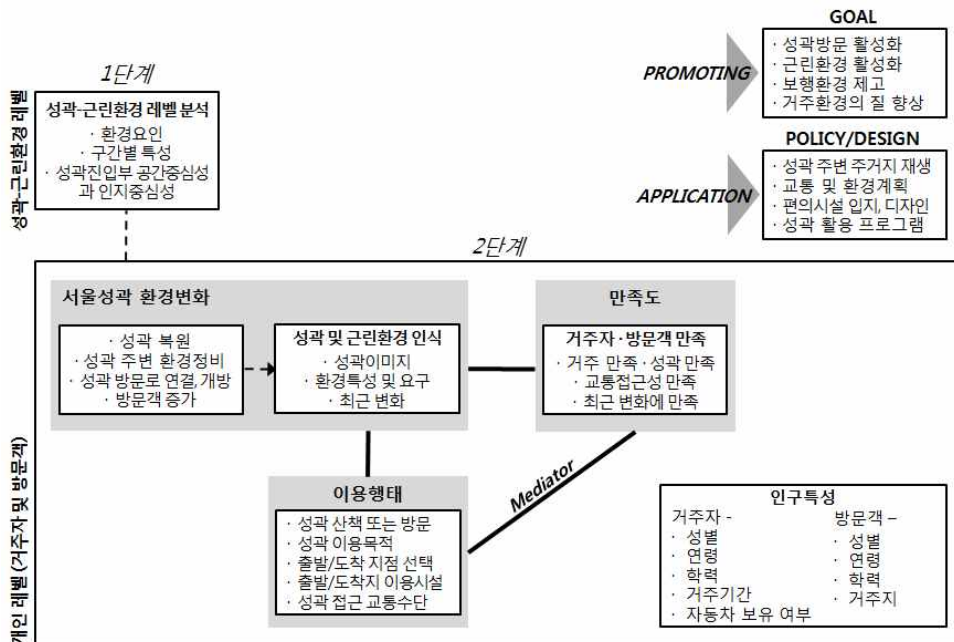


그림 1-5 분석 모델

4. 분석의 전략

본 연구는 성곽-근린환경 레벨 분석 및 개인 레벨 분석-거주자·방문객의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환경인식, 이용행태, 만족도-과 연관된 객관적·주관적 데이터 모두를 사용한다. 여기에는 개인적, 사회·인구학적, 물리적 환경요인 등도 포함된다. 데이터는 서울시 GIS 데이터 및 2012년 10~11월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1) 서울성곽 진입구의 공간중심성(Spatial Centrality)

성곽-근린환경의 물리적 관계(Physical Wall-Community Relations)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복수의 공간중심성 지표(multifur spatial centrality indices)를 활용함으로써 서울 성곽 주변부의 근린환경 네트워크에서 각 성곽 진입구들의 공간적 중심성을 평가한다. 성곽-근린환경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한 것으로 인지적 중심성이 있다고 판단된 주요 진입부만을 선정하였다. 주요 진입부를 제외한 암문

이 존재하지만 주요 진입부와 같은 근린환경에 위치하므로 중심성 평가에 있어 비슷한 값이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중심성(centrality)”은 네트워크 분석 이론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구조사회학(structural sociology) 분야에서 소개하고 있는 개념이다. 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이 강할수록 이동경로(route)의 경험치와 인지성이 더 높다는 것을 가정한다.(Tversky, 1993; Crucitti et al., 2006; Tomko et al., 2008)

공간중심성(Spatial Centrality)은 도시공간에서 장소(places)와 이동경로(routes)의 위계구조를 다루는 공간네트워크분석이론(spatial network analysis theory)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도시공간의 경험적 네트워크 분석(experiential network analysis)을 측정하는 도구(Hillier and Hanson, 1984; Bera and Claramunt, 2003; Claramunt and Winter, 2007; Crucitti et al., 2006) 중에서, 공간중심성의 개념은 본 연구에서 거주자와 방문객의 성곽보행 경로에 관련한 성곽-근린환경 관계(Wall-Community Relations)의 측정에 가장 적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선택되었다. 이를 통하여 관계(지형적)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중 노드(nodes)인 교차로와 에지(edges)인 가로에 의해 정해지는 거리 등과 같은 공간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중심성 지표(Claramunt and Winter, 2007; Crucitti et al., 2006; Tomko et al., 2008) 중에서, 본 연구는 다른 모든 노드(dij)에서 최단 경로의 평균거리를 측정하는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Cc와 최단 경로에 놓인 노드들의 평균비율(Wasserman and Faust, 1994; Tomko et al., 2008)을 측정하는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Cb를 활용한다. 최단거리는 성곽방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에서 사용되는 중심성의 초기 측정도구는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과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이었다.(Bonacich, 1987)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은 공간구문론(space syntax) 학파에서 각각 통합과 선택을 특정하도록 쓰이고 있다. 결과로서 산출되는 지표는 네트워크 상 각 노드에 위계를 부여함으로써 성곽-근린환경 관계(wall-community relations)를 그래프로 공간화할

수 있는 GIS를 통하여 도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곽-근린환경(Wall-Community)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성곽의 주요 접근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km 범위를 공간분석의 주요 단위로 결정하였다. 반경 1km는 “성곽영향권(성곽으로의 접근을 위한 거주민과 방문객의 보행거리)”을 의미하며, 성곽 주변 근린 단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으로 1/2mile($1,609.334\text{m}/2=804.667\text{m}$) 기준을 차용한 다음과 같은 관련 이론에 기인한다: 페리(Perry, 1929)의 근린 주구계획(Neighborhood Unit Plan), 건강·보건 관련 연구에서 “보행 능력의 기준”(Hakim et al., 1998)

국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근린 단위는 대략 반경 400~500m가 일반적이지만, 이는 일상행위-통근통행, 등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상기 해외 문헌연구에서 도출된 것처럼 1/2mile을 기본 단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착안하였다. 본 연구는 근린 단위를 공간적 대상으로 하지만 성곽 및 성곽이 위치한 자연환경-내사산-을 목적으로 한 신체활동-일상 또는 비일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기의 1/2mile보다 조금 큰 1km로 결정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간중심성 지표는 몇 가지 과정을 통하여 측정된다. 첫째, 정해진 구역에서 real nodes(real nodes는 GIS용어로서 적어도 3개 이상의 가로와 연결되는 교차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막다른 가로를 의미하는 dangle node나 교차로가 아닌 가로의 지점을 의미하는 vertex와 구별된다. Point & Polyline Tools v.1.2를 사용하여 가로의 모든 지점으로부터 real nodes를 추출할 수 있다.)를 선택하고 선택된 지점(노드-노드) 사이의 거리를 Point & Polyline Tools v.1.2-ArcView 3.0.a의 확장형-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두 번째, 계산된 거리를 모두 더하고 Microsoft Office Access 2007을 활용하여 각 노드마다 평균값을 계산한다. 추출된 지표값을 공간맵핑과 추가 분석을 위하여 ArcGIS 9.3과 SPSS dataset으로 보낸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하여 산출된 공간중심성 지표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리학적 중심성(geographycal centrality)의 개념을 추가로 도입한다. 지리학적 중심성은 앞의 공간중심성 지표와 비교를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성곽 진입구에서 주변 각 주거지의 지리적 중심과의 유클리드 (euclidean, 직선) 거리를 사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추출한 성곽주요장소 데이터를 활용하여 거주민의 인지중심성 (perceived centrality)을 산출함으로써 객관적 산출치와 비교하였다.

(2) GIS 활용

GIS는 성곽 및 성곽 주변부 근린환경의 물리적·자연적 특성에 관련한 항목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성곽의 구간별 차이를 도출하고 환경특성에 따른 유형의 구분을 위해 사용되었다.

성곽환경의 경우, 성곽 산책로의 자연녹지 비율, 휴게공간 및 전망대의 개수를 조사하였다. 성곽 주변부 근린환경의 경우는, 역사유적·건물,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 주요 시설의 개수, 성곽 접근로에 생활가로 형성 여부, 성곽 진입부가 대중교통시설과 연결되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GIS분석을 통하여 성곽 및 주변 근린환경의 구간별 차이를 도출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곽-근린환경(Wall-Community) 디자인 요소를 분석하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한 공간중심성(Spatial Centrality)과 같은 공간단위를 분석의 주요 단위로 선정하였다. 즉 성곽 주요 진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1km 범위를 공간분석의 주요 단위로 결정하였다.

결정된 분석의 공간단위는 ArcGIS 9.3에 적용됨으로써 성곽-근린환경의 구간별 물리적 특징을 평가하고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을 시각화하는데 사용되었다.

(3) 설문조사

ㄱ. 설문조사의 개요

설문조사는 전반적으로 거주자 및 방문객의 인식 및 행태에 관련된 변수를 구성하는데 사용한다.

- ① 설문조사 일정 : 2012년 10월 27일 ~ 11월 11일 중
총 4일 (평일 2일, 주말 2일)
- ② 설문조사 장소 : 서울성곽 북측 구간(홍인지문~종로문화체육센터)

중 5개 성곽 진입구 및 인근 주거지

③ 설문조사 응답자 인원 : 총 664인(거주자 306인, 방문자 358명)
(구간별 거주자·방문객 각 최소 50인 이상 기준)

표 1-3 설문조사 응답자

구분	거주자	방문객	소계
1구간	62	75	137
2구간	52	67	119
3구간	61	63	124
4구간	61	75	136
5구간	70	78	148
소계	306	358	총 664 인

ㄴ. 설문조사의 방법

설문조사는 5개 성곽 구간 주변 주거지에서 거주자를, 주요 성곽 진입부(1구간-낙산공원, 2구간-혜화문, 3구간-와룡공원, 4구간-창의문, 5구간-종로문화체육센터)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설문문항은 2012년 9월 한 달간 성곽 주변 거주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심층인터뷰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거주만족도 및 성곽만족도, 최근의 변화, 그리고 성곽 및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질문하는 문항은 1에서 5까지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내고자 하는 문항은 객관식으로 작성하여 1개 또는 3개를 골라내도록 하였다. 그 외 5점 척도 문항 및 객관식 문항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주관식 문항도 포함되었다.

거주자 대상 질문문항은 성곽의 복원·개방 등 최근의 변화와 선적(線的) 도시구조로서 성곽 및 내사산 안팎의 구릉지에 오랜 동안 자생적으로 형성되어온 주변 근린환경에 대한 거주자의 인식과 성곽 이용행태, 그리고 거주만족도 등을 파악하고자 설계되었다.

거주 만족 또는 불만의 이유, 교통편의 및 직주근접 등 입지적 특성, 성곽의 이용행태 및 성곽만족, 성곽복원 및 개방으로 인한 마을의 최근 변화, 마을 및 성곽에 대한 인식, 주민생활과 주변환경-성곽, 산, 성곽너머 마을-과의 관계 등을 알아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방문객 대상 질문문항은 성곽의 복원·개방 등 최근의 변화로 성곽

접근성이 좋아졌고 성곽만족 등 만족특성이 변화했다는 가정 하에 설계되었다. 성곽만족이 성곽 자체에서 기인된 것인지 성곽이 입지하고 있는 북악산, 인왕산, 낙산 등 자연환경과 접근로에 이르는 교통수단 및 주변 거주지 등 도시환경의 거주지향에 기인한 것인지, 그밖에 성곽에 대한 방문객의 인식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그 이유와 정도를 알아내기 위해 설계되었다.

교통접근성을 알아내기 위해 근처 대중교통지점에서 이동수단, 교통편리 유무 등을 질문하였고, 출발지·목적지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이용행태 등을 알아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 연구의 구조

(1) 거주자

표 1-4 연구의 구조-거주자 변수 구성

구조						분석레벨
변수 Variable		내용 Description	Type	Source	근린 개인	
환경인식 Environmental Cognition						
마을-주변 공간환경	Ind.	주민생활과 성곽과의 관련성 정도	Ordinal	S	●	
	Ind.	주민생활과 자연과의 관련성 정도	Ordinal	S	●	
	Ind.	마을과 성곽너머마을과 관련성 정도	Ordinal	S	●	
성곽 이미지	Ind.	성곽 이미지로 역사환경 인식	Binary	S	●	
	Ind.	성곽 이미지로 자연환경 인식	Binary	S	●	
근린환경 특성 정의	Ind.	마을·서울성곽 분위기로 역사환경인식	Binary	S	●	
	Ind.	마을·서울성곽 분위기로 자연환경인식	Binary	S	●	
마을발전을 위한 요구	Ind.	자연보호 및 경관개선의 중요성 인식	Binary	S	●	
	Ind.	방문 활성화의 중요성 인식	Binary	S	●	
	Ind.	주택 개선의 중요성 인식	Binary	S	●	
이용행태 Behaviors						
성곽 산책	Ind./Dep.	거주자 성곽 산책 여부 비율	Binary	S	●	
산책 횟수	Ind.	거주자 성곽 산책 횟수	Conti.	S	●	
대중교통 지점~집까지 보행여부	Ind.	거주자 대중교통 지점~집까지 보행비율	Binary	S	●	
대중교통 지점~집까지 이동시간	Ind.	거주자 대중교통 지점~집까지 이동시간	Conti.	S	●	
자동차 보유 여부	Ind.	거주자 자동차 보유여부	Binary	S	●	
만족도 Satisfaction						
거주 만족도	Ind./Dep.	거주자 대상 거주만족도	Ordinal	S	●	
- 거주 만족이유	Ind.	거주 만족에 대한 이유	Binary	S	●	
- 거주 불만이유	Ind.	거주 불만에 대한 이유	Binary	S	●	
성곽 만족도	Ind.	거주자 대상 성곽만족도	Ordinal	S	●	
- 성곽 만족이유	Ind.	거주자 성곽만족에 대한 이유	Binary	S	●	
교통접근성 만족도	Ind.	거주자 대상 교통접근성 만족도	Binary	S	●	
최근 변화 만족도	Ind.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	Ordinal	S	●	
- 최근 변화 시기	Ind.	최근 변화의 시기	Conti.	S	●	
- 최근변화 만족이유	Ind.	최근변화 만족에 대한 이유	Binary	S	●	

* S는 설문조사 내용, ** Ind.는 독립변수, Dep. 는 종속변수, Conti.는 연속변수

표 1-5 연구의 구조-거주자 요인 구성

구조							분석레벨	
요인 Factor	변수 Variable			Type	Source	관련 개인		
성곽-근린환경 관계 Wall-Community Relation								
근접중심성	Ind.**	성곽 진입부의 공간중심성 지표(1)		Conti.	GIS	●		
중간중심성	Ind.	성곽 진입부의 공간중심성 지표(2)		Conti.	GIS	●		
지리적 중심성	Ind.	성곽진입부-지리적 중심간의 거리		Conti.	GIS	●		
인지중심성	Ind.	성곽진입부에 대한 인지도		Binary	S*	●	●	
환경요인 Environmental Factor								
서울성곽과 주변부의 물리적 환경요인	Ind.**	성곽연결 상태		Conti.	GIS	●		
	Ind.	자연녹지 비율		Conti.	GIS	●		
	Ind.	역사유적·건물 개수		Conti.	GIS	●		
	Ind.	문화시설 개수		Conti.	GIS	●		
	Ind.	교육시설 개수		Conti.	GIS	●		
	Ind.	성곽 진입부 생활가로 형성 여부		Binary	GIS	●		
	Ind.	성곽 진입부 대중교통 연결 여부		Binary	GIS	●		
인구특성 요인 Population Characteristics Factors								
사회-인구학적 요인	Ind.	성별		Binary	S	●		
	Ind.	연령		Conti.	S	●		
	Ind.	최종학력		Conti.	S	●		
	Ind.	거주기간		Conti.	S	●		

* S는 설문조사 내용, ** Ind.는 독립변수, Dep. 는 종속변수, Conti.는 연속변수

(2) 방문객

표 1-6 연구의 구조-방문객 변수 구성

구조					분석레벨
변수 Variable		내용 Description	Type	Source	근린 개인
환경인식 Environmental Cognition					
성곽 이미지	Ind.	성곽 이미지로 역사환경 인식	Binary	S	●
	Ind.	성곽 이미지로 자연환경 인식	Binary	S	●
출발지환경특성	Ind.	출발지 분위기로 역사환경 인식	Binary	S	●
	Ind.	출발지 분위기로 자연환경 인식	Binary	S	●
출발지 발전을 위한 요구	Ind.	자연보호·경관개선의 중요성 인식	Binary	S	●
	Ind.	성곽주변 환경 정비 중요성 인식	Binary	S	●
	Ind.	성곽주변 편의·안내시설 중요성 인식	Binary	S	●
	Ind.	불거리·이벤트 중요성 인식	Binary	S	●
이용행태 Behaviors					
성곽 방문	Ind./Dep.	방문객 성곽 방문 여부	Binary	S	●
성곽 방문 횟수	Ind.	방문객 성곽 방문 횟수	Conti.	S	●
이용목적-성곽답사	Ind.	성곽방문 목적이 성곽답사	Binary	S	●
이용목적-등산	Ind.	성곽방문 목적이 등산	Binary	S	●
이용목적-산책	Ind.	성곽방문 목적이 산책	Binary	S	●
이용목적-서울전망	Ind.	성곽방문 목적이 서울전망	Binary	S	●
출발지선택-접근성	Ind.	출발지선택이유가 접근성	Binary	S	●
출발지선택-성곽답사	Ind.	출발지선택이유가 성곽답사	Binary	S	●
출발지선택-자연조망	Ind.	출발지선택이유가 자연이용조망	Binary	S	●
출발지선택-시설이용	Ind.	출발지선택이유가 주변시설 이용	Binary	S	●
출발지이용-마을보기	Ind.	출발하기 전 마을둘러보기	Binary	S	●
출발지이용-문화시설	Ind.	출발하기 전 문화시설을 이용	Binary	S	●
출발지이용-식료품점	Ind.	출발하기 전 식료품점을 이용	Binary	S	●
출발지이용-식당	Ind.	출발하기 전 식당을 이용	Binary	S	●
목적지이용-마을보기	Ind.	도착해서 마을둘러보기 예정	Binary	S	●
목적지이용-문화시설	Ind.	도착해서 문화시설을 예정	Binary	S	●
목적지이용-식료품점	Ind.	도착해서 식료품점을 예정	Binary	S	●
목적지이용-식당	Ind.	도착해서 식당을 이용 예정	Binary	S	●
성곽접근교통수단 (보행여부)	Ind.	대중교통지점~성곽 진입부 보행여부	Binary	S	●
성곽 접근 이동시간	Ind.	대중교통지점~성곽 진입부 접근시간	Conti.	S	●
만족도 Satisfaction					
성곽만족도	Ind./Dep.	방문객 대상 성곽만족도	Ordinal	S	●
- 성곽만족이유	Ind.	성곽 만족에 대한 이유	Binary	S	●
- 성곽불만이유	Ind.	성곽 불만에 대한 이유	Binary	S	●
교통접근성 만족도	Ind.	방문객 대상 교통접근성 만족	Binary	S	●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	Ind.	최근 변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	Binary	S	●
- 최근 변화 만족 이유	Ind.	최근 변화에 대한 방문객 만족 이유	Binary	S	●

S는 설문조사 내용, ** Ind.는 독립변수, Dep. 는 종속변수, Conti.는 연속변수

표 1-7 연구의 구조-방문객 요인 구성

구조						분석레벨	
요인 Factor	변수 Variable	Type	Source	근린 개인			
성곽-근린환경 관계 Wall-Community Relation							
근접중심성	Ind.**	성곽 진입부의 공간중심성 지표(1)	Conti.	GIS	●		
중간중심성	Ind.	성곽 진입부의 공간중심성 지표(2)	Conti.	GIS	●		
지리적 중심성	Ind.	성곽진입부-지리적 중심간의 거리	Conti.	GIS	●		
인지중심성	Ind.	성곽진입부에 대한 인지도	Binary	S*	●	●	
환경요인 Environmental Factor							
서울성곽과 주변부의 물리적 환경요인	Ind.**	성곽연결 상태	Conti.	GIS	●		
	Ind.	자연녹지 비율	Conti.	GIS	●		
	Ind.	역사유적·건물 개수	Conti.	GIS	●		
	Ind.	문화시설 개수	Conti.	GIS	●		
	Ind.	교육시설 개수	Conti.	GIS	●		
	Ind.	성곽 진입부 생활가로 형성 여부	Binary	GIS	●		
	Ind.	성곽 진입부 대중교통 연결 여부	Binary	GIS	●		
인구특성 요인 Population Characteristics Factors							
사회-인구학적 요인	Ind.	성별	Binary	S		●	
	Ind.	연령	Conti.	S		●	
	Ind.	최종학력	Conti.	S		●	
	Ind.	거주지 (전국>경기도>서울시>구(區)내)	Conti.	S		●	

* S는 설문조사 내용, ** Ind.는 독립변수, Dep. 는 종속변수, Conti.는 연속변수

제2장 기존 이론 고찰 및 대상지 분석

제1절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한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하여, 이용행태 또는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 논문들을 고찰한 결과, 서울성곽과 주변부를 대상으로 거주자·방문객의 이용행태 및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와 공간적 범위를 같거나 비슷하게 설정한 서울성곽·성곽도시·성곽 주변 지역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공간적 범위를 같거나 비슷하게 설정한 연구를 서울성곽 및 주변지역에 관한 연구, 국내 성곽도시 및 주변 지역에 관한 연구로 구분한다.

우선 서울성곽 및 주변 지역에 관한 연구는 서울성곽의 경관분석,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등의 내용을 들 수 있다. 서울성곽에 대한 건축사(建築史)적 고찰로서 축성론이나 역사에 관한 연구는 본 연구의 주제와 맞지 않아 제외하였다.

서울성곽을 경관 체험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로, 김유경 외(2008)는 서울성곽 탐방로의 개설을 계기로 성곽 주변 시각자원을 분석함으로써 경관 체험의 측면으로 성곽의 가치를 분석하였다.¹⁾ 연속 시야와 도시 조망점을 중심으로 성곽 주변의 시각자원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체험의 측면으로 서울성곽 주변 경관의 가치를 고찰하였다.

서울성곽과 주변 지역의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시정개발연구원(2009)은 서울성곽의 역사문화가치 발현을 위한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²⁾

국내 성곽도시 및 주변 지역에 관한 연구는 국내 성곽도시의 공간

1) 김유경·김광중, 2008, 서울성곽 복원에 따른 성곽 주변 시각자원 분석 연구- 연속 시야와 도시 조망점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 시정개발연구원, 2009, 서울성곽의 역사문화가치 발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구조에 관한 연구, 성곽도시에 관한 축성론 및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수원화성의 도시공간구조 및 구도심내 상업지역 활성화에 대한 연구, 성곽을 경계로 한 지역간 단절을 해소할 수 있는 설계 연구 등의 내용을 들 수 있다.

청주, 전주, 대구 등 성곽도시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로, 김철수(1985)는 성곽도시의 공간구조적 특징을 고찰하기 위해 인구밀도 변화 패턴과 인구공동화 과정을 분석하였다.³⁾

조선시대 성곽도시의 축성론과 도시구조에 관한 연구로는, 김봉렬 외(2012)의 연구를 들 수 있다.⁴⁾

도심부 도시형태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로, 성진욱 외(2009)는 도심 노후 블록의 도시형태를 10년간의 시차를 두고 분석함으로써 그 변화를 추적하였다.⁵⁾

수원화성 주변의 도시공간구조에 관한 연구로, 안용진 외(2003)는 성곽 내외지역의 지가분포양상과 토지이용양상을 통해 수원화성 주변 도시공간구조의 특이점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성곽주변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용도지역별 특성 및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바람직한 도시관리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성곽의 안/밖 입지, 성곽과의 이격거리, 도로의 폭원 및 이격거리, 성문 이격거리, 접근도로의 수, 어메니티-녹지-의 규모와 이격거리, 지역특성-용도지역, 지정문화재 등-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⁶⁾

수원화성 팔부자길 상업지역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로, 박운정 외(2008)는 수원화성을 도시기반시설로 파악하며 구도심지의 쇠퇴를 막기 위해 수원화성과 주변 상업지구의 건축계획을 중심으로 보행네트워크 계획을 제시하였다.⁷⁾

3) 김철수. 1985. 한국 성곽도시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청주, 전주, 대구의 인구밀도 변화패턴 분석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20권, 제1호.

4) 김봉렬·안샘이나, 2012, 조선시대 조정수호를 위한 성곽도시의 축성론과 도시구조,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논문.

5) 성진욱·배용규. 2009. 도심부 노후 블록의 10년간 도시형태 변화분석 연구. 한국 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6) 안용진·이재형·안건혁. 2003. 성곽주변지역 도시공간구조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p321-332.

성곽으로 단절된 도시공간의 소통을 위한 방법을 모색한 연구로서, 손인실 외(2007)는 주변 두 지역을 심리적·물리적으로 단절시키는 경계로서 성곽을 설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계를 장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⁸⁾

종합해보면, 서울성곽에 대한 경관분석, 서울성곽과 주변 지역의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 국내 성곽도시에 관한 축성론 및 공간구조, 수원화성의 도시공간구조 및 구도심 상업지역 활성화, 성곽으로 인해 단절된 지역에 대한 설계 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공간적 특성 분석을 통하여 공간환경에 대한 인식, 이용행태, 만족도의 상관관계와 구간별 특성 및 차이에 대해 해석하려는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의 결과를 보완하는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환경인식·이용행태·만족도 각각에 대한 이용주체별, 구간별 유형화가 필요하다. 또한 서울성곽의 역사환경 보존에 대한 향후의 과제가 크므로 성곽에 대한 관리계획과 경관 등 주변부 물리환경에 대한 관리계획을 조화롭게 수립할 수 있도록 구간별로 환경인식·이용행태·만족도 등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7) 박운정·김일현. 2008. 역사도시의 구도심 상업지구 활성화에 대한 연구-수원 화성 팔부자길 상업지역의 건축계획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9권, 제4호.

8) 손인실·유현준. 2007. 도시공간의 소통을 위한 경계의 장소화-성곽의 단절된 경계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절 이론 분석

1. 중심성(Spatial Centrality)

사회학의 네트워크이론과 공간구문론이 결합된 것으로 중심성의 측정을 통해 공간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연관성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곽과 근린환경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제1장에서 설정한 5개 구간별 성곽 진입부의 중심성을 분석한다.

■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

성곽의 중심성을 측정하는 이 두 개의 척도는 구조적으로 같은 척도이다. 하지만 공간과 경로에 대한 이해에 차이를 보인다. 중심노드의 근접중심성 값이 높다는 것은 다른 노드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짧은 거리로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심노드의 매개중심성 값이 더 높다는 것은 구간별 성곽 진입부가 더 많은 최단경로 상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지리적중심성

노드의 중심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다른 척도로서, 지리적 중심지로부터의 직선거리(airline)를 사용할 수 있다.

■ 인지중심성

인지중심성 값이 높다는 것은 커뮤니티에 소속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중심노드를 중요한 장소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개념은 배우의 네트워크 중심성을 사회적 영향력을 통하여 측정할 수 있다는 이론⁹⁾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론에 따르면, 가로 네트워크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행사한다.

“성곽 중심성(wall centrality)”은 성곽과 근린환경간의 공간적 연관성(spatial relationship)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주어진 근린환경 범위가 성곽의 영향권으로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를 설명한다. 본 연구

⁹⁾ Friedkin, N. E. 1991. Theoretical foundations for centrality measur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6, No. 6, pp.1478-1504.

에서는 근린환경 내 성곽의 중심성을 측정하는 4개의 척도를 사용한다:
 1)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2)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3)지리적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하는 지리적 중심성(geographical centrality), 4)근린환경의 주요 장소로서 성곽의 인지 중심성(perceptual centrality).¹⁰⁾ (표 2-1)

표 2-1 성곽의 중심성 변수

변수	정의
객관적 중심성 Objective Centrality	
근접중심성	구역 내 모든 노드에서 성곽진입구(i)에 이르는 최단거리 합의 역수 $C_i = \frac{1}{\sum_{j \in G, j \neq i} d_{ij}}$
매개중심성	구역 내 성곽진입구(i)를 지나는 최단경로의 비율 $C_i = \sum_{j, k \in G, j \neq k \neq i} \frac{n_{jk}(i)}{n_{jk}}$
지리적중심성 (km)	성곽 진입부에서 구역 내 지리적 중심지(공공·문화·교육시설 등)로 이르는 거리
주관적 중심성 Subjective Centrality	
인지중심성-거주자 (%)	성곽 진입부를 근린환경 내 주요지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주자 비율 (설문조사 질문)
인지중심성-방문객 (%)	성곽 진입부를 근린환경 내 주요지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방문객 비율 (설문조사 질문)

¹⁰⁾ H. J. Kim, 2011, School-Community Relations, Social Capital and Children' s Walking to School Behaviors, Ph.D. Dissertation, p.74의 표 인용.

2. 컨텍스트 및 행태장치로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이용행태

서울성곽 주변 주거지의 입지는 서울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서울성곽으로 인하여 형성되었으므로 성곽과 성곽이 위치한 내사산은 주변 주거지의 컨텍스트(context)¹¹⁾로서 장소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임승빈 외(2011)의 연구는 서울시의 경우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심 안에 많은 장소가 분포하며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인지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¹²⁾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등 5대 궁궐을 포함하며 도시 경계를 형성했던 서울성곽의 숭례문, 숙정문, 흥인지문, 돈의문 등 사대문 안에 과거로부터 경제, 문화, 사회가 집중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장소와 장소성의 정의에 대하여 Relph(1976)는 공간에 문화가 포함되고 활동이 일어나며 의미가 부여될 때 장소(place)가 되며, 이때 형성되는 정체성을 장소성이라 정의(sense of place)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장소성 형성에 있어서는 장소에의 소속감, 장소 애착, 내부성 등과 함께 장소에 대한 체험을 강조하였다.¹³⁾ Tuan(1977)과 Lukermann(1964)도 장소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장소성이 형성된다고 하였다.¹⁴⁾¹⁵⁾

Entrikin(1991)이 말했듯이 경험하는 사람의 행태가 일어나는 외부적 배경으로서의 장소와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의 중심으로서의 장소를 동시에 고려해야¹⁶⁾ 하는 것을 장소성이라 할 때, 전자가 컨텍스트가 주

11) Sustainable Masterplanning: Lessons learned from 2001 to 2004, 2001-2004. European Commission, 5th Programme "City of Tomorrow and Cultural Heritage" Project에서 컨텍스트context는 location of settlement를 설명하는 지표로서 설명되어 있다.

12) 임승빈 허윤선 정윤희 권윤구 변재상 최형석, 2011. 도시내 장소성 분포 연구, 국토계획, 제46권, 제3호.p74

13) Relph, Edward저, 김덕현 외 공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Place and Placelessness, 1976), 서울: 논형

14) Yi-Fu Tuan 저, 구동희 외 공역, 2005. 공간과 장소(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1977), 서울: 대운

15) Lukermann, F., 1964, Geography as a formal intellectual discipline and the way in which it contributes to human knowledge, canadian Geographer 8(4)

16) Entrikin, J. N., 1991. Betweenness of Place: Towards a Geography of

는 경관적 특성이라면 후자는 장소에 대한 이미지, 이용행태, 만족특성 등 의미를 생산하는 경험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역사도시 서울의 장소성을 형성하며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의 대상으로서 서울성곽을 주변 주거지의 입지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컨텍스트로 설정한다.

박훈(2009)은 역사도시¹⁷⁾의 특성을 시간적 지속의 역사성, 문화적 지속의 전통성, 진실된 생활공간(환경)이 투영되어 있는 진정성, 그리고 특정기간의 거주양식이 현재에도 남아있는 현재성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⁸⁾

Giedion(1973)¹⁹⁾이 ‘역사는 단순히 변하지 않는 것들을 담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변화하는 경향이나 해석과 생활방식의 과거’ 이라고 한 것 또한 역사를 연속된 과정으로 보는 것으로 역사환경에 대한 가치판단이 현재의 상황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도시의 조영이 자연에 순응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강병기 외(1995)의 연구에서 조선시대 도성 주요시설의 공간구조 및 입지특성은 반드시 뒷 산²⁰⁾에 관련지어 그 위치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²¹⁾ 이것은 건물보다는 산이 지표적(指標的) 성격이 강한 인지대상이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山川條에는 보다 자세한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평강의 분수령의 맥이 도봉산-삼각산으로

Modernit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7) 역사도시의 특성은 그 도시의 역사를 밝혀줄 수 있는 건물군이 존재하고 아직도 그 곳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 역사성을 느낄 수 있다면 이는 역사도시라 간주할 수 있다. (정재용·박훈, 2010, 역사도시의 역사환경 특성과 가치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45권, 제2호, p72)

18) 박훈·정재용, 2009, 역사도시의 도시조직 특성과 가치에 관한 연구 : 공주시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5권, 제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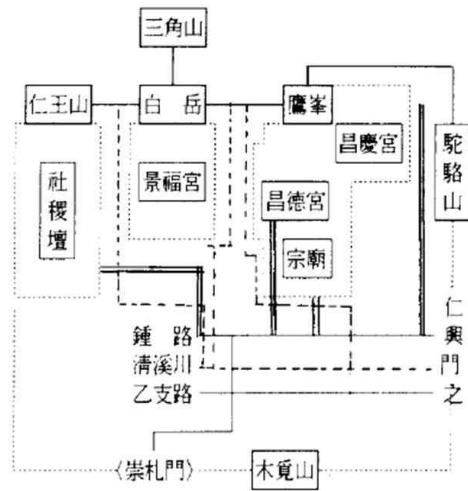
19) Giedion, S., 1973, Space, time and Architec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pp.5-7

20) 뒷 산(背山)을 일컫는 말로서 ‘鎭山’과 ‘主山’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 왔는데, 진산은 邑基에 대한 背山이며, 主山은 풍수적 용어이진 하나 진산보다는 매우 다양한 대상에 대한 背山으로 사용되어 왔다.

21) 강병기·최종현·임동일·강병일, 1995, 도성 주요시설의 입지·좌향에 있어 산의 도입에 대한 시각적 특성해석의 시론, 국토계획, 제30권, 제4호, p254

이어져서 서울의 진산이 된다. 삼각산은 두 갈래로 크게 나뉘어 하나는 경복궁의 배산인 百岳(백악산 또는 북악산)이 되고 서쪽으로는 仁王山(인왕산)이 되고, 다른 하나는 창덕궁의 배산인 응봉鷹峯이 되고 동쪽으로 타락산駝駱山(지금의 낙산)이 되는 것이다.²²⁾

이와 같이 서울성곽 뿐 아니라 서울성곽이 입지한 내사산도 성곽 주변의 입지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컨텍스트로 설정할 수 있다.



법례 :
 山の領域(三角山은 漢陽郡邑)
 ——— 山勢의 흐름
 ——— 主要 도로
 - - - 主要 하천
 ≡≡≡ 진입로

그림 2-1 도성과 주요 시설의 개념도
(강병기 외 논문에서 발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사도시 서울의 근간이 되는 서울성곽 및 성곽이 입지한 내사산²³⁾을 주변 근린환경의 입지적 특성을 설명하는 컨텍스트로서 설정한다. 즉 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환경인식, 이용행태, 만족도²⁴⁾의 고찰을 위해, 성곽 주변 근린환경에 거주하는 거주자와 서울성곽을 방문한 방문객이 경험을 통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설정하는 것이다.

사람의 경험을 유발하는 대상으로서 성곽 및 내사산은 행태장치 (behavior setting)로도 볼 수 있다. 행태장치는 물리적 행태가 일어나는 장소를 의미하며, 행태장치 안에서 물리적 행태는 조직된 사회적

22) 같은 논문, 각주 7 참조

23) 서울성곽 방문객들의 이용목적은 조사했을 때, 1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등산을 1순위로 꼽았으며 성곽답사는 1,4,5구간에서 2순위이며 3구간에서는 3순위였다. 산책은 1구간에서만 1순위였으며, 2,3구간에서는 2순위, 4,5구간에서는 3순위였다. 이를 통해 서울성곽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성곽과 내사산은 방문이유를 구분할 수 없는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4) 본 연구에서는 성곽에 대한 만족특성의 세부 항목으로 성곽만족도와 성곽만족의 이유(거주자, 방문객)에 대하여 고찰한다.

행태의 반복적인 패턴과 관련되어 있다.²⁵⁾ 사람들의 반복적인 산책이나 방문의 목적지로서 성곽은 행태장치이자 사회적 환경장치로서 성곽 주변 근린환경에까지 그 의미가 확장될 수 있다.

서울성곽과 주변부 이용행태에 대한 개념 설정을 위해 우선 ‘여가’에 관한 정의를 해본다. 여가는 자유시간이나 잔여시간, 그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활동, 자유로운 심리 상태 등을 포괄하는 매우 복합적인 의미로 개념화 할 수 있다.²⁶⁾ 즉, 잔여시간의 개념으로 이러한 정의는 놀이, 레크레이션, 관광을 비롯하여 주말이나 휴일동안의 다양한 활동 등 광범위한 인간 활동을 포함한다.²⁷⁾

주말의 여가활동은 집 주변에서 좀 더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²⁸⁾이라 주장한 Laing(1987)에 의하면 서울성곽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변 거주자들에게 성곽의 이용행태는 일종의 여가활동이라 할 수 있다. 거주환경이 쾌적하고 알맞은 경우, 사람들은 그들의 여가시간을 해당지역에서 보내게 된다.²⁹⁾

환경과 행태의 관계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신체활동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연구³⁰⁾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각국의 신체활동지침에서는 여가시간의 계획된 구조의 반복적 신체활동이라는 뜻의 ‘운동

25) King, A., Stokols, D., Talen, E., Brassington, G. & Killingsworth, R, 2002, Theoretical approaches to the promotion of physical activity forging a transdisciplinary paradigm,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3 ; Sallis, J., Cervero, Ro., Ascher, W., Henderson, K., Kraft, M., et al. 2006. An ecological approach to creating active living communities.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Vol. 27,

26)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2008, 여가 그리고 정책: 여가를 통해 미래사회를 바라본다, 대왕사, 서울. (장윤정, 2013, 가구유형별 여가통행패턴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서울시립대 박사논문, p9에서 재인용)

27) 장윤정, 2013, op. cit., p9

28) Laing, A., 1987, “The Package Holiday: Participant, Choice and Behavior” , Ph.D. dissertation, Hull University, p.231.

29) European Conference of Ministers of Transport, 2000, Transport and Leisure, OECD, p.58-59.

30) 고광욱, 2010, 새 접근들에 의한 신체활동 권고와 지침의 동향, 대한의사협회지, 제 53권, 제12호, p1143.

(exercise)’ 개념을 넘어서 골격근의 에너지 소모를 초래하는 신체의 모든 움직임을 지칭하는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개념과 신체 활동을 일상생활에서 생활화시키는 생활이라는 뜻의 ‘활동적 생활(active living)’ 개념이 도입되었다. ‘적극적 생활’ 관련 정책은 행태 장치이론에 따라 여가, 교통, 직업, 가정이라는 4가지의 주요 분야를 다룬다. 이동성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고령자들의 경우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생활(Active Living)을 하기 위하여 더욱 중요하다.³¹⁾

3. 만족

Moser(2009)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삶의 질은 공공정책 및 심리학 적 연구에 있어서 건강, 개인의 만족, 삶의 객관적인 기준, 지속가능한 개발 등 4가지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³²⁾ 또한 Choguill(2007)는 주거 지에 대한 만족이 거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며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였다.³³⁾ 즉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인의 만족을 고찰하는 것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거주민족도를 단순히 생활 및 환경의 만족 수준으로 보지 않고 선호도, 충성도 등을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한 윤동건 외(2013)³⁴⁾의 연구에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충성도가 높아지며,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과 인지적 만족이 충성도와 상관관계를 가진다³⁵⁾고 설명하였다.

31) 김승엽, 2011, 고령화 사회의 도로정책 방향: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도로정책 BRIEF, 제45호, p3.

32) G. Moser, 2009, Quality of life and sustainability: Toward person-environment congruity거주민족은 현재 거주상태 및 주거지(neighborhood)에 대한 만족과 애착, 미래 거주환경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이다.

33) Abdul Ghani Salleh, 2012, Sustainable Urban Neighborhoods: the need to consider residents satisfaction, OIDA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Vol. 03, No. 10.

34) 윤동건 · 정문오 · 이상엽, 2013, u-city 서비스 요소가 공동주택 거주민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택연구, 제21권, 제1호.

35) Yi-Ting Yu, Dean, A., 2001, The contribution of emotional satisfaction to consumer loyalty, International Journal of Service Industry Management, Vol.

즉 거주만족도와 주거지에 대한 충성도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문화, 커뮤니티, 형평성, 관리의 측면으로 도시환경에서 중요한 공공 영역의 질(high-quality public realm)에 대한 관심 또한 도시환경의 질적 측면에서 중요한 시금석이다. 전반적인 교통시스템도 공공영역에 포함되며 공공영역은 총체적인 환경 전반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³⁶⁾ 따라서 서울 성곽 주변 주거지에 포함된 공공영역으로서 성곽, 내사산, 성곽에의 접근 교통 시스템 등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도시 속 삶의 질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성곽은 도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의 문화적 인프라로서 다른 도시와의 차별을 갖는 장소성의 근간을 이루기도 한다. 도시의 생성·성장·발전 등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성곽은 시기마다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성곽이 도시발전의 장애 또는 성내외의 원활한 유통을 방해하는 존재로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도시 공간 혹은 그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³⁷⁾

본 연구는 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방문객의 만족에 대해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거주민과 방문객의 주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그들이 환경에 반응하는 정도를 결정하고 나아가 공공부문에서 향후 환경 개선에 필요한 과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⁸⁾ 이를 위해 거주민의 경우는 거주만족도·성곽만족도·교통접근성 만족도·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분석하며, 방문객의 경우는 성곽만족도·교통접근성 만족도·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분석하며, 각각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고자 한다.

12. No. 3. 재인용

³⁶⁾ Kenworthy, J. R., 2006, The Eco-City : ten key transport and planning dimensions for sustainable city development, Environment and Urbanization, Vol. 18, No. 1.

³⁷⁾ 안용진·이재형·안건혁, 2003, 성곽주변지역 도시공간구조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p323

³⁸⁾ 이춘호, 2001, 수도권 신도시 거주자 주거만족도 비교 분석, 국토계획, 제36권, 제6호.

제3절 서울성곽 및 주변 근린환경 분석

1. 서울성곽의 환경변화와 그 의미

(1) 서울성곽의 역사적 고찰

태조는 한양 천도를 위하여 궁궐과 종묘를 축조한 다음, 다음 해인 조선 태조 4년(1395)에 도성조축도감(都城造築都監)을 설치하고 정도전으로 하여금 도성³⁹⁾을 축조하도록 하였다. 성벽은 인왕산, 백악산(북악산), 타락산(낙산), 목멱산(남산)의 능선을 따라 약 18km의 성곽을 쌓고, 홍인지문(동대문), 돈의문(서대문), 숭례문(남대문), 숙정문(북문) 4대문과 혜화문(홍화·동소문), 광희문(수구문), 소덕문(서소문·소의문), 창의문(장의·자하문) 4소문을 완성하였다. 세조 때 남산과 광희문 사이에 통행편의를 위해 남소문이 마련되었으나 문루는 만들지 않았고, 북문인 숙정문은 평상시는 활용되지 않았다. 초기에는 토성과 석성이었던 것을 토성이 자주 무너지자 세종 때 석성으로 고쳐 쌓고, 이후 숙종 때 대대적으로 보수한 이후 5백년간 이어지고 있다.

일제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도시계획의 명목 아래 성곽의 훼손이 시작되었고, 해방과 6.25 혼란기를 걸쳐 많은 파괴가 있었다. 1898년부터 시작된 전차궤도공사 과정에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주변의 성곽이 일부 훼손되었고, 본격적 철거는 일본이 한국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면서 ‘성벽처리위원회’가 설치되면서였다. 1907년 숭례문 북측 성곽을 시작으로 소덕문, 홍인지문, 광희문, 창의문 주변의 성곽이 파괴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성문도 철거되어 돈의문, 소덕문, 혜화문이 소실되었다. 광복 이후에도 도시의 급작스런 팽창 과정에서 성곽유적에 대한 적극적인 보존대책이 없이 도로개설 및 건축으로 인해 일부구간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유적이 훼손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전쟁과 민가에 의해 성곽의 훼손이 계속되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 국가차원의 성곽복원의 노력이 시작된다. 1970년대에 들어서 국가차원의 성곽복원의 노력이 시작된다. ‘서울성곽복원사업추진본부’ 및 ‘서울성곽복원위원회’가 조직되면서 성곽의 보존과 복

³⁹⁾ 도읍지가 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에서 ‘서울’을 일컬은 말

원이 본격화되어 멸실된 구간 중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신규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구간에 대해 복원 또는 보수하는 공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총 성곽구간 18,127m 중 삼청동, 성북동, 장충동 일대에 약 10km가 남아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10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표 2-2 서울성곽 축성 및 보수

시기(조선-일제시대)	시기(1961년-현재)
태조 5년(1396) : 도성 창축	1961년_창의문 동측지역 성곽보수
세종 4년(1422) : 도성수축	1963년_창의문-인왕산구간 성곽보수
문종 1년(1479) : 도성 부분수축	1972년_인왕산지역 성곽(부분)보수
광해군 8년(1616) : 도성 부분수축	1975년_광희문 문루이전 복원
숙종 30년(1704-1711) : 도성수축	1975-1976년_숙정문 보수
영조 19년(1743) : 도성 부분수축	1975-1976년_삼청지구 성곽보수(2,570m)
고종 6년(1869) : 홍인지문(동대문) 개축	1976-1977년_성북지구 성곽보수(1,429m)
광무 3년(1899) : 도성 일부철거	1977년_광희지구 성곽보수(30m)
일제하(1915)	1977-1978년_남산지구 성곽보수(1,639m)
	1977-1978년_장충지구 성곽보수(1,053m)
	1977년_청운1지구 성곽보수(702m)
	1978-1979년_청운2지구 성곽보수(430m)
	1979년_청운2지구 성곽추가보수(120m)
	1980년_성북(동승)지구 성곽보수(1,051m)
	1983년_창의문 부분보수
	1985년_숙정문 부분보수, 창의문출입구 부분보수
	1987년_창의문 지붕변와, 주변 성벽보수(12m)
	1988년_성북지구 성곽보수(13m)
	1989년_삼청지구 성곽보수, 창의문 단청(15m)
	1990년_숙정문 지붕변와 및 단청
	1993년_삼청, 청운지구 성곽보수(47m)
	1994년_혜화문(동소문) 문루복원
	1996년_인왕산(국사당-치마바위)구역 성곽보수(58m)
	1997년_인왕산(국사당-치마바위)구역 성곽연장보수(45m)
	2004년-2005년_광희지구 남측성곽보수(99m)
	2007년_인왕산구간 성곽복원(382m)
	2008년_인왕산구간 성곽복원(283m)
*출처 : 도성수축자료;문화재청 지정문화재대장(사적 제10호 서울성곽), 서울시 문화재과 서울성곽자료, 문화재수리보고서 (서울성곽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 2, 2009, p.19. 재인용)	

서울성곽⁴⁰⁾은 서울의 가장 소중하고 역동적인 건축유산인 동시에 서울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또한 서울을 대표하고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한 유산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서울성곽의 보존의 가치와 당위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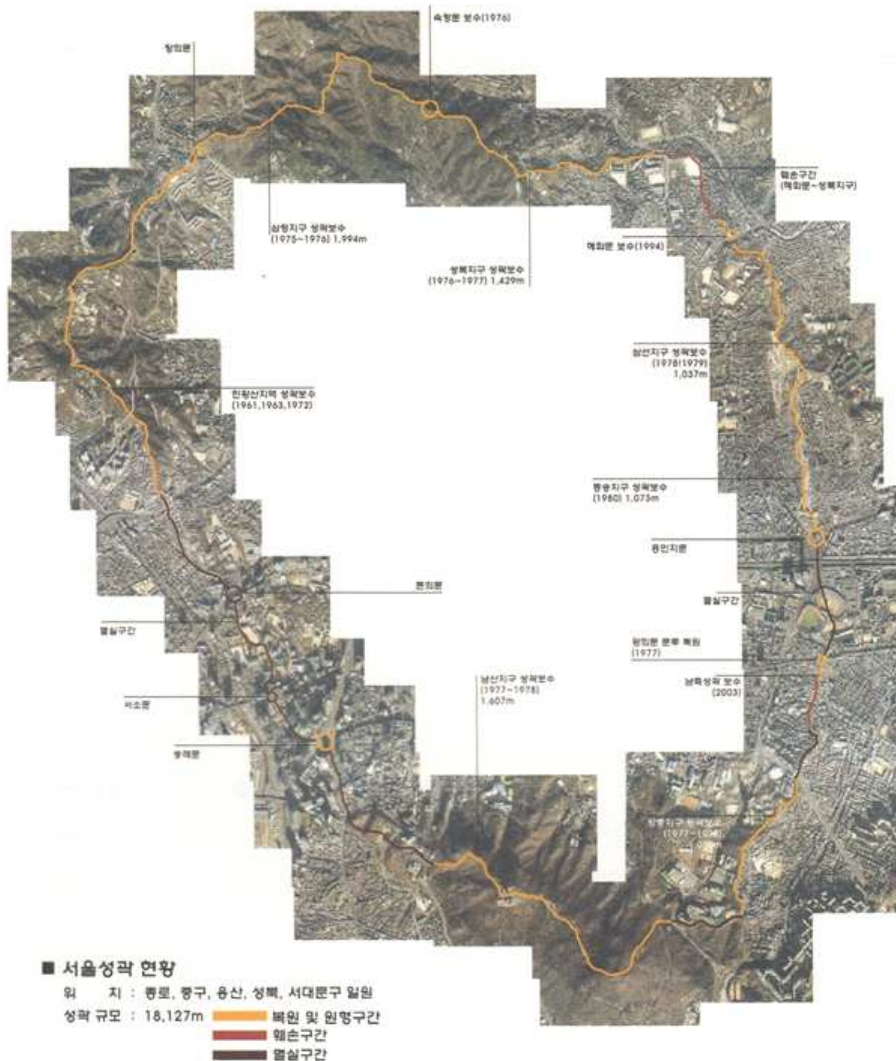


그림 2-2 서울성곽 현황
(출처 : 서울성곽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 2, 2009, p.18.)

40) 문화재명: 서울성곽(사적 제10호_1963.1.21.),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산 1-3번지 외 (종로구,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일원), 길이: 18.127km, 지정구역:

(2) 서울성곽의 환경변화 및 관련계획



그림 2-3 서울성곽 관광안내지도

개방을 추진하였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발표한 2012년 같은 해에 수립된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종합계획’은 성곽의 보존 뿐만 아니라 성곽 주변을 모두 공공영역으로 보는 시각에서 토지이용 규제 등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서울성곽의 주변 환경은 주거, 도심산업, 문화, 상업의 혼재지역으로서 물리적 쇠퇴지역이 많고 문화재에 인접한 점으로 개발에 한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 한양 권역으로서 과거와 현재 서울의 다양

서울성곽의 유지·관리·보전을 위한 노력은 1961년부터 꾸준히 지속되어 왔지만, 최근 대내, 대외 상황 변화-성곽길 개방, 유네스코 등재 노력 등으로 주변부 환경에 대한 관리 노력 및 관련 계획 수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곽 및 주변부를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녹색자원으로 보는 시각에서 수립된 ‘공원도시 서울 프로젝트 (2011년)’와 ‘서울 성곽길 조성사업(2012년)’을 통하여 성곽 주변 녹지의 관리, 성곽에의 접근성 증진 및 성곽길 전체의

25,246m², 보호구역: 538,708m²

41) 서울시, 2009, 서울성곽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p3

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귀중한 자원-역사·환경·문화·생활·산업·관광 등-이다. 서울성곽 및 주변부의 유지·관리·보전을 위해서는 성곽, 성곽주변부 자연녹지, 성곽주변부 주거 및 상업지 등의 현황 및 지형(구릉지)등 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시도하며 그 조건으로 등재유산과 주변 환경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성곽 주변에 100~500m의 버퍼존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보존 및 관리계획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주변부 관리방안으로는 공원화를 통한 서울성곽의 복원 및 정비, 탐방로 조성,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창신동, 행촌동 등-주변 성곽마을에 대한 각종 정비사업 시행 및 성곽마을 정비구역-성북2구역, 창신송인뉴타운, 교남뉴타운 등- 지정 등이 그것이다.

ㄱ. 공원도시 서울 프로젝트

2011년 서울시는 ‘내집 앞 5분 거리 공원’을 목표로 대규모 녹지 공간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전체 44만 7052㎡의 녹지를 만드는 ‘공원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착수하였다.

157km에 이르는 서울둘레길, 21km의 서울성곽길 조성도 같은 해 구체화되었다. 서울성곽길 조성은 서울성곽 및 주변부를 지속가능한 녹색 도시 서울의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보는 시각을 서울시가 구체화 한 것이다.

ㄴ. 성곽길 조성 관련사업

600년 고도 서울의 도시원형을 재인식하고, 도심으로의 접근에 대한 인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서울성곽 관문형성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재청의 서울역사도시조성계획에 따른 성곽복원 및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성문(城門) 주변지역의 관문경관 형성 및 정비구상을 마련한다.⁴²⁾

최근 서울성곽이 개방되어 성곽길 또는 성곽둘레길이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성곽복원을 위한 오랜 노력의 결실이며, 많은 역사자원

⁴²⁾ 관문으로서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의 발굴, 성문 주변 성곽 복원 및 도로에 의한 성곽멸실 부분 성곽자리 표시, 관문을 관통하는 보행동선 회복, 역사해설판 설치, 휴게공간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과 전통적 도시구조를 지니고 있는 도심이 역사도시로서 도시구조를 완성하게 된 중요한 계기로서 평가받고 있다. 서울성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그동안 낮은 편이었다. 서울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내사산-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의 정상부 외곽에 입지하고 있는 성곽의 구조 때문에 성곽보다는 산지경관이 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⁴³⁾

성곽의 복원 및 개방 등 최근의 변화는 방문객 뿐 아니라 인접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대단히 만족을 주었다. 복원된 구간에는 성곽 내외부에 일정한 거리-도심기준 20m-를 두어 성곽을 보며 거닐 수 있는 보행로가 생겼다. 이는 그동안 접근이 어려운 뒷산으로서 내사산 및 성곽으로의 접근성을 높여 인근 거주민들의 산책로 및 오픈스페이스로서 기능하게 하였다. 또한 접근지점을 선정하여 성곽접근로를 조성함으로써 방문객들의 편의가 높아졌다.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지점에서 접근이 쉬운 곳에 접근로를 조성하고 안내판 및 길찾기를 위한 안내사인 등을 설치함으로써 접근성 및 인지성이 좋아졌다. 방문객이 많아진 점은 인근 주거지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서울성곽 및 내사산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통한 방문객의 증가로 주변 시설의 밀도가 높아지고 카페, 식당, 상점 등 매력적인 시설들이 새로 생겨났으며 인근 마을의 삶의 질 등 거주성을 향상시켜, 방문객 외에도 거주자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㉔.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종합계획

서울시는 2012년 5월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까지 327억5400만원을 투입해 서울 성곽을 모두 복원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 성곽 주변을 공공영역으로 모두 돌려야 한다.

2012년 6월 26일 서울시는 2015년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앞둔 '서울 한양도성'의 보존을 위해 주택 담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멸실(滅失) 구간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를 추진하고 있다.⁴⁴⁾

43) 서울 도심을 품고 있으며 성곽 내외부에 다수의 주거지가 입지하고 있지만 성곽은 그동안 전형적 도시구조로서 폐쇄적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보안상의 이유로 접근제한구역이 다수 존재하였고, 성곽의 구조상 사대문 및 암문을 제외하고는 성곽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성곽에 바로 인접한 지점까지 주거지가 침투하여 성곽으로의 접근을 막고 인접한 주거지에서도 성곽으로의 진입이 쉽지 않았다.

(3) 서울성곽 환경변화가 주변 근린환경에 미치는 의미

서울성곽의 환경변화는 성곽 자체 뿐만이 아니라 주변 근린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문객 증가로 인한 소음 및 쓰레기 피해 등 역기능도 있으나, 성곽 및 주변부의 물리적 환경 개선, 각종 편의시설의 형성, 방문객 증가로 인한 주변 토지이용의 활성화 등 순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울성곽 주변은 소형필지가 불규칙적으로 형성된 구릉 주거지가 다수 형성되어 있는데, 열악한 접근성과 단지환경, 오래되어 쇠락한 주거건물의 다수 형성 등으로 거주환경 조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역사·자연·문화환경에 인접하여 있는 점으로 최근 들어 자율갱신 사례가 소개되는 등 주거환경의 질적 측면의 개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구릉지 특성상 서울 도심으로의 조망이 탁월하고, 낙산·북악산·인왕산 등 내사산의 자연경관이 탁월한 점과 산책·등산 등 야외 활동이 쉽다는 점으로 육체적·정신적 건강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최근 성곽길 개방으로 인하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성곽 진입부를 통하여 성곽길 및 내사산으로의 연계성이 더욱 강화된 점 또한 서울 성곽 주변 근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44) 한양성곽을 포함하고 있는 사유지에 건축 개발 등 현상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문화재청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현재 사유지 안에 위치한 한양성곽은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아 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성곽 훼손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시는 문화재 지정 이전이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한양성곽 미지정 문화재 구간이라는 사실을 기재해 건축허가를 내줄 때 문화재청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았다.

2. 서울성곽 주변 근린환경 관련 분석

(1) 서울성곽 주변의 물리적 환경 특성 분석

ㄱ. 자연환경

서울성곽은 평지 뿐 만 아니라 구릉지 및 산악에 조성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다양한 경관⁴⁵⁾의 양상을 보인다. 역사문화경관으로서 서울성곽과 자연경관으로서 내사산 지형의 어우러짐은 서울성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지인 서울성곽 주변 주거지는 성곽 및 산지경관과 연속되어 있거나 약간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어 주로 경사지주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① 지형

서울성곽 주변 주거지는 평지 외 구릉지 및 산악에 조성되어 있으며 구간별로 지형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1구간인 낙산구간은 구릉지로 낙산공원 주변의 지형은 잘 보존되고 있으나 외곽부인 창신동 지역은 대규모 주택공사로 지형이 심하게 절토되어 있다. 2, 3구간인 성북동·가회동 지역은 구릉지이나 단독주택이 주로 입지하여 지형변화가 미약하다. 다만 학교·관공서 등 공공건축물이 입지한 일부 부지는 지형을 넓게 정지하였다. 사직터널에서 인왕산 초입까지의 5구간은 대부분 표고가 높은 산악지형으로 성곽 외측부의 지형을 소규모 계단식으로 조성하여 다가구 및 다세대 건물이 난립해 있다. 교남동에서 사직동 구간은 대부분 구릉지로 성곽 외측부에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중이며 구)기상청 인근에 최근 근린공원이 조성되었고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45) 서울성곽 주변 경관 현황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III, 1997, p23)

경관유형	세부유형	내용
자연경관	산지경관	표고 200m이상의 산으로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형성
	구릉지경관	표고40~200m사이의 구릉지로서 시가지경관의 배경을 형성
	하천경관	한강의 4대 지천 및 중소하천으로 구성되는 서울의 귀중한 오픈 스페이스
역사문화경관	역사적 건축물 문화재	도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느끼게 해주는 귀중한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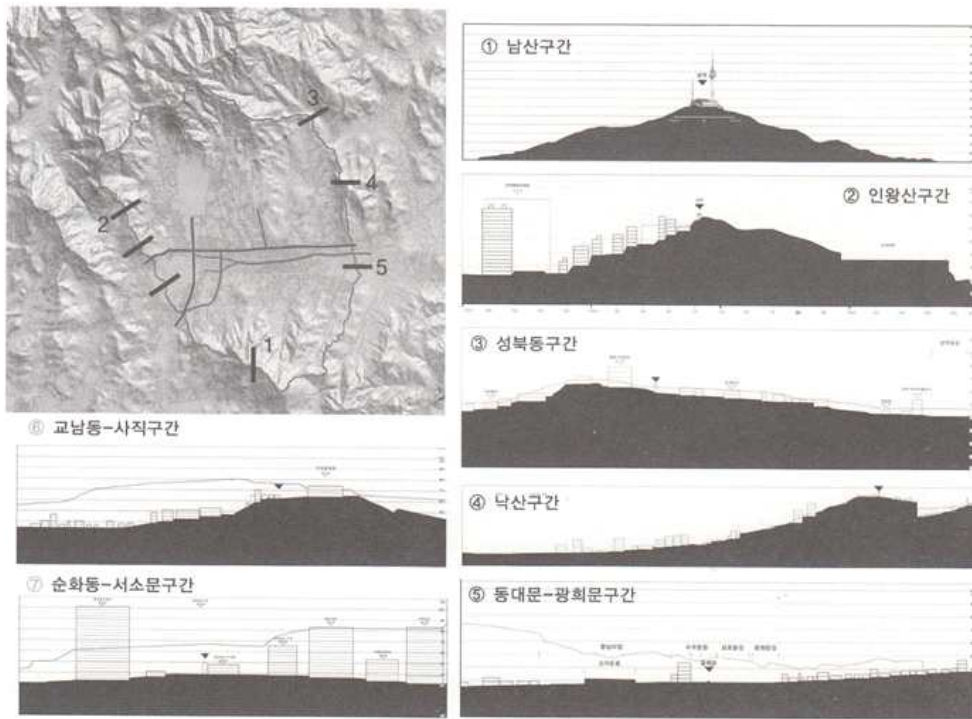


그림 2-4 서울성곽과 주변 지형 현황 (단면)
(출처 : 서울성곽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 2, 2009, p.34)

② 표고

성곽은 1구간(홍인지문~혜화문)과 5구간(광화문아트홀)을 제외하고 대체로 표고 135m 이상이다. 1구간과 5구간은 평지 구간에서 산지가 시작하여 대체로 45~135m 까지 이른다.

성곽 주변부의 표고는 1구간과 5구간을 제외하고 대체로 표고 90~135m 사이에 입지하고 있다. 1구간과 5구간은 평지에서 산지가 시작하여 대체로 45~135m 까지 이른다.

③ 경사도

대체로 모든 구간의 경사도는 0~10도 사이에 있다. 다만 창신동(1구간), 부암동(4구간), 교남동(5구간)의 일부에서 10~20도 사이의 구간이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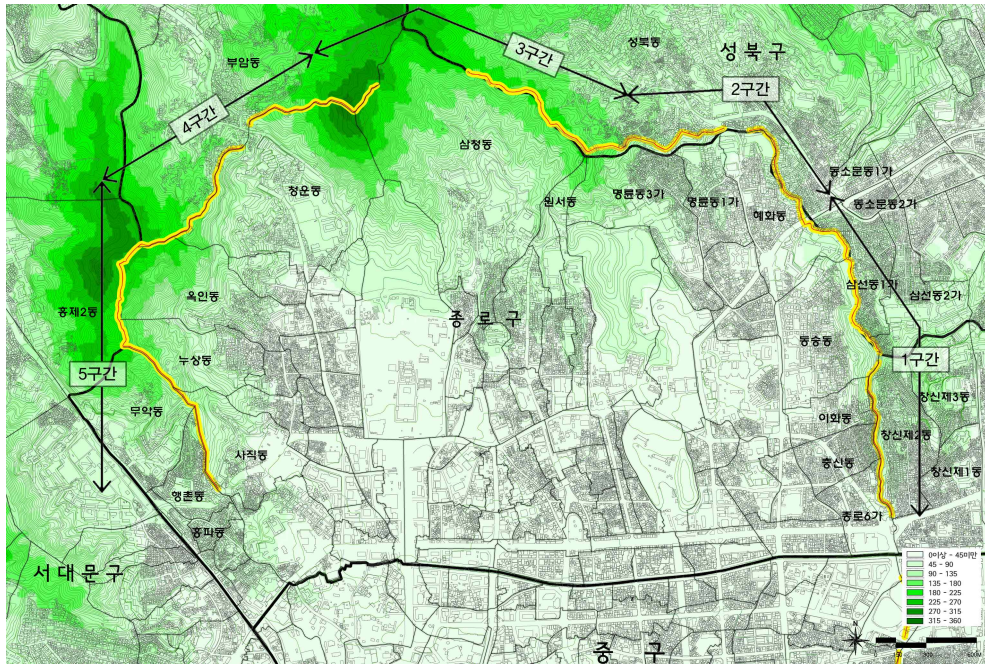


그림 2-5 성곽주변 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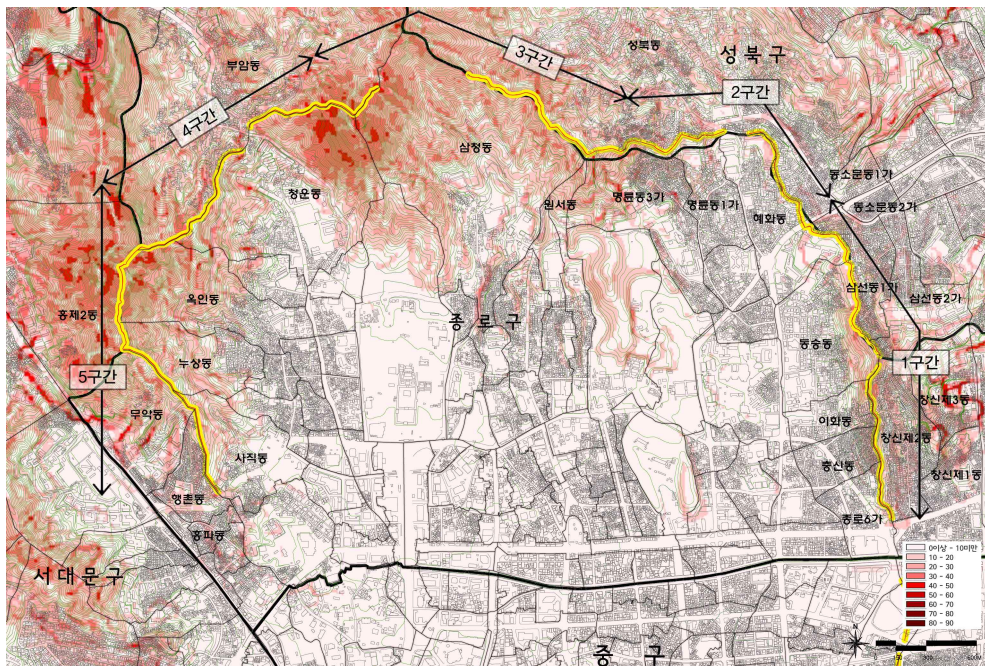


그림 2-6 성곽주변 경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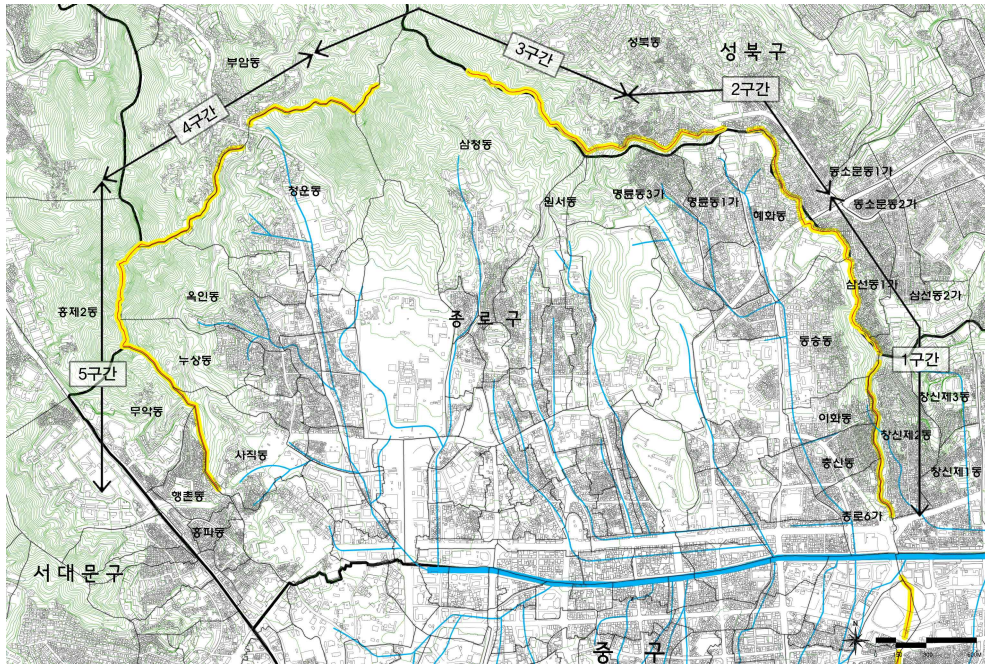


그림 2-7 성곽주변 물길

④ 물길

창신동(1구간), 혜화동·명륜3가동(이상 2구간), 삼청동·가회동(이상 3구간), 청운효자동(4구간), 사직동(5구간)의 물길은 산지에서 내려오는 지형으로 인하여 산지와 직각방향으로 물길이 형성되어 있다.

이화동·종로5,6가동(이상 1구간)은 산지에서 거리를 두고 산지와 평행한 방향으로 물길이 형성되어 있다.

모든 물길은 도로가 물길위에 형성되어 있어 형상을 찾을 수 없다.

⑤ 비오톱

서울성곽이 입지한 낙산, 북악산, 인왕산, 남산 등 내사산은 도시생태현황⁴⁶⁾조사에 따라 비오톱⁴⁷⁾ 1등급 및 2등급⁴⁸⁾으로 상당한 면적이 지정

46) 도시생태현황의 작성 근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동 법률에 따라 ‘시장은 지속가능한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라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47)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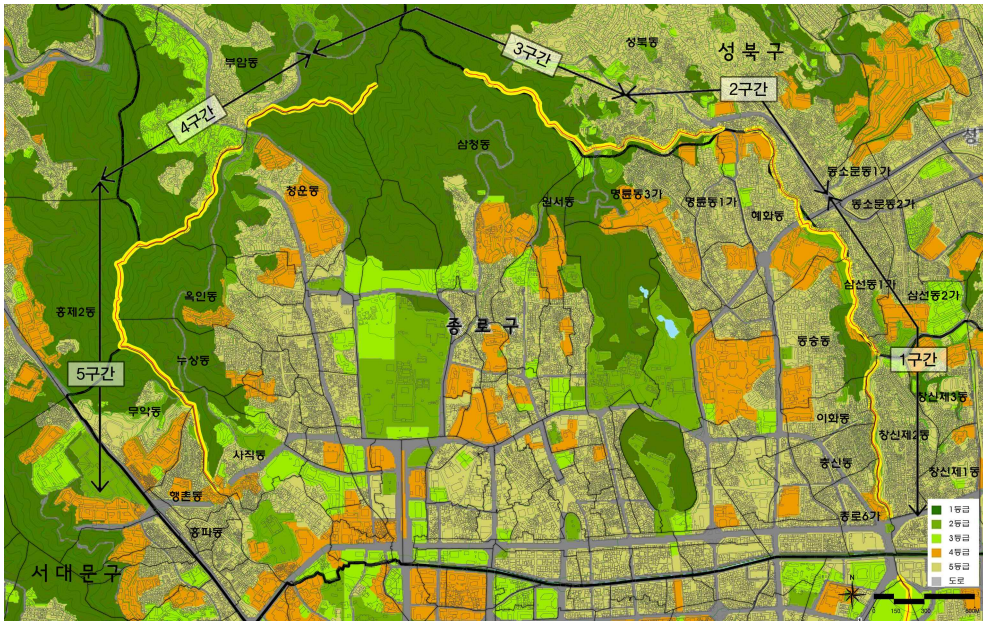


그림 2-8 성곽주변 비오톱유형평가도

되어 있다. 또한 서울성곽 주변 주거지 등 도시환경의 일부는 토지이용의 제한이 필요한 3등급 및 4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의 구릉지 주거환경은 접근성과 사업성 등의 문제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지만 또한 2005년 이후 비오톱 지정에 의한 개발제한으로 현 상태가 유지되어 왔다.

ㄴ. 인공환경

① 용도

창신2동·종로5,6가동(이상 1구간), 혜화동·삼선동(이상 2구간), 사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관련 별표 1)

48)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조제3항)

가. 1등급: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나. 2등급: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비오톱유형

다. 3등급: 대상지 일부에 대해 보전을 우선하고 잔여지역은 토지이용제한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라. 4등급: 대상지 일부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제한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마. 5등급: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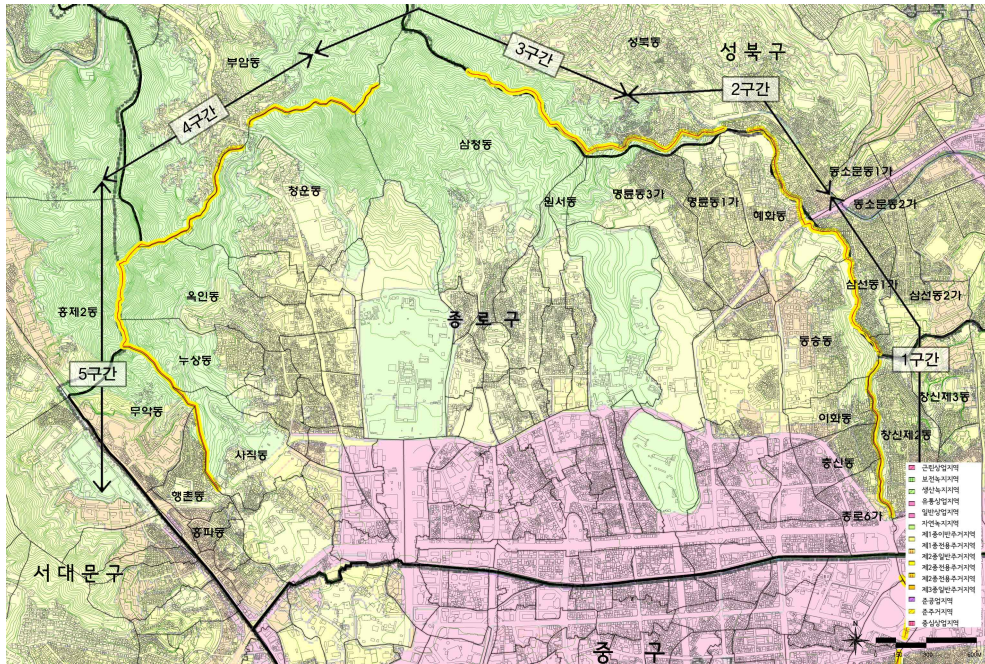


그림 2-9 성곽주변 용도

직동·교남동(이상 5구간)의 대로변은 주로 상업지역이며, 그 외 성곽 주변부의 용도지역지구는 모두 주거지역이다. 성곽이 입지한 북악산과 인왕산은 보전녹지지역이며, 낙산은 일반주거지역이다.

② 층수

모든 구간에서 학교시설을 제외한 층수가 3층이하로 저층구간이다. 이는 성곽 주변부의 형성과정이 자연발생적이므로, 구릉지에 좁은 도로가 형성되어 있음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③ 노후도

3, 4구간을 제외한 1, 2, 5구간에서는 대부분 1945년 이전, 1946~1960년, 1961~1975년, 1976~1990년 사이에 건축된 건물들이 혼재되어 있다. 성북동(3구간), 부암동·청운효자동(이상 4구간)에서는 1991~2005년, 2006년 이후 건설된 건물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는 비교적 주거환경이 좋고 규모가 큰 필지가 다수 존재함으로 자유헌신이 일어나고 있음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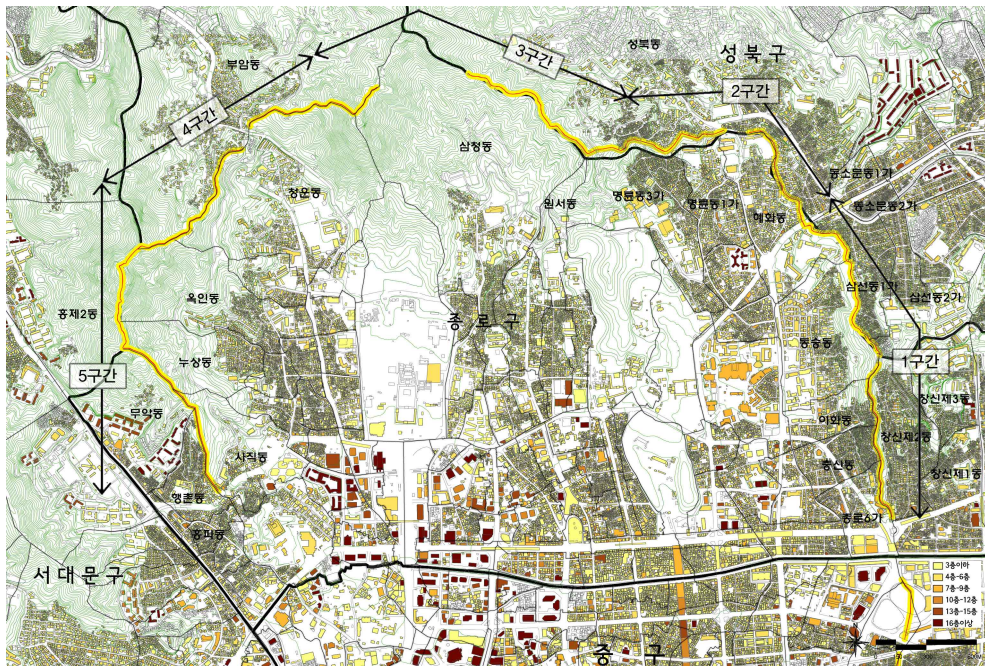


그림 2-10 성곽주변 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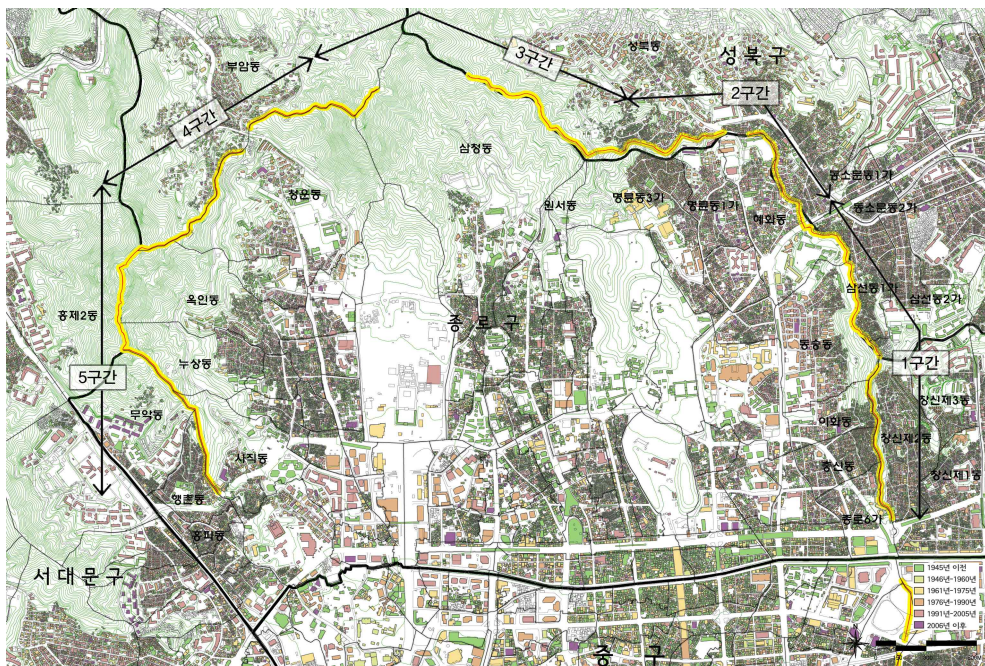


그림 2-11 성곽주변 노후도

(2) 서울성곽 주변 근린환경의 도시구조

서울성곽 주변 주거지는 일반적인 역사도시와는 구별되는 도시구조⁴⁹⁾상의 특성을 갖고 있다. 김철수(1984)는 성곽도시와 비성곽도시의 특성을 비교한 연구에서, 성곽도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성곽이 가지는 선형적(linear) 특성은 특정 도시영역을 한정하고 지역 간 단절을 야기했지만, 성문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도시 활동은 이후에도 그 맥을 이어가면서 도시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후, 도시의 팽창이 발생하고 성곽을 넘어 외곽지역에까지 개발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성곽안쪽 지역은 내부도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이 과정에서 성곽이 없는 다른 도시의 공간구조변화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⁵⁰⁾ 안용진 외(2003)의 연구는 수원성곽(이하 화성) 주변의 도시공간구조의 특성을 밝혔는데, 축조 초기 성곽 내부 장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shelter’로서의 방어적 기능은 근대화 과정을 통해 도시가 성장하면서 도심부의 범위를 한정하는 물리적인 경계로서 작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성곽은 본연의 방어적 기능을 상실하고 개발의 장애요소, 이질적 도시공간의 양성 등 도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49) 구조(structure)라는 어휘의 의미에는 각 구성요소의 배열상태(arrangement)를 가리키는 형식적 측면의 뜻과 요소들의 상호관계를 뜻하는 기능적 측면의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공간구조(urban spatial structure)는 도시 내 물적·사회적 요소의 입지와 배열상태, 그리고 이들의 상호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주종원 외2인, 도시구조론, 동명사, 1998) 또한 D.L. Foley(1964, 도시구조의 공간적 요소, p23)는 도시구조의 비공간적 측면과 공간적 측면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규정하였다.

구분	비공간적 측면	공간적 측면
사회 요소	· 사회적 가치 체계 · 문화적 패턴(pattern) · 사회규범, 제도, 기술	· 문화패턴의 공간적 배분, 물적 환경, 활동, 인구의 공간적 패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가치 체계와 규범
기능 요소	· 기능분리와 입지, 기능간의 상호존관계, 기능적 법칙의 측면에서 본 각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과 사람들의 활동조직	· 모든 기능과 활동의 공간적 배분, 기능간의 연결관계, 기능의 유형 등에 따른 각종 기관의 공간 형태
물리 형태 요소	· 물적대상물(지리적 환경, 자재 개발, 물적 대상으로서의 인간) 및 이러한 물적 대상물의 질적 측면	· 물적 대상물의 공간적 배분, 토지의 형태, 건물, 도로 등의 배분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의 패턴

50) 김철수, 1984, 한국성곽도시의 형성발전과정과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에서 도시공간구조상에서 보이는 성곽도시와 비성곽도시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경계요소로서 성곽은 도시과밀화의 억제 및 전이공간의 역할, 구체적으로 CBD지역을 위요하며 시가지 내부를 둘러싸는 성곽벨트를 형성, CBD의 확산을 막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⁵¹⁾

중심지로서 서울의 도심부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서울성곽의 내부와 외부에 형성되어 있는 주거지 모두 이 같은 도시구조 상의 특성으로 모두 고밀(high-density) 주거지이며, 중심지와 근접성 및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모두 갖춘 압축도시⁵²⁾로서의 특징(compactness)⁵³⁾을 가지므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서양의 도시들의 확보 노력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한국 성곽도시의 주요기능들의 배치를 보면 考工記에 의했던 과거의 기능배치형태가 지금까지도 도시지역분화의 역사적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의 궁宮·조朝·시市の 동서에는 평민의 거주지가 배치되었는데, 주거지의 배치는 주민의 신분과 사회적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또한 궁원은 궁전 가까이에, 관원이 아닌 자와 농부는 농토에 가까운 성문 가까이에, 공인과 상인은 시장 가까운 곳에⁵⁴⁾ 라고 하여 오늘날 ‘직주근접’의 이점을 살린 일종의 ‘지역제’의 실시를 강조하고 있다.

일상생활용품을 취급했던 일반 상인들은 육의전이나 도성 내에서의 상행위가 사실상 제한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사대문밖에서 상업활동을 해야 했으며 또한 사회적 신분계급이 낮았던 상인들의 주거지는 시장 가까이에 입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 정치·행정기능은 물론 상업·주거기능까지 성곽 및 대문의 입지에 영향받았으며 도시공간의

51) 안용진·이재형·안건혁, 2003, 성곽주변지역 도시공간구조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p323

52) Elizabeth Burton, 2000, Compact City: Just or Just Compact? A Preliminary Analysis, Urban Studies, 37:11 컴팩트시티는 선진국의 도시와 타운 단위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찾기 위해 널리 알려진 것으로 대중교통시스템과 보행, 자전거를 장려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고밀·복합도시이다.

53) 컴팩트시티의 특징으로는 고밀·근접의 개발 패턴, 대중교통시스템과 연결된 도시지역, 지역 서비스와 일자리에의 접근성 등이다. 컴팩트시티의 정책목표는 도시 지속가능성의 목표이다. (Compact City Policies: A comparative assessment, 2012, OECD)

54) 김의원, 1982, 한국 국토개발사연구, 대학도서, p109

확대과정 속에서도 계속 그 자리에 입지하게 되었다. 동대문·남대문시장 같은 전국적 도매시장과 당시 상인들의 주거지로서 현재 본 연구의 대상지이자 재개발 대상지가 많은 서울성곽 주변 주거지가 그것이다.⁵⁵⁾

역사적 형성과정 외에도 서울성곽 주변 주거지는 서울중심부(시청)와 직선거리로 대략 500m에서 최대 2km의 거리 내에 위치하며, 도심상업 및 업무 중심과도 대중교통 및 보행으로 접근이 수월한 입지로 기본적으로 직주근접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지구·단지 단위로 지속가능한 마스터플랜 기준을 마련한 유럽연합 보고서에 의하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도시구조(urban structure)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⁵⁶⁾ 복합적 토지이용(Mixed Land Use)은 업무시설, 상업시설, 여가시설 등이 인접하여 위치하여 있으므로 통근, 쇼핑, 여가 등을 위한 자동차 사용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용도 복합은 많은 서비스들을 적정한 거리 내에 위치하도록 하며 보행 및 자전거를 통한 접근을 강화시킨다.⁵⁷⁾

따라서 서울성곽 주변부 도시구조에 대한 고찰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양적·질적 수법으로서 문헌 및 통계조사, 관찰조사, 도면작성, 계량분석 등을 수행한다. 전체 및 구간별 특성의 고찰 외에 직주근접(직장위치), 보행가능성(이동시간 10분)⁵⁸⁾, 복합용도(mixed use), 편의시설 입지 등에 관한 분석결과를 도출한다.

55) 박병주·김철수, 1984, 한국 성곽도시의 공간구성원리와 기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19권, 제1호, p11

56) Sustainable Masterplanning: Lessons learned from 2001 to 2004, 2001-2004. European Commission, 5th Programme “City of Tomorrow and Cultural Heritage” Project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구조의 목표는 녹지소비의 최소화, 교통수요의 최소화, 원재료 및 에너지 소비의 최소화, 환경 및 인간건강 파괴 최소화, 정신건강 및 커뮤니티 의식의 극대화 등이며, 건물 밀도, 용도복합, 공공공간,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면적 등의 분석을 통해 도시구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57) Alberti 2000; Van and Senior 2000

58) New Urbanism Principles에 관한 웹사이트 <http://www.newurbanism.org/>에서 New Urbanism의 10가지 원칙 중 첫 번째인 Walkability는 이동시간 10분이 통근 거리로서 최적의 조건이며, 보행위주의 거리디자인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3) 서울성곽 주변 주거지의 역사적 변천과정

서울성곽 주변 주거지는 공동주택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형성된 ‘도시형 한옥주거지’, 1950-6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조성된 ‘대단위 단독주거지’, 1980년대 중반 이후 서울의 대표 주거유형으로 자리 잡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지’⁵⁹⁾가 다수 존재한다. 또한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재개발 예정구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본 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지 내에 분포하고 있는 주거지는 일제시대 이후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분할된 필지를 갖는 접지형 주택으로 주거블록의 공간구조와 상관성이 적은 공동연립주거를 제외한 단독주거가 다수 밀집되어 있다. 또한 블록내 주택과 필지의 구

표 2-3 서울성곽 주변 주거지의 역사적 변천과정

(출처 : 서울연구원, 한양도성 연접지역 실태분석 및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시대 구분	주요 내용
조선시대	행정, 치안, 안보의 영역 성곽 주변부 방어적 관리
19세기말	한양 인구증가(약 20만명)로 서울성곽외곽에 시가지 형성
20세기초 (개화기 이후, 1910-1945)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한 이농민, 철거민의 토막촌 형성 (철로변, 성벽밑, 하천제방 등)
해방기 (1945-1960)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민 무허가판자촌의 난립 (용산해방촌, 낙산, 창신, 송인 등)
1960-1980	인구유입으로 인한 판자촌 확산 도심부 주변으로 시민아파트 건설(창신 등)
1980-2000	주거환경정비사업 및 재개발사업지구의 지정 및 사업
2000-2010	뉴타운 추가지정 및 대규모 사업구역의 지정(창신, 교남), 한양도성 관리의 시작, 적극적 복원사업(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2010-현재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진정성 확보 및 주변부 관리에 관한 필요성 부각

59) 손세관·신진희 2003, “서울 주거지역내 주거블록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제19권, 제4호, p.83-90 중 p84. 일제시대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근대화,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나타난 주거지의 물리적 구조와 주거 유형 상호간의 관계를 다룬 손세관(2003)은 서울의 주거지 중 공동주택이 위치하지 않은 지역을 그 특징에 따라 구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손세관의 분류중에 1970년대 형성된 강남의 고급주거지를 제외한 모든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모 및 형태가 비교적 동질성을 갖는 지역이다. 즉 블록내 6m이하의 도로에 의해 분할되는 소블록의 규모, 형태, 구성패턴에 동질성을 보인다.

또한 내사산을 경계로 형성된 주거지로서 경사지에 주로 입지하고 있다. 급경사라는 지형상의 특성으로 인해 오랜 세월을 거쳐 불규칙적으로 확대되어온 주거지로서 가로의 분화가 심한 동시에, 가로의 체계나 위계가 불분명하다. 또한 등고선에 수평방향인 가로는 자동차로, 등고선에 수직방향은 계단을 이용한 보행로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로의 접근성이 무척 약하다.

1960년대 후반 서울시의 불량주거 철거에 의해 형성된 집단이주정착지로 가로망이 먼저 조성되고 난 뒤에 형성된 주거지로 서울의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공간구조를 대표하는 봉천동(손세관, 2003)에 비해 같은 구릉지이나 불규칙한 패턴을 보인다. 막다른 가로를 통해 주호로 진입하는 간접진입형의 형태로 인해 골목은 주로 사적인 가도로 이용된다. 블록내를 통과하는 연결가로에서 주호로 진입하는 직접진입형이더라도 무허가 불량주거의 경우는 가로의 성격이 反사적이라 할 수 있다. 무허가 불량주거의 경우 협소한 대지면적과 주호로 인해 가로까지 장독대 등 각종 생활공간이 놓이는 사적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난곡 봉천동 등에 집단적으로 형성되어있던 무허가 불량주거지는 재개발을 통해 대부분 사라졌으나 본 연구의 대상지에는 역사적으로 훨씬 오래된 무허가 불량주거지가 계속 자체 갱신을 통하여 대량으로 남아있다.

1985년 다세대 주택, 1989년 다가구주택의 법제화에 의해 확장되어온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단독주택과 혼재되어 있다. 주거의 형태가 도시형 한옥에서 단독주거, 다세대/다가구 주거로 변하면서 주호의 배치방식은 도시형 한옥의 ㄷ, ㄱ자형, 단독 주거유형의 ㄱ자형, 꺾임형 그리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一자형으로 바뀌는 등 대지내 주호의 배치방식도 시대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

(4) 서울성곽 주변 주거지 관련 법규 및 규제

ㄱ. 지역·지구 현황

서울성곽 및 주변부의 유지·관리·보전을 위해서는 성곽 및 성곽주변부 자연녹지, 성곽주변부 주거 및 상업지 등의 현황 및 지형(구릉지)

등 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⁶⁰⁾

남산, 북악산, 인왕산, 낙산 구간 등 비교적 표고(해발 100m이상)가 높은 지역의 서울 성곽주변부는 대부분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성곽의 멸실 정도가 심한 동측(홍인지문-광희문)과 서측(승례문-사직터널) 구간은 상업지역이다. 남산 주변은 고도지구가 넓게 지정되어 있으며, 주요 간선도로변은 미관지구로 되어 있다. 그 밖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주변은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ㄴ. 서울성곽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 2

－ 부문: 서울성곽 주변 현상변경기준(안) ,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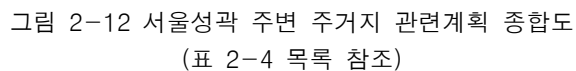
현재의 서울성곽 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경계 밖 검토지역에 대한 범위를 검토하여 재설정하였다. 성곽 기저부로부터 내/외측 20m 이격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지형보호 및 성곽길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성곽보호구역 경계밖 검토지역(현상변경검토지역)을 기존 100m에서 500m로 확장하여 높이규제를 추진함으로써 향후의 재개발 사업성난조가 예상된다.⁶¹⁾

60) 서울성곽 주변 주거지의 용도지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용도지구로는 역사문화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가 분포하고 있다.

61) 현상변경기준 대상 범위에 대한 주요검토 내용

1) 성곽자체(문화재구역): 기존에 성곽의 체성 및 여장부분만을 보전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에서 벗어나 성곽을 만들기 위해 조성된 주변의 인공지반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성곽자체의 범위를 재설정하고 성곽에 시설물설치를 금지, 2) 성곽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제9조): 성곽 기저부로부터 내/외측 20m 이상 이격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하도록 한 기준을 준수하고 건축행위 금지 및 지형변화 최소화, 3) 성곽보호구역 경계밖 검토지역(현상변경검토지역): 현재 서울시에서 설정하고 있는 검토지역(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m 범위 내 지역)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500m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재설정하고 지형, 지역지구, 성곽주변 특성, 대규모개발지역, 공공시설 등을 고려, 4) 일반경관지역: 평지(해발40m미만과 경사도 1/8이하거나 현황상 평지간주 구릉지)와 구릉지(해발 40-200m까지)를 대상으로 함, 5) 평지(광희문,이화병원,혜화문 주변) : 보호구역 경계 지표면으로부터 3.6m 높이에서 양각 27도 적용, 6) 구릉지(낙산공원,성북동,돈의문 지역) 및 산지지역(백악산,인왕산,남산 구간, 대개 녹지지역으로 구릉지역에 포함):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높이는 외측 기저부 또는 내측 여장하단선의 수평선을 넘지 못하며 지형에 대한 존중 및 보존 조치, 7) 특별경관지역(대규모개발지, 경관중요지역 : 남산 회현지구, 돈의문뉴타운, 동대문운동장): 500m를 초과하더라도 동일 블록이면 포함시킴. 개별지침,

서울성곽 주변 주거지와 관련된 계획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 56 –

표 2-4 서울성곽 주변부 관련계획

주거환경 개선사업	①현저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원조성 사업	①광화문 광장 조성사업 ②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③남산르네상스사업
서울성곽 주변 정비사업	①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②행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③부암동 개발제한해제지역 ④명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⑤동승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거리환경 개선사업	①행촌길 마을경관개선사업 ②청석길 환경개선사업 ③대학로 거리환경조성사업 ④아라리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재개발 사업	①무악동 재개발사업 ②채부동 재개발사업 ③누하동 재개발사업 ④부암동 재개발사업 ⑤삼정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⑥성북2동 재개발사업 ⑦성북2동 재개발사업 ⑧삼선동2가 재개발사업 ⑨삼선동1가 재개발사업 ⑩삼선동3가 재개발사업 ⑪이화동 재개발사업 ⑫돈화문로 구간 재정비	지구 단위 계획	①회현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②남대문시장 제1종지구단위계획 ③북창지구 ④서울시청부지지구 ⑤명동관광지구 ⑥세종로 지구단위계획 ⑦사직도심 ⑧경복궁 서측 제1종지구단위계획 ⑨부암동 지구단위계획 ⑩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역 ⑪운현궁주변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⑫인사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⑬운현궁주변2지구 ⑭돈화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⑮종로2,3가 제1종지구단위계획 ⑯수표지구 ⑰퇴계로변지구 ⑱주교지구 ⑲종로4,5가 제1종지구단위계획 ⑳율곡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㉑대학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㉒성균관대 주변지구 ㉓성북구 휴먼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
뉴타운	①교남 뉴타운 ②창신-송인 뉴타운(해제)		

ㄱ. 서울성곽 주변 주거지 관련계획 개요

표 2-5 서울성곽 인근 정비구역

구분	구간	주요 구역명
성북권	구간2-外	성북1, 성북2, 성북3
삼선권	구간1-外	삼선3, 삼선4, 삼선5, 삼선6
이화·충신권	구간1-內	이화1, 충신, 충신동
뉴타운	구간1-外	창신·송인 뉴타운
	구간4-外	돈의 뉴타운

표 2-6 서울성곽 인근 정비구역 추진현황

구 분	정상추진	실태조사	사업부진	해제·변경 검토	기타
계	2	14	7	8	4
구역지정이후 (9개소)		충신1,성북2 신당10,삼선5 성북3	이화1 신당9	옥인1	삼선6(해제)
정비예정구역 (7개소)		성북1 충신6	삼선3,채부 누하,필운	삼선4 (장수마을)	
뉴타운	돈의문	돈의문1 돈의문3		돈의문2	
			창신1~6 창신11	창신·송인	창신7~10 창신12 송인1~1

ㄴ. 주택재개발사업 현황

현행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과소필지 비율,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건축밀도, 도로 점유율, 접도율 등의 물리적 항목을 기본으로 필요에 따라 도시경관 및 용도지역에 관한 요건을 포함한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인구구성, 경제지표, 소득 및 교육수요 등 사회·경제·문화·역사·교육 부분의 비물리적 사회·환경요소들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중략> 이는 현재의 정비예정구역 대상지 선정기준이 사업추진우선순위의 결정에서 공익성을 거의 띠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소득수준이나 최저주거기준, 취업률 등 인문사회적인 속성이 반영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⁶²⁾ 정비예정구역선정과 관련하여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202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본구상안⁶³⁾에 따르면 지역과 주민의 소득수준, 인구 및 문화, 교육환경 등의 생활환경과 관련된 평가기준을 함께 반영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는 절차적 공공성 차원에서

62) 변창흠, 2009, 지속가능성과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재정비사업의 현황, 도시정보, 통권325호. p.7.

63) 서울시 보도자료, 2012.10.09. 주택정책실, ①주거지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전면철거, 아파트 건설 위주의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계획에서 사회·경제·문화·환경재생 등 상황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의 종합적 계획으로 전환 ② 주거환경의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지속성을 나타내는 국제 수준의 ‘주거환경평가지표’와 기존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나타내는 ‘정비지수’를 도입해서 정비대상지 선정 및 정비계획수립 기준으로 활용, 실제 계획 찾을 것

시사점이 크다. <중략> 따라서 물리적 노후도와 경제적 가치 위주로 개발사업화 되어가는 현재의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을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시정체성 확보, 지역이미지 개선, 사회통합 주거환경의 실현, 커뮤니티 형성, 역사·문화 공간 및 시설확충, 전통의 보전 등 지역의 경쟁력 확보와 생활 문화의 질 제고를 위한 모든 요소를 포함⁶⁴⁾시켜 기존 주민의 삶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안도 공공성 차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표 2-7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현황(9개 구역)

연 번	구역명	위치	면적 (ha)	연번	구역명	위치	면적(ha)
1	이화1구역	이화동 9	1.4	6	삼선5구역	삼선동2가296	6.3
2	충신1구역	충신동 1	2.9	7	삼선6구역	삼선동1가11-53	2.0
3	옥인1구역	옥인동 47	3.0	8	성북2구역	성북동226-103	7.4
4	신당9구역	신당동432	1.8	9	성북3구역	성북동3-38	6.7
5	신당10구역	신당동321	4.3	계			35.8

표 2-8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현황(7개 구역)

연 번	구역명	위치	면적(ha)	연번	구역명	위치	면적(ha)
a	충신구역	충신동 6	4.0	f	삼선4구역	삼선동1가300-1	6.3
b	체부1구역	체부동127	4.2	g	성북1구역	성북1동179-68	12.8
c	누하1구역	누하동 8	2.2				
d	필운1구역	필운동 129	1.4				
e	삼선3구역	삼선동1가5 12-204	4.1	계			35

㉔. 뉴타운사업 현황

2005년 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뉴타운 사업]의 경우 서울의 강북개발이 주된 계기였으며, 지구지정 외에 사업의 진척을 보이는 지역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⁶⁵⁾ 서울성곽 주변 주거지에 속하는 뉴타운 구역은 구역1의 성곽 바깥지역의 창신·송인 뉴타운과 구역4의 성곽 바깥지역에 위치한 돈의문 뉴타운을 들 수 있다.

64) 이주형·서의권, 2009, 공공성 확보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의 역할, 국토연구, 통권 제61권, p.144.

65) 박진수·김기수, 2013, ‘공공성’ 측면에서 본 현행 도시재생정책 및 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4권, 제2호, p50

표 2-9 뉴타운사업 현황

연번	구분	구역명	위치	사업방식
A	돈의문 뉴타운	돈의문1-3	송월동33-2일대	도시환경정비
B	창신·송인 뉴타운	창신1~8구역	창신동436-79일대	도시환경정비
		창신9~12, 송인1~2구역	창신동23-606일대	재개발

ㄹ.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정비사업 중 공공부문이 사업을 시행하고 국고가 지원되는 유일한 사업이다.⁶⁶⁾

하지만 시행실적이 크게 저조하고 예산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며 그마저도 사업실적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⁶⁷⁾

표 2-10 연도별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변화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획 예산	995	250	320	170	100	100	100	100
집행 예산	398	191	222	108	76	60	20	15
실행률	40.0	76.4	69.4	63.6	76.0	60.0	20.0	15.0

또한 사업방식⁶⁸⁾에 있어서도 대부분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되어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은 여건상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데 한계가 있고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수익성 위주의 개발사업화 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건축법 등 특례규정⁶⁹⁾에 따라 건설된 주택은 영세한 민간사업자에 의해 대부분 고밀 다세대주택의 수익성 위주로 개발되어 사생

66) 이창호, 201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과 정책·입법과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28권, 제2호, p.189.

67) 국토해양부, 2011, 국민주택기금 연도별 조성 및 운영실적,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서울.

68) 현지개량방식, 공동주택건설방식, 환지방식, 복합방식-도정법 제6조

69) 주거환경개선지구 건축법 등 특례규정 :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도로사선, 일조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대지 및 도로와의 관계 등 (2005.6.30. 해지)

활, 일조권 주차문제 등으로 재슬럼화되고, 도시경관, 주민재정착, 세입자 문제 등과 같은 재개발사업과 유사한 문제를 양산해왔다.⁷⁰⁾

ㄱ. 서울시 성곽마을 조성 종합계획 수립 추진계획 (2013.5)

한양도성 주변 주거지의 통합적 재생을 통해 한양도성의 우수한 역사문화 유산과 주변지역의 생활문화 유산이 서로 공존하는 서울미래 융합자산으로서의 도성마을 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추진배경으로서 한양도성 주변지역을 역사문화와 생활문화 유산이 공존하는 ‘문화마을’로 재생함으로써 한양도성 완충지로서 도성마을 보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원하고, 도성 인근의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대안으로 방향 제시함으로써 역사경관, 주거, 경제 등 각종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하는 통합 재생모델 발굴하며, 문화재 및 경관 보전에 따른 제약사항으로 열악해진 주거지 환경개선 필요함에 따른다.

ㄴ. 장수마을(삼선4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성북구 삼선동 1가 300번지 일대에 위치한 장수마을(면적 18,414m²)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2004년 지정),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일제 강점기 토막집 및 판잣집으로 정착을 시작하여, 1968년 무허가 주택 양성화 조치가 발효됨으로서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30년이상 거주자 비율 53.7%, 주민 평균연령 58.9세, 월소득 100만원 미만 주민비율 42%인 장수마을을 대상으로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하여 장수마을 종합계획(2012.5~2013.5)을 수립하였다. 사업은 서울성곽과 연계한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및 주택개량 지원,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70) 박진수·김기수, 2013, ‘공공성’ 측면에서 본 현행 도시재생정책 및 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4권, 제2호, p48

제3장 서울성곽과 주변부의 구간별 특성

서울성곽은 역사환경으로서의 가치 외에도 자연환경에 입지함으로써, 성곽개방은 곧 자연환경과 관계를 재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즉 서울성곽의 환경변화는 역사 및 자연에 대한 방문객 및 주변 거주자의 인식을 형성하며, 다양한 이용행태-성곽답사·산책·등산·전망 등-를 유발시킨다. 또한 삶의 질 확보 및 건강증진에 중요한 기여를 함으로써 사람에게 만족을 느끼도록 한다.

즉 서울성곽의 환경변화는 역사환경 및 자연과 재연계를 통하여 성곽과 주변부 거주자·방문객의 환경인식을 재형성하도록 하며, 이용행태를 발생시킨다. 이용행태는 환경-행태장치-에 대한 반응이며 기존의 환경인식을 다시 변화시키며 또한 거주자·방문객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 종합해보면, 공간환경 변화→거주자·방문객의 환경인식 형성→이용행태→만족은 상호반응하는 상관관계를 형성한다.

제3장은 제1장 연구의 개념적 틀 및 분석모델의 설정에서 밝혔듯이 전체 분석의 1단계인 성곽-근린환경 레벨 분석으로서, 연구의 배경에서 기술한 개념적 가설 중 다음의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성곽은 역사자원으로서의 가치 외에 내사산의 자연환경과 어울려 서울시민의 동적 행태를 발생시킴으로서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입체적 도시구조이다. 둘째, 폐쇄된 선(線)적 구조로서 도심의 경계를 형성하던 서울성곽 개방으로 외부적으로는 방문객 증가, 성곽 이용행태의 다양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내부적으로는 성곽 주변 환경 개선, 공공장소 및 자족시설의 증가, 용도 변화, 교통편의성의 개선 등 서울성곽 주변부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는 서울성곽의 환경변화를 배경으로 역사환경 및 자연과의 재연계(re-connection)의 의미와 연계하여 성곽과 주변부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본문은 서울성곽 및 주변 근린환경에 대한 물리적 환경요인, 성곽 진입부의 근린환경에 대한 공간중심성 및 인지중심성, 구간별 특성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된다.

제1절 분석의 목표와 방법

1. 분석의 목표

제3장은 성곽-근린환경 레벨의 분석으로서 서울성곽의 환경변화를 배경으로 다음의 세 가지 항목에 대하여 분석을 시행한다: 1)서울성곽과 주변부 물리적 환경요인, 2)중심성(spatial centrality) 지표를 통한 성곽-근린환경 관계, 3)성곽과 주변부 구간별 특성.

제2절에서는 성곽 연결 상태, 구간별 자연녹지율, 역사유적·건물의 개수, 문화시설 개수, 교육시설 개수, 성곽 진입부 생활가로 형성 여부, 성곽 진입부 대중교통 연결 여부 등 물리적 환경요인의 분석을 통하여 서울성곽과 주변부의 구간별 물리적 환경요인을 도출한다.

제3절에서 분석할 “성곽-근린환경 관계”는 성곽진입부를 중심으로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지리적중심성, 인지중심성 등 4개 중심성 지표를 도출함으로써 “성곽의 근린환경에서의 중심성(centrality)”을 검증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아래와 같이 두 개의 예비가설을 검증한다.

- 예비 가설 2.1 (H 2.1) : 성곽-근린환경 관계의 특징적 유형은 공간중심성지표(spatial centrality indices)를 분석함으로써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 예비 가설 2.2 (H 2.2) : 객관적으로 측정된 중심성은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거주자 및 방문객의 인식중심성(perceived centrality)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제4절에서는 앞서 도출한 물리적 환경요인 및 성곽-근린환경 관계에 더하여 구간별로 맵핑을 통한 물리적·공간적 환경분석, 문헌·관찰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한 거주자 및 방문객의 이용행태 분석을 통해 서울성곽과 주변부의 구간별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2. 분석의 방법

서울성곽 자체의 물리적 특성은 모든 구간에서 동질적이거나, 성곽이 놓인 입지로서 내사산의 지형 및 표고레벨에 따라 성곽의 높이나 성곽 경계부의 처리-통행로, 녹지 형성 등-가 다르다. 성곽 주변부는 성곽 및 성곽이 입지한 내사산에 접하여 전반적으로 비슷한 컨텍스트를 갖고 있으나, 지형 및 주변 시가지 형성 현황에 따라 구간별로 물리적 환경의 차이를 보인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물리적 환경에 한정하며,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서울성곽은 “1)성곽 및 성곽이 입지한 자연환경으로 성곽복원 및 개방 등 최근 환경변화가 나타남, 2)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노력에 따라 앞으로 성곽의 복원 및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됨”, 또 성곽의 주변부는 “성곽 주변에 형성된 1)자연발생적 주거지이며 2)구간마다 성곽 안팎의 입지에 따라 특성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열악한 구릉 주거지이며 다양한 용도가 복합된 도시환경임, 3)지형특성 및 도시구조 발생의 이유로 접근성이 열악하고 불규칙한 가로체계가 나타나고 있음, 4)최근 성곽 복원 및 개방에 따라 근린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음, 5)최근 성곽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는 결정에 따라 주변 환경 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장래 재개발 등의 수법을 통한 전면적인 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움.”

성곽-근린환경 레벨 분석을 위한 범위의 설정은 제1장 연구의 범위에서 서술한대로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하지만 2절 물리적 환경요인, 3절 성곽-근린환경 관계의 분석을 위한 범위는 앞서 설명한대로 구간마다 중심성의 고찰을 위해 성곽의 진입부를 중심으로 반경 1km를 분석의 범위로 설정한다. (그림 3-1)

범위 설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3개의 변수는 1)페리(Perry, 1929)의 근린주구계획(Neighborhood Unit Plan)에서의 영역 범위인 반경 1/4mile, 2)국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근린의 단위인 반경 4~500m, 3)성곽진입부로부터의 보행가능거리(walkable distance)인 1/2mile이다. (표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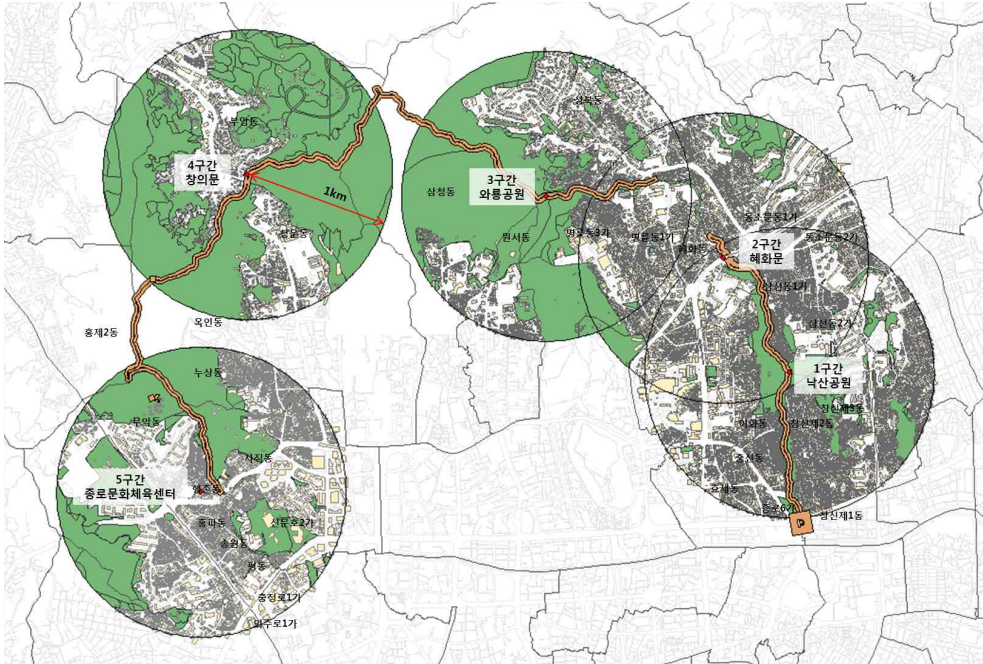


그림 3-1 중심성 분석을 위한 구간별 성곽 진입부의 설정

표 3-1 성곽 주변 근린환경의 범위 설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변수

변수	정의	출처
Perry의 근린주구 경계	반경 1/4mile (402.333m)	Perry, 1929
근린주구의 경계	반경 4~500m	국내 학계
보행가능거리(walkable distance)	1/2mile (804.667m)	건강보건 관련 연구에서 “보행 능력의 기준”(Hakim et al., 1998)

해외 문헌에서 도출한 거리는 1/2mile이 일반적이지만, 국내에서는 근린환경의 기본 단위를 반경 4~500m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성곽 및 내사산으로의 산책·방문 등 행태는 일상행위-통근통행, 등교¹⁾ 등-의 기준인 1/2mile보다 조금 큰 1km로 결정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반경 1km는 “성곽 영향권(성곽으로의 접근을 위한 거주민과 방문객의 보행거리)”을 의미한다. (표 3-2)

성곽-근린환경 관계의 도출을 위한 중심성(centrality) 분석 범위를 구간별로 성곽 진입부를 중심으로 설정한다. 구간별 성곽 진입부는 성곽

1) 학교까지의 평균보행거리, SRTS(The 2010 Safe Route School) 조사, 미국

의 주요지점에 관해 거주자 및 방문객 각각에게 질문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높은 인지중심성을 갖는 주요지점을 선정하였다: 1구간-낙산공원, 2구간-혜화문, 3구간-와룡공원, 4구간-창의문, 5구간-종로문화체육센터. 이 중 혜화문, 와룡공원, 종로문화체육센터는 앞서 설정한 5개 구간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구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구간의 경계에 위치한 성곽 진입부를 성곽-근린환경 관계 분석을 위한 중심에 두어도 무관한 이유는, 성곽 진입부로부터 반경 1km 범위에 분석의 대상인 해당 구간 근린단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표 3-2 구간별 성곽 진입부 및 성곽영향권 행정동

구간	성곽 진입부	성곽영향권 행정동*
1	낙산공원	① 이화동, 충신동, 종로5,6가동 ② 창신동, 삼선동
2	혜화문	① 명륜1가동, 혜화동 ② 성북동
3	와룡공원	① 명륜3가동, 원서동, 와룡동, 계동, 삼청동 ② 성북동
4	창의문	① 청운효자동 ② 부암동
5	종로문화센터	① 사직동, 필운동, 내하동, 누상동 ② 행촌동, 무악동

* ①성곽안, ②성곽밖

제2절 물리적 환경요인 분석

환경요인(Environmental factors)은 성곽 및 주변부의 물리적 환경 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서울시 GIS 데이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성곽 연결 상태, 구간별 자연녹지율, 역사유적·건물 개수, 문화시설 개수, 교육시설 개수, 성곽 진입부 생활가로 형성 여부, 성곽 진입부 대중교통 연결 여부 등 물리적 환경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성곽 및 주변 근린환경의 물리적 특성을 도출하고, 제3절 성곽-근린환경 관계 분석 중 지리적중심성 분석을 통한 근린환경 내 중심시설의 선정에 활용한다. (표 3-3)

표 3-3 성곽 구간별 물리적 환경요인

구간*	성곽 진입부	A**	B	C	D	E	F	G
1	낙산공원	O	14.1	21	3	16	O	X
2	혜화문	X	15.7	19	2	24	O	O
3	와룡공원	O	50.4	29	0	15	X	X
4	창의문	X	75.0	17	1	2	O	O
5	종로문화센터	O	36.6	36	1	15	X	X

* 5개 소구간의 성곽 진입부를 중심으로 반경 1km를 범위로 한다. 이는 연구의 편의상 비교를 위한 것이며 동시에 제3장 제3절에서 지리적중심성 지표 도출을 위한 근린환경 내 지리적 중심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공공시설 추가해야 함)

** A-성곽연결상태(X: 단절), B-자연녹지 비율(%), C-역사유적·건물 개수, D-문화시설 개수, E-교육시설 개수, F-성곽 진입부 생활가로 형성 여부, G-성곽진입부 대중교통 연결 여부(마을버스 제외)

1. 성곽 연결상태

성곽 연결상태(A)에서 2구간(혜화문)과 4구간(창의문)에서 X표로 성곽이 단절된 형상이다. 이는 지점들의 레벨이 낮으므로 19세기 후반에 간선도로가 형성된 것이 그 이유이다. 성곽 단절은 혜화문과 창의문의 인지성 및 성곽 접근성의 저하로 나타난다. 또한 거주자 및 방문객의 인식과 성곽만족도에 영향을 많이 준 것으로 본문의 후속 내용에서 도출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3장 제4절 [구간별 특성]에서 설명된다.

2. 자연녹지 비율

자연녹지비율(B)은 북악산과 인왕산이 모두 위치한 4구간이 75.0%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북악산이 위치한 3구간-50.4%-이다. 2구간-15.7%-과 1구간-14.1%-은 가장 낮은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3-2)

구간별 자연녹지 면적 및 비율을 상세히 알아본다. (표 3-4) 자연녹지 면적은 녹지²⁾와 공원³⁾ 면적을 합한 것이며, 자연녹지 비율(%)은 반경 1km 범위의 구간 면적인 3,140,000m²과의 비율로 산정하였다.

표 3-4 구간별 자연녹지 면적 및 비율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자연녹지면적 (m ²)	451,112.7	491,623.5	1,583,580.5	2,354,424.3	1,149,639.4
비율 (%)	14.4	15.7	50.4	75.0	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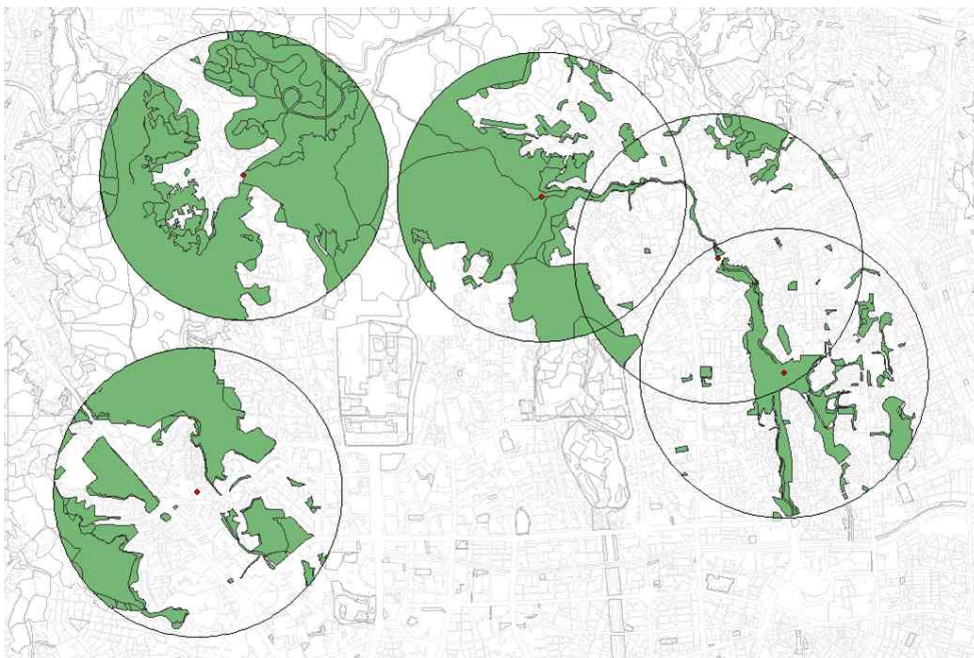


그림 3-2 구간별 자연녹지(B) 분포

- 2) 녹지에는 녹지(기타), 자연녹지지역, 경관녹지, 연결녹지, 완충녹지, 도시자연공원, 국립공원 포함
- 3) 공원에는 어린이공원, 역사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문화공원, 소공원, 수변공원, 근린공원 포함

3. 주변부 시설 현황

구간별 성곽 진입부를 중심으로 반경 1km 범위 내에 위치한 역사유적·건물, 문화시설, 교육시설의 개수 및 내용을 조사하였다. 이는 제3절 성곽-근린환경 관계 분석 중 지리적중심성 분석을 통한 근린환경 내 중심시설의 선정에 활용한다.

역사유적·건물(C)은 5구간이 36개로 가장 많으며, 3구간이 29개로 다음 순위를 나타낸다. 가장 적은 수는 2,4구간이다. (표 3-5)

주변의 문화시설(D)은 1구간-2구간-4,5구간의 순이며 모두 적은 분포를 나타낸다. 3구간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낸다.

교육시설(E)은 2구간이 24개로 가장 많으며, 1구간(16개)-3,4구간(15개)의 순이며, 4구간에는 2개로 매우 적은 분포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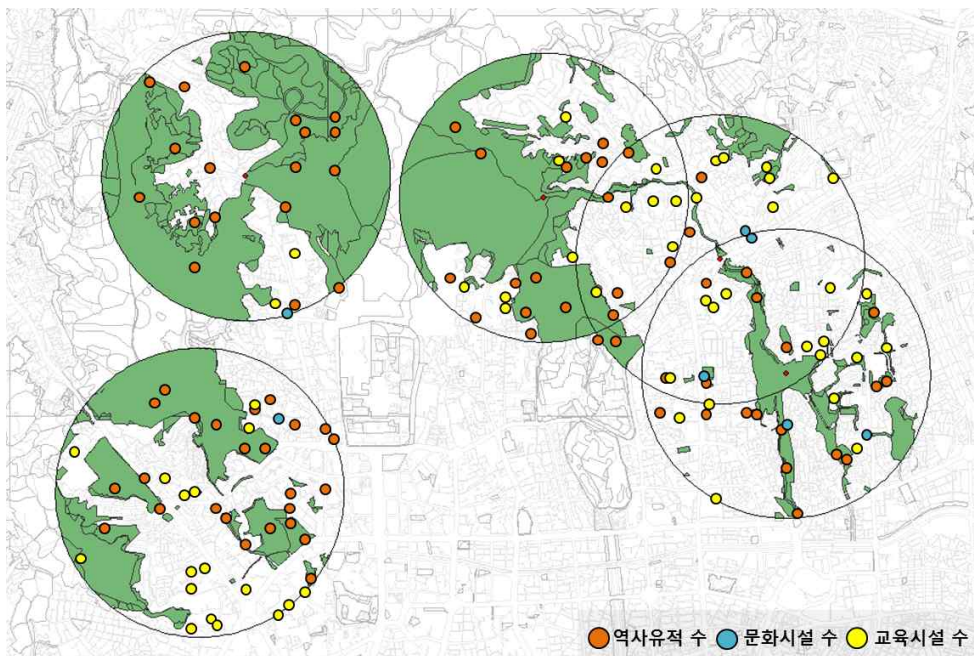


그림 3-3 구간별 역사유적·건물(C), 문화시설(D), 교육시설(E) 분포

표 3-5 구간별 역사유적·건물

구간	국가지정문화재구역	등록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 미관지구	전통사찰 보존구역	기타 문화재 구역	역사 공원
1	8	1	7	1	4		
구간	문화재지정구역 2	등록문화재 제230호	창경궁 2	성북동길	전통사찰		
개수	정원업터	서울혜화동성	문화재보호구역 5	보존구역	3		
명칭	이화장			감로암			
	구서울대학교본관						
	사적제279호						
	-구공업전습소본						
	사적제237호-함춘원						
	사적제248호-대한의원						
2	6	3	9	1	0		
구간	문화재지정구역 3	등록문화재 제230호	창경궁 2	성북동길			
개수	사적제143호-서울문묘	서울혜화동성	문화재보호구역 5				
명칭	일	등록문화재 제357호	천연기념물제8호				
	사적제122호-창덕	-장면가옥	-서울 재동 백송				
	사적제123호-창경	등록문화재 제83호	천연기념물제225호				
		-창경궁 대운	-서울삼청동 측백				
3	8	4	15	2	0		
구간	문화재지정구역 2	등록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13	역사문화			
개수	사적제122호-창덕	등록문화재 제357호	-창덕궁	미관지구			
명칭	사적제122호-창경	-장면가옥	천연기념물제225호	성북도길			
	사적제143호-서울문묘	등록문화재 제84호	-서울삼청동 측백				
	사적제283호-중앙고등	-원서동 교회동가					
	학교동	등록문화재 제83호					
	사적제282호-중앙고등	-창경궁 대운					
	학교서						
	사적제281호-중앙고등						
	학교본						
4	10	0	6	1	0		
구간	국가지정문화재구역 7		문화재보호구역 6	참의문			
개수	명승제36호-서울 부암			자하문길			
명칭	도 백성도천			세검정길			
	서울 백악산 일원			정릉길			
	사적제149호-육상						
5	7	4	10	9	0	5	1
구간	국가지정문화재구역 3	등록문화재구역 1	문화재보호구역 7	역사문화		기타	경희궁
개수	사적제465호-서울경교	등록문화재 제171호	원지동 석불 입상	미관지구		문화재	
명칭	사적제271호-경희궁	-이상범가옥 및 화	및 석탑	5			
	사적제121호-서울사직	등록문화재 제93호	효령대군이보묘역	자하문길			
	인왕산 국사당	-배화여고 생활	광통관	사직로			
		등록문화재 제90호		의주로			
		-홍파동홍난파가옥		성산로			

표 3-6 구간별 문화시설

구분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종합시설	기타
1구간 (개수/명칭)					2
	마로니에 (문화공원)				기타문화시설 2
2구간 (개수/명칭)					1
	마로니에 (문화공원)				기타문화시설
3구간 (개수/명칭)					
4구간 (개수/명칭)					1
					기타문화시설
5구간 (개수/명칭)					1
					기타문화시설

표 3-7 구간별 교육시설

구분	유치원	초	중	고	전문대/대학	농아학교	특수학교
1구간 (개수/ 명칭)	0	5	3	3	5	0	0
		서울삼성초 동신초 창신초 효제초	한성여자중 동성중 중학교	한성여자고 동성고 경동고	대학 3 카톨릭신학대 방송통신대		
2구간 (개수/ 명칭)	0	4	6	9	5	0	0
		학교(기타학교 시설) 창원초 성북초 서울삼선초	동구여중 홍익중 동성중 한성여중 경신중 삼선중학교	동구여고 홍익고 동성고 한성여고 경동고 경신고 혜화여고 서울과학고 학교	대학 2 카톨릭신학대 방송통신대 성균관대		
3구간 (개수/ 명칭)	0	5	1	5	3	0	1
		초등학교 성북초 창원초 학교(기타학교 시설)	중	고2 혜화여고 서울과학고 경신고	성균관대 동방대 원대학교 단설대		특수학교
4구간 (개수/ 명칭)	0	0	0	1	0	1	0
				경기상업고		선희농아학교	
5구간 (개수/ 명칭)	0	3	4	4	4	0	0
		매동초 독립문초 금화초	대신중고 중 동명여중 창덕여중	대신고 고 한성과학고 이화여고	감리교신학대 학교2 적십자간호대 배화여대		

4. 성곽 진입부 현황

성곽 진입부 생활가로(F)는 낙산공원(1구간), 혜화문(2구간), 창의문(4구간) 인근에 형성되어 있다. 즉 낙산공원 주변에는 외곽의 상업중심지인 동대문패션타운 및 대학로에서 주거지로 향하는 접근로에 생활가로는 형성되어 있다. 간선가로에 면해있는 혜화문 주변과 창의문 주변에도 생활가로는 형성되어 있다. 북악산과 인왕산 사이에 입지한 창의문 주변의 생활가로는 창의문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부암동 주거지 내부까지 이르며, 갤러리, 식당, 카페 등이 입지해 있다. 그 밖에 2구간에는 성북로 및 혜화로에 갤러리와 식당이 다수 입지하며 주거지를 보완하는 근린생활시설과 혼합되어 있다.

와룡공원(3구간)과 종로문화센터(5구간) 인근에는 생활가로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 3구간 내에는 북촌로 및 계동길에 고급식당, 갤러리 등 상업용도 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생활가로는 형성되어 있다고 봐야 하나, 성곽진입부인 와룡공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하지만 와룡공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3구간 내 생활가로, 그중에서 특히 계동길의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관련성은 찾을 수 있다. 주로 인왕산 등산로의 시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5구간의 종로문화체육센터 진입부 인근에는 사직로에서 진입부로 이르는 거리가 짧으며, 사직터널로 인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생활가로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

성곽 진입부 대중교통-마을버스 제외- 연결여부(G)는 2구간(혜화문)과 4구간(창의문)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구간에도 마을버스는 입지해 있으나, 이는 성곽 진입부가 지하철, 버스 등 1차 대중교통지점과 상당한 거리에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즉 대중교통지점으로부터의 거리는 3구간이 가장 멀고, 1구간과 5구간의 순이다.

2구간의 진입부인 혜화문은 왕복8차선 간선가로인 창경궁로에 면해 버스노선이 인근에 많이 있으며,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삼선교)와는 인접해 있고 4호선 혜화역과는 보행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 4구간의 진입부인 창의문은 왕복4차로인 창의문로에 면해 있어 도심과 연결하는 버스 노선이 입지해 있다.

제3절 성곽-근린환경 관계의 분석

제3절은 “성곽 중심성(wall centrality)”을 성곽-근린환경 관계의 측정 지표(indicator)로서 사용하며, 측정된 성곽과 근린환경간의 공간적 연관성(spatial relationship)은 주어진 근린환경 범위가 성곽의 영향권으로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를 설명한다. 중심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척도 중에, 본 연구에서는 근린환경 내 성곽의 중심성을 측정하는 4개의 척도를 사용한다: 1)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2)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3)지리적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하는 지리적 중심성(geographical centrality), 4)근린환경의 주요 장소로서 성곽의 인지중심성(perceptual centrality). (표 3-8)

■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

이 두 개의 척도는 성곽의 중심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구조적으로는 같은 척도이지만 공간과 경로에 대한 이해에 차이를 보인다.

표 3-8 성곽의 중심성 변수

변수	정의
객관적 중심성 Objective Centrality	
근접중심성	<p>구역 내 모든 노드에서 성곽진입구(i)에 이르는 최단거리 합의 역수</p> $C_i = \frac{1}{\sum_{j \in G, j \neq i} d_{ij}}$
매개중심성	<p>구역 내 성곽진입구(i)를 지나는 최단경로의 비율</p> $C_i = \sum_{j, k \in G, j \neq k \neq i} \frac{n_{jk}(i)}{n_{jk}}$
지리적중심성 (km)	성곽 진입부에서 구역 내 지리적 중심지(공공·문화·교육시설 등)로 이르는 거리
주관적 중심성 Subjective Centrality	
인지중심성-거주자 (%)	성곽 진입부를 근린환경 내 주요지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주자 비율 (설문조사 질문)
인지중심성-방문객 (%)	성곽 진입부를 근린환경 내 주요지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방문객 비율 (설문조사 질문)

성곽 노드(진입부)의 근접중심성 값이 높다는 것은 다른 노드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짧은 거리로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곽 노드(진입부)의 매개중심성 값이 더 높다는 것은 구간별 성곽 진입부가 더 많은 최단경로 상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측정을 위하여 ArcGIS 9.3과 Microsoft Access 2007을 사용하였다.

■ 지리적중심성

성곽의 중심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다른 척도로서, 지리적 중심지로부터의 직선거리(airline)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성곽이 성곽 주변 근린환경의 지리적 중심으로부터 얼마만큼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근린환경 내 지리적 중심들로는 제3장 2절에서 분석한 역사, 교육, 문화시설 등을 활용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GIS를 사용하였다.

■ 인지중심성

인지중심성 값이 높다는 것은 커뮤니티에 소속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성곽 진입부를 중요한 장소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개념은 배우의 네트워크 중심성을 사회적 영향력을 통하여 측정할 수 있다는 이론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네트워크 관점에서 인지중심성은 근린환경에서 성곽의 사회적 역할을 반영한다. 즉 가로 네트워크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행사한다.

인지중심성의 측정은 거주자·방문객 각각에 대하여 “성곽의 주요 장소”를 질문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된다.

1. 성곽 중심성 지표의 차이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지리적중심성, 인식중심성 등 4개의 중심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중심성 지표의 기술통계분석과 GIS를 사용한 맵핑을 시행하였다.

근접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성곽 구간 내 모든 건물(노드)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짧은 거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근린환경

⁴⁾ Friedkin, N. E. 1991. Theoretical foundations for centrality measur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6, No. 6, pp.1478-1504.

내 거주자의 접근성을 대신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매개중심성이 높다는 의미는 성곽 진입부가 더 많은 최단경로 상에 위치한다는 의미이다. 즉 이동시 최단거리를 선호하는 방문객의 외부로부터의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곽 진입부가 더 넓은 간선도로에 면해 있는 경우에 매개중심성이 다른 구간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지리적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성곽 진입부가 구간 내 지리적 중심지-역사, 문화, 교육, 공공시설 등-로부터의 직선거리가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중심성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거주자·방문객 각각에 대하여 성곽의 주요 장소를 지목하게 하여 산출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거주자의 인지중심성이 방문객의 인지중심성보다 약 3.3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곽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성곽의 영향이 방문객보다 거주자에게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2. 성곽 구간별 평균값의 차이

구간별 성곽-근린환경 관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성곽 구간별 중심성 지표의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표 3-10)

전반적으로 볼 때, 1구간이 근접중심성과 인지중심성이 강한 것으로 나왔으며 3구간이 매개중심성과 인지중심성이 낮게 나왔다. 또 매개중심성과 인지중심성(방문객)의 경우 유사한 중심성 결과를 보였다.

표 3-9 성곽-근린환경 관계 기술통계분석

변수	정의	샘플 크기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성곽진입부의 공간중심성 지표	5	0.064	0.063	0.011	0.150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성곽진입부의 공간중심성 지표	5	0.001	0.001	0.000	0.001
지리적중심성(geographical centrality)	지리적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5	0.630	0.048	0.574	0.679
인지중심성(perceived centrality)_거주자	성곽 진입부 인식 (구간 내 성곽 주요장소)	5	0.395	0.189	0.173	0.645
인지중심성(perceived centrality)_방문객	성곽 진입부 인식 (구간 내 성곽 주요장소)	5	0.121	0.084	0.063	0.267

표 3-10 구간별 성곽-근린환경 관계

변수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0.011	0.150	0.022	0.113	0.024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0.0012	0.0017	0.0000	0.0015	0.0008
지리적중심성(geographical centrality)	0.679	0.633	0.675	0.574	0.589
인지중심성(perceived centrality)_거주자	0.645	0.173	0.246	0.426	0.486
인지중심성(perceived centrality)_방문객	0.267	0.104	0.063	0.107	0.064

구간별로 4개의 중심성 각각 해석해 본다.

근접중심성의 경우 1구간-3구간-5구간-4구간-2구간 순으로 나왔다. 1, 3구간의 순으로 성곽 구간 내 모든 건물(노드)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짧은 거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근린환경 내 거주자의 접근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 4구간의 경우 성곽 진입부인 혜화문과 창의문이 간선도로에 면해 있으므로 근린환경 내부에서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1구간의 경우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는 2, 3순위인 3구간과 5구간에 비해 약 2배의 결과를 보이며, 3구간과 5구간은 4, 5순위인 4구간과 2구간에 비해 약 5.5배와 7배의 수치를 나타낸다.

매개중심성은 2구간-4구간-1구간-5구간-3구간 순으로 나왔다. 2, 4구간의 순으로 성곽 진입부가 더 많은 최단경로 상에 위치한다는 의미이다. 혜화문(2구간)과 창의문(4구간)의 경우 간선도로에 면해 있으므로 중간중심성이 다른 구간보다 높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최단경로 상에 더 많이 위치하므로 외부에서 성곽 진입부를 향하여 최단경로로 접근하는 방문객의 경우 접근성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2구간의 경우 2, 3, 4순위인 4구간, 1구간, 5구간에 비해 약 1.13배, 1.42배, 2.13배를 나타낸다. 5순위인 3구간은 중간중심성의 수치가 미미하여 기술통계 상 나타나지 않았는데, 3구간의 성곽 진입구인 와룡공원은 성곽이 입지한 북악산 등산로의 입구이자 서울전망이 좋은 입지이며 주변 근린환경의 도로체계와 유리되어 있어 최단경로를 논하기 어려운 것으로 매개중심성의 지표를 해석할 수 있다.

지리적중심성은 성곽 진입부가 구간 내 지리적 중심지-역사, 문화,

교육, 공공시설 등-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짧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4구간-5구간-2구간-3구간-1구간 순으로 나왔다. 지리적중심성의 순위는 근접중심성이나 중간중심성과 어떤 상관관계도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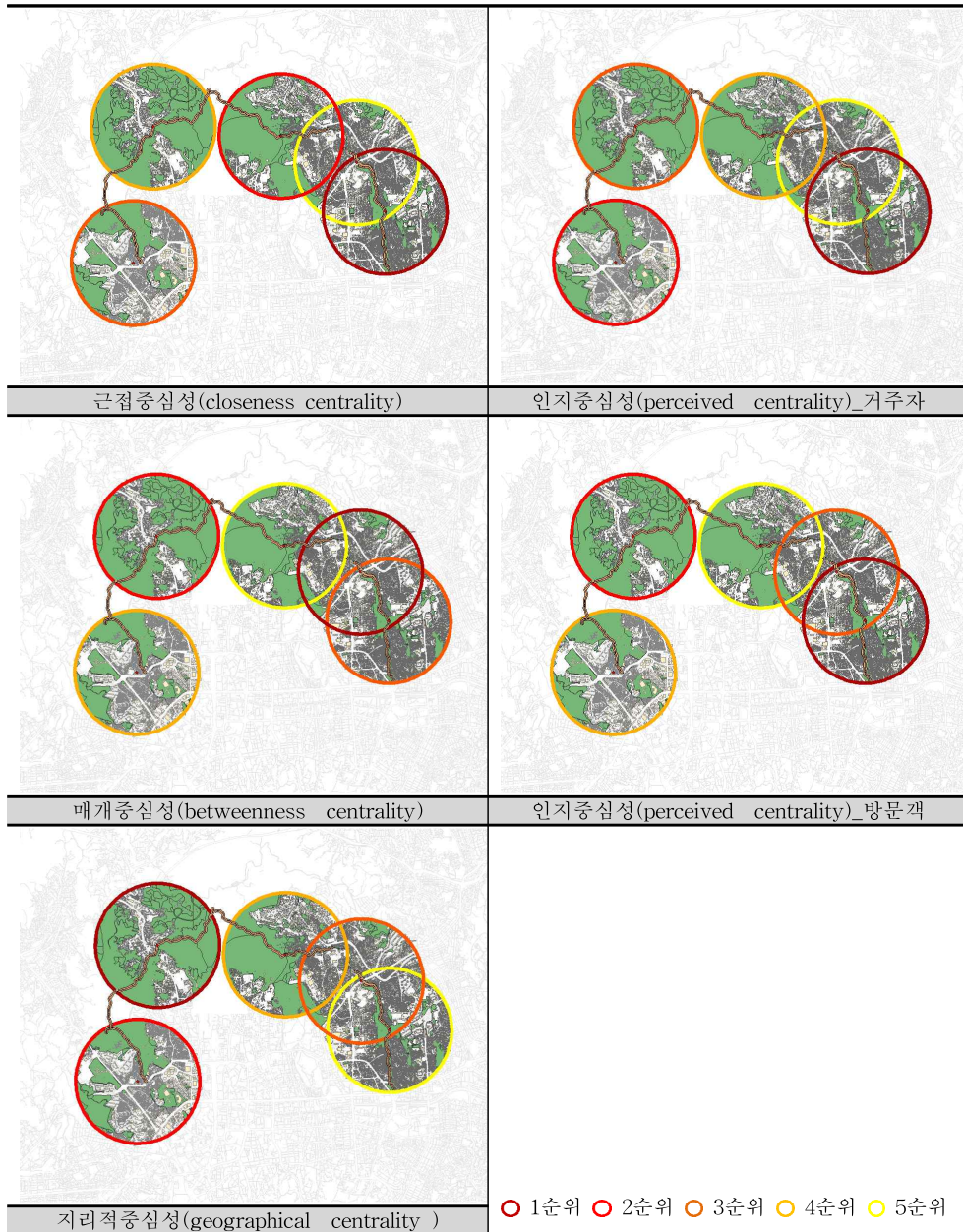
인지중심성의 경우 설문조사를 통하여 거주자·방문객 각각에 대하여 구간 내 성곽의 주요장소를 지목하게 하여 산출된 것이다. 커뮤니티에 소속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성곽 진입부를 중요한 장소로 간주하는 지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근린환경에서 성곽의 사회적 역할을 알 수 있는 대리 지표라고도 볼 수 있다. 즉 가로 네트워크가 사회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거주자·방문객의 인지중심성을 각각 산출했다. 거주자는 1구간-5구간-4구간-3구간-2구간 순이며 방문객은 1구간-4구간-2구간-5구간-3구간 순으로, 1구간(낙산공원)의 인지중심성은 거주자, 방문객 모두에서 1순위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3구간(와룡공원)의 인지중심성은 거주자, 방문객 모두에서 대체로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2구간(혜화문)은 거주자의 인지중심성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근린환경의 끝단부에 입지한 이유도 있으나 혜화문에서 와룡공원에 이르는 성곽 구간에 암문이 형성되어 있어 평소 성곽 산책에 활용하고 있는 행태특성에도 이유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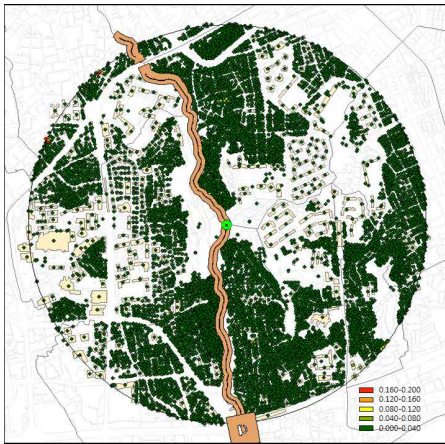
4개의 중심성 지표를 GIS를 사용하여 맵핑하였다. 인지중심성의 경우는 거주자와 방문객 각각에 대하여 구분하여 도해하였다. (표 3-11) 색이 진할수록 중심성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맵핑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근접중심성과 거주자의 인지중심성 사이에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근접중심성과 거주자의 인지중심성은 3구간(와룡공원)의 경우만 차이를 보이는데 근린환경에서 거주자의 접근성이 비교적 높는데-근접중심성이 2순위- 반하여 거주자의 인지중심성은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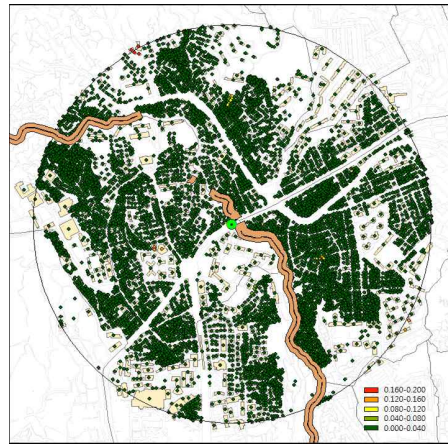
또한 매개중심성과 방문객의 인지중심성 간에도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매개중심성과 방문객의 인지중심성의 하위 그룹은 같으며, 방문객의 인지중심성에서 1순위인 1구간(낙산공원)이 매개중심성에서는 3순위인 것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외부에서 접근성은 떨어지나 상대적으로 대외적인 인지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1 성곽-근린환경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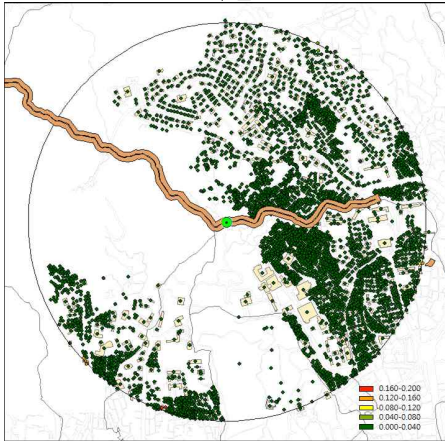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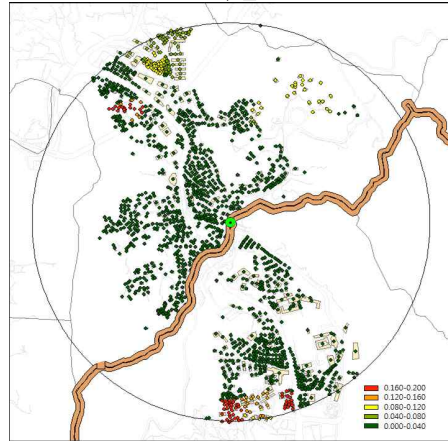
< 1구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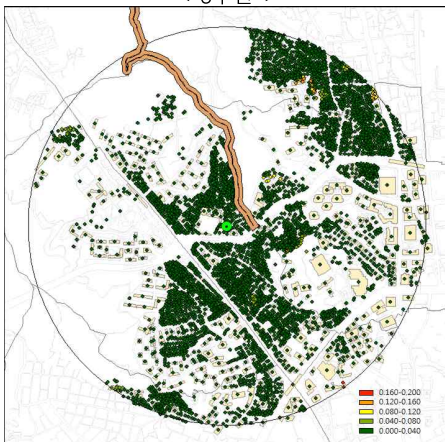
< 2구간 >



< 3구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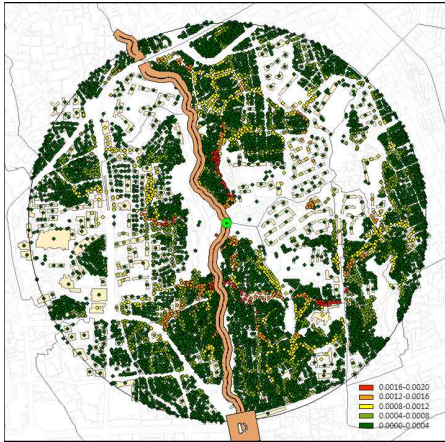


< 4구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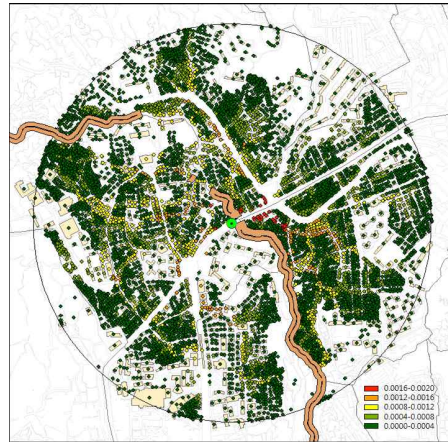


< 5구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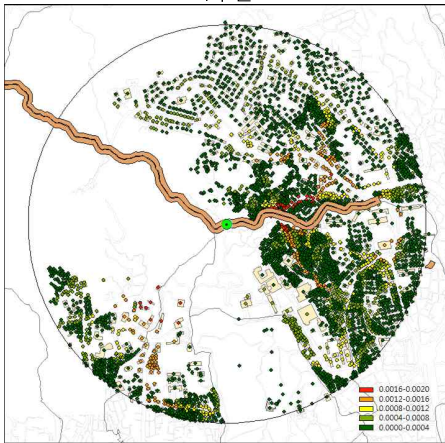
그림 3-4 구간별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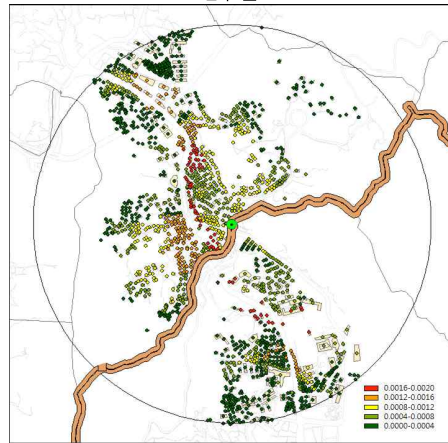
< 1구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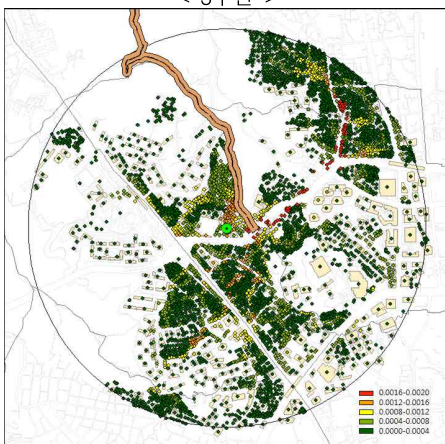
< 2구간 >



< 3구간 >



< 4구간 >



< 5구간 >

그림 3-5 구간별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제4절 구간별 특성 분석

제4절에서는 서울성곽과 주변부 5개 구간의 주요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 성곽 접근동선, 성곽 방문객 수, 심층인터뷰를 통한 최근 변화 및 성곽의 이용에 대한 인식, 주거지 현황 등을 분석한다.

앞서 2,3절에서 물리적 환경요인 및 성곽-근린환경 관계를 분석한 내용에 더하여 맵핑을 통한 물리환경 분석, 문헌조사, 관찰조사⁵⁾, 심층인터뷰를 통한 거주자·방문객 이용행태 분석 등을 통하여 서울성곽과 주변부의 구간별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1. 1구간 (홍인지문~혜화문)

낙산 정상부에서 혜화문까지 서울성곽을 따라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1996년부터 시작하여 2000년 11월 개방된 낙산공원에는 성곽 외측에 인접해 있던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함으로써 접근로 및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내사산 중 하나인 낙산은 인왕산·북악산·남산처럼 험준한 산이 아니며, 내측 공간에는 근린공원이 외측의 얇은 구릉지형에는 주택이 고밀로 형성되어 있다. 성곽에서 내려다보이는 주변지역에 수목이나 고층건물이 없어 1구간의 성곽은 서울시내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조망점이기도 하다. 같은 이유로 외부에서 성곽 및 주변 구릉 주거지에 대한 시인성 또한 양호하다.

본 연구에서 1구간은 왕산로에 인하여 서울성곽이 단절된 홍인지문 인근에서 시작된다. 또한 1구간의 종점이자 2구간의 시점인 혜화문도 창경궁로에 의해 단절되어 있어 성곽길을 연속적으로 경험하기에 어려움이 크다.

낙산공원에서는 서울 도심의 시가지 전경과 남산·북악산의 자연경관 외에도 인접한 창경궁·창덕궁 등 역사경관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으며, 낙산공원 개발 당시 세워진 낙산전시관 등 역사탐방시설도 갖추고 있다. 이용행태 측면에서, 다른 구간들이 등산을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반면, 1구간은 인근의 직장인과 방문객들이 산책 및 성곽답사를 위하여

⁵⁾ 2012년 10-11월 중 주말 2회, 주중 2회 오전8시~오후6시 사이에 관찰조사를 실시하였다.

찾고 있다. 또한 동대문 패션타운, 대학로 등 주변의 명소와 함께 방문하는 등 이용행태의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학여행이나 외국여행객의 집단방문도 이루어지고 있다.

창신동, 이화동, 혜화동, 삼선동 등 성곽 주변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었고, 뉴타운-2013년 해제-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어 물리적 환경개선을 요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많은 거주자들이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일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낙산공원이 거주환경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주요시설 분석

성곽 1구간의 주요 접근은 대학로 및 홍인지문 인근에서 이루어진다.

대학로는 카페, 음식점, 문화시설, 방송통신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등 다양한 기능과 어메니티를 갖는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다. 홍인지문에서 접근하는 동선 주변에는 주거지-창신2동, 이화동-가 밀집되어 있고, 왕산로변 노선상업지역에는 오래된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2) 성곽 접근동선 분석

성곽으로 향하는 접근동선은 성곽길 외에도 수없이 많은데 성곽 주변



그림 3-6 1구간 현황사진

주거지를 관통하는 골목길이 성곽길과 연결되어 있어 주거지에서 접근성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접근로는 두 곳을 들 수 있는데, 왕산로에서 성곽길을 따라 이동하는 동선과 혜화역에서 대학로를 관통하여 접근하는 동선이다. 성곽 주변에는 지하철-동대문역, 혜화역, 창신역, 한성대 입구역-과 버스 등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는데, 낙산공원까지 마을버스-3번-로도 접근할 수 있다. 1호선 종로5가역, 4호선 동대문역과 6호선 창신역 및 승인동을 지나 낙산 정상에 중점이 있어 보행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노약자의 접근도 가능하다.

혜화역 및 방승통신대에서 낙산공원까지의 보행시간은 모두 약 15분이 소요되며, 홍인지문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성곽길 초입까지는 약 5분이 소요된다.

(3) 성곽 방문객 수 분석

관찰조사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주중보다 주말에 방문객이 많았다.



그림 3-8 1구간 성곽 접근동선

주말 오후에는 시간당 30~50명이 방문하였고, 특히 1~2시 사이에는 시간당 50명 이상으로 방문객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에는 시간당 평균 약 10명이 방문하여 주말보다 적었지만, 09~17시사이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였다. 점심시간에는 인근 직장인들의 산책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이 많아 시간당 50명 정도가 방문하였다.

2012년 11월 18일 목요일 오후에는 충주여자고등학교에서 답사와 낙산공원 일대가 거의 꽉 찰 정도로 방문객이 많았다. 성곽이 서울을 방문하는 수학여행 대상지로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심층인터뷰 내용 분석

① 1구간 성곽 및 주요시설 변화에 대한 방문객의 인식

낙산공원 조성으로 성곽 복원과 성곽길 조성이 완료된 이후, 더 이상의 변화는 없었다. 다만 대학로의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을 이용한 방문객이 낙산공원을 함께 방문하는 행태가 많음으로 인하여, 대학로가 활성화되는 등 변화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② 성곽의 이용

성곽 위에 올라 앉아 있거나 맥주를 마시는 등 방문객의 역사의식이 부족하다는 거주자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성곽 방문객이나 성곽에 관심이 많은 거주자 대부분이 혜화문(2구간) 구간의 성곽 단절 구간을 지적하며 성곽답사의 맥이 끊긴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향후 관리를 위한 시사점으로 판단된다.

(5) 주거지 현황

성곽 내외부에 위치한 주거지를 행정동 별로 분석하였다.

① 창신동 (1구간-外)

창신동은 성곽 바깥 마을로 성곽과 옹벽으로 분리된 마을이다. 빌라 및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으로 성곽 인접구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지가 다수 분포해 있다.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고 있으며 봉제업 등 도심산업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창신·승인 뉴타운 구역에 포함되었다가 최근 해제되었다. 창신·승인 구역은 왕산로 변 일반상업지역 외에는 1,2,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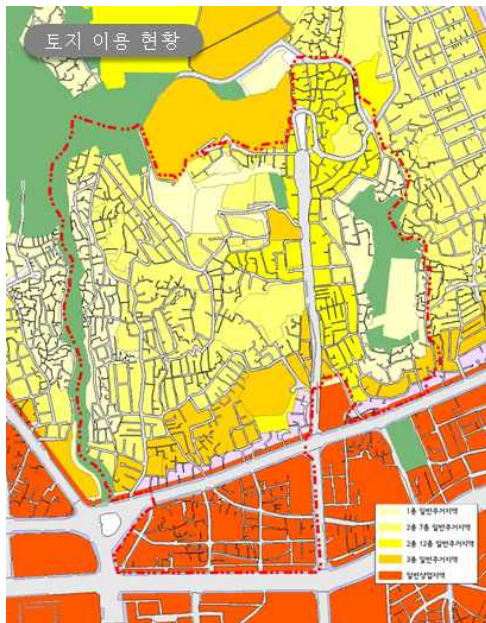


그림 3-9 창신·승인 토지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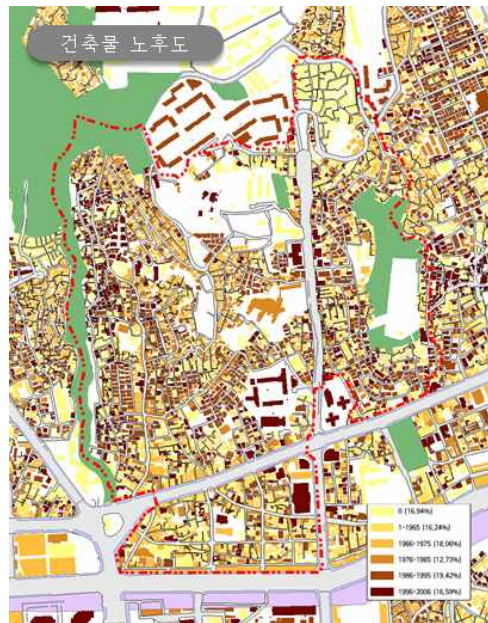


그림 3-10 창신·승인 노후도

성곽주변지역에 최근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자율갱신이 일어났던 지역이다. 주거지내 다수의 봉제공장·시장 등이 입지하여 실제로는 복합용도지역으로 볼 수 있다.

② 삼선3,6구역 (1구간-外)

자연발생된 주거지로 성곽 바깥에 위치한 마을이다. 1-2층 정도의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오래된 주거지로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들도 다수 분포해 있다.

③ 삼선4구역(장수마을, 1구간-外)

성곽 바깥 마을이며 자연발생적 주거지로서 거주기간이 긴 거주자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삼선3,6구역과 마찬가지로 1-2층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재개발구역이 해제되었고 ‘마을만들기’ 방식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 중이다.

④ 충신1구역 (1구간-內)

성곽 안쪽에 위치한 마을로 자연발생적 주거지이다. 1-2층 정도의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오래된 주거지로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들도 다수 분포해 있다.

⑤ 이화동 및 종로5,6가동

성곽 안쪽에 위치한 이화동은 토막민⁶⁾이 처음 자리 잡았던 곳으로 지금도 서울시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달동네이다. 이 지역에 위치한 서울성곽은 1980년대에 대부분 정비되었다.

이화동·종로5,6가동에는 경사지에 낙후된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고 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화1구역에는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성곽과는 1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1-2층의 노후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다. 1차선 도로는 성곽과 인접하여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생활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주차차량과 건물진입로, 쓰레기봉투 등 성곽경관 및 성곽으로의 진입을 저해하는 환경적 요소가 산재해 있다. 또한 인접한 건물들의 높이가 성곽보다 높아, 주거지 내측에서 성곽을 조망하기에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6) 토막민은 일제강점기 농사지를 땅을 빼앗기고 상경하여 도시지역의 일용직노동자 또는 공사장 인부가 된 빈민계층을 의미하며, 이들은 성곽주변 경사지에 일정한 깊이로 땅을 파고 그 위에 거적 또는 짚을 덮어 겨우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 만든 가설에서 생활하였다.

2. 2구간 (혜화문~와룡공원)

2구간은 혜화문에서 시작하여 와룡공원에 이르는 구간이다. 혜화문 인근 성곽구간이 창경궁로에 의해 낙산구간과 단절되어 있어 성곽루트를 연속적으로 형성하기에 어려운 현황이다. 혜화문에서 출발한 성곽길은 성곽답사 외에 북악산과 인왕산 등산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2구간에는 성곽방문 외에도 주변부에 형성된 식당가를 이용한 방문객들이 연계하여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식당 외에 갤러리 등 작은 문화시설도 많아 연계이용행태가 나타나고 있었다.

서울성곽으로의 접근은 성북동 인근의 골목길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성곽과 바로 인접한 주택들 때문에 성곽으로의 접근이 불편한 상황이다. 그러나 성곽 본래의 원형이 많이 남아 있고, 지형 상 성곽이 S자 형태로 축성되어 있는 등 생동감 있는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굴곡진 성곽 외벽을 넓게 위요하는 공원도 조성되어 있으며, 주거지역이 성곽과 인접하여 형성되어 있다.

(1) 주요시설 분석

혜화문을 통한 성곽방문은 대중교통접근성이 좋은 점에서 활성화되어 있으나 인근에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식료품점 등 시설이 거의 없어 방문객의 불편을 사고 있다. 간송미술관 인근에는 기사식당, 고급 음식점 등 식당가가 형성되어 있다. 식당을 찾은 방문객들이 또한 성곽길을 산책삼아 거닐기 때문에 성곽 및 주변의 식당가는 통합적 도심 어메니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11 2구간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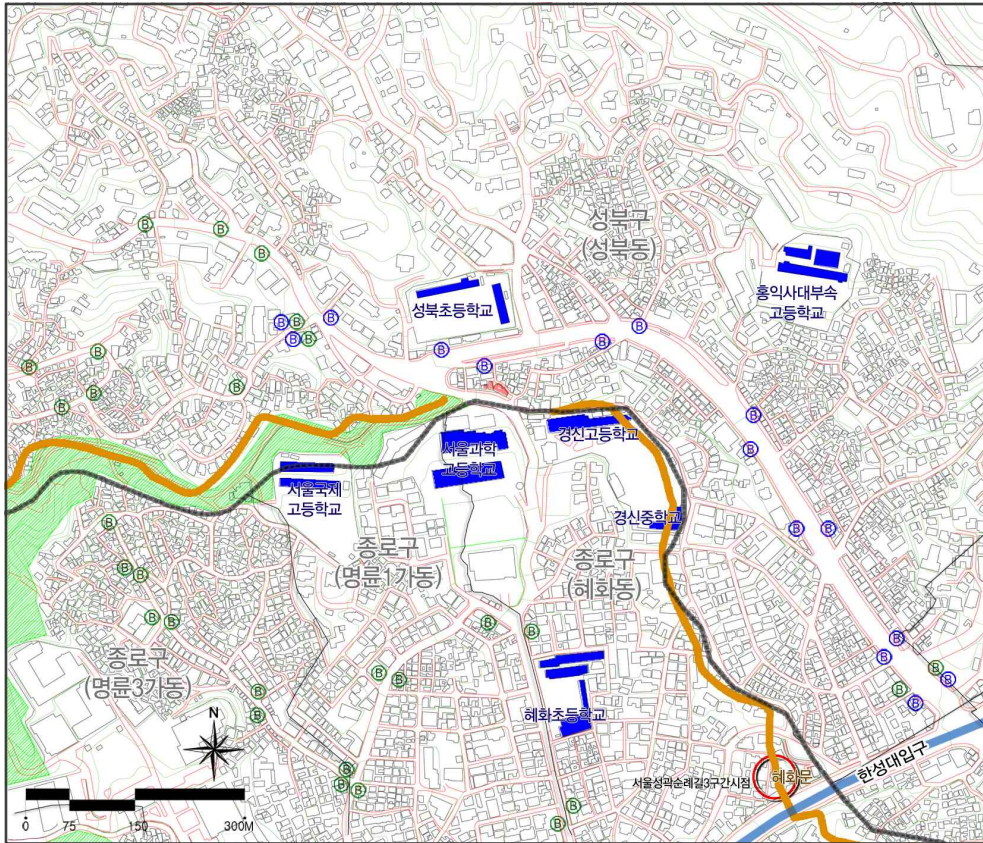


그림 3-12 2구간 현황도면

성곽 주변부에는 거의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인근에 서울과학고, 서울국제고, 경신고, 혜화초고 등이 위치하여 교육환경이 좋은 편이다.

(2) 성곽 접근동선 분석

2구간의 성곽 진입부는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혜화문을 포함하여 총 5개이다. 혜화문은 성곽의 모든 진입부 중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가장 탁월한 곳이다. 성북초교 앞 진입부는 주변 식당가가 유명하며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환경이 양호한 상태이므로 연계이용행태가 많이 나타나 방문객이 많은 편이다. 나머지 성곽 진입부들은 주거지 사이 골목길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5개 진입부 모두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접

많았는데, 이는 목적지 도달 후 모임을 할 식당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4) 심층인터뷰 내용 분석

① 2구간 성곽 및 주요시설 변화에 대한 방문객의 인식

성곽 복원 및 성곽길 개방으로 인해 주변 시설이 변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부 주변 시설로는 식당가-기사식당, 다양한 메뉴의 식당 다수-와 학교-고교 3개-를 들 수 있다.

② 성곽의 이용

2구간 진입부 중에 성북초교 인근은 평소 식당가로 유명하여 식당을 이용한 후 성곽산책과 연계한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성곽 진입부에 위치한 소공원을 산책하거나 주변 산악경관을 감상하는 등 방문객들에게 성곽이 자연환경과의 연계지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구간은 북악산 및 인왕산 구간으로 이어져 3구간, 4구간, 5구간 모두를 연결하여 답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등산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은 모든 구간 중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 대중교통지점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점은 성곽답사 및 등산의 출발지로 2구간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이다. 방문객들에 비해 거주자의 생활공간에서 자연환경과의 연계지점인 성곽으로의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응답이 많아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시사점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2구간 주거지 현황

2구간의 주거지는 구릉지에 형성되어 있으나 단독주택이 많아 지형의 변화는 거의 없는 편이다. 성곽 안팎에는 공원·녹지가 거의 없는 열악한 구릉지 주거가 고밀로 형성되어 있고, 성북로 및 혜화로에 갤러리와 식당이 다수 입지해 있다. 식당가 외에도 3개 고등학교가 주거지와 어우러져 있고, 경관적 측면으로는 북악산 경관을 원경으로 하는 좋은 근린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2구간에는 주택이 성곽에 바로 인접해 있어 성곽경관을 가리고 있는 구간이 있으며 성곽복원도 완성되지 않아 주택이 성곽위에 지어져 있는

등 향후 성곽 복원을 통한 변화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① 혜화문 북측마을(앵두마을 등, 2구간-外)

성곽의 바깥에 위치한 마을로 자연발생적 주거지이다. 1-2층의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최근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었다.

② 성북동 (2구간-外)

성북동 일대의 성곽 주변부는 조선시대부터 하층계급의 집단거주지역이었다. 백정과 갓바치 등이 거주했던 것 외에, 선잠단이 설치되어 있어 왕비가 직접 누에 생산을 위해 기원을 드리기도 하였다.

성북2동은 건축물 노후도가 심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로 현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북정마을이라 불리는 성북2구역은 성곽 외측에 형성된 자연발생적 주거지이다. 1-2층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구역 일부가 성곽에서 100m 이내에 입지하고 있어 행위 제한을 받는다.

③ 명륜동 명륜3가 (2구간-內)

성곽 안쪽에 위치한 마을로 역시 자연발생적 주거지이다. 성곽-마을 사이에 녹지가 형성되어 있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주로 1-2층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다양한 계층-대학생, 직장인 등-이 어우러져 거주하고 있다.

3. 3구간 (와룡공원~북악산 정상)

성곽 3구간은 와룡공원에서 시작하여 말바위를 지나 북악산 정상에 이르는 구간이다. 이어지는 4구간의 북악산 정상~창의문 구간은 3구간과 이어지는 북악산 성곽루트를 형성하고 있다.

와룡공원으로의 접근은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북촌길과 감사원 뒤산길을 통해 접근하는 동선과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성북동길을 지나 접근하는 동선으로 나뉜다. 모두 지하철역에서 마을버스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대중교통지점에서 거리가 멀고 경사진 차도를 따라 이동하여야 하므로 접근성이 다른 구간보다 떨어지는 구간이다.

도심전망이 우수하여 성곽답사, 등산 같은 목적 외에 데이트코스 및 전망대 이용 방문객이 많은 특징을 갖고 있다. 북촌길 주변에 한옥군이 형성되어 있으며, 카페·식당·문화시설 등이 활성화되어 있어 서울성곽의 역사환경에 문화적 성격을 더해주고 있다. 북촌, 가회동 외에도 인근에 위치한 인사동으로부터 연계방문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4 3구간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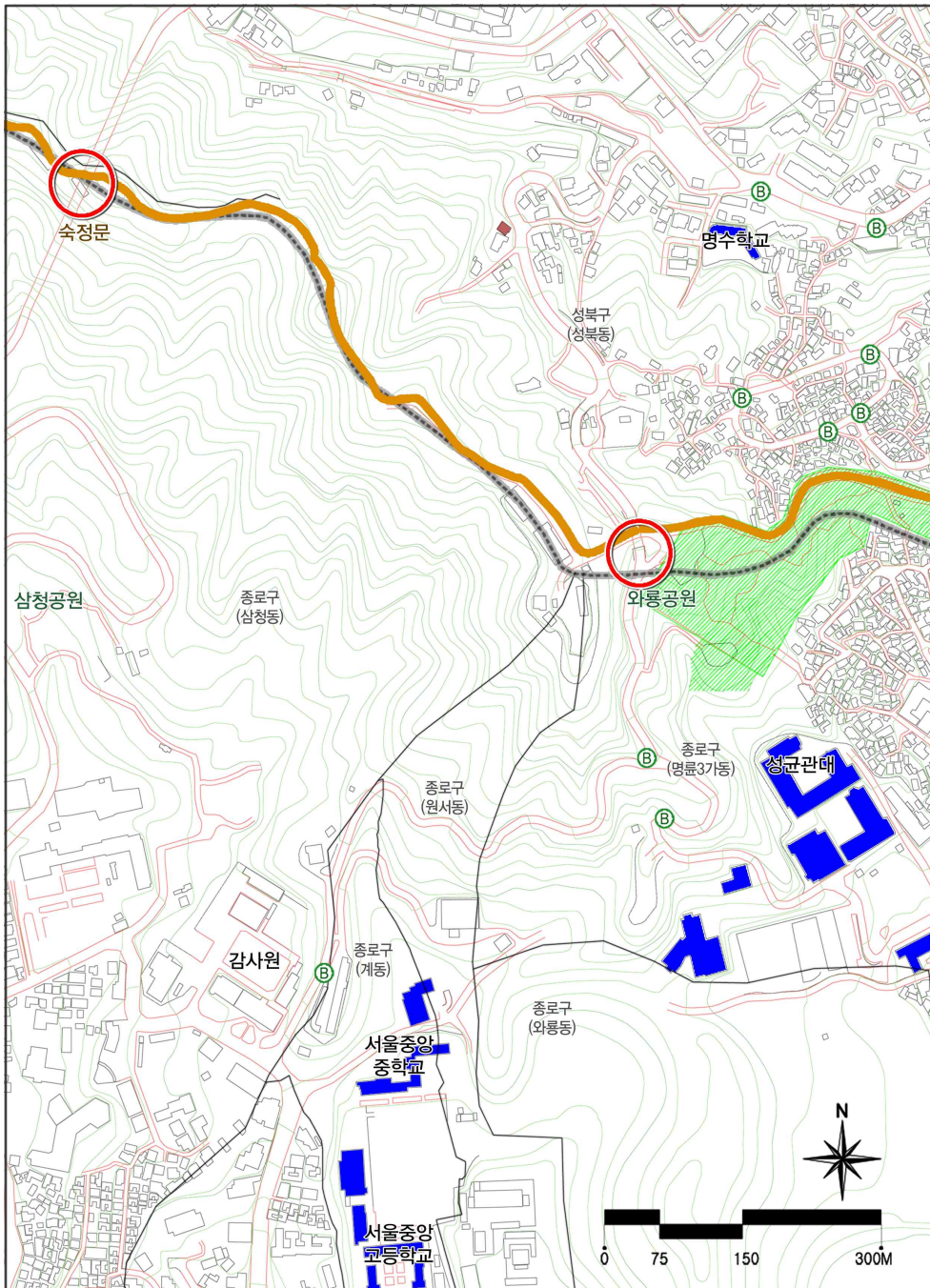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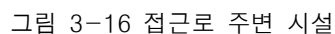


그림 3-15 3구간 현황도면

와룡공원⁷⁾은 2007년 전면 개방된 북악산⁸⁾ 등산로의 진입부이자 서울 도심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포인트로 유명하다. 최근 성곽정비 및 성곽로 개방 등 변화가 많았던 지점으로서 방문객들에게는 변화의 모습이 크게 인지되고 있으며 만족도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와룡공원은 주변과 상당한 거리에 있으며, 주변 편의시설은 북촌로와 계동길 주변 상권과 간송미술관 인근 식당가 정도로 모두 보행으로 20분 이상 떨어져 있다.



8) 북악산 숙정문 권역은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폐쇄되었다가 38년만인 2006년 4월 숙정문과 쫓대마위까지 개방되었고, 2007년 4월 전면 개방되었다. (출처: 시정일보 <http://www.sijung.co.kr> 2010년 3월 9일 (화) 17:10:58 기사. “종로구, 삼청와룡공원 산책로 완료”. 방용식 기자)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감사원을 지나 접근하는 주요 동선으로는 북촌로와 계동길이 있다.

이들 가로 주변에는 다수의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이 입지하고 있다. 특히 계동길은 2007년 성곽길 정비 이후,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여 북촌로 및 계동길에 고급식당, 갤러리 등 상업 및 문화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현상은 상호 행태발생에 있어 시너지를 발생시켜 성곽의 이용행태가 주변 시설의 이용과 상호 연계되어 운동·산책·성곽 답사 외에도 데이트 등 다양한 행태가 창출되고 있다.

(2) 성곽 접근동선 분석

와룡공원으로는 지하철3호선 안국역에서 북촌길과 감사원 뒤 산길을 거치는 동선과 지하철4호선 한성대 입구역에서 성북동길을 지나는 동선으로 접근할 수 있다.

와룡공원에 이르는 동선이 길고 구불구불한 오르막길인 점에서 주변 거주자의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 보행접근성이 다른 구간보다 떨어지는 반면에 마을버스는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와룡공원 바로 아래까지 접근이 가능해 가장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이다.

명륜동에서 보행으로 10분이 걸려 가장 짧고, 명수학교·성균관대 정문에서 15분, 감사원 앞에서 20분, 혜화문에서 30분 등 보행시간이 다른 구간에 비해 긴 편이다.

3구간 접근동선의 특징은 서울성곽 주변부에서의 거리가 가장 멀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지만, 성균관대학교, 북촌 등 주요 시설이 인접해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상업가로와 연계하여 산책하듯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성곽 방문객 수 분석

관찰조사⁹⁾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주중에 3구간을 찾는 방문객 수는 평균 시간당 약 30명, 주말에는 시간당 약 100명으로 주말이 주중보다 약 3.3배 많았다.

주중과 주말의 방문객 수가 크게 다른 이유는 성곽길을 방문한 목적

9) 북악산의 보안문제로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성곽길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그 이후 시간의 방문객 수는 조사하지 않았다.



그림 3-17 3구간 성곽 접근동선

이 답사·산책·등산 등인데 반해, 성곽길의 입장제한시간이 직장인들의 퇴근시간 이전인 오후 3시이기 때문에 주중에는 이들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주변 지역과의 연계이용행태가 많은 이유로 주중보다는 주말에 방문객이 많은 것이다.

3구간에서는 회사의 단체방문이나 대규모 관광객 등 단체로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와룡공원까지 이르는 접근로가 대형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입지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층인터뷰 내용 분석

① 3구간 성곽 및 주요시설 변화에 대한 방문객의 인식

성곽 주변부에서 와룡공원에 이르는 주요 보행축으로 북촌로와 계동길을 들 수 있다. 북촌로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 최근 몇 가게가 편의점 및 슈퍼로 바뀐 것 이외에는 시설 용도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계동길의 경우에는, 성곽 복원 및 성곽길 개통 이후 전체적으로

카페·공방·음식점 등 시설의 밀도가 늘어나 데이트 등을 위한 방문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② 성곽의 이용

와룡공원에 위치한 전망대는 서울 도심을 전망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내국인 외에도 북촌을 답사하던 외국인 개별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다. 3구간을 출발지로 선택한 방문객 중에 북악산과 인왕산 등산을 목적으로 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대중교통접근성이 그리 좋지 않으나 주변 마을을 둘러보며 산책하듯 와룡공원에 이르는 방문객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③ 성곽 사인

성곽으로 향하는 진입로의 길이가 길므로, 안내사인(이하 이정표, signage)이 중요한 반면에 설치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사결과, 성곽 주변부에서 와룡공원에 이르는 사인은 총 9개로, 이정표 7개소와 지도를 포함한 안내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 위치는 그림 3-19에 나타난 것처럼 와룡공원에 집중되어 있어, 주변부에서 성곽 진입로를 알리는 사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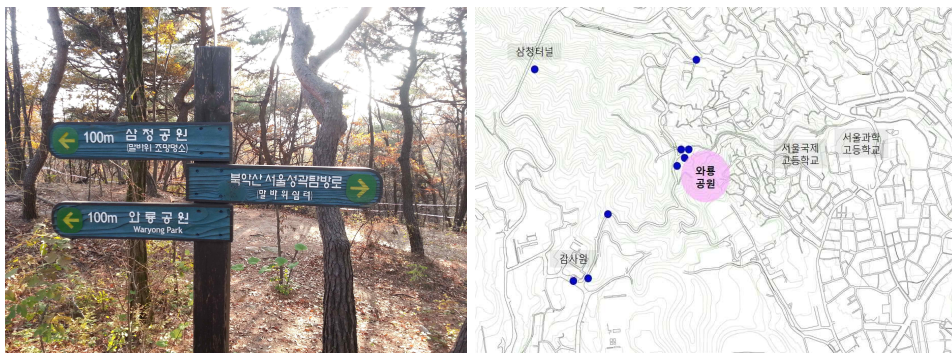


그림 3-18 3구간 이정표 현황사진 및 위치

4. 4구간 (북악산 정상~창의문~인왕산 정상)

4구간은 북악산 정상에서 창의문을 지나 인왕산 정상에 이르는 범위로 설정하였다. 인왕산과 북악산 사이에 위치한 구간으로 성곽 안쪽과 바깥쪽의 경관이 모두 아름답다.

창의문은 원래 자리에 도로가 개설되어 동측으로 이전·복원되었으며 도로 부분의 성곽이 단절되어 있다. 보안의 이유로 오후 3시까지만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 거주민과 방문객 모두의 불만요소이다.

인접한 청와대 및 경복궁 관광코스와 연계하여 단체 관광객들이 버스로 방문하고 있으며, 일반 등산객도 북악산 구간 및 인왕산 구간의 등반을 위해 개인 또는 단체로 다수 방문하고 있다.

성곽 외측 부암동에는 골목길 안쪽에 환기미술관 등 갤러리가 입지해 있으며, 창의문 앞쪽 도로변에는 카페, 식당 등이 최근 5년간 성곽 변화에 따라 다수 입지하였다. 골목길 안쪽에도 갤러리 방문객을 위한 카페 등이 입지하여 매력을 더하고 있다.



그림 3-19 4구간 현황사진

(1) 주요시설 분석

4구간의 유일한 진입부인 창의문 주변은 성곽 안쪽의 청운효자동과 성곽 바깥쪽의 부암동이 위치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경사로를 올라 접근하는 청운효자동 구간에는 북동측으로 북악산이 남서측으로 학교와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고 도로와 레벨차이가 많이 나므로 전혀 접근이 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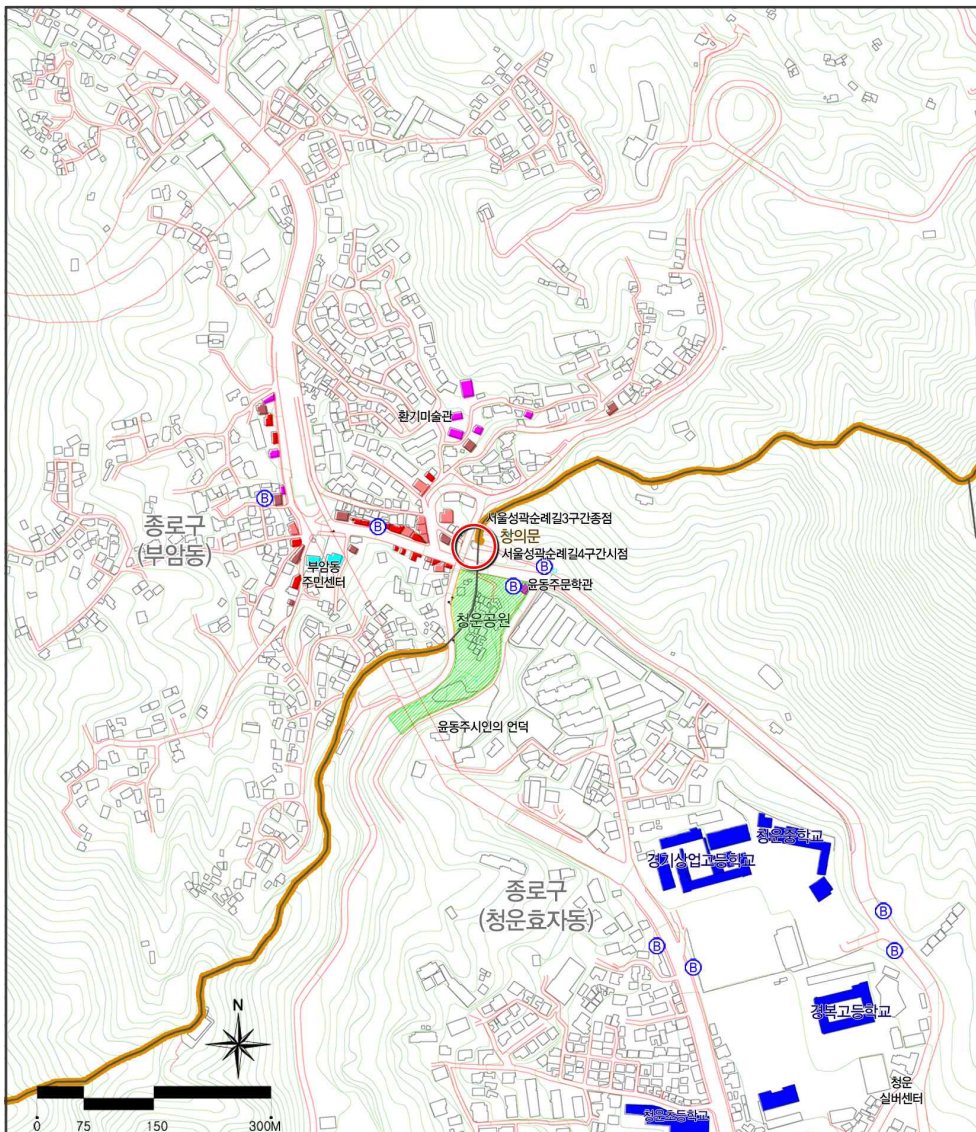


그림 3-20 4구간 현황도면

않는다. 다만 청운공원 남단에 최근 운동주문학관이 생겨 방문객을 유도하고 있다. 창의문에서 자하문터널 상부까지 부암동 구간은 카페, 음식점, 갤러리 등의 시설이 다수 입지하고 있다. 기존에 주거지를 상대하던 근린생활시설들이 새로운 시설로 탈바꿈하는 등 최근 변화가 있어 외관으로 봐서도 그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안쪽 골목길에 환기미술관을 비롯해 갤러리들이 입지하여 골목골목 방문객들을 찾아볼 수 있다.

(2) 성곽 접근동선 분석

4구간으로의 주요 접근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과 불광역, 1호선 종각역에서 버스로 환승하는 동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곽 진입부 중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가장 열악한 편이나 시내에서의 버스 접근성은 무난하다. 또한 창의문이 바로 버스정류장에 인접해 있어 접근이 편리하며, 시가지경관과 어우러진 성곽 및 자연경관이 무척 탁월하다.

보행으로는 경복궁역에서 30분 가량이 소요되나 주변이 잘 정비되어 있고 경관이 뛰어나 큰 무리는 없다.



그림 3-21 4구간 성곽 접근동선

(3) 성곽 방문객 수 분석

관찰조사 결과를 보면, 평일에는 하절기 오전 9시, 동절기 오전 10시 개방 직후 개방시간을 기다리면서 방문객들이 집중되고, 점심 직후인 오후 1~2시와 개방시간 마감 후 내려오는 사람으로 오후 4~5시에 많이 붐비고 있었다. 주말에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방문객이 많다.



그림 3-22 등산로 개방 전 기다리는 시민들

(4) 심층인터뷰 내용 분석

① 4구간 성곽 및 주요시설 변화에 대한 방문객의 인식

서울성곽 개방과 함께 드라마 촬영과 종로구 골목길탐방으로 5년사이 기존 중국집, 세탁소, 구멍가게의 용도가 카페 및 호프집으로 업종변경¹⁰⁾이 이루어졌다. 부암동 골목길 안쪽에 있는 갤러리 등 문화시설의 영향으로 마을 골목 사이사이에 카페들이 다수 들어섰다.

(5) 4구간 주거지 현황

①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구역 (4구간-外)

성곽 바깥에 위치한 마을로 자연발생적 주거지이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1-2층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다. 고급주거지로 알려져 있으나 노후된 건물이 많으며, 오래 거주한 거주자 비율이 높다.

② 청운효자동 (4구간-內)

창의문 남측에 위치한 청운효자동은 주거지 레벨이 매우 낮아 높은 옹벽으로 창의문로와 단절되어 있고 진입도로가 창의문과 쉽게 연결되지 않는 도시구조를 갖고 있어 본 분석에서는 제외한다.

¹⁰⁾ 용도변화 사례 : 2010년 교회 → 카페, 갤러리, 2010년 잡화 → 갤러리, 2011년 식당 → 카페, 2010년 식당(주민상대 일반분식집) → 식당(관광객 상대), 2010년 이발소 → 식당(천천포차)

5. 5구간 (인왕산 정상~종로문화체육센터)

5구간은 사직공원 서측 성곽공원에서 시작되어 인왕산 정상에 이르는 구간이다. 인근에 종로문화체육센터(광화문문화센터)가 있어 5구간 성곽 진입부의 명칭으로 사용한다. 성곽 안팎에 무악동과 행촌동 등 고밀의 열악한 주거지가 경사가 급한 구릉지에 형성되어 있다.

주변에 경복궁, 사직공원, 경희궁 등 주요 역사시설이 입지해 있으나 5구간의 방문객은 등산을 목적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구간에서 출발하면 성곽길을 따라 인왕산과 북악산을 연결하여 등반할 수 있다.

주변 대중교통지점에서 보행접근시 길찾기가 어렵고 보행환경이 열악하다. 또한 자연환경 및 경관은 매우 우수하지만 화장실·매점 등 편의 시설과 안내시설이 열악하다. 마을 활성화 및 성곽길 이용 편의를 위해, 성곽 주변에 거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카페, 식당이 들어선다면 주변의 역사자원과 연계한 성곽답사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림 3-23 5구간 현황사진

(1) 주요시설 조사

5구간 성곽 진입부는 마을의 안쪽 광화문아트홀(종로문화체육센터)의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경복궁역에서 사직터널에 이르는 사직로 변은 고속으로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으로 도로변에 특이할 만한 시설을 찾을 수 없다.

인근에 경복궁·사직공원·경희궁 등 역사자원과 서울역사박물관 등 문화시설, 배화여대·대신고·매동초교·독립문초교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입지하고 있다. 독립문 인근에 위치한 교남동에는 일부 생활가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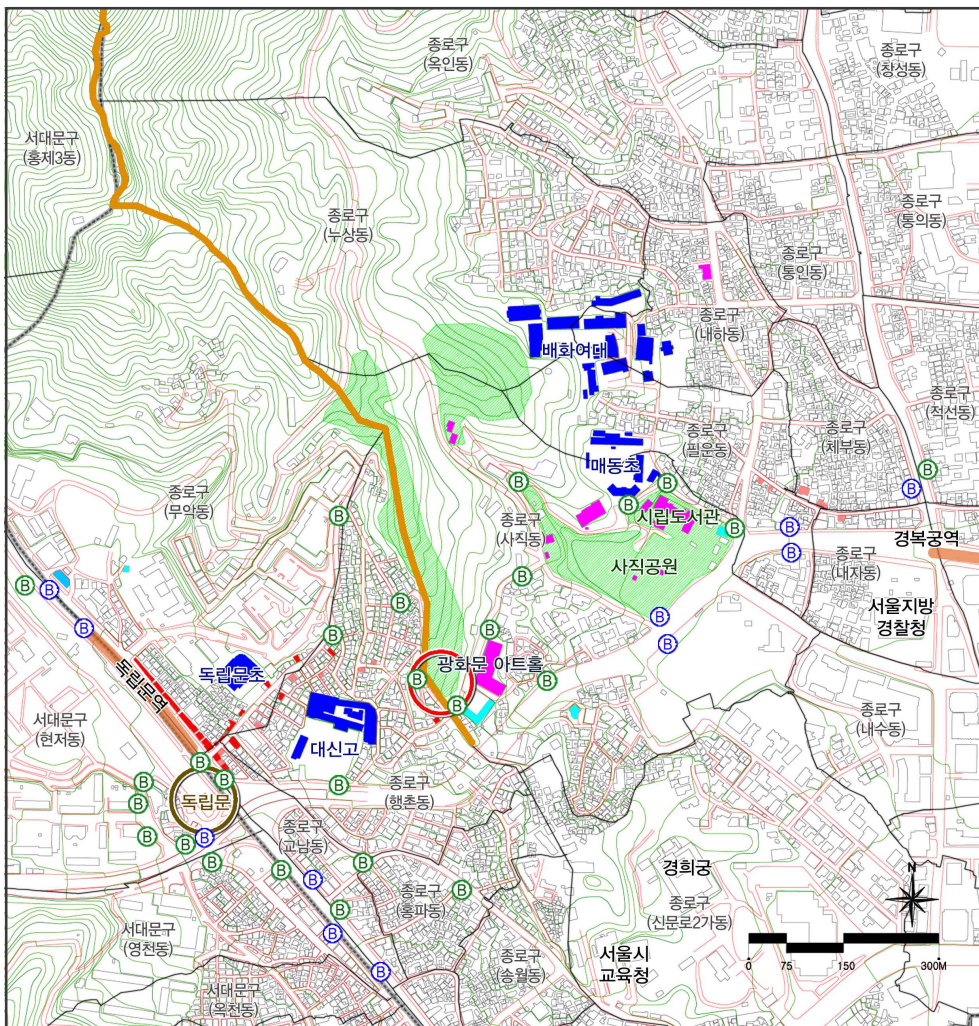


그림 3-24 5구간 현황도면

형성되어 있으나 사직동에는 동네 구멍가게를 제외하고는 전혀 생활편의 시설을 찾을 수 없다.

(2) 성곽 접근동선 분석

5구간 진입부는 사직동 종로문화체육센터 인근 성곽공원으로,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과 경복궁역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주거지역이 대부분인 블록 안쪽에 위치한 이유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하차한 후 마을버스로 환승하거나 보행으로 접근해야 한다.

보행시간은 독립문역에서 10분, 경복궁역에서 15분 정도 소요되며, 사직로에서도 10분이 소요된다.

사직공원, 경희궁, 경복궁 등 인근의 주요 시설과 인접해 있어 심리적 거리가 짧고, 등산용도로 성곽길이 잘 활용되고 있는 구간으로 등산을 나선 방문객들이 동네를 거쳐 접근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하지만 사직터널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심리적 접근성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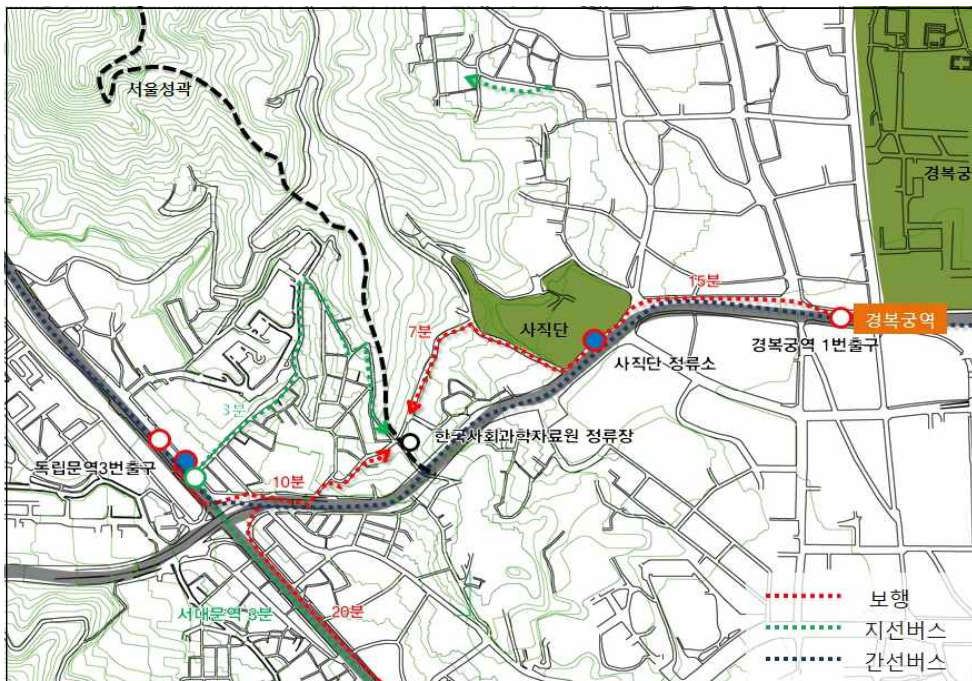


그림 3-25 5구간 성곽 접근동선

(3) 성곽 방문객 수 분석

관찰조사 결과, 평일에는 전체 시간대 중 저녁 7~8시 사이에 가족 단위로 산책하는 거주자가 가장 많았으며 시간당 평균 25명 정도였다.

주말에는 오전 8~9시 사이에 가족 단위나 그룹으로 산책 및 등산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이 가장 많았으며 시간당 평균 70명 정도로 나타났다. 즉 5구간은 4구간을 제외한 모든 성곽 구간 중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구간임을 알 수 있었다.

(4) 심층인터뷰 내용 분석

① 5구간 성곽 및 주요시설 변화에 대한 방문객의 인식

지역주민 심층인터뷰 결과, 서울성곽 복원 및 개방으로 인해 방문객 수는 늘었지만, 주변부 상권이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게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성곽개발 시점 전후 변경된 상가는 1개소-2012년 3월-였다. (현황조사 도면 참조)

② 성곽의 이용

성곽답사보다는 인왕산 또는 인왕산·북악산 등산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이 많았다. 인근 지역은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평일은 거주민의 산책로 위주로 주말은 방문객들의 등산코스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성곽 5구간 주변 주거지 현황

성곽 안팎에 무악동, 행촌동, 사직동 등 고밀의 열악한 주거지가 경사가 급한 구릉지에 형성되어 있다.

① 무악동, 행촌동 (5구간-外)

성곽 바깥에 위치한 마을로 성곽과 웅벽으로 분리되어 있다. 빌라·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수 시행되었다. 다양한 계층이 섞여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사직동 (5구간-內)

성곽 안쪽 마을로 자연발생적 주거지이다. 1-2층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오래 거주한 주민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부 시행되었다.

제5절 소결

제3장은 성곽-근린환경 레벨 분석으로서 구간별 성곽과 주변부의 경계를 설정한 후, 물리적 환경요인, 성곽-근린환경 관계, 5개 구간별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2절의 물리적 환경요인 분석은 성곽 연결 상태, 구간별 자연녹지율, 역사유적·건물의 개수, 문화시설 개수, 교육시설 개수, 성곽 진입부 생활가로 형성 여부, 성곽 진입부 대중교통 연결 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이는 성곽 및 주변 근린환경의 물리적 특성 및 구간별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제3절의 성곽-근린환경 관계 분석은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지리적 중심성, 인지중심성 등 4개 중심성 지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2가지의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전반적으로 볼 때, 1구간이 근접중심성과 인지중심성이 강한 것으로 나왔으며 3구간이 매개중심성과 인지중심성이 낮게 나왔다. 둘째, 근접중심성과 거주자의 인지중심성의 경우, 매개중심성과 인지중심성(방문객)의 경우 유사한 중심성 결과를 보였다. 중심성 지표의 분석은 성곽과 주변 근린환경 사이의 공간적 연계성을 입증했다는 측면에서 향후 연구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시사점을 보여준다.

제4절은 구간별 맵핑을 통한 물리적·공간적 환경분석, 문헌·관찰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한 거주자·방문객의 이용행태 분석을 통하여 성곽과 주변부의 구간별 특성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 도출한 성곽과 주변부의 구간별 특성은, 제4,5장에서 분석하는 거주자·방문객 각각의 환경인식, 이용행태, 만족도의 상관관계 및 특성, 제6장에서 분석하는 이용행태 및 만족도에 대해 거주자·방문객의 차이와 구간별 차이에 대한 해석을 위해 활용될 것이다.

제4장 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의 환경인식 · 이용행태 · 만족도

제4장에서는 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의 환경인식 · 이용행태 · 만족도를 개인 레벨에서 고찰한다. 각 항목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찰하며, 거주자의 환경인식 · 이용행태 · 만족도의 구간별 특성을 구간마다의 환경특성과 연계함으로써 해석한다.

제2절은 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의 환경인식, 이용행태 및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찰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상관관계의 분석은 제1장 이론적 틀과 개념 모델에서 정리하였듯이 총 3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림4-1) 2-1단계는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거주자의 환경인식과 이용행태의 상관관계, 2-2단계는 거주자의 환경인식과 만족도의 상관관계, 2-3단계는 거주자의 이용행태와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이를 통해 이용행태가 환경인식과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제3절에서는 구간별로 거주자의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환경인식 · 이용행태 · 만족도를 분석한다. 3가지 항목에 대한 거주자 전체와 구간별 지표를 도출하며 이를 종합함으로써 구간별 특성을 상세하게 도출한다. 또한 구간별 특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3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각 구간의 환경특성과 연계하여 해석함으로써 그 이유를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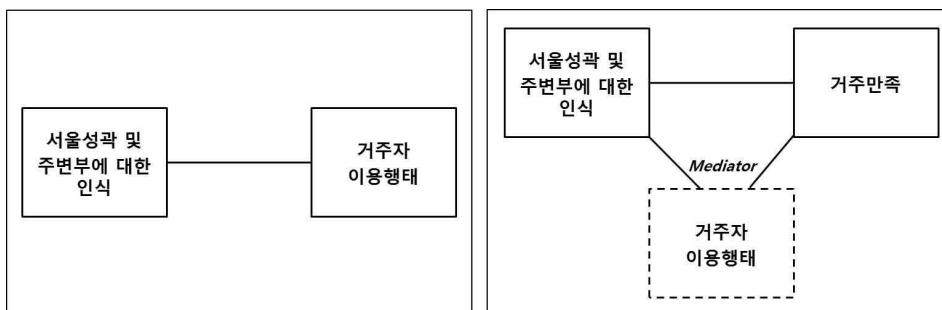


그림 4-1 분석의 단계-거주자

제1절 분석의 목표와 방법

1. 분석의 목표

제4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본 연구의 3개의 주요 가설들을 분석한다:

- 주요 가설 1.1 (H 1.1) : 거주자의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환경인식은 이용행태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 주요 가설 1.2 (H 1.2) : 거주자의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환경인식은 거주만족도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 주요 가설 1.3 (H 1.3) : 거주자의 이용행태는 거주만족의 매개 요소(mediator)일 것이다.

또한 아래와 같이 본 연구의 예비가설들을 분석한다.

- 예비 가설 2.3 (H 2.3) : 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의 최근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이용행태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2. 분석 방법

본 제4장에서는 거주자 306명에 대하여 2012년 10~11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이 3개의 변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거주자들의 환경인식, 이용행태, 만족도.

(1)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거주자의 환경인식 측정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주자의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환경인식은 다음과 같이 4개의 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R-1-1) 마을-주변 공간환경(성곽·자연·성곽너머마을)의 관계, (R-1-2) 성곽 이미지, (R-1-3) 근린환경에 대한 특성, (R-1-4) 환경에 대한 요구. 각 항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을 수행하였다.

- (R-1-1) “주민생활과 성곽의 관계”
“주민생활과 주변 (성곽이 있는)산과의 관계”
“이 마을과 성곽 너머 마을과의 관계”

- (R-1-2) “성곽 이미지”
- (R-1-3) “이 마을 및 서울성곽의 분위기”
- (R-1-4) “마을이 더 발전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설문문항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성곽 이미지(R-1-2)’는 ‘서울성곽하면 떠오르는 것’에 대해 3가지씩 쓰도록 한 주관식 질문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성곽, 보존, 정비, 조선, 문화재, 전쟁에 대한 방비, 유네스코문화유산 등을 역사항목으로, 공원, 산, 숲, 경치 등을 자연항목으로 정리하였다. 그 밖의 응답은 빈도가 낮아 본 기술통계에서는 제외하였다. 거주자의 ‘근린환경에 대한 특성(R-1-3)’을 측정하려는 취지에서 “이 마을과 서울성곽의 분위기에 대해 가장 적합한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객관식 문항으로 다음과 같은 답변 중에 선택하도록 했다: ①역사환경, ②자연환경, ③문화환경, ④역사+자연환경, ⑤역사+자연+문화환경, ⑥자연+문화환경, ⑦그저 좋은 주거지, ⑧그저 열악한 구릉 주거지. 총 8개 항목 중에서 빈도분석을 통하여 가장 빈도가 높게 나온 역사환경 및 자연환경 만을 변수로 선택하였다.

거주자의 ‘환경에 대한 요구(R-1-4)’의 수준을 측정하려는 취지에서 “이 마을이 더 발전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에 관해 세 개만 골라 주세요”라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객관식 문항으로 다음과 같은 답변 중에 세 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①자연환경 보호, ②성곽방문 활성화, ③성곽과 자연환경의 경관 증진, ④주변 문화시설 확충, ⑤안전성 확보, ⑥주거 환경 개선, ⑦쾌적성 확보(깨끗한, 조용한 등), ⑧동네 이미지 개선, ⑨기타 (주관식 가능) 총 8개의 항목 중에서 빈도분석을 통하여 가장 빈도가 높게 나온 자연경관, 방문 활성화, 주택개선 등 3개의 항목만을 변수로 선택하였다.

(2) 거주자의 이용행태 측정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주자의 이용행태는 다음과 같이 4개의 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R-2-1) 성곽산책 여부, (R-2-2) 성곽산책 횟수, (R-2-3) 집까지 교통수단(보행여부), (R-2-4) 집까지 이동

시간. 각 항목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질문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 (R-2-1) “귀하는 여가시간에 마을 근처 서울성곽길 산책을 하십니까”
- (R-2-2) “귀하는 여가시간에 마을 근처 서울성곽길 산책을 1달에 몇 번 하십니까”
- (R-2-3) “귀하는 근처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서 택까지 어떤 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십니까”
- (R-2-4) “이동시간은 얼마나 걸리십니까”

(3) 거주자의 만족도 측정

다음과 같이 4개의 주제를 대상으로 거주자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R-3-1)거주 만족도, (R-3-2)성곽 만족도, (R-3-3)교통접근성 만족도, (R-3-4)최근변화에 대한 만족도. 각 항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을 수행하였다.

- (R-3-1) “이 마을에 거주하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 (R-3-2) “서울성곽에 대한 만족도”
- (R-3-3) “택까지 도착하시는데 편리하십니까”
- (R-3-4) “이 마을이 최근 몇 년 동안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주만족 또는 불만의 이유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거주시 가장 좋은 점은”, “거주시 가장 나쁜 점은”이라는 객관식 질문으로 다음과 같은 답변 중에 선택하도록 하였다: ①교육환경, ②자연환경, ③교통환경, ④문화 및 편의시설 이용, ⑤안전성, ⑥쾌적성, ⑦직장과 접근성, ⑧단지내 환경, ⑨주택 내부공간, ⑩없다, ⑪기타(주관식 가능)

성곽만족의 이유는 “서울 성곽에 만족 또는 불만인 점은”으로 3가지씩 쓰도록 한 주관식 질문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자연·경관, 운동·산책·등산 등 각종 액티비티, 성곽 정비·개방.

최근 변화의 시기는 “마을이 언제부터 좋아졌거나, 나빠졌다”, 최근 변화 만족이유는 “마을에 어떤 변화를 보셨나요”로 다수의 응답이 나온 성곽 정비·개방, 방문활성화로 정리하였다.

3. 분석

제2절에서는 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의 환경인식, 이용행태,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찰하며, 이를 위하여 총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1단계는 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의 환경인식과 이용행태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주요 가설(H 1.1)를 검증한다. 이에 더하여 최근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거주자의 이용행태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예비가설(H 2.3)을 검증한다.

또 같은 방법으로 2-2단계는 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의 환경인식과 거주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주요 가설(H 1.2)를 고찰한다.

2-3단계는 거주자의 이용행태가 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환경인식과 거주만족 사이를 매개하는지 여부를 고찰하며, 이를 2-1단계에서 검증한 예비가설(H 2.3)의 증명내용과 연관하여 해석한다.

제3절에서는 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의 환경인식, 이용행태, 만족도에 대해 구간별로 상세한 분석을 시행한다. 우선 항목별로 거주자의 인구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거주자의 환경인식, 이용행태, 만족도 각각에 대하여 분석한다. 거주자 전체와 구간에 따른 특성을 도출하며, 성곽 구간별 데이터 값의 차이에 대하여 일반화하기 위하여 ANOVA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구간별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앞서 분석한 제3장 서울성곽과 주변부의 구간별 특성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유를 분석한다.

제2절 환경인식 · 이용행태 · 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

제2절은 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의 환경인식, 이용행태,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제1장에서 이론적 틀과 개념 모델을 정리하였듯이 총 3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2-1단계는 주요가설 1.1의 검증을 위해 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의 환경인식과 이용행태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예비가설 2.3의 검증을 위해 최근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이용행태의 상관관계도 함께 분석하였다. 또한 2-2단계는 주요가설 1.2의 검증을 위해 거주자의 환경인식과 거주만족도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 2-3단계는 주요가설 1.3의 검증을 위해 거주자의 이용행태와 거주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앞서 2-1단계에서 검증한 예비가설과 함께 해석함으로써 거주자의 이용행태가 환경인식과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찰한다.

1. 거주자의 환경인식과 이용행태의 상관관계 분석

서울성곽 및 주변부의 최근 변화와 물리적 특성에 대한 환경인식이 거주자의 성곽산책을 추동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주요가설 1.1-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의 환경인식은 이용행태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을 검증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하여 거주자의 환경인식과 이용행태-성곽산책-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4-1)

분석결과, ‘마을과 주변 공간환경 간의 관계’ 중 주민생활-성곽, 주민생활-자연(산) 간의 관계를 제외한 마을-성곽너머마을 간의 관계만이 거주자의 성곽산책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마을-성곽너머마을의 공간적 연계와 성곽을 관통하는 이용행태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는 성곽 주변 주거지의 입지특성 상 성곽에 의해 막힌 구릉지에 형성되어 있는 데 성곽너머마을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성곽 진입부 또는 암문이 형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주거지보다 개방성이 높은 것이다.

또 ‘성곽이미지’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근린환경 특성’을 역사

환경으로 인식하던 자연환경으로 인식하던 모두 성곽산책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사환경에 대한 인식은 성곽으로 인한 것이며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은 성곽이 입지한 내사산과 그 경관으로 인한 것으로서, 성곽과 주변 마을의 분위기를 역사환경 및 자연환경으로 인식하는 것과 성곽산책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성곽 및 성곽의 최근 변화와 연계한 설문이라는 점에서 근린환경의 특성에 대해 역사 외에도 자연환경으로 인식하는 것과 성곽산책이 연관되어 있는 것은 새로운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예비가설 2.3-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의 최근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이용행태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의 검증은 2-3단계에서 주요가설 1.3을 분석한 내용과 연계하여 거주자의 이용행태가 환경인식과 거주만족도 사이를 매개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분석한 결과, ‘최근 변화에 대한 긍정’은 성곽산책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곽 복원 및 성곽길 개방 등 최근의 변화로 마을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용행태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이다.

표 4-1 거주자 환경인식과 성곽산책의 상관관계

구분	성곽산책 (1=함, 0=안함)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주민생활-성곽 관계	0.262	0.000
주민생활-자연(산) 관계	0.244	0.000
마을-성곽너머마을 관계	0.174	0.002
성곽이미지_역사환경	0.013	0.821
성곽이미지_자연환경	-0.007	0.899
근린환경특성_역사환경	0.234	0.000
근린환경특성_자연환경	0.159	0.005
최근 변화에 대한 긍정	0.218	0.000

*P<0.10, **P<0.05, ***P<0.01

2. 거주자의 환경인식과 거주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

서울성곽과 주변부 환경에 대한 인식이 거주자의 거주만족을 추동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주요가설 1.2-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의 환경인식은 거주만족도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을 검증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하여 환경인식과 거주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4-2)

분석결과, ‘마을과 주변 공간환경 간의 관계’는 세 개 항목 모두 성곽산책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곽이미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또 ‘근린환경특성’의 2개 항목 모두 성곽산책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민생활과 성곽이, 주민생활과 자연(내사산)이, 마을과 성곽너머마을 사이가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이 거주만족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근린환경의 분위기를 역사환경과 자연환경으로 인식하는 것과 거주만족도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근린환경의 특성에 대해 역사뿐 아니라 자연환경으로 인식하는 것과 거주만족도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앞서 성곽산책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새로운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주변 자연으로의 조망이 좋거나 일상생활 중 근처 산·공원으로 산책, 등산 등 자연과 연계활동을 할 때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좋아진다는 제2장 2절 이론 고찰의 내용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거주자의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성곽만족도’와 ‘교통접근성 만족도’는 모두 거주만족도와 상관관계를 가지며,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주자들이 성곽에 만족하고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식하는 점이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표 4-2 거주자 환경인식과 거주만족도,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구분		거주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환경 인식	주민생활-성곽 관계	0.262	0.000
	주민생활-자연(산) 관계	0.239	0.000
	마을-성곽너머마을 관계	0.130	0.023
	성곽이미지_역사환경	0.045	0.433
	성곽이미지_자연환경	-0.011	0.842
	근린환경_역사환경	0.138	0.016
	근린환경_자연환경	0.255	0.000
만 족 도	성곽만족도	0.410	0.000
	교통접근성 만족	0.450	0.000
	최근 마을변화에 긍정	0.080	0.167

*P<0.10, **P<0.05, ***P<0.01

3. 거주자의 이용행태와 거주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

거주자의 성곽산책이 거주만족을 추동한 요인일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주요가설 1.3-거주자의 이용행태가 거주만족의 매개요소일 것이다-을 검증하며, 또한 2-1단계에서 검증한 예비가설 2.3-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의 최근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이용행태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의 분석내용과 함께 해석함으로써 거주자의 이용행태가 환경인식과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위하여 거주자의 이용행태와 거주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표 4-3)

분석결과, 거주자의 이용행태와 거주만족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성곽산책’과 대중교통지점에서 집까지 교통수단으로 ‘보행여부’는 모두 거주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위 세 가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거주자의 이용행태가 환경인식과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고 있는지 고찰하였는데, 서울성곽과 주변부 최근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성곽산책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비가설 2.3을, 성곽산책과 거주만족도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요가설 1.3을 입증하였다. 즉 성곽 이용행태가 거주자의 환경인식과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고 있는 것이다.

표 4-3 거주자 이용행태와 거주만족도의 상관관계

구분		거주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이용행태	성곽산책	0.284	0.000
	보행여부	0.133	0.020

*P<0.10, **P<0.05, ***P<0.01

4. 분석종합

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의 환경인식, 이용행태,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와 거주자의 이용행태가 환경인식과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찰하였다.

거주자의 환경인식과 이용행태-성곽산책-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마을과 주변 공간환경 간의 관계’ 중 주민생활-성곽, 주민생활-자연(산) 간의 관계를 제외한 마을-성곽너머마을 간의 관계만이 거주자의 성곽산책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곽이미지’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근린환경 특성’을 역사환경으로 인식하던 자연환경으로 인식하던 모두 성곽산책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가설의 검증을 위한 항목으로 ‘최근 변화에 대한 긍정’은 성곽산책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인식과 거주만족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마을과 주변 공간환경 간의 관계’는 3개 항목 모두 성곽산책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곽이미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또 ‘근린환경특성’의 2개 항목 모두 성곽산책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하여 거주자의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성곽만족도’와 ‘교통접근성 만족도’는 모두 거주만족도와 상관관계를 가지며,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자의 이용행태와 거주만족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성곽산책’과 대중교통지점에서 집까지 교통수단으로 ‘보행여부’는 모두 거주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세 가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거주자의 이용행태가 환경인식과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고 있는지 고찰하였는데, 서울성곽과 주변부 최근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성곽산책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비가설 2.3을, 성곽산책과 거주만족도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요가설 1.3을 입증하였다. 즉 성곽 이용행태가 거주자의 환경인식과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고 있는 것이다.

제3절 구간별 환경인식 · 이용행태 · 만족도 분석

1. 거주자의 환경인식 분석

거주자 인구특성과 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환경인식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거주자 인식의 각 항목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4-4)

분석한 결과, ‘마을-주민생활-과 주변 공간환경의 관계’ 중에서 거주자는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주민생활-성곽 및 주민생활-자연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곽 이미지’는 학력이 높을수록 역사환경으로 인식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을수록 자연환경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을수록 ‘근린환경의 특성’을 자연환경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근린환경의 특성’을 역사환경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성곽 이미지’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4-4 거주자 환경인식과 인구특성의 관계

구분	거주자 인식							
		주민생활 -성곽 관계	주민생활 -자연 관계	마을-성곽 너머마을 관계	성곽이미지 _역사환경	성곽이미지 _자연환경	근린환경 특성_ 역사환경	근린환경 특성_ 자연환경
인 구 특 성	성별	0.083	0.043	-0.092	-0.084	-0.08	-0.272	-0.253
	연령	0.076*	0.084*	0.057	0.046	0.193*	-0.128	0.216
	최종 학력	0.105*	0.128**	-0.138*	0.321*	-0.062	0.416**	0.051
	거주 기간	0.014***	0.009*	0.004	0.351	-0.295	-0.223	1.172
	자동차 보유 여부	0.108	0.04	0.181	-0.383	-0.455c	0.057	-0.866**

*P<0.10, **P<0.05, ***P<0.01

(1) 마을과 주변 공간환경의 관계

‘마을과 주변 공간환경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서울성곽 주변부 거주자 전체 및 구간별로 분석하였는데, ‘주민생활-성곽’, ‘주민생활-자연’, ‘마을-성곽너머마을’ 등 총 3가지 항목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표 4-5)

거주자 전체는 ‘주민생활-성곽’ 및 ‘주민생활-자연’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마을-성곽 너머 마을’은 특별한 관련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보면, 1구간에서 거주자는 ‘주민생활-성곽’, ‘주민생활-자연’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마을-성곽너머마을’ 사이는 특별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2구간에서는 ‘주민생활-자연’ 사이 관련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주민생활-성곽’ 및 ‘마을-성곽너머마을’의 관련성은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3구간 거주자는 ‘주민생활-성곽’ 사이의 관련성을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주민생활-자연’ 및 ‘마을-성곽너머마을’의 관련성은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4구간은 ‘주민생활-성곽’, ‘주민생활-자연’ 사이의 관련성이 다른 구간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마을-성곽 너머마을’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구간이다. 5구간은 ‘주민생활-성곽’, ‘주민생활-자연’ 사이의 관련성은 높게, ‘마을-성곽너머마을’ 사이는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약하지만 비교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구간이다.

종합해보면, ‘주민생활-성곽’, ‘주민생활-자연’ 사이에 관련성이 모두 있다고 인식한 구간은 1,4,5구간이며, 그중에서 1구간과 5구간

표 4-5 마을과 주변 공간환경의 관계

변수	전체	구간					ANOVA	
		1	2	3	4	5	F	Sig.
주민생활-성곽 관계	4.101	4.210	3.712	3.918	4.410	4.186	6.237	0.000
주민생활-자연 관계	4.039	4.016	3.981	3.787	4.295	4.101	2.967	0.020
마을-성곽너머 마을 관계	3.245	3.290	3.115	3.295	2.902	3.557	3.889	0.004

은 비슷한 정도의 관련성을, 4구간은 가장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또 2구간은 ‘주민생활-자연’ 사이에, 3구간은 ‘주민생활-성곽’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나타난 구간이다. ‘마을-성곽너머마을’ 사이는 4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보통 정도의 수치로 특별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5구간에서는 다른 구간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치상 약하지만 비교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ANOVA분석을 통하여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에 대하여 구간별 이용행태의 차이와 그 이유를 분석해 보았다.

‘주민생활-성곽’ 사이의 관련성이 높은 구간부터 살펴보면, 4-1-5-3-2구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4구간에서는 관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매우 높은 수치로서 최근에 창의문 주변의 성곽을 정비하였고, 창의문을 통하여 최근까지 폐쇄되었던 북악산 등산로가 개방된 이유로 방문객이 크게 증가한 것과 주거지 내부에서 성곽 경관이 매우 잘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구간과 마찬가지로 최근 성곽정비가 이루어져 방문객이 증가한 1구간과 5구간은 높은 수치로 서로 비슷한 정도의 관련성을 보였다. 가장 낮은 순위로 나타난 2구간도 관련성이 전혀 없는 정도는 아니며 보통 정도의 수치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거지가 성곽에 인접해 형성되어 있어 주거지 내부에서 성곽경관이 잘 인식되지 않으며, 주거지 사이의 골목길을 통해 형성되어 있는 몇 개의 암문을 통과해야만 성곽에 접근할 수 있는 특성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민생활-자연’ 사이의 관련성이 높은 구간부터 살펴보면, 4-5-1-2-3구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가장 낮은 결과로 나타난 3구간은 보통 정도의 수치로 특별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질 않는데, 주거지와 성곽 및 북악산의 진입부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어 접근이 쉽지 않은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다른 구간들은 모두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관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4구간은, 주거지에 인접하여 위치한 창의문을 통하여 최근까지 폐쇄되었던 북악산 등산로로 접근할 수 있으며 주거지에서 북악산 및 인왕산의 자연 조망이 좋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을-성곽너머마을’ 사이의 관련성이 높은 구간부터 살펴보면,

5-3-1-2-4구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4구간은 낮은 수치로 관련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청운효자동과 부암동이 지형상의 절벽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다른 구간들은 모두 보통 정도의 수치로 특별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인 5구간에서만 약하지만 비교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곽에 미복원된 구간이 남아 있으며 성곽 중간에 암문이 형성되어 성곽 안팎에 위치한 마을간 통행이 가능하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성곽 이미지

서울성곽 주변 거주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성곽 이미지’에 대해서 거주자 전체 및 구간별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서울성곽 주변 거주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성곽 이미지’는 ‘서울성곽하면 떠오르는 것’에 대해 3가지씩 쓰도록 한 주관식 질문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성곽, 보존, 정비, 조선, 문화재, 전쟁에 대한 방비, 유네스코문화유산 등을 역사항목으로, 공원, 산, 숲, 경치 등을 자연항목으로 정리하였다. 그 밖의 응답은 빈도가 낮아 본 기술통계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4-6)

‘성곽 이미지’를 역사환경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81.0%로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성곽에 대해 떠오르는 것을 질문한 것이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성곽 이미지’를 자연환경으로 인식한 비율도 44.8%로서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선택하였다. 성곽이 내사산 정상 외곽에 위치함으로 성곽과 산의 자연이미지가 중첩되는 것이며, 실제 성곽의 이용목적으로 거주자들이 성곽답사보다 등산, 산책 등 자연환경과 연관된 행태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다음 분석항목인 ‘근린환경의 특성’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이 매우

표 4-6 성곽 이미지

변수		전체	구간				
			1	2	3	4	5
성곽 이미지 (%)	역사환경	81.0	77.4	90.4	65.6	100.0	74.3
	자연환경	44.8	43.5	42.3	57.4	50.8	31.4

높은 것의 이유이기도 하다.

구간별로 보면, 모든 구간에서 ‘성곽 이미지’에 대하여 역사환경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역사환경 대(對) 자연환경의 비율 차이가 가장 큰 구간은 5구간으로 그 차이가 2.37배에 달한다.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이 31.4%로 가장 낮게 나타난 5구간에서는 성곽을 인접한 경희궁, 사직공원, 경복궁 등과 함께 관광명소로 인식하고 있는 거주자들이 많았으며, 인왕산의 경관이 주거지 내에서 보이지 않는 특성에 의해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판단된다. 2구간 역시 2배가 넘는 데 역사환경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90.4%로 매우 높았다. 4구간의 경우 역사환경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100%로 나타났다. 2,4구간은 모두 혜화문, 창의문 등 성곽의 주요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역사시설이 간선가로에 위치하고 있어 인지성이 높으며 성곽 진입부와 주거지가 인접해 있는데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3구간의 경우는 그 차이가 1.14배로 역사환경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65.6%로 높지 않았다. 성곽경관이 주거지에서 거의 인식되지 않으며, 가회동과 삼청동에서 성곽까지 거리가 상당히 먼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비율로 ‘자연환경’을 선택한 구간은 3,4구간이다. 이는 최근 북악산 등산로 개방으로 산과의 재(再)연계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 이어서 와룡공원과 북악산이 최근 각광을 받으며 방문객이 증가함으로 거주자의 인식이 높아졌으며, 등산을 위한 시점으로 성곽 진입부가 활용되고 있는 성곽의 공간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근린환경 특성

‘근린환경 특성’에 대한 인식을 거주자 전체 및 구간별로 분석했는데, 이는 ‘마을 및 서울성곽의 분위기’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하였다. 근린환경은 여러 특성이 복합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한 가지로 정의하기 어려우므로, 역사환경·자연환경·문화환경 등 세 가지 항목을 번갈아 중복하여 객관식 문항을 작성했고, 이를 각각 분리하여 산입하였다. 또 기타 항목을 추가하여 주관식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7)

전체적으로 ‘역사환경+자연환경’ 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근린환경에 성곽과 내사산이 모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역사환경+자연환경+문화환경’ 또는 ‘자연환경’ 을 선택한 응답도 많아, ‘자연환경’ 항목을 포함한 답변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간별 분석결과, 3구간을 제외한 전반적으로 모든 구간에서 ‘근린환경 특성’ 을 ‘역사환경+자연환경’ 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제일 많게 나타났다. 3구간은 ‘자연환경’ 만을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아 다른 구간과 차이를 보이는데, 주거지에서 성곽의 경관이 보이지 않는 반면에 북악산으로의 조망이 매우 좋으며 최근 북악산 등산로 개방으로 거주자 이용행태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4구간은 ‘역사환경+자연환경’ 에 이어 ‘자연환경’ 만을 선택한 응답이 2순위였는데 주거지 경관이 북악산, 인왕산 등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있는 점과 북악산 등산로 개방이 역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역사환경+자연환경+문화환경’ 을 2순위로 선택한 구간은 1,2,5 구간이었으며, 3,4구간에서는 3순위였다. 1,2,5구간에서 거주자가 역사, 자연환경 뿐 만 아니라 문화환경에 주목하는 것은 제3장 2절 내용과 상응하는 것이다. 이들 구간에 아르코 미술관과 대극장, 연극공연장들이 위치한 대학로, 간송미술관이 위치한 성북동, 서울역사박물관 등이 인접한 사직동이 위치해 있다. 4구간에서는 문화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았는

표 4-7 근린환경 특성

변수		전체	구간				
			1	2	3	4	5
근린 환경 특성 (%)	역사	7.2	1.6	17.6	9.7	3.3	5.7
	자연	17.3	19.4	7.8	33.9	23.0	2.9
	문화	2.3	1.6	7.8	0.0	1.6	1.4
	역사+자연	43.8	50.0	29.4	27.4	59.0	50.0
	역사+자연+문화	22.2	22.6	27.5	12.9	11.5	35.7
	자연+문화	3.6	3.2	3.9	6.5	0.0	4.3
	그저 좋은 주거지	1.0	0.0	0.0	3.2	1.6	0.0
	그저 열악한 주거지	2.3	1.6	3.9	6.5	0.0	0.0
	기타	0.3	0.0	2.0	0.0	0.0	0.0

데, 근린환경 내 골목길 곳곳에 환기미술관 및 작은 갤러리가 다수 위치해 있지만 거주자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낸다.

1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근린환경 특성’으로 ‘역사환경’만을 선택한 응답이 나타났다. 이는 근린환경 내에서 자연이나 문화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구간은 2구간이었다. 이는 입지 상 다른 구간과는 달리 산과는 거리가 떨어져있으며, 성곽에 바로 인접하여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는 공간특성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모든 구간에서 ‘역사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는 응답이 나타났는데,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구간은 3구간이었고 절반 정도가 자연환경 또는 자연+문화환경 등을 선택하였다. 이는 입지 상의 이유로 앞서 설명하였다. 그 비율이 가장 낮은 구간은 5구간이었는데, 서울성곽 외에도 경희궁, 경복궁 등 다양한 역사시설이 인접하므로 근린환경을 ‘역사환경’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든 구간에서 근린환경의 특성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는 응답-역사환경, 역사+문화환경 등-이 나타났는데,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구간은 2구간이었고 그 다음 순위는 3구간으로 나타났다. 즉 2,3구간은 모두 북악산에 인접해 있으나 성곽으로 인하여 근린환경과 공간적으로 연계되지 않거나 거리가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낮았다. 이는 앞선 (1)항에서 ‘주민생활-자연’과의 관계가 가장 낮게 나타난 분석결과와 상응하는 결과이다.

반면에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답변-자연환경, 역사+자연환경 등-이 가장 많은 구간은 1구간으로 낙산 및 낙산공원이 지역특성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크다고 생각하며, 최근 정비된 낙산공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울성곽 주변 근린환경은 4구간을 제외하고는 ‘열악한 구릉 주거지’로 알려져 있었으나, 본 조사에서 역사, 문화 등 특성을 배제하고 ‘그저 열악한 구릉 주거지’를 선택한 응답은 1,2,3구간에서만 약 2~5% 정도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에 대한 거주자들의 회의적인 응답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내고자 했던 답변문항이었는데, 생각보다

그 비율이 낮았다. 또 ‘그저 좋은 주거지’ 라는 응답은 예상대로 4구간에서만 약 2%의 응답이 나왔다.

종합해보면, 서울성곽 주변 거주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근린환경에 대한 특성에 관심이 있었으며, 성곽 및 내사산 등 주변 환경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마을발전을 위한 요구

서울성곽 주변 거주자의 ‘마을발전을 위한 요구’에 대하여 거주자 전체 및 구간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마을이 더 발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관하여 3개를 고르도록 한 객관식 문항을 토대로 하였다. 객관식 답변문항에 없는 내용을 지적할 수 있도록 기타 항목을 두어 주관식 답변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자연환경 보호’와 ‘성곽 및 자연환경의 경관 증진’ 항목을 답변 문항에서는 내용상 구분했으나, 실제 분석에서는 합쳐 ‘자연보호 및 경관개선’으로 정리하였다. 실제 성곽과 자연환경이 공간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경관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연구대상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표 4-8)

전체적으로 ‘자연보호 및 경관개선’을 선택한 응답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곽길 개방으로 방문객이 급증했으며 유네스코문화유산 등재를 위하여 향후 성곽복원 및 주변 지역의 정비가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성곽방문 활성화’의 요구는 마을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거주자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주거환경 개선보다 많은 거주자들이 선택했다. 서울성곽 주변 거주환경이 전반적

표 4-8 마을발전을 위한 요구

변수		전체	구간				
			1	2	3	4	5
마을 발전 요구 (%)	자연보호 경관개선	48.0	51.6	42.9	45.3	54.5	44.7
	성곽방문 활성화	27.3	21.1	33.8	25.3	17.2	37.4
	주거환경 개선	24.7	27.4	23.4	29.3	28.3	17.9

으로 열악하다는 인식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선택한 응답은 전체 거주자의 약 25% 정도로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방문객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에 대한 요구보다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구간별로 분석해볼 때, 1구간에서는 ‘자연보호 및 경관개선’을 선택한 비율이 ‘성곽방문 활성화’를 선택한 거주자의 약 2.5배에 달했다. 앞선 (3)항에서 ‘근린환경의 특성’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답변이 가장 많았던 결과와 상응하는 결과로 자연환경 보호와 성곽 및 자연 경관의 증진을 후속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낙산공원의 정비와 함께 방문객이 증가하여 소음, 쓰레기투기 등의 환경문제가 생기는 현상도 조사되었는데 이로 인해 환경 및 경관의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거주자의 약 27%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주거지의 관리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2구간과 5구간은 ‘자연보호 및 경관개선’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지만, ‘성곽방문 활성화’를 선택한 거주자의 비율이 다른 구간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방문객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의 요구가 큰 구간으로 판단되어 향후의 시사점으로 생각된다.

3구간에서는 ‘자연보호 및 경관개선’을 선택한 비율이 ‘성곽방문 활성화’를 선택한 거주자의 약 1.8배에 달했다. 최근에 북악산 개방과 성곽길 보수로 방문객이 급증했던 이유로 ‘성곽방문 활성화’를 선택한 비율이 약 25%로 낮은 것이다.

4구간에서는 ‘자연보호 및 경관개선’을 선택한 비율이 ‘성곽방문 활성화’를 선택한 거주자의 약 3.2배에 달해 그 차이가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 최근 북악산 개방으로 방문객이 급증한 이유로 ‘자연보호 및 경관개선’에 대한 요구가 약 55%로 매우 높았고 ‘성곽방문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약 1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거주자의 약 28%가 선택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5구간은 ‘자연보호 및 경관개선’과 ‘성곽방문 활성화’를 선택한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난 구간이다. 인왕산 등산을 위해 방문객이 많은

곳으로 특히 ‘성곽방문 활성화’의 요구가 약 3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 거주자의 이용행태 분석

거주자 인구특성과 이용행태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성곽산책을 종속변수로, 성별·연령·최종학력·거주기간·자동차보유여부 등 인구특성 항목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4-9)

분석결과,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성곽 산책을 상대적으로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성곽산책과 거주자 인구특성의 관계

구분		성곽산책
인구 특성	성별	-0.813***
	연령	0.448***
	최종학력	0.587***
	거주기간	-2.835***
	자동차보유여부	-0.261

*P<0.10, **P<0.05, ***P<0.01

(1) 성곽산책

‘성곽산책’ 및 ‘산책횟수’에 대한 거주자 전체 및 구간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표 4-10)

거주자 전체 중 71.9%가 성곽산책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성곽산책을 한다고 응답한 거주자는 1달 중에 성곽을 산책하는 횟수가 약 6.32회로서 1주일에 약 1.5회 정도는 성곽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 분석결과, 1구간에 거주하는 거주자 중 약 90%가 성곽산책을

표 4-10 거주자 성곽산책 여부 및 산책횟수

변수	전체	구간					ANOVA	
		1	2	3	4	5	F	Sig.
성곽산책 (%)	71.9	90.3	62.0	45.9	68.9	88.6	12.467	0.000
산책횟수 (회)	6.32	9.95	6.35	5.73	6.19	3.21	10.388	0.000

한다고 응답했고 성곽산책 횟수도 월 약 10회로 성곽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구간은 거주자 중에 62%가 성곽산책을 한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반면, 성곽산책을 한다고 응답한 거주자의 산책횟수는 월 약 6회로 1구간보다 낮게 나타났다. 3구간에서는 거주자의 약 46%만이 성곽산책을 한다고 응답하여 성곽활용도가 매우 낮았다. 산책횟수 역시 낮은 편이다. 4구간에서는 약 69%가 성곽산책을 한다고 응답하여 2구간과 비슷한 추세를 나타냈다. 5구간에서는 거주자 중 약 89%가 성곽산책을 한다고 응답하여 1구간에 이어 2순위로 나타났지만, 산책횟수는 월 약 3.2회로 가장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

ANOVA분석을 통하여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에 대하여 구간별 이용행태의 차이와 그 이유를 분석해 보았다.

‘성곽산책’을 한다고 응답한 거주자의 비율이 높은 구간부터 살펴보면, 1-5-4-2-3구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난 1구간은 낙산공원 주변에 창신동, 이화동 등 주거지가 인접해 있어 접근이 쉬우며 낙산공원의 조성으로 산책, 운동, 조망 등의 행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2순위인 5구간은 성곽 진입구가 인왕산으로의 산책로 역할을 하며 주거지에 인접해 있기 때문으로 그 이유를 해석해 볼 수 있다. 4구간과 2구간은 1구간과 마찬가지로 서울성곽과 주변 주거지가 인접해 있긴 하지만, 4구간에서는 창의문을 제외한 성곽 진입부가 없어 접근성이 나쁘며, 2구간에서는 혜화문 외에 암문이 있지만 경사가 심하고 불규칙한 골목길을 통해 접근해야 하므로 성곽산책을 한다고 답변한 거주자의 비율이 1구간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가장 성곽산책을 하지 않는 구간은 3구간이다. 이는 성곽 주변 주거지에서 성곽 진입구까지 거리가 멀고 도로를 따라 이동해야 하며 불규칙한 경사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성곽산책’을 한다고 응답한 거주자의 월간 ‘성곽산책 횟수’가 많은 구간부터 살펴보면, 1-2-4-3-5구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난 1구간은 성곽과 낙산공원이 정비되어 물리적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산책 등의 행태가 가능한 것을 이유로 볼 수 있다.

다음 순위인 2,4,3구간은 대체로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3구간은 성곽 접근동선이 가장 긴 구간이다. 가장 성곽산책 횟수가 적은 5구간에서는 인왕산의 특성상 산행을 해야 하므로 산책횟수가 적은 것인데, 방문객의 이용목적 중 산책의 비율이 낮은 것과 같은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교통수단 및 이동시간

거주자 전체 및 구간별 ‘대중교통지점에서 집까지 교통수단’, ‘대중교통지점에서 집까지 이동시간’에 대하여 분석한다. ‘대중교통지점에서 집까지 이동시간’은 ANOVA분석을 통하여 유의하게 나타나 구간별 차이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도 고찰하였다. (표 4-11) (표 4-12)

대중교통지점에서 집까지 걸어서 이동한다는 답변이 66.6%로 가장 많았고, 다음 순위는 마을버스였다. 또한 집까지 이동시간은 평균 12.4분이 소요되었다.

‘대중교통지점에서 집까지 이동시간’을 긴 구간부터 살펴보면, 1-3-4-2-5구간의 순으로 1구간이 가장 길었고 5구간이 가장 짧았다.

구간별 분석결과, 1구간 거주자들은 집까지 이동시 보행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고 이동시간도 다른 구간과 비교하여 가장 길다고 답변하였다. 2구간 거주자들은 대중교통지점에서 집까지 절반 이상-52.9%-이 보행으로 이동하며, 집까지 평균 이동시간은 약 8분 정도가 소요되어 다른 구간에 비하여 짧게 나타났다.

표 4-11 대중교통 지점에서 집까지 교통수단

변수		전체	구간				
			1	2	3	4	5
교통 수단 (%)	보행	66.6	87.1	52.9	65.6	88.5	40.0
	자전거	1.3	0	3.9	0	1.6	1.4
	마을버스	32.1	12.9	43.1	34.4	9.8	58.6

표 4-12 대중교통 지점에서 집까지 이동시간

변수	전체	구간					ANOVA	
		1	2	3	4	5	F	Sig.
집까지 이동시간 (분)	12.4	18.3	8.4	15.4	10.4	8.2	30.633	0.000

3구간은 대중교통지점에서 집까지 65.6%가 보행으로 접근하며, 집까지 평균 이동시간은 약 15분이 소요되어 다른 구간에 비하여 긴 편이다.

4구간은 대중교통지점에서 집까지 약 89%가 보행으로 접근하여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집까지 평균 이동시간은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어 보통 수준이었다.

5구간에서는 대중교통지점에서 집까지는 유일하게 절반이 안되는 40%가 보행으로 접근하여 가장 비율이 낮았고, 집까지 평균 이동시간은 마을버스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아 약 8분 정도가 소요되므로 다른 구간에 비하여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거주자의 만족도 분석

거주자 인구특성과 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환경인식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거주자 인식의 각 항목을 설정하여 분석 하였다. (표 4-13)

분석한 결과, ‘거주만족도’는 ‘거주기간’과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기간이 길수록 거주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곽만족도’도 거주기간만이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만족도와 같은 경향을 갖고 있다.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자동차를 보유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4-13 만족도와 거주자 인구특성의 관계

구분		거주만족도	성곽만족도	최근변화만족도
인구 특성	성별	0.001	0.018	-0.103
	연령	0.056	0.03	0.033
	최종학력	0.012	0.083	-0.08
	거주기간	0.013***	0.009*	0.008*
	자동차보유여부	0.083	0.075	0.238**

*P<0.10, **P<0.05, ***P<0.01

(1) 거주만족도

‘거주만족도’ 및 ‘거주만족 또는 불만의 이유’에 대하여 거주자

전체 및 구간별로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거주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질문하였고, 거주에 만족하거나 불만인 이유는 ‘거주시 가장 좋은 점’ 과 ‘거주시 가장 나쁜 점’ 등 객관식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표 4-14) (표 4-15)

거주자는 대체로 ‘거주에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만족의 이유’ 로 ‘자연환경’ 을 선택한 비율이 58.7%에 달해 가장 높게

표 4-14 거주만족도

변수	전체	구간					ANOVA	
		1	2	3	4	5	F	Sig.
거주만족도	3.784	3.984	3.673	3.426	4.000	3.814	5.260	0.000

표 4-15 거주만족 및 불만 이유

변수		전체	구간				
			1	2	3	4	5
거주 만족의 이유 (%)	교육환경	2.3	0.0	2.0	6.6	1.6	1.4
	자연환경	58.7	69.2	23.5	41.0	79.4	71.4
	교통환경	5.8	3.1	21.6	3.3	1.6	2.9
	문화편의시설	7.4	7.7	11.8	11.5	4.8	2.9
	안전성	0.6	0.0	0.0	3.3	0.0	0.0
	쾌적성	7.4	9.2	5.9	8.2	4.8	8.6
	직주근접성	10.0	4.6	21.6	11.5	4.8	10.0
	단지 내 환경	3.5	6.2	3.9	3.3	3.2	1.4
	주택내부공간	1.6	0.0	0.0	8.2	0.0	0.0
	없음	2.3	0.0	7.8	3.3	0.0	1.4
	기타	0.3	0.0	2.0	0.0	0.0	0.0
거주 불만의 이유 (%)	교육환경	10.1	0.0	11.5	0.0	9.8	27.1
	자연환경	0.0	0.0	0.0	0.0	0.0	0.0
	교통환경	19.0	7.9	5.8	21.7	14.8	40.0
	문화편의시설	15.4	1.6	23.1	30.0	26.2	0.0
	안전성	5.6	1.6	9.6	5.0	0.0	11.4
	쾌적성	8.8	0.0	17.3	15.0	8.2	5.7
	직주근접성	4.2	1.6	1.9	6.7	3.3	7.1
	단지 내 환경	14.7	20.6	19.2	18.3	13.1	4.3
	주택내부공간	3.3	12.7	1.9	0.0	0.0	1.4
	없음	18.6	52.4	9.6	3.3	24.6	2.9
	기타	0.3	1.6	0.0	0.0	0.0	0.0

나타났다. 2순위는 ‘접근성’으로 약 10%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쾌적성’, ‘문화편의시설’, ‘단지내 환경’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모두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단지내 환경’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도 낮아, 향후 주거지 관리에 시사점으로 고려해야 한다.

구간별 ‘거주만족도’ 및 ‘거주만족의 이유’에 대하여 분석한다. ‘거주만족도’는 ANOVA분석을 통하여 유의하게 나타나 구간별 차이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도 고찰하였다.

‘거주만족도’가 높은 구간부터 살펴보면, 4-1-5-2-3구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만족의 이유’는 모든 구간에서 ‘자연환경’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앞선 분석에서 자연환경이 성곽 주변 근린환경의 주요 특성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거주성 형성에도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1구간은 거주자들의 ‘거주만족도’가 4구간과 함께 가장 만족도가 높은 구간이다. 거주자 중 69.2%가 자연환경을 거주만족의 이유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밖의 이유들은 모두 10% 이하의 비율로 나타났다. 1구간에서는 ‘거주에 불만’이라는 응답이 전혀 없어 열악한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는 외부의 시각과 물리적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각종 재개발사업들이 계획되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거주불만의 이유’도 ‘없음(약 52%)’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단지 내 환경(약 21%)’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2구간은 ‘거주만족도’가 비교적 낮은 구간이다. 하지만 거주자 중 약 62%는 ‘거주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에 불만’을 선택한 비율이 약 16%에 불과하여 낮은 편이다. ‘거주만족의 이유’로 ‘자연환경’을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나, ‘교통환경’ 및 ‘접근성’을 선택한 비율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거주불만의 이유’는 ‘문화편의시설 부족’, ‘단지내 환경’, ‘쾌적성’의 순이었다.

3구간은 ‘거주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구간이다. 하지만 거주자 중 약 50%가 ‘거주에 만족’하고 있으며, ‘거주에 불만’을 선택한 비율도 약 16%에 불과하여 낮은 편이다. ‘거주만족의 이유’로 ‘자연환경’ 항목의 비중이 41%로 가장 높고 ‘문화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성’ 이 각각 11.5%로 뒤를 잇는다. ‘거주불만의 이유’ 로는 ‘문화편의시설 부족’ , ‘교통환경’ , ‘단지내 환경’ 등이 나타났다.

4구간은 ‘거주만족도’ 가 모든 구간 중 가장 높은 구간이다. 4구간에는 좋은 주거지 또는 부촌으로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암동이 속해 있다. ‘거주만족의 이유’ 로서 ‘자연환경’ 을 선택한 비율이 79%로 이 가장 높았다. 앞선 분석에서 ‘성곽 이미지’ 와 ‘근린환경의 특성’ 으로 ‘자연환경’ 을 선택한 비율과 ‘자연보호 및 경관 증진’ 을 마을 발전을 위해 요구한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난 것과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거주불만의 이유’ 로 ‘문화편의시설 부족’ 이 약 26%로 가장 높았고, 다른 항목은 ‘없음(약 25%)’ , ‘단지내 환경(13%)’ , ‘교육환경(약10%)’ 의 순으로 나타났다.

5구간의 ‘거주만족도’ 는 전체 구간 중에 중간 순위로 나타났다. ‘거주만족의 이유’ 로 ‘자연환경’ 을 선택한 비율이 약 71%로 높은 편이며, ‘거주불만의 이유’ 로 ‘문화편의시설 부족’ 을 1순위로 꼽은 2,3,4구간과 달리 ‘교통환경(40%)’ 이 가장 높았다. 그 외 ‘교육환경’ 에 불만족 하는 비율이 27%로 1,3구간에서는 아예 없었고 2,4구간에서는 약 10% 정도인 것에 비교하여 꽤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 성곽만족도

‘성곽만족도’ 및 ‘성곽만족 또는 불만의 이유’ 에 대하여 거주자 전체 및 구간별로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성곽만족도는 5점 척도로 질문하였고, 성곽에 만족하거나 불만인 이유는 ‘서울성곽에 대해 만족하셨거나 불만인 점’ 을 세 가지씩 쓰도록 한 주관식 질문을 분석하였다. (표 4-16) (표 4-17)

전체적으로 거주자는 ‘성곽에 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앞서 분석한 ‘거주만족도’ 보다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성곽에 만족하는 이유’ 로는 자연환경·경관, 각종 액티비티, 성곽 정비 및 성곽길 개방의 순으로 선택하였다. 자연환경은 거주만족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였다.

구간별 ‘성곽만족도’ 및 ‘성곽만족 및 불만의 이유’ 에 대하여 분

석한다. ‘성곽만족도’는 ANOVA분석을 통하여 유의하게 나타나 구간별 차이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도 고찰하였다.

‘성곽만족도’가 높은 구간부터 살펴보면, 1-5-3-4-2구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1구간과 5구간에서 성곽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나머지 구간에서도 대체로 높았다. 성곽만족의 이유로는 모든 구간에서 자연·경관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운동·등산·산책 등 각종 액티비티와 성곽복원 및 개방도 많이 선택하였다. 다른 구간과는 달리 3구간에서는 특히 조망을 언급한 답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곽불만의 이유는 대체로 소수 의견이었는데, 성곽보수상태, 접근성 열악, 편의시설 부족 등을 들었다.

‘성곽만족의 이유’로 모든 구간에서 자연환경을 1순위로 선택했다. 서울성곽이 내사산에 입지하고 있으며 성곽 개방을 통하여 자연환경과의 연계성이 높아진 측면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 순위는 1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각종 액티비티를 선택하였다. 성곽 이용목적으로 성곽답사 외에도 산책, 등산, 운동, 조망 등 다양한 행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측면이 성곽의 물리적 환경개선 자체보다 만족도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1구간에서는 낙산공원 정비를 통하여 열악한 근린환경의 개선효과가 탁월했다는 점에서 성곽 정비·개방을 선택한 비율이 각종 액티비티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16 성곽만족도

변수	전체	구간					ANOVA	
		1	2	3	4	5	F	Sig.
성곽 만족	4.013	4.210	3.827	4.033	3.850	4.100	2.621	0.035

표 4-17 성곽만족이유 - 거주자 기술통계

변수		전체	구간				
			1	2	3	4	5
성곽만족 이유 (%)	자연환경 ·경관	52.4	42.3	63.6	57.8	64.7	39.0
	각종 액티비티	31.5	26.9	29.5	42.2	26.5	33.8
	성곽정비 ·개방	16.1	30.8	6.8	0.0	8.8	27.3

구간별 분석결과, 1구간은 성곽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불만을 선택한 응답이 전혀 없었다. 성곽만족 이유는 자연·경관, 성곽의 정비 및 개방, 운동·산책·등산 등 각종 액티비티의 순으로 선택하였으나, 다른 구간과 비교하였을 때 1순위로 나타난 자연·경관의 비율이 매우 낮았고, 성곽의 정비 및 개방을 선택한 비율은 높은 편이었다. 성곽불만의 이유는 성곽길이 짧음, 방문객의 의식부족으로 인한 쓰레기 투기 등이 나타났는데 소수의 의견을 보였다.

2구간은 성곽만족도가 가장 낮은 구간이지만, 만족비율이 62%이므로 적지 않은 수치로 나타났다. 성곽만족의 이유로 자연·경관, 운동·산책·등산 등 각종 액티비티, 성곽의 정비 및 개방의 순으로 선택하였다. 자연경관을 성곽만족의 이유로 선택한 비율은 다른 구간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높았으나, 성곽의 정비 및 개방을 선택한 비율은 3,4구간과 함께 매우 낮았다. 성곽불만의 이유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3구간은 성곽만족도가 다른 구간들 중 중간인 구간이다. 성곽만족의 이유는 자연·경관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특히 전망을 언급한 답변이 다른 구간에 비해 많았다. 성곽불만의 이유는 접근이 어렵고 경사가 심하며 길이 불편하다는 응답과 사람이 많다는 답변이 있었다.

4구간은 성곽만족도가 낮은 구간이지만, 만족비율은 70%로 나타났고 불만을 선택한 비율도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곽만족의 이유는 자연·경관, 운동·산책·등산 등 각종 액티비티, 성곽의 정비 및 개방의 순으로 선택하였다. 자연경관을 성곽만족의 이유로 선택한 비율은 매우 높았으나, 성곽의 정비 및 개방을 선택한 비율은 매우 낮았다. 성곽불만의 이유는 창의문 구간이 단절되어 있는 등 성곽 복원이 미흡하고 경사가 심한 점, 방문객이 많아 거주성에 우려가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5구간은 성곽만족도가 높은 구간이다. 성곽만족 이유는 자연·경관, 성곽정비 및 개방, 운동·산책·등산 등 각종 액티비티 등의 답변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곽정비 및 개방, 운동·산책·등산 등 각종 액티비티를 성곽만족의 이유로 선택한 비율이 높아서 나타난 결과이다. 또 성곽불만의 이유는 전체적으로 만족이유보다 소수의 의견을 보이는 데, 편의시설 부족과 쓰레기 투기를 들었다.

(3) 교통접근성 만족도

거주자 전체 및 구간별 ‘교통접근성 만족도’, ‘자동차 보유 여부’에 대하여 분석한다. ‘교통접근성 만족도’, ‘자동차 보유 여부’ 모두 ANOVA분석을 통하여 유의하게 나타나 구간별 차이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도 고찰하였다. ‘교통접근성 만족도’는 설문조사에서 ‘집까지 도착하는데 편리’했는지에 대해 질문한 답변내용을 분석하였다. (표 4-18)

거주자들은 전체적으로 교통이 편리하다고 하였다. 거주자의 ‘교통접근성에 대한 만족’은 앞서 분석한 대로 ‘성곽만족도’와 함께 비슷한 정도로 만족하고 있으며, ‘거주만족도’ 보다는 높은 만족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31.7%로 낮게 나타났다.

‘교통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구간부터 순위대로 살펴보면, 1-4-5-2-3구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1구간이 가장 높았고, 3구간이 가장 낮았다. ‘자동차 보유 비율’이 높은 구간부터 살펴보면, 5-4-3-2-1구간의 순으로 5구간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1구간이 가장 적었다.

구간별 분석결과, 1구간 거주자들은 다른 구간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교통이 편리하다고 답변하였다. 자동차는 14.5%만이 소유하고 있다고 답변하여 다른 구간에 비하여 가장 적게 보유하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구간 거주자들은 교통접근성에 대하여 73.1%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구간에 비해 편리하다고 답변한 정도가 낮은 편이다.

3구간은 교통접근성에 대해 가장 만족도가 낮은 구간이지만, 수치상 68.3%가 만족하여 높은 편이다.

표 4-18 교통접근성 만족도

변수	전체	구간					ANOVA	
		1	2	3	4	5	F	Sig.
교통접근성 만족 (%)	80.5	91.9	73.1	68.3	88.3	79.7	3.890	0.004
자동차 보유여부 (%)	31.7	14.5	31.3	32.8	39.3	40.0	3.165	0.014

4구간은 거주자 중 88.3%가 교통접근성에 만족하여 1구간에 이어 2순위로 높은 편이다.

5구간에서는 거주자의 79.7%가 교통접근성에 만족하고 있어 보통 수준이다. 5구간은 자동차 보유비율이 다른 구간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구간으로 40%가 소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4)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

거주자 전체 및 구간별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 이유’, ‘최근 변화의 시기’에 대하여 분석한다.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 이유’를 제외한 2가지 지표 모두 ANOVA 분석을 통해 유의하게 나타나 구간별 차이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설문조사에서 ‘서울성곽 복원 및 성곽길 개방으로 이 마을에 어떤 변화를 보았는지’에 대해 질문한 답변내용을 분석하였다. (표 4-19) (표 4-20)

거주자의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거주만족도, 성곽만족도, 교통접근성 만족도 등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모든 만족특성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변화의 시기’는 평균 6.3년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변화의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수가 적었지만 성곽 정비 및 개방, 방문활성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9 최근 마을변화에 대한 만족도

변수	전체	구간					ANOVA	
		1	2	3	4	5	F	Sig.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	3.462	3.758	3.196	3.344	3.475	3.486	4.907	0.001
최근 변화의 시기 (년)	6.3	8.5	6.8	6.5	4.3	3.3	8.782	0.000

표 4-20 최근 변화만족 이유

변수		전체	구간				
			1	2	3	4	5
최근변화 만족이유 (%)	성곽 정비·개방	56.4	82.9	100.0	50.0	14.8	66.7
	방문 활성화	43.6	17.1	0.0	50.0	85.2	33.3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구간부터 순위대로 살펴보면, 1-5-4-3-2구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1구간이 가장 높았고, 2구간이 가장 낮았다.

‘최근 변화의 시기’에 대한 구간별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오래되었다고 응답한 구간의 순으로 살펴보면, 1-2-3-4-5구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1구간이 가장 높았고, 5구간이 가장 낮았다.

구간별 분석결과, 1구간은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가 모든 구간 중에 가장 높았고 불만의 비율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낙산공원 정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을 최근 변화의 시기에 대하여 거주민들은 10년 이상 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좋아졌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평균 8.5년으로 다른 구간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오래전부터 변화가 있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변화 만족의 이유는 ‘성곽 정비·개방’, ‘방문활성화’의 순이었다.

2구간에서는 최근 변화에 대하여 다른 구간에 비하여 가장 만족도가 낮은 구간이다. 혜화문 부근에서 성곽이 단절되어 있으며 일부 성곽위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등 성곽 복원 및 정비가 미비하다는 인식이 많고, 성곽 정비의 효과가 거주자에게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 향후 성곽 정비의 여지가 더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변화 시기에 대해 거주민은 평균 6.8년으로 나타났다. 최근 변화 만족의 이유에 대해서는 ‘성곽 정비·개방’이 다른 구간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높게 나왔다.

3구간은 거주자의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낮았다. 마을 최근 변화 시기에 대해서는 평균 6.5년으로 나타났다. 최근 변화 만족의 이유에 대해서는 ‘성곽 정비·개방’과 ‘방문활성화’가 동등하게 나왔다.

4구간에서는 거주자의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구간에 비하여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을 최근 변화의 시기는 평균 4.3년으로 나타났다. 최근 변화의 이유로 다른 구간과는 달리 ‘방문 활성화’, ‘성곽 정비·개방’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3장 4절의 분석내용을 참조하면, 4구간에서는 성곽 정비 및 성곽길 개방으로 인해 방문객의 숫자가

증가하고 근린환경 내 상점, 음식점, 갤러리 등이 생겨나는 등 토지이용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방문객 증가를 통한 지역 활성화의 효과에 대해 주목해야 하며 이는 향후의 시사점으로 고려해야 할 점으로 판단된다.

5구간은 거주자의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마을 최근 변화의 시기에 대하여 거주자들은 10년 이상 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좋아졌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평균 3.3년으로 나타났다. 최근 변화의 이유는 ‘성곽 정비·개방’, ‘방문 활성화’의 순이었다.

4. 분석종합

개인 레벨 분석으로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거주자의 환경인식, 이용행태, 만족도 각각의 구간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의 환경인식을 분석한 결과, 거주자는 모든 구간에서 성곽이미지를 역사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근린환경 특성 및 마을발전을 위한 환경에의 요구 측면에서 자연환경에 가치를 더 많이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자 전체 중 71.9%가 성곽산책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1달 중에 성곽을 산책하는 횟수는 6.32회로서 1주일에 약 1.5회는 성곽에 대한 이용행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거주자는 대체로 ‘거주에 만족’ 하며, 그 이유로는 자연환경이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58.7%)를 나타낸다. 거주불만의 이유에서 주목할 점으로 거주환경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정비구역이 많은 성곽 주변 주거지에서 단지내 환경에 불만하는 비율이 14.7%로 교통환경·없음·문화편의시설에 대한 것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하여 ‘성곽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교통접근성에 대하여는 매우 만족’하며 ‘최근 변화에 대하여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거주자의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환경인식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3개의 두드러지는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1,4,5

구간에서 주민생활이 성곽 및 자연과 관계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5구간에서는 다른 구간과 비교하였을 때 성곽너머마을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모든 구간에서 성곽이미지를 역사환경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근린환경의 특성에 대해 역사환경보다 자연환경을 선택한 비율이 높아 성곽보다는 성곽이 입지하고 있는 산과의 관련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마을발전을 위한 요구에 대한 인식으로는 모든 구간에서 자연환경 보호가 마을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2구간과 5구간에서 성곽방문 활성화를 비교적 높게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 주거환경 개선에 대하여 모든 구간에서 제일 낮게 요구하고 있다.

구간별 거주자의 성곽 이용행태를 종합해보면, 거주자의 구간별 성곽 산책의 비율은 1구간과 5구간에서 가장 높았고, 4구간과 2구간은 대체로 한다는 특성을 나타낸 반면 3구간은 성곽산책을 한다는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성곽과 주변 근린환경 사이의 입지특성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구간별 거주자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4개의 두드러진 특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구간별 거주만족도는 4구간에서 가장 높았고, 일반적으로 거주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1구간과 5구간에서도 매우 높게 나타나 시사점을 준다. 거주만족의 이유로는 모든 구간에서 자연환경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거주불만의 이유는 빈도가 낮았으나 교통환경과 문화편의시설의 부족, 단지내 환경 등을 선택하여 향후 성곽 주변 근린환경 관리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구간별 거주자의 성곽만족도는 1구간과 5구간에서 가장 높았고, 모든 구간에서 대체로 높았다. 성곽만족의 이유로 모든 구간에서 자연경관을 선택했다. 성곽불만의 이유는 소수 의견으로, 성곽보수상태, 접근성 열악, 편의시설 부족 등을 들었다. 셋째, 전체 구간에서 거주자들은 대체로 교통이 편리하다고 하였다. 구간별로는 1구간이 가장 높았고, 3구간이 가장 낮았다. 또한 ‘주차불편’ 및 ‘도로불편’을 이유로 자동차 보유비율이 낮지만 대중교통 접근성 및 보행편의로 인해 거주자들이 ‘교통환경’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구간별 거주자의 최근변화에 대한 만족특성을 종합해보면, 1구간, 5구간, 4구간의 순으로 최근 변화에 만족한 비율이 높았다. 최근 변화의 이유로 2구간에서는 ‘성곽복원 및 성곽길 개방’을, 4구간에서는 방문객 활성화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최근 마을이 좋아졌다는 것이 성곽복원 및 성곽길 개방으로 인한 것이며, 최근 북악산이 개방되면서 관광객이 몰리는 현상도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5장 서울성곽과 주변부 방문객의 환경인식 · 이용행태 · 만족도

제5장에서는 서울성곽과 주변부 방문객의 환경인식 · 이용행태 · 만족도를 개인 레벨에서 고찰한다. 각 항목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찰하며, 방문객의 환경인식 · 이용행태 · 만족도의 구간별 특성을 구간마다의 환경특성과 연계함으로써 해석한다.

제2절은 서울성곽과 주변부 방문객의 환경인식, 이용행태 및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찰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상관관계의 분석은 제1장 이론적 틀과 개념 모델에서 정리하였듯이 총 3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림5-1) 2-1단계는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방문객의 환경인식과 이용행태의 상관관계, 2-2단계는 방문객의 환경인식과 만족도의 상관관계, 2-3단계는 방문객의 이용행태와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이를 통해 이용행태가 환경인식과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제3절에서는 구간별로 방문객의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환경인식 · 이용행태 · 만족도를 분석한다. 3가지 항목에 대한 방문객 전체와 구간별 지표를 도출하며 이를 종합함으로써 구간별 특성을 상세하게 도출한다. 또한 구간별 특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3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각 구간의 환경특성과 연계하여 해석함으로써 그 이유를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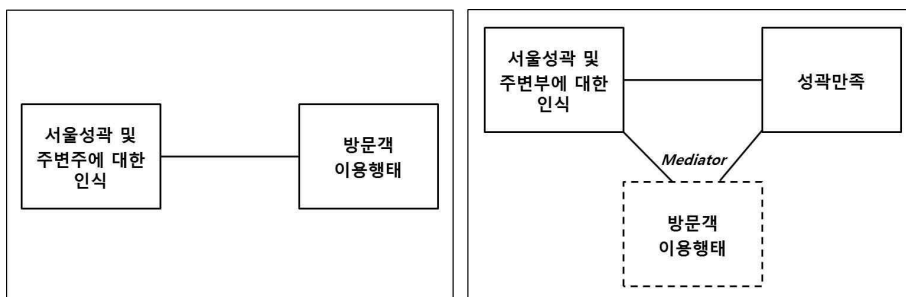


그림 5-1 분석의 단계-방문객

제1절 분석의 목표와 방법

1. 분석의 목표

제5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본 연구의 3개의 주요 가설들을 분석한다:

- 주요 가설 1.1 (H 1.1) : 방문객의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환경인식은 이용행태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 주요 가설 1.2 (H 1.2) : 방문객의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환경인식은 성곽만족도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 주요 가설 1.3 (H 1.3) : 방문객의 이용행태는 성곽만족의 매개 요소(mediator)일 것이다.

또한 아래와 같이 본 연구의 예비가설들을 분석한다.

- 예비 가설 2.3 (H 2.3) : 서울성곽과 주변부 방문객의 최근 변화에 대한 긍정은 이용행태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2. 분석방법

본 제5장에서는 방문객 358명에 대하여 2012년 10~11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이 3개의 변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방문객들의 환경인식, 이용행태, 만족도.

(1)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방문객의 환경인식 측정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방문객의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환경인식은 다음과 같이 3개의 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V-1-1) 성곽 이미지, (V-1-2) 출발지 환경특성, (V-1-3) 환경에 대한 요구.

각각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을 수행하였다.

- (V-1-1) “서울 성곽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
- (V-1-2) “여기(출발지)의 분위기”
- (V-1-4) “여기(출발지)가 더 발전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

설문문항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방문객의 ‘성곽이미지(V-1-1)’는 ‘서울성곽하면 떠오르는 것’에 대해 3가지씩 쓰도록 한 주관식 질문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성곽, 보존, 정비, 조선, 문화재, 전쟁에 대한 방비, 유네스코문화유산 등을 역사항목으로, 공원, 산, 숲, 경치 등을 자연항목으로 정리하였다.

‘출발지 환경 특성 정의(V-1-2)’를 측정하려는 취지에서 “여기(출발지)의 분위기에 대해 가장 적합한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객관식 문항으로 다음과 같은 답변 중에 선택하도록 하였다: ①역사환경, ②자연환경, ③문화환경, ④역사+자연환경, ⑤역사+자연+문화환경, ⑥자연+문화환경, ⑦기타(주관식 가능).

방문객의 ‘환경에 대한 요구(V-1-3)’의 수준을 측정하려는 취지에서 “여기(출발지)가 더 발전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에 관해 서술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주관식 문항으로 다음과 같은 순위로 답변이 나왔으며 상위 4개만을 변수로 선택하였다: ①자연보호 및 경관개선, ②성곽 주변부 환경 정비, ③성곽 주변부 편의 및 안내시설 확충, ④볼거리·이벤트 확충.

(2) 방문객의 이용행태 측정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방문객의 이용행태는 다음과 같이 7개의 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V-2-1) 성곽방문 여부, (V-2-2) 성곽 이용목적, (V-2-3) 출발지 선택이유, (V-2-4) 출발지 이용시설, (V-2-5) 목적지 이용시설, (V-2-6) 성곽접근 교통수단(보행여부), (V-2-7) 이동시간. 각 항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 (V-2-1) “귀하는 서울성곽길 산책을 하십니까”
- (V-2-2) “여기(출발지) 방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V-2-3) “다른 성곽답사지점도 많이 있는데 여기(출발지)를 선택하신 이유는”
- (V-2-4) “출발 전에 이 근처 마을에서 이용한 시설은 무엇입니까”
- (V-2-5) “목적지에서 이용하실 시설은 무엇입니까”
- (V-2-6) “귀하는 근처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서 여기까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나요”

- (V-2-7) “귀하는 근처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서 여기까지 이동시간은 얼마나 걸리셨나요”

(3) 방문객의 만족도 측정

방문객의 만족특성은 다음과 같이 3개의 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V-3-1) 성곽만족도, (V-3-2) 교통접근성 만족도, (V-3-3) 최근변화에 대한 만족도. 각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을 수행하였다.

- (V-3-1) “서울성곽에 대한 만족도”
- (V-3-2) “여기까지 도착하시는데 편리하셨나요”
- (V-3-3) “이 마을이 최근 몇 년 동안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성곽만족의 이유로 (V-3-1-1) 자연환경·경관, (V-3-1-2) 각종 액티비티의 가능성, (V-3-1-3) 성곽의 정비·개방 등 3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서울성곽에 대해 만족하셨거나 불만인 점을 세 가지 써주세요”라는 주관식 질문으로 다음과 같이 빈도수가 많이 나온 순으로 3가지를 변수로 선택하였다: ①자연환경·경관, ②각종 액티비티가 가능해서, ③성곽 정비·개방.

최근변화에 만족 이유로 (V-3-3-1) 성곽 정비·개방, (V-3-3-2) 방문활성화 등 2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서울성곽 복원 및 성곽길 개방으로 이 마을에 어떤 변화를 보았는지’라는 주관식 질문으로 다수의 응답이 나온 성곽 정비·개방, 방문활성화로 정리하였다.

3. 분석

제2절에서는 서울성곽과 주변부 방문객의 환경인식, 이용행태,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찰하며, 이를 위하여 총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1단계는 서울성곽과 주변부 방문객의 환경인식과 이용행태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주요 가설(H 1.1)을 검증한다. 이에 더하여 최근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방문객의 이용행태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예비가설(H 2.3)을 검증한다.

또 같은 방법으로 2-2단계는 서울성곽과 주변부 방문객의 환경인식과 성곽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주요 가설(H 1.2)을 고찰한다.

2-3단계는 방문객의 이용행태가 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환경인식과 성곽만족도 사이를 매개하는지 여부를 고찰하며, 이를 2-1단계에서 검증한 예비가설(H 2.3)의 증명내용과 연관하여 해석한다.

제3절에서는 서울성곽과 주변부 방문객의 환경인식, 이용행태, 만족도에 대해 구간별로 상세한 분석을 시행한다. 우선 항목별로 방문객의 인구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방문객의 환경인식, 이용행태, 만족도 각각에 대하여 분석한다. 방문객 전체와 구간에 따른 특성을 도출하며, 성곽 구간별 데이터 값의 차이에 대하여 일반화하기 위하여 ANOVA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구간별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앞서 분석한 제3장 서울성곽과 주변부의 구간별 특성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유를 분석한다.

제2절 환경인식 · 이용행태 · 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

제2절은 서울성곽과 주변부 방문객의 환경인식, 이용행태,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제1장에서 이론적 틀과 개념 모델을 정리하였듯이 총 3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2-1단계는 주요가설 1.1의 검증을 위해 서울성곽과 주변부 방문객의 환경인식과 이용행태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예비가설 2.3의 검증을 위해 최근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이용행태의 상관관계도 함께 분석하였다. 또한 2-2단계는 주요가설 1.2의 검증을 위해 방문객의 환경인식과 성곽만족도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 2-3단계는 주요가설 1.3의 검증을 위해 방문객의 이용행태와 성곽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앞서 2-1단계에서 검증한 예비가설과 함께 해석함으로써 방문객의 이용행태가 환경인식과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찰한다.

1. 방문객의 환경인식과 이용행태의 상관관계 분석

서울성곽 및 주변부의 최근 변화와 물리적 특성에 대한 환경인식이 방문객의 성곽방문을 추동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주요가설 1.1-서울성곽과 주변부 방문객의 환경인식은 이용행태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을 검증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하여 방문객의 환경인식과 이용행태-성곽방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5-1)

분석결과, ‘성곽이미지’를 자연환경으로 인식하는 것은 성곽방문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린환경 특성’을 역사환경으로 인식하던 자연환경으로 인식하던 모두 성곽산책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곽이미지에 대해 역사환경으로 인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자연환경으로 인식하는 것과 성곽산책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점은, 방문객의 경우 이용목적이 대상 자체의 특성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성곽이 입지한 내사산과 그 경관을 즐기기 위하여 등산, 산책, 조망 등을 목적으로 성곽을 방문하는 것이 성곽답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보다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거주지가 먼 것과 성곽방문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 4절에 의하면, 성곽은 도심 내 주요시설과 가까워 외곽에서 도심을 방문했다가 성곽도 함께 방문하는 연계 행태가 나타나는데, 이런 행태는 거주지가 먼 사람일수록 다양한 행태를 한번에 보이는 것이다.

예비가설 2.3-서울성곽과 주변부 방문객의 최근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이용행태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의 검증은 2-3단계에서 주요가설 1.3을 분석한 내용과 연계하여 방문객의 이용행태가 환경인식과 성곽만족도 사이를 매개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분석한 결과, ‘최근 변화에 대한 긍정’은 성곽산책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곽 복원 및 성곽길 개방 등 최근의 변화로 마을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용행태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이다.

표 5-1 방문객 환경인식과 성곽방문의 상관관계

구분	성곽방문 (1=함, 0=안함)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성곽이미지_역사환경	0.034	0.523
성곽이미지_자연환경	0.122	0.021
근린환경_역사환경	0.019	0.726
근린환경_자연환경	0.035	0.510
최근 변화에 대한 긍정	0.177	0.001
인구특성_거주지	0.255	0.000

*P<0.10, **P<0.05, ***P<0.01

2. 방문객의 환경인식과 성곽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

서울성곽과 주변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방문객의 성곽만족을 추동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주요가설 1.2-서울성곽과 주변부 방문객의 환경인식은 성곽만족도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을 검증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하여 환경인식과 성곽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5-2)

분석결과, ‘성곽이미지’는 성곽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없었고, ‘근린환경 특성’을 자연환경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환경의 특성에 대해 자연환경으로 인식하는 것과 거주만족도가 연관되어 있는 것은 거주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의 결과로, 앞선 분석결과처럼 성곽방문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새로운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주변 자연으로의 조망이 좋거나 일상생활 중 근처 산·공원으로 산책, 등산 등 자연과 연계활동을 할 때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좋아진다는 제2장 2절 이론 고찰의 내용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더하여 방문객의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교통접근성 만족도’는 성곽만족도와 상관관계를 가지며,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문객들이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식하는 점이 성곽환경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성곽 복원 및 성곽길 개방 등 최근 변화에 의해 마을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방문객의 특성 상 성곽만족도와 관련성이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거주자의 경우와는 차이가 나타났다.

표 5-2 방문객 환경인식과 성곽만족도,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구분		성곽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환경 인식	성곽이미지_역사환경	-0.018	0.743
	성곽이미지_자연환경	0.004	0.947
	근린환경_역사환경	-0.033	0.536
	근린환경_자연환경	0.161	0.002
만족도	교통접근성 만족	0.090	0.093
	최근 마을변화에 긍정	0.060	0.261

*P<0.10, **P<0.05, ***P<0.01

3. 방문객의 이용행태와 성곽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

방문객의 성곽방문이 성곽만족을 추동한 요인일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주요가설 1.3-방문객의 이용행태가 성곽만족의 매개요소일 것이다-을 검증하며, 또한 2-1단계에서 검증한 예비가설 2.3-서울성곽과 주변부 방문객의 최근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이용행태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의 분석내용과 함께 해석함으로써 방문객의 이용행태가 환경인식과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위하여 방문객의 이용행태와 성곽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표 5-3)

분석결과, 방문객의 이용행태와 성곽만족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성곽방문’과 대중교통지점에서 성곽 진입부까지 ‘보행여부’는 모두 성곽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성곽의 이용목적은 모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세 가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방문객의 이용행태가 환경인식과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고 있는지 고찰하였는데, 서울성곽과 주변부 최근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성곽방문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비가설 2.3을, 성곽방문과 성곽만족도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요가설 1.3을 입증하였다. 즉 성곽 이용행태가 방문객의 환경인식과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고 있는 것이다.

표 5-3 방문객 이용행태와 성곽만족도의 상관관계

구분	성곽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성곽방문	0.154	0.004
이용목적 - 성곽답사	-0.017	0.751
이용목적 - 등산	0.001	0.980
이용목적 - 산책	0.059	0.266
이용목적 - 서울전망	0.030	0.569
성곽접근 교통수단	0.206	0.000

*P<0.10, **P<0.05, ***P<0.01

4. 분석종합

서울성곽과 주변부 방문객의 환경인식, 이용행태,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와 방문객의 이용행태가 환경인식과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방문객의 환경인식과 이용행태-성곽방문-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성곽이미지’를 자연환경으로 인식하는 것은 성곽방문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린환경 특성’을 역사환경으로 인식하던 자연환경으로 인식하던 모두 성곽산책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가설의 검증을 위한 항목으로 ‘최근 변화에 대한 긍정’은 성곽방문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인식과 성곽만족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성곽이미지’는 상관관계가 없었고, ‘근린환경 특성’을 자연환경으로 인식하는 것은 성곽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하여 방문객의 만족도 간 상관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교통접근성 만족도’는 성곽만족도와 상관관계를 가지며,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의 이용행태와 성곽만족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성곽방문’과 대중교통지점에서 성곽 진입부-출발지-까지 ‘보행여부’는 모두 성곽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성곽의 이용목적은 모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세 가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방문객의 이용행태가 환경인식과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고 있는지 고찰하였는데, 서울성곽과 주변부 최근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성곽방문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비가설 2.3을, 성곽방문과 성곽만족도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요가설 1.3을 입증하였다. 즉 성곽 이용행태가 방문객의 환경인식과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고 있는 것이다.

제3절 구간별 환경인식 · 이용행태 · 만족도 분석

1. 방문객의 환경인식 분석

방문객 인구특성과 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환경인식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방문객 인식의 각 항목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5-4)

분석한 결과, 방문객은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지가 멀수록 ‘성곽 이미지’에 대해 자연환경으로 인식하고 있다. ‘근린환경 특성’에 대해서는 남성은 역사환경으로 여성은 자연환경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역사환경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5-4 방문객 환경인식과 인구특성의 관계

구분		방문객 인식			
		성곽이미지 _역사환경	성곽이미지 _자연환경	근린환경특성 _역사환경	근린환경특성 _자연환경
인구 특성	성별	0.171	0.187	0.517**	-1.184***
	연령	-0.082	-0.021	-0.166*	0.058
	최종학력	0.002	0.322**	0.17	0.087
	거주지	-0.737	-2.548***	-0.038	1.971**

*P<0.10, **P<0.05, ***P<0.01

(1) 성곽 이미지

서울성곽 주변 방문객들이 인식하고 있는 ‘성곽 이미지’에 대해서 방문객 전체 및 구간별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서울성곽 주변 방문객들이 인식하고 있는 ‘성곽 이미지’는 ‘서울성곽하면 떠오르는 것’에 대해 3가지씩 쓰도록 한 주관식 질문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성곽, 보존, 정비, 조선, 문화재, 전쟁에 대한 방비, 유네스코문화유산 등을 역사항목으로, 공원, 산, 숲, 경치 등을 자연항목으로 정리하였다. 그 밖의 응답은 빈도가 낮아 본 기술통계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5-5)

‘성곽 이미지’를 역사환경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55.6%로 높은 편

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성곽에 대하여 떠오르는 것을 질문한 것이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성곽 이미지’를 자연환경으로 인식한 방문객도 41.3%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수치였다. 성곽이 내사산 정상 외곽에 위치함으로 성곽과 산의 자연이미지가 중첩되는 것이며, 실제 성곽의 이용목적으로 방문객들이 성곽답사보다 등산, 산책 등 자연환경과 연관된 행태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다음 분석항목인 ‘출발지 환경 특성’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것의 이유이기도 하다.

구간별로 보면, 3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성곽 이미지’에 대하여 역사환경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크게 나타났다. ‘성곽 이미지’에 대해 방문객이 선택한 항목 사이의 비율-역사환경 대(對) 자연환경-이 가장 큰 구간은 1구간으로 1.71배에 달한다. 2,4,5구간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구간의 경우는 반대로 ‘성곽 이미지’에 대해 자연환경 대(對) 역사환경의 비율이 2.54배에 이르러 역사환경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다른 구간에 비해 가장 낮고 동시에 자연환경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크며, 이는 거주자의 경우와 같은 결과로 분석된다. 이는 성곽경관이 성곽 진입부에서 거의 인식되지 않으며, 최근 북악산 등산로가 개방되어 방문객이 증가함으로 방문객들의 인식이 높아졌으며, 등산을 위한 시점으로 성곽 진입부가 활용되고 있는 성곽의 공간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구간에서는 역사환경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성곽 진입부에 혜화문이 위치하고 있으며 성곽이 단절된 구간으로 방문객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측면이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간선가로에 위치하고 있어 랜드마크로서 인지성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표 5-5 성곽 이미지

변수		전체	구간				
			1	2	3	4	5
성곽 이미지 (%)	역사환경	55.6	54.7	77.6	20.6	56.0	65.4
	자연환경	41.3	32.0	49.3	52.4	36.0	39.7

(2) 출발지 환경 특성

‘출발지 환경 특성’에 대한 인식을 방문객 전체 및 구간별로 분석했는데, 이는 ‘출발지 분위기’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하였다. 출발지 환경은 여러가지 특성이 복합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한 가지로 정의하기 어려우므로, 역사환경·자연환경·문화환경 등 세 가지 항목을 번갈아 중복하여 객관식 문항을 작성하였고, 이를 각각 분리하여 산입하였다. 또한 기타 항목을 추가하여 주관식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5-6)

전체적으로 ‘출발지 환경 특성’을 ‘역사환경+자연환경’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출발지의 분위기에 성곽과 성곽이 입지한 내사산이 모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역사환경+자연환경+문화환경’과 ‘자연환경’을 선택한 응답도 많아, ‘자연환경’ 항목을 포함한 답변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간별 분석결과, 1구간과 5구간에서만 ‘역사환경+자연환경+문화환경’을 선택한 응답이 제일 많았는데, 이는 대학로와 사직동 인근에 위치한 문화시설들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거주자는 2구간에서도 문화환경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방문객의 경우와 다르게 나타났다. 나머지 구간에서는 ‘역사환경+자연환경’을 선택한 비율이 제일 많았다.

표 5-6 출발지 환경 특성

변수		전체	구간				
			1	2	3	4	5
출발지 특성 (%)	역사	6.0	5.3	8.8	3.2	8.5	4.0
	자연	16.2	20.0	17.6	25.4	8.5	10.7
	문화	1.1	2.7	0.0	0.0	1.4	1.3
	역사+자연	37.8	24.0	48.5	42.9	45.1	30.7
	역사+자연+문화	27.0	30.7	23.5	15.9	26.8	36.0
	자연+문화	11.6	17.3	0.0	12.7	9.9	17.3
	기타	0.3	0.0	1.5	0.0	0.0	0.0

1구간 방문객들의 ‘역사환경’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았다. 이것은 낙산 정상부에 조성된 공원으로서의 환경적 특성 및 산책을 통하여 자연을 즐기는 등의 행태가 많이 나타나는 점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구간은 ‘역사+자연환경’으로 인식한 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역사환경도 방문객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는 혜화문, 창의문 등 성곽 랜드마크가 성곽 진입부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며, 제4장에서 2구간은 거주자들이 ‘근린환경 특성’으로 유일하게 ‘역사환경’을 선택한 비율이 ‘자연환경’보다 높았던 구간이다. 3구간은 ‘역사환경’으로 인식한 비율이 낮은 반면에 ‘자연환경’은 높게 나타난 구간이다. 이는 북악산으로의 등산로의 개방 및 주변 산으로의 조망이 매우 좋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4구간은 방문객의 ‘자연환경’과 ‘역사환경’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구간에서 방문객의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은 높게 나타났다.

종합해볼 때, 방문객들이 ‘출발지 환경 특성’으로 선택한 항목 중 ‘자연환경’을 인식한 비율-자연환경이 포함된 항목-이 모든 구간에서 90%이상으로 나타나 서울성곽의 진입부는 모두 자연환경적 특성이 매우 강하며, 특히 역사 환경적 특성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3) 출발지 발전을 위한 요구

서울성곽 방문객의 ‘출발지 발전을 위한 요구’에 대하여 방문객 전체 및 구간별로 나누어 분석했다. ‘출발지가 더 발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하여 3가지를 쓰도록 한 주관식 문항을 토대로 하였다. 답변문항에서 ‘자연환경 보호’와 ‘성곽 및 자연환경의 경관 증진’에 관한 내용은 거주자 항목과 내용상 일치를 위하여 ‘자연보호 및 경관개선’으로 정리하였다. 실제 성곽과 자연환경이 공간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경관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연구대상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표 5-7)

전체적으로 방문객의 ‘출발지 발전을 위한 요구’로는 성곽 주변부

편의·안내시설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 순위인 성곽 주변부 환경 정비보다 2배가 넘는 빈도를 보인다. 그 밖의 항목으로는 볼거리 및 이벤트, 자연보호 및 경관개선 등이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거주자의 ‘마을발전을 위한 요구’로 자연보호 및 경관개선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과 비교가 되는 지점이다.

구간별로 분석해볼 때, 3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성곽 주변부 편의·안내시설 확충, 주변부 환경정비, 이벤트, 자연 보호 및 경관 개선의 순으로 요구가 나타났다.

3구간에서만 주변부 환경 정비에 대한 요구, 편의·안내시설 확충, 이벤트, 자연 보호 및 경관 개선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벤트에 대한 요구는 3순위지만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북악산 개방 및 와룡공원의 전망이 뛰어나 방문객이 집중됨으로 아직 진입로 개선, 안전시설 확충 등 주변부 환경정비 및 편의·안내시설 확충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와룡공원에서는 북촌, 가회동 등지를 방문한 관광객의 연계방문행태가 많이 나타나며, 서울도심을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의 기능도 하므로 단체 관광객도 종종 볼 수 있는 장소이다. 그런 점에서 체험활동, 행사 등 이벤트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5구간에서는 편의·안내시설 확충, 이벤트, 주변부 환경정비의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특히 편의·안내시설에 대한 요구가 약 88%로 나타나 매우 높았다. 5구간은 인왕산 등산을 위한 방문객들이 몰리는 경우, 화장실, 음수대, 벤치, 자판기 등의 요구가 있었으며 골목길을 통해 접근하기 때문에 안내시설의 필요 역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른 구간과 비교하여 5구간 주변에는 커피숍, 식당 등도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요구

표 5-7 출발지 발전을 위한 요구

변수		전체	구간				
			1	2	3	4	5
출발지 발전을 위한 요구 (%)	자연·경관 개선	6.5	3.4	4.8	7.6	20.4	0.0
	주변부 환경정비	24.7	40.7	28.6	36.7	18.4	4.8
	편의·안내시설	55.5	49.2	42.9	29.1	55.1	88.1
	이벤트	13.4	6.8	23.8	26.6	6.1	7.1

가 많았는데 주변 지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이라고 판단 된다.

종합해보면, 1,2,4,5구간에서는 편의·안내시설 확충을, 3구간에서는 주변부 환경정비 및 개선을 하였을 때 출발지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할 수 있다.

2. 방문객의 이용행태 분석

방문객 인구특성과 이용행태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곽 방문’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성별·연령·최종학력·거주지 등 인구 특성 항목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5-8)

분석결과, ‘성곽방문’은 남성일수록, 연령·학력이 높을수록, 거주지가 멀수록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성곽방문과 방문객 인구특성의 관계

구분		성곽방문
인구 특성	성별	0.607**
	연령	0.385***
	최종학력	0.268*
	거주지	-5.932***

*P<0.10, **P<0.05, ***P<0.01

(1) 성곽 방문

‘성곽방문’을 한다는 의미는 방문을 평소에 방문했었다는 의미도 있으나, 성곽이란 말에 주의를 기울여 방문객이 등산을 온 경우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사원들이 설문조사 진행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도왔으므로 연구에서는 성곽답사, 등산, 산책 등의 행태를 모두 포괄하는 방문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한다.

‘성곽방문’ 및 ‘방문횟수’에 대한 방문객 전체 및 구간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표 5-9)

방문객 전체 중 39.8%가 성곽 방문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성곽

방문을 한다고 응답한 방문객의 월 방문횟수는 2.64회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분석해볼 때, 1구간은 방문객의 36%가 성곽방문을 한다고 응답했고, 월 2.6회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구간에서는 성곽방문을 한다고 응답한 방문객이 75.8%로 매우 많았고, 월 2.3회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구간에서는 42.9%가 성곽방문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비교적 높은 수치이다. 월 방문횟수는 2.6회였다. 4구간 방문객은 26.4%가 성곽방문을 한다고 응답하여 낮은 편이나, 방문횟수는 월 3.5회로 높게 나타났다. 5구간은 방문객 중 23.1%만이 성곽방문을 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낮게 나타났고, 월 2.9회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구간별로 2구간에서만 76%로 가장 많은 방문객들이 성곽 방문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3구간은 중간정도, 나머지 구간에서는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성곽방문’ 항목은 ANOVA분석을 통하여 유의하게 나타나 구간별 차이와 그 이유를 분석해 보았다.

‘성곽방문’을 한다고 응답한 방문객의 비율이 높은 구간부터 살펴보면, 2-3-1-4-5구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난 2구간과 다음 순위인 3구간은 모두 출발지 선택의 이유로 접근성을 선택한 비율이 높은 구간이다. 해화문 주변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워낙 좋은 지역이며, 와룡공원은 북악산 등산시점으로서 경관이 수려한 것에 비하여 도심과 인접하여 교통접근성이 좋은 데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장 낮은 순위인 5구간에서는 인왕산 등산과 성곽답사를 이용목적으로 한 방문객이 많으며 방문횟수가 잦을 수 있는 이용행태인 산책을 목적으로 한 방문객이 가장 적은 구간이므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표 5-9 성곽방문 여부 및 방문횟수

변수	전체	구간					ANOVA	
		1	2	3	4	5	F	Sig.
성곽방문 (%)	39.8	36.0	75.8	42.9	26.4	23.1	14.622	0.000
성곽방문 횟수 (회)	2.6	2.3	2.3	2.6	3.5	2.9	1.637	0.169

(2) 성곽 이용목적

‘성곽 이용목적’에 대한 방문객 전체 및 구간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표 5-10)

방문객 전체 중 성곽 이용목적으로 등산을 선택한 비율이 38%로서 가장 높았고, 산책, 성곽답사, 서울전망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간별 방문객의 성곽 이용목적으로, 1구간은 산책, 성곽답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책을 목적으로 한 방문객이 가장 많은 구간은 1구간이 유일하다. 이는 제4장에서 1구간 거주민의 성곽산책이 가장 많은 것과 같은 이유로 1구간이 산책을 하기에 가장 편리한 공간환경을 지녔다고 판단할 수 있다.

2구간과 3구간은 등산, 산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4구간과 5구간은 등산, 성곽답사, 산책, 서울전망의 순으로 나타났다. 5구간은 등산, 성곽답사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산책 및 서울전망을 선택한 비율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5-10 성곽 이용목적

변수		전체	구간				
			1	2	3	4	5
성곽 이용 목적 (%)	성곽답사	23.8	30.7	5.6	19.0	24.0	37.7
	등산	37.7	6.7	57.7	39.7	38.7	46.8
	산책	25.2	45.3	23.9	27.0	21.3	9.1
	서울전망	9.7	12.0	9.9	7.9	13.3	5.2
	기타	3.6	5.3	2.8	6.3	2.7	1.3

(3) 출발지 선택 이유, 출발지 및 목적지 이용시설

‘출발지 선택 이유’, ‘출발지 및 목적지 이용시설’에 대한 방문객 전체 및 구간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표 5-11)

전체적으로 보면, 접근성 때문에 출발지를 선택하는 방문객이 45.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성곽답사는 38%로 역시 중요한 출발지 선택의 이유였다. 출발지 이용시설로는 식료품점, 식당, 마을둘러보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개 항목 모두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목적지 이용시설로는 마을둘러보기, 식당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문객들의 약 49%가 도착지 주변 마을을 둘러본다고 응답하여 향후 성곽 주변의 주거지 관리를 위한 시사점으로 의미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출발지 선택이유’에 대한 구간별 분석결과, 성곽답사를 가장 많이 선택한 5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1구간은 성곽답사가 출발지 선택이유로서 접근성과 비슷한 수치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방문객이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1구간과 4구간에서는 마을둘러보기를, 2구간에서는 식당을, 3구간과 5구간에서는 식료품점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1구간 방문객의 출발지 이용시설로는 마을둘러보기, 식료품점, 식당, 문화시설의 순이었다. 2구간에서는 식당, 식료품점, 마을둘러보기 순으로 나타났다. 식당을 가장 많이 선택한 이유는 2구간 인근에 유명한 식당가

표 5-11 출발지 선택 이유, 출발지 및 목적지 이용시설

변수		전체	구간				
			1	2	3	4	5
출발지 선택이유 (%)	접근성	45.8	39.0	83.3	74.3	36.7	18.4
	성곽답사	38.0	36.6	8.3	20.0	30.0	71.4
	자연이용조망	9.5	9.8	4.2	5.7	16.7	10.2
	주변시설 이용	6.7	14.6	4.2	0.0	16.7	0.0
출발지 이용시설 (%)	마을둘러보기	28.0	43.5	17.8	33.3	37.8	12.0
	문화시설	4.7	8.1	0.0	0.0	2.2	9.3
	식료품점	36.7	24.2	22.2	45.8	28.9	54.7
	식당	30.5	24.2	60.0	20.8	31.1	24.0
목적지 이용시설 (%)	마을둘러보기	49.2	36.5	76.6	85.5	23.4	36.8
	문화시설	9.1	14.3	0.0	5.5	9.4	13.2
	식료품점	9.8	3.2	2.1	5.5	6.3	27.9
	식당	32.0	46.0	21.3	3.6	60.9	22.1

가 형성되어 있으며, 식당을 이용한 방문객들의 성곽의 연계이용행태가 제3장에서 조사되었다. 3구간에서는 식료품점, 마을둘러보기, 식당 순이었다. 4구간에서는 마을둘러보기, 식당, 식료품점 순이었고, 5구간에서는 식료품점, 식당, 마을둘러보기, 문화시설 순이었다.

‘목적지에서 이용하는 시설’로는 1구간과 4구간에서 출발한 방문객은 식당을, 2,3,5구간에서 출발한 방문객은 마을둘러보기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목적지를 함께 분석하였을 때, 낙산공원(1구간), 혜화문(2구간), 창의문(4구간)에 도착하면 마을둘러보기를 가장 많이 하고, 혜화동(1구간), 와룡공원(3구간)에 도착하면 식당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구간별 방문객의 목적지와 목적지 시설을 연계하여 구간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림5-2) (표 5-12)

1구간에서 조사된 목적지 이용시설로는 식당, 마을둘러보기, 문화시설의 순이었다. 혜화동 등 인접 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방문객이 많은 점에서 예상된 결과이다. 1구간 방문객이 선정한 목적지는 인근 지역인 혜화동(대학로), 동대문, 벽화마을 등이었다.

2구간에서는 마을둘러보기, 식당 순이었다. 방문객이 선정한 목적지는 낙산공원이 가장 많아, 주변의 이화동 벽화마을 등을 둘러보는 행태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3구간에서는 마을둘러보기가 74.6%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식료품점, 식당, 문화시설 등은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방문객들이 선정한 목적지는 창의문, 혜화문의 순으로 나타나, 최근 갤러리와 좋은 식당·카페 등이 마을 곳곳에 생겨난 부암동과 대학로 인근을 둘러보는 목적지에서의 연계이용행태가 나타나는 것이다.

4구간에서는 식당, 마을둘러보기, 문화시설의 순이었다. 방문객들이 선정한 목적지는 와룡공원, 혜화문, 낙산의 순으로 나타나 인근에 위치한 성북동, 대학로 등지의 연계이용행태가 나타나는 것이다.

5구간에서는 마을둘러보기, 식료품점, 식당, 문화시설 순이었다. 방문객이 선정한 목적지는 인왕산, 창의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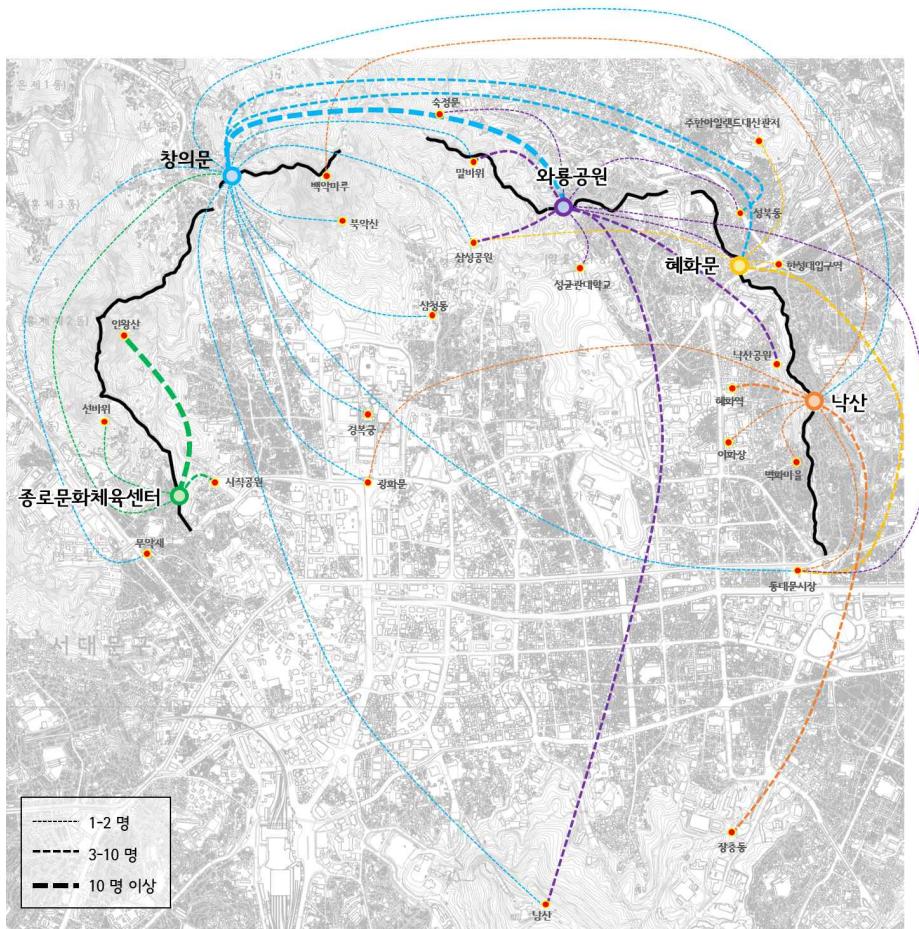


그림 5-2 방문객의 목적지 선택

표 5-12 구간별 방문객 목적지

구간	목적지
1구간	혜화역(혜화동)5, 장충동5, 벽화마을2, 백악마루1, 동대문시장1, 식당1, 이화장1, 광화문1, 성곽길2 (총 19)
2구간	코스탐방15, 산4/중턱4/말바위1/안내소2/전망대3, 공원정자6, 동대문4, 걷는대로4, 돌아옴3, 지하철역1, 대사관쪽1, 남편직장근처1, 낙산1, 삼청산1, 집1, 미정2, 끝까지1 (총 65)
3구간	없음(출발지)8, 말바위5, 삼청공원4, 산정상3, 남산3, 낙산공원3, 동대문2, 성북동2, 혜화문1, 숙정문1, 성균관대1, 집1 (총 34)
4구간	와룡공원14, 혜화문8, 성북동7, 집(산책?)6, 북악산코스2, 낙산2, 성곽1, 남산1, 경복궁1, 삼청공원1, 동대문1, 광화문1, 무악재1, 삼촌동1, 이문동1, 중랑구 목동1, 용인1, 연신내1, 도착임(말바위안내소 출발)1 (총 57)
5구간	인왕산50, 모듬4, 사직공원3, 전망대3, 창의문1, 약수터1, 성곽끝자락1, 기타2 (총 65)

(4) 교통수단 및 이동시간

‘대중교통지점에서 성곽에 접근하는 교통수단’ 및 ‘이동시간’에 대한 방문객 전체 및 구간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표 5-13)(표 5-14)

전체적으로 방문객들은 근처 대중교통지점에서 성곽 진입부까지 보행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시간은 평균 20.8분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대중교통지점에서 성곽 진입부까지 접근하는 교통수단’을 분석한 결과, 1구간에서는 약 92%의 방문객들이 보행으로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순위는 ‘마을버스’였다. 이동시간은 평균 26.3분으로 전체 구간 중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구간으로 나타났다. 보행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이동시간이 긴 것으로 볼 때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나머지 구간에서도 모두 ‘보행’으로 접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 순위는 ‘마을버스’로 나타났다.

‘이동시간’에 대해서는 ANOVA분석을 통하여 유의한 결과가 나왔으므로 구간별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가장 이동시간이 긴 구간부터 순위를 살펴보면, 1-5-4-3-2의 순으로 나타났다. 1구간과 5구간은 약 25분 전후로 비슷한 정도로 이동시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가장 짧은 2구간에서는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대중교통 지점에서 성곽진입부까지 교통수단

변수		전체	구간				
			1	2	3	4	5
교통수단 (%)	보행	79.5	91.9	84.5	62.3	72.5	85.0
	자전거	0.6	0	1.7	0	0	1.7
	마을버스	19.9	8.1	13.8	37.7	27.5	13.3

표 5-14 이동시간

변수	전체	구간					ANOVA	
		1	2	3	4	5	F	Sig.
성곽접근 이동시간 (분)	20.8	26.3	14.6	16.2	17.9	24.1	3.079	0.017

3. 방문객의 만족도 분석

방문객 전체를 대상으로 인구특성과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5-15)

‘성곽만족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교통접근성 만족도’와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15 방문객 만족도와 방문객 인구특성의 관계

구분		성곽만족도	교통접근성 만족	최근변화만족
인구 특성	성별	-0.152	0.553**	0.915**
	연령	0.100**	0.170*	0.383***
	최종학력	-0.073	0.169	-0.086
	거주지	-0.056	-0.806	-1.241

*P<0.10, **P<0.05, ***P<0.01

(1) 성곽만족도

‘성곽만족도’ 및 ‘성곽만족 또는 불만의 이유’에 대하여 방문객 전체 및 구간별로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성곽만족도는 5점 척도로 질문하였고, 성곽에 만족하거나 불만인 이유는 ‘서울성곽에 대해 만족하셨거나 불만인 점’을 세 가지씩 쓰도록 한 주관식 질문을 분석하였다. (표 5-16) (표 5-17)

전체적으로 방문객은 ‘성곽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 ‘성곽만족도’ 평균은 3.969로 대체로 만족하는 결과이다. ‘성곽 만족의 이유’로는 자연환경 및 경관이 성곽 정비·개방이나 각종 액티비티가 가능하다는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4장에서 자연환경은 거주자의 거주만족 및 성곽만족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간별 ‘성곽만족도’ 및 ‘성곽만족 및 불만의 이유’에 대하여 분석한다. ‘성곽만족도’는 ANOVA분석을 통하여 유의하게 나타나 구간

별 차이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도 고찰하였다.

‘성곽만족도’가 높은 구간부터 살펴보면, 2-1-4-3-5구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2구간과 1구간에서 성곽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나머지 구간에서도 대체로 높았다. 성곽만족의 이유로는 모든 구간에도 자연환경·경관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운동·등산·산책 등 각종 액티비티와 성곽복원 및 개방은 다음 순위로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성곽불만의 이유는 대체로 소수 의견이었는데, 성곽보수상태, 접근성 열악, 편의시설 부족 등을 들었다.

‘성곽만족의 이유’로 모든 구간에서 자연환경·경관을 1순위로 선택하였다. 서울성곽이 내사산에 입지하고 있으며 성곽 개방을 통하여 자연환경과의 연계성이 높아진 측면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2,3구간에서 다음 순위는 각종 액티비티로 나타났다. 성곽 이용목적으로 성곽답사 외에도 산책, 등산, 운동, 조망 등 다양한 행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측면이 성곽의 물리적 환경개선 자체보다 만족도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1,4,5구간에서는 2순위로 성곽 정비·개방을 선택한 비율이 각종 액티비티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1구간은 2구간에 이어 성곽만족도가 높은 구간이며, 불만의 경우 방문객의 경우도 5% 이내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성곽만족 이유는 자연환경 및 경관, 성곽정비 및 개방, 각종 액티비티의 순이다. 성곽불만의 이유는 전체적으로 만족이유보다 소수 의견

표 5-16 성곽만족도

변수	전체	구간					ANOVA	
		1	2	3	4	5	F	Sig.
성곽만족도	3.969	4.160	4.254	3.841	3.892	3.699	18.904	0.001

표 5-17 성곽만족이유

변수		전체	구간				
			1	2	3	4	5
성곽 만족 이유 (%)	자연환경·경관	57.3	51.4	50.9	63.6	46.2	68.9
	각종 액티비티	22.0	21.6	40.0	36.4	17.9	6.8
	성곽정비·개방	20.7	27.0	9.1	0.0	35.9	24.3

이 많았다. 1구간의 경우는 ‘힘듦’을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성곽복원 미흡 및 연결 안된 구간이 있는 점과 편의시설 부족 및 성곽 코스의 난이도 등이 뒤를 잇고 있다.

2구간은 방문객의 성곽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구간이다. 만족의 이유로 자연환경 및 경관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불만의 이유로는 성곽 보수 또는 정비가 엉망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3,4,5구간 방문객의 성곽만족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구간의 성곽만족 이유는 자연환경 및 경관, 각종 액티비티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곽불만 이유는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코스불편으로 인한 접근성 미흡과 편의시설 부족을 들고 있다.

4구간에서 성곽만족의 이유는 자연환경 및 경관, 성곽 정비 및 개방, 액티비티의 순이다. 성곽불만의 이유는 개방시간의 제한과 접근성 불리를 선택하였다.

5구간에서 성곽만족의 이유는 자연환경 및 경관, 성곽 정비 및 개방, 액티비티의 순이다. 특히 자연환경 및 경관에 만족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는데 5구간 진입지점에서 인왕산으로 등산하는 방문객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성곽불만 이유는 만족이유보다 소수 의견이었는데, 편의시설 부족과 쓰레기 투기 등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1구간과 2구간에서 성곽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모든 구간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성곽만족의 이유로 모든 구간에서 자연환경과 경관을 선택하였다. 성곽불만의 이유는 소수 의견으로 성곽보수상태, 접근성 열악, 편의시설부족, 개방시간 제한(4구간) 등을 들었다.

(2) 교통접근성 만족도

방문객 전체 및 구간별 ‘교통접근성 만족도’에 대하여 분석한다. ‘교통접근성 만족도’는 ANOVA분석을 통하여 유의하게 나타나 구간별 차이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도 고찰하였다. (표 5-18)

방문객 전체 중 68.9%가 교통이 편리하다고 하여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접근성 만족도’가 높은 구간부터 순위대로 살펴보면, 2-4, 1-3-5구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2구간이 가장 높았고, 5구간이 가장 낮았다.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2구간과 1, 4구간은 모두 80% 이상의 수치로 나타나 높게 나타난 반면, 5구간에서는 37.2%만이 만족하고 있었다.

표 5-18 교통접근성 만족도

변수	전체	구간					ANOVA	
		1	2	3	4	5	F	Sig.
교통접근성 만족 (%)	68.9	80.0	84.8	65.1	80.0	37.2	15.520	0.000

(3)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

방문객 전체 및 구간별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 이유’에 대하여 분석한다.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ANOVA 분석을 통해 유의하게 나타나 구간별 차이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설문조사에서 ‘서울성곽 복원 및 성곽길 개방으로 이 마을에 어떤 변화를 보았는지’에 대해 질문한 답변내용을 분석하였다. (표 5-19) (표 5-20)

방문객의 46.2%만이 ‘최근 변화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었다. 이는 성곽만족도, 교통접근성 만족도 보다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최근 변화의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수가 적었지만 성곽 정비 및 개방, 방문활성화의 순

으로 나타나 제4장에서 분석한 거주자의 경우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구간부터 살펴보면, 4-3-1-5-2구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4구간이 가장 높았고, 2구간이 가장 낮았다. 가장 높게 나타난 4구간과 3구간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북악산 개방 및 성곽길 정비로 최근 방문객이 크게 증가한 구간이다. 1구간은 중간 순위로 나타난 구간이며, 5구간과 2구간은 모두 25% 전후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낮은 구간이다. 이들 구간은 향후 성곽정비의 여지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난 구간인데, 성곽의 단절구간이 있으며 일부 주택들이 성곽위에 타고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는 등 성곽 복원이 추후에 필요한 구간으로 알려져 있다.

표 5-19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

변수	전체	구간					ANOVA	
		1	2	3	4	5	F	Sig.
최근변화에 대한 만족(%)	46.2	52.2	22.6	78.6	82.6	26.2	15.520	0.000

표 5-20 최근 변화 만족이유

변수		전체	구간				
			1	2	3	4	5
최근변화에 만족이유 (%)	성곽 정비·개방	62.5	87.0	53.8	60.0	47.8	54.5
	방문활성화	37.5	13.0	46.2	40.0	52.2	45.5

4. 분석종합

개인 레벨 분석으로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방문객의 환경인식, 이용행태, 만족도 각각의 구간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방문객 전체의 환경인식을 분석한 결과, 방문객은 성곽이미지에 대해 역사환경을 선택했고, 출발지로서 근린환경의 특성으로 역사환경보다 자연환경을 포함한 응답이 더 많았다. 출발지 발전을 위한 환경에의 요구 측면에서 성곽 주변 시설의 확충과 환경정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방문객 전체 중 39.8%가 성곽산책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이 1달 중 성곽을 산책하는 횟수는 2.64회로 나타나 거주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방문객은 ‘성곽에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접근성에 대하여는 대체로 만족’ 하는 것으로 거주자보다 낮은 비율이 나타났다. ‘최근 변화에 대하여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거주자의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환경인식을 분석하여 볼 때, 성곽이미지에 대하여 3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의 방문객들이 ‘역사’ 항목을 1순위로 선택하였다. 3구간에서는 성곽이미지로 자연환경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1구간이 가장 낮다. 근린환경-출발지-의 특성에 대해 모든 구간에서 자연환경을 포함한 응답이 역사환경을 포함한 응답보다 많았다.

방문객의 근린환경 발전을 위한 요구로 1,2,4,5구간은 편의안내시설 개선을, 3구간은 주변부 환경정비를 선택했다. 특히 5구간에서 편의안내 시설 확충을 선택한 비율이 약 8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구간별 방문객의 이용행태를 종합해볼 때, 2구간은 방문객의 약 76%가 성곽방문을 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고, 나머지 구간은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구간별 방문객의 성곽 이용목적으로, 1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등산을 선택하였다. 1구간은 산책, 성곽답사, 서울전망, 등산의 순인 점에서 특이성을 보인다. 이는 1구간 거주민의 산책이 가장 많은 것과 같이 1구간이 산책하기에 가장 편리한 공간환경을 지녔다고 판단

할 수 있다. 2,3구간은 등산과 산책, 4구간은 등산, 성곽답사, 산책의 순으로 나타났다. 5구간은 등산과 성곽답사(37%)가 높았고 산책과 서울 전망은 다른 구간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결과가 나왔다.

출발지 선택이유로는 5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접근성을 선택하였다. 방문객이 출발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방문객의 출발지이용시설로 1,4구간에서는 마을둘러보기, 2구간에서는 식당, 3,5구간에서는 식료품점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목적지 이용시설로는 1,4구간에서 출발한 방문객은 식당을, 2,3,5구간에서 출발한 방문객은 마을둘러보기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목적지를 함께 분석하였을때, 낙산공원(1구간), 혜화문(2구간), 창의문(4구간)에 도착하면 마을둘러보기를 하고 혜화동(1구간), 와룡공원(3구간)에 도착하면 식당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구간에서 대중교통지점에서 출발지까지 보행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보행시간은 1,5구간에서는 25분 이상이, 나머지 구간에서는 15분 전후로 나타나 성곽입지와 주변 보행환경의 상태를 알 수 있다

구간별 만족도 분석결과, 방문객은 ‘성곽에 대체로 만족’ 하며, 2구간에서 가장 성곽에 만족하며, 5구간에서는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성곽 만족 이유로 자연환경·경관이 성곽 정비·개방이나 각종 액티비티가 가능하다는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곽불만 이유는 대체로 소수 의견인데, 성곽보수상태, 접근성 열악, 편의시설부족, 개방시간 제한(4구간) 등을 들었다. ‘교통접근성 만족도’에 대해 1,2,4구간에서 방문객은 크게 만족하였으며, 5구간에서는 불편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구간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2,5구간에서 매우 낮으며 3,4구간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제6장 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방문객의 구간별 이용행태와 만족도의 차이

제6장에서는 제3장 [서울성곽과 주변부의 구간별 특성]과 제4,5장 [거주자 및 방문객의 환경인식·이용행태·만족도]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이용행태 및 만족도에 대한 구간별 거주자·방문객의 차이’와 ‘거주자와 방문객 각각에 대해 구간별 이용행태 및 만족도의 차이’에 대하여 해석한다.

이를 위해 제1절에서는 구간별로 거주자와 방문객의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이용행태 및 만족도를 비교분석한다. 또한 구간별 환경특성을 바탕으로 이를 해석한다. 제2절에서는 거주자 및 방문객 각각에 대하여 구간별 이용행태 및 만족도의 차이를 해석한다.

제6장의 내용은 제1장의 [이론적 틀과 개념 모델]에서 정리한 대로 제4장 및 제5장에서 분석한 거주자 및 방문객 각각의 인식, 이용행태, 만족특성의 연관성 도출내용을 제3장에서 [서울성곽과 주변부의 구간별 특성]을 분석한 내용을 통하여 해석함으로써 이용행태 및 만족도에 대해 ‘거주자·방문객의 차이’와 ‘구간별 차이’에 대한 이유를 도출하려 하는 것이다.

제1절 거주자·방문객 차이의 해석

제1절에서는 제3장 [서울성곽과 주변부의 구간별 특성]과 제4,5장 [거주자 및 방문객의 환경인식·이용행태·만족도]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이용행태 및 만족도에 대한 구간별 거주자·방문객의 차이’를 밝히고 그 차이에 대하여 해석한다.

구간별 차이가 입증된 성곽산책(또는 방문), 교통접근성 만족도, 성곽 만족도 등을 변수로 선정하여 ANOVA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거주자·방문객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만을 해석하였다. (표 6-1)

이용행태 및 만족도에 대한 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방문객의 차이를 해석하기 위해 레이더 다이어그램을 작성하였다. (그림 6-1,2,3)

표 6-1 거주자·방문객 비교

변수		성곽산책(방문)(%)	교통접근성(%)	성곽만족도
전체	거주자	0.72	0.81	4.01
	방문객	0.40	0.69	3.97
	ANOVA sig.	0.000	0.001	0.523
1구간	거주자	0.90	0.92	4.21
	방문객	0.36	0.80	4.16
	ANOVA sig.	0.000	0.049	0.718
2구간	거주자	0.62	0.73	3.83
	방문객	0.76	0.85	4.25
	ANOVA sig.	0.097	0.117	0.024
3구간	거주자	0.46	0.68	4.03
	방문객	0.43	0.65	3.84
	ANOVA sig.	0.736	0.705	0.256
4구간	거주자	0.69	0.88	3.85
	방문객	0.26	0.80	3.89
	ANOVA sig.	0.000	0.195	0.783
5구간	거주자	0.89	0.80	4.10
	방문객	0.23	0.37	3.70
	ANOVA sig.	0.000	0.000	0.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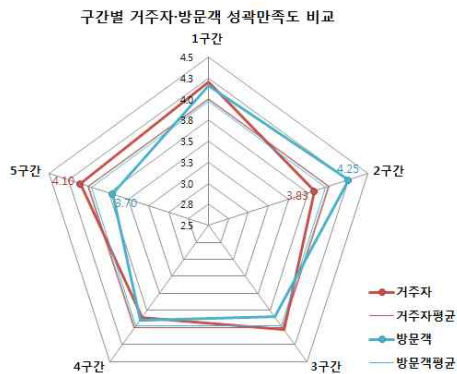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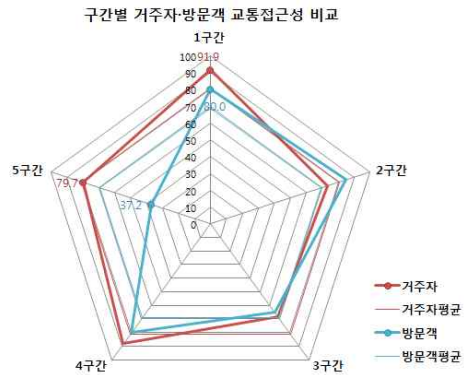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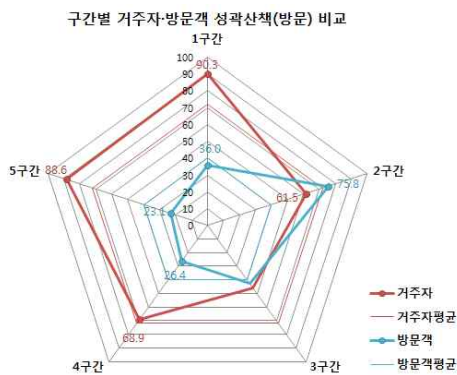


그림 6-1 거주자·방문객
성곽산책 비교

그림 6-2 거주자·방문객
교통접근성 만족도 비교

그림 6-3 거주자·방문객
성곽만족도 비교

이용행태 및 만족도에 대한 거주자·방문객 전체의 차이는 성곽산책(방문)과 교통접근성 만족도에 대해서만 유의하게 나타났고, 성곽만족도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성곽 주변 거주자가 방문객보다 성곽활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성곽산책을 한다는 거주자의 비율이 72%인 반면, 방문객의 40%만이 성곽방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접근성에 대해서도 거주자가 방문객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주자는 81%인 반면 방문객은 69%가 만족하였다. 전반적으로 서울성곽 및 주변부의 교통접근성은 좋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방문객이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과 있으며 성곽 진입부가 주변 대중교통지점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으며 주변 근린환경을 통과하여야만 접근할 수 있는 지점이 많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용행태 및 만족도 각각에 대한 거주자·방문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성곽산책(방문), 교통접근성 만족도, 성곽만족도 등의 항목에 대해 구간별 거주자·방문객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에 대하여 구간별 공간적 특성과 환경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석한다.

1. 성곽산책(방문)

전체적으로 성곽 주변 거주자가 방문객보다 성곽활용을 더 많이 하며, 구간별로는 3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ANOVA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거주자·방문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구간을 제외한 1,4,5구간에서는 거주자가 방문객보다 성곽활용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5구간에서 방문객은 23~36%만이 성곽방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구간과 5구간에서 거주자는 약 90% 정도가 성곽산책을 하며, 4구간은 69%만이 성곽산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비율로 성곽을 활용하고 있었다.

2구간에서는 방문객-76%-이 거주자-62%-보다 더 성곽방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자보다 방문객의 성곽활용도가 높은 것이다. 거주자는 1구간과 5구간보다 낮은 비율인데 반하여 방문객의 경우 다른

모든 구간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비율로 성곽방문을 한다고 답변한 데 기인하는 결과이다. 2구간의 공간특성 상 방문객의 유입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접근성이 성곽 진입부 중에서 가장 좋은 점과 낙산의 종점과 북악산 시점이 연결되는 지점이므로 방문객들의 다양한 이용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으로 해석된다. 등산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은 모든 구간 중 가장 많으며, 성북초교 근처 식당 이용객들이 성곽산책과 연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즉 북악산 또는 북악산-인왕산 등산을 하는 경우나 식당을 이용한 후 잠시 산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2. 교통접근성 만족도

전체적으로 성곽 주변 거주자가 방문객보다 서울성곽과 주변부 교통접근성을 좋게 인식하고 있었다. 방문객의 경우도 대체로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2,3,4구간을 제외한 1,5구간만 ANOVA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거주자·방문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구간에서는 거주자가 교통접근성에 만족하는 비율이 92%로 나타나 매우 높았으며, 방문객도 80%로 나타나 높은 편이었으나 거주자에 비해 만족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거주자, 방문객 모두 보행접근이 매우 많았는데, 방문객의 경우도 지리에 익숙치 않은 특성과 주변 시설과의 연계이용행태가 많이 나타난 측면에서 이동시간이 길어진 측면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된다.

5구간은 거주자와 방문객의 차이가 많이 나타났는데, 거주자는 80%가 방문객은 37%가 교통접근성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 2.2배에 이른다. 이는 거주자의 경우, 보행보다 마을버스를 이용한 비율이 약 1.5배에 달하는 반면에 방문객의 경우는 보행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주변 대중교통지점에서 보행 접근시 길찾기가 어렵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성곽만족도

거주자와 방문객 전체의 성곽만족도는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1,3,4구간을 제외한 2,5구간에서만 ANOVA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거주자·방문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구간에서는 거주자보다 방문객의 성곽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방문객의 경우, 성곽방문이 가장 활발하며 성곽만족도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성곽 진입부들 중에서 가장 좋은 점이 큰 이유로 보인다. 거주자는 성곽 단절구간이 존재하며 여전히 성곽 및 성곽길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성곽으로 인하여 주거지 재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어 왔던 사정을 그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5구간에서는 2구간과 상반된 결과로 방문객보다 거주자의 성곽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거주자의 성곽만족도는 다른 구간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지만, 방문객의 경우는 최하위인 점과 상응하는 결과인 것이다. 5구간은 사직터널 상부에 입지한 종로문화체육센터 앞 성곽공원을 통하여 성곽에 접근할 수 있어 외부로부터의 인지도 및 접근성이 좋지 않은 구간이며, 방문객의 경우 편의시설 부족과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인왕산 및 인왕산 구릉 위에 올라 앉아 있는 성곽의 조망이 매우 뛰어나 자연환경으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구간인 점으로 거주자는 자연·경관, 성곽정비·개방, 운동·산책·등산 등의 액티비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성곽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구간별 차이의 해석

1. 거주자 구간별 이용행태 및 만족도 차이의 해석

구간별 거주자의 이용행태·만족도의 차이를 앞서 제4장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용행태 변수로 성곽산책, 산책횟수, 대중교통지점~집까지 이동시간, 자동차보유여부를, 만족도 변수로 거주만족도, 성곽만족도, 교통접근성만족도, 최근변화만족도를 선정하였다.

ANOVA 분석을 통해 이용행태·만족도 변수의 구간별 차이가 입증된 변수만을 선택하였으며, 구간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변수의 척도를 0~10으로 변환하여 고찰하였다. 비율을 나타난 변수-성곽산책, 자동차보유여부, 교통접근성만족도-는 100%를 10으로 변환하였으며, 5점 척도로 측정된 변수-거주만족도, 성곽만족도, 최근변화만족도-는 각 변수값에 두 배를 하여 변환하였다. 또한, 집까지 이동시간은 최대 30분까지 조사되었으므로 변수값에 1/3을 곱하여 다른 변수들과 같이 0~10사이로 변환하여 각 구간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의 구간별 이용행태 및 만족도 차이의 해석을 위해 레이더 다이어그램을 작성하였다. (그림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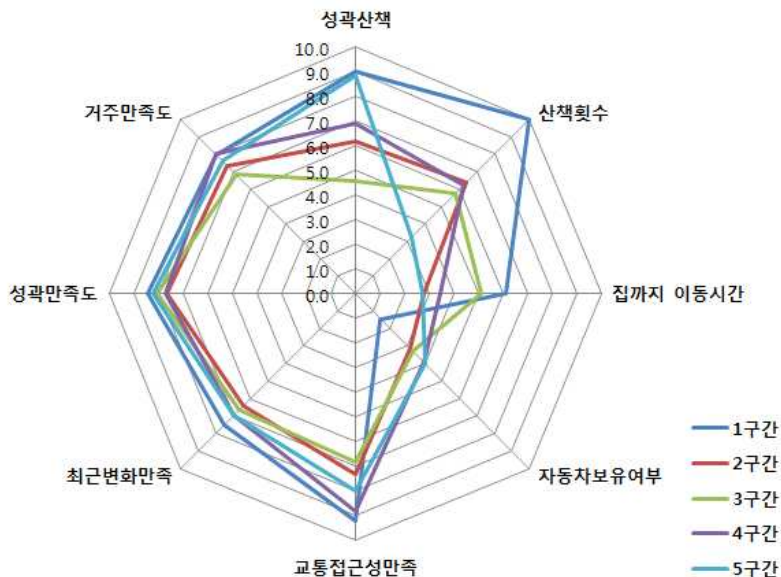


그림 6-4 거주자 구간별 이용행태 및 만족도의 차이

이용행태에 대한 항목을 분석해볼 때, 거주자의 ‘성곽산책’은 구간별로 편차가 크며 1구간과 5구간에서만 높게 나타났다. ‘산책횟수’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거나 5구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중교통 지점~집까지 ‘이동시간’은 대체로 짧게 나타났고, ‘자동차보유여부’는 모든 구간에서 적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중 1구간은 가장 적었다.

만족도에 대한 항목을 분석해볼 때, ‘거주만족도’, ‘성곽만족도’,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대체로 높았으며, 구간별 편차도 적게 나타났다. 만족도 값은 ‘성곽만족도’, ‘거주만족도’,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 순으로 나타나 거주환경 보다 성곽에 더욱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통접근성 만족도’는 다른 만족도와 달리 편차가 큰 편으로 나타나 구간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레이더 다이어그램의 형상으로 볼 때, 2구간과 4구간은 모양이 대략 비슷하나 거의 모든 항목에서 4구간이 2구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곽산책, 거주만족도, 최근변화 만족도, 교통접근성 만족도는 4구간이 높게 나타났고, 성곽만족도와 산책횟수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1구간과 3구간은 자동차보유여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비슷한 모양으로, 1구간이 3구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구간별로 나타난 차이를 공간환경의 특성에 따라 해석한다.

(1) 1구간

1구간의 낙산공원 주변부에는 경사가 심한 구릉지에 열악한 주거가 성곽에 인접한 부분까지 고밀로 형성되어 있다. 주거지 외곽에는 동대문 패션타운·대학로 등 상업중심지가 위치하여 2000년대 들어 낙산공원이 조성된 후 많은 방문객이 유입되고 있다.

1구간과 다른 구간의 이용행태 및 만족도의 차이를 도출하며, 이를 공간환경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석해본다. 1구간에서는 자동차 보유여부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다른 구간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여부는 최소로 나타났다.

앞서 제4장에서 분석한 것처럼, 1구간 거주자들은 성곽 및 낙산공원 정비 등 최근 변화에 대하여 거주자들은 다른 모든 구간보다 가장 크게 만족하고 있으며 성곽만족도도 가장 높았다. 이는 성곽의 이미지로서 ‘역사(성곽, 보전, 정비)’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마을과 성곽과의 관계도 가장 긴밀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어떤 구간보다 거주자들의 성곽산책의 비율이 높아 성곽 활용도-성곽을 산책한다고 답한 거주자는 평균 월 9.9회 성곽산책을 한다고 조사-가 높고, 근접중심성이 5개 구간 중 가장 높아 수시로 산책이 가능하도록 주변부에서 성곽 진입부인 낙산공원으로 가장 짧은 거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거주자들은 성곽까지 보행 접근이 편리하다고 만족하고 있어 거주자들의 성곽 이용행태가 활발한 점을 또한 설명할 수 있다.

분석 결과, 1구간은 부암동 지역인 4구간과 함께 거주만족도가 가장 높은 구간이다. 설문조사에서 심지어 거주불만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주거환경에 대한 외부의 인식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거주자들은 ‘자연환경 및 경관’ 및 ‘운동·산책·등산’의 순으로 거주만족 외에 성곽만족의 이유로 선택하였다. 더하여 거주자들은 마을과 자연환경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녹지율이 가장 낮은 구간임에도 근린환경의 특성으로서 자연환경을 다른 구간에 비해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또한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이나 성곽방문 활성화보다 자연환경 및 경관의 증진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종합해볼 때, 1구간의 거주민들에게 낙산공원에 입지한 서울성곽은 자연환경과 연계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낙산아파트의 철거 및 낙산공원의 형성, 성곽 복원 및 성곽길 개방 등 최근의 변화는 성곽 주변부에 자연환경을 새로 제공한 한편 운동·산책·등산 등 다양한 주민 이용행태를 발생시켜 마을과 자연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거주만족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방문객들도 서울성곽의 최근 변화에 만족하는 이유로 ‘자연환경’과 ‘쾌적성’의 순으로 선택하였기에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방문객들에게도 성곽환경의 가치가 역사보다도 자연환경으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2구간

혜화문 부근은 왕복8차선인 창경궁로에 의해 성곽이 단절되어 있는 구간이다. 구간의 안팎은 공원녹지가 거의 없는 열악한 구릉지 주거가 고밀로 형성되어 있고 성북로 및 혜화로에 갤러리와 식당이 다수 입지해 있다.

2구간과 다른 구간의 이용행태 및 만족도의 차이를 도출하며, 이를 공간환경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석해본다. 다른 구간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이용행태와 만족도 측면에서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인접한 1구간과 비교했을 때, 2구간에서는 자동차보유여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게 나타났다. 즉 이용행태도 활발하지 않으며 만족도도 1구간보다 낮은 것이다.

앞서 제4장에서 분석한 것처럼, 2구간의 거주자는 방문객들과 마찬가지로 ‘역사(성곽, 보전, 정비)’ 이미지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근린환경의 특성으로 역사환경을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성곽산책을 더욱 많이 하며 성곽만족도 또한 높았다.

최근 ‘성곽복원 및 성곽길 개방’과 주변 정비로 인해 ‘깨끗해짐’ 등의 변화를 거주자들이 느끼고 있으며, 이는 거주만족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되었다. 하지만 2구간의 거주자는 방문객과 마찬가지로 다른 구간에 비해 최근 변화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 성곽의 단절구간이 존재하며 성곽에 인접한 주거지 재개발 등에 많은 제약이 있어 왔던 저간의 사정으로 성곽 훼손구간의 복원 및 주거지의 환경개선이 향후의 과제로 중요하게 남아 있다.

공원녹지율은 1구간과 마찬가지로 가장 낮아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며, 거주자들의 성곽산책 비율 또한 매우 낮았다. 성곽 활용도-성곽을 산책한다고 답한 거주자는 평균 월 6.4회 성곽산책을 한다고 조사-가 낮은 것은, 성곽 진입부에 대한 거주자들의 인지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이 5개 구간 중 가장 낮아 주변부에서 성곽 진입부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도달거리 또한 가장 길어 수시로 산책하기 어려운 도시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2구간은 거주만족도, 성곽만족도 모두 다른 구간에 비해 매우 낮거나 최하위였다. 성곽만족도의 경우 방문객들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과 비교가 되는 지점이다. 마을발전을 위한 거주자들의 요구사항이 자연환경 보호, 쾌적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성곽방문 활성화의 순인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거주자들의 성곽만족의 이유에서 등산·산책 등의 액티비티가 1순위인 것과 거주에 만족한다는 이유로 선택한 항목 역시 자연환경이었다는 것과는 연계하여, 자연환경과의 연계 및 그 이용행태를 통한 삶의 질 및 거주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문객들에 비해 거주자들의 생활공간에서 자연환경과의 연계지점인 성곽으로의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시사점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울성곽 주변 주거지의 만족에 ‘자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한 것과 함께, 거주에 불만인 이유로서 ‘문화편의시설 부족’에 이어 ‘단지내 환경’과 ‘쾌적성’이 뒤를 잇고 있어 향후 고려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3) 3구간

와룡공원에서 북악산 정상까지의 성곽구간 안팎은 성북동 및 삼청동, 가회동 일대에 해당된다. 고급 주거지와 한옥군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북악산의 녹지가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구간과 다른 구간의 이용행태 및 만족도의 차이를 도출하며, 이를 공간환경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석해본다. 다른 구간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이용행태와 만족도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인접한 2구간과 비교하였을 때, 대중교통지점~집까지 이동시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거주만족도·성곽산책 및 성곽산책 횟수는 낮게 나타났다. 성곽만족도·최근 변화 만족도 등 성곽에 관한 만족특성은 2구간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났다. 또한 1구간과 비교하였을 때, 3구간에서는 자동차보유여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게 나타났다. 즉 와룡공원을 낙산공원과 비교하였을 때, 거주자의 이용행태도 활발하지 않으며 만족도도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입지특성상 주거지와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나쁜 것에 기인한다.

앞서 제4장에서 분석한 것처럼, 북악산에 인접한 입지특성 때문에 3구간 거주자의 성곽에 대한 역사이미지는 모두 다른 구간에 비해 매우 낮으며, 자연환경에 대한 이미지는 다른 구간에 비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문객의 경우도 모두 같은 결과로 나왔으며, 거주자 및 방문객 모두 성곽 주변 근린환경에 대한 특성으로 자연환경을 지목한 것과 연계하여 해석할 수 있다. 즉 3구간의 성곽 진입구인 와룡공원은 북악산의 진출입로이자 서울전망이 우수한 전망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성곽의 인지성은 떨어지는 반면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이 강조되고 있다.

거주자들의 교통접근성 만족도나 거주만족도는 다른 구간과 비교할 때 제일 낮았다. 거주에 만족한다는 주민들은 ‘자연환경’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선택하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자연환경 보호 및 경관 개선, 쾌적성 확보, 문화편의시설 이용, 접근성의 순으로 요구하였다.

3구간에서 방문객과는 반대로 거주자의 성곽 이용은 전체 구간 중에서 가장 낮았다. 이는 주변 근린환경에서 와룡공원에 이르는 동선이 길고 구불구불한 오르막길인 점에서 거주자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에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성곽에 대해 크게 불만이 있지는 않아 성곽만족도는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거주자와 방문객의 성곽만족 이유는 비슷하였는데 거주자는 공기의 질과 자연/경관을, 방문객은 자연/조망과 운동/산책/등산 등 액티비티를 선택하여 자연환경 및 그 활용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었다. 거주자와 방문객의 성곽불만의 이유도 같은데, 모두 코스불편으로 접근성 미흡과 편의시설 부족을 들고 있다.

거주자의 최근 변화에 대해 만족도는 방문객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 다른 구간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매우 높게 나타난 방문객의 경우와 완전히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4) 4구간

북악산 정상~인왕산 정상의 성곽구간 안팎은 부암동 고급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창의문 주변과 주거지 내부에 갤러리·식당·카페 등이 입지하여 매력적인 환경으로 알려져 있다.

4구간과 다른 구간의 이용행태 및 만족도의 차이를 도출하며, 이를 공간환경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석해본다. 다른 구간과 비교하였을 때, 4구간은 이용행태 및 만족도의 모든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1구간과 비교하였을 때, 거주만족도와 자동차 보유여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비슷하지만 낮게 나타났다. 즉 창의문 주변 성곽환경을 낙산공원과 비교하였을 때, 거주자의 이용행태와 만족도 측면에서 모두 낮은 것이다.

앞서 제4장에서 분석한 것처럼, 마을과 성곽, 마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하여 거주자들은 다른 모든 구간에 비해 가장 관계가 밀접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성곽의 진입부로서 창의문이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 면해 있어 주민들의 일상에 늘상 접하는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창의문을 통하여 동측에는 북악산, 서측에는 인왕산이 마을과 맞닿아 있다.

성곽이미지에 대해 거주자는 방문객과 마찬가지로 역사환경이 자연환경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3구간과는 다르게 역사환경이 강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4구간 주변 근린환경 특성에 대하여도 거주자와 방문객간의 인식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성곽이미지와는 다르게 모두 자연환경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식과 만족도의 상관성 분석에서 거주자는 자연환경이라 인식하는 경우 거주만족도와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성곽이미지가 역사환경이 강조된 반면 주변 근린환경 특성은 자연환경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성곽과 근린환경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으며, 각각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4구간은 이미 거주성이 높은 부촌으로 알려져 있어 거주자들의 거주만족도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에 만족하는 이유로 ‘자연환경’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다른 구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울성곽 주변 주거지의 만족에 있어서 ‘자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근린환경 특성으로 자연환경이 큰 비율을 차지한 것과 연계하여 4구간의 거주만족도에 가장 큰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주불만의 이유로서는 2,3구간과 마찬가지로 ‘문화편

의시설 부족’, ‘쾌적성’, ‘교육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변화에 대하여 4구간 거주자는 다른 구간과 비교하였을 때 보통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깨끗해짐’과 ‘시민관심도 및 방문객 증가’를 들었다. 종합해보면 최근 마을이 좋아졌다는 것이 성곽 복원 및 성곽길 개방으로 인한 것이며 최근 북악산이 개방되면서 주변이 정비되고 방문객이 증가함으로써 주변의 활력이 높아진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주자의 성곽만족도는 방문객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거주자 보다 방문객의 ‘매우 만족’ 비율이 더 높았다. 거주자의 성곽만족 이유는 자연/경관, 운동/산책/등산, 쾌적성의 순으로 북악산의 개방 및 성곽정비로 인한 자연환경과의 연계성 증가 및 이용행태의 편익, 그리고 쾌적성 증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거주자들은 방문객이 많은 점을 성곽에 대한 불만의 이유로 선택하였다. 방문객의 증가는 거주자의 성곽활용에 영향을 주어 주변 근린환경과 성곽과의 공간적 연계가 상당한 반면에 거주자의 성곽활용도는 다른 구간과 비교하여 중간 정도로 나타난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5구간

5구간은 인왕산 정상에서 사직로에 이르며 인왕산의 녹지가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성곽 안팎에 무악동과 행촌동 등 고밀의 열악한 주거지가 경사가 급한 구릉지에 형성되어 있다. 인왕산의 시점으로 종로문화체육센터 인근에 성곽의 진입부가 형성되어 있다.

5구간과 다른 구간의 이용행태 및 만족도의 차이를 도출하며, 이를 공간환경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석해본다. 다른 구간과 비교하였을 때, 5구간은 산책횟수와 대중교통지점~집까지 이동시간이 제일 낮게 나타났으며, 자동차 보유는 높은 편이었다. 교통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중간 정도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4장에서 분석한 것처럼, 5구간 거주자의 성곽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방문객이 최하위인 것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성곽만족의 이유는 거주자와 방문객이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모두 자연/경관, 성곽정비 및 개방, 운동/산책/등산의 순이며, 성곽불만의 이유는 만족이유보다 소수의 의견을 보이는데, 거주자와 방문객이 모두 편의시설 부족과 쓰레기 투기를 들었다. 또 거주자들에게 성곽방문 활성화, 성곽 및 자연경관 증진은 마을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성곽 정비 및 개방 등 최근의 변화 역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거주자들 중 성곽산책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구간에서 매우 높은 편으로 성곽활용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방문객의 방문비율이 전체 구간 중 가장 낮은 것과 상반된 결과인 것이다. 5구간을 방문하는 목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등산 및 성곽답사는 산책 등과 같이 자주 발생하는 행태가 아닌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거주만족도는 1,4구간과 함께 매우 높게 나타났다. 거주만족의 이유로 ‘자연환경’을 들어 서울성곽 주변 주거지의 만족에 ‘자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을 5구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주불만의 이유로서 ‘문화편의시설 부족’을 1순위로 꼽은 2,3,4구간과 달리 5구간에서는 ‘교통환경’이 가장 높았다. 이는 주변에 사직공원, 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등이 위치한 것에 기인하며, 교통환경이 불편하지만 대중교통지점에서 거주지까지의 보행환경은 편리하다고 하여 방문객과는 반대의 의견을 보인다.

종합해보면, 5구간에서는 거주만족도와 외부의 인식, 성곽만족도와 교통접근성 만족에서 거주자와 방문객 사이에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5구간은 사직터널의 상부에 입지한 성곽 진입부를 통하여 성곽에 접근할 수 있어 외부로부터의 인지도 및 접근성이 좋지 않은 구간이나, 인왕산 및 인왕산 구릉 위에 올라 앉아 있는 성곽의 조망이 매우 뛰어나 자연환경으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구간이기도 하다. 더하여 최근 성곽길 개방으로 방문객이 몰리는 현상으로 편의시설 부족 및 쓰레기 처리 문제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성곽 자체는 남측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절되어 향후 성곽복원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구간이므로 미래의 변화가 예상된다.

2. 방문객 구간별 이용행태 및 만족도 차이의 해석

구간별 방문객의 이용행태·만족도의 차이를 앞서 제5장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용행태 변수로 성곽방문, 방문횟수를, 만족도 변수로 성곽만족도, 교통접근성 만족도, 최근변화 만족도를 선정하였다.

ANOVA 분석을 통해 이용행태·만족도 변수의 구간별 차이가 입증된 변수만을 선택하였으며, 구간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변수의 척도를 0~10으로 변환하여 고찰하였다. 비율을 나타난 변수-성곽방문, 교통접근성 만족도, 최근변화 만족도-는 100%를 10으로 변환하였으며, 5점 척도로 측정된 변수-성곽만족도-는 각 변수값에 두 배를 하여 변환하였다. 또한, 집까지 이동시간은 최대 30분까지 조사되었으므로 변수값에 1/3을 곱하여 다른 변수들과 같이 0~10사이로 변환하여 각 구간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서울성곽과 주변부 방문객의 구간별 이용행태 및 만족도 차이를 해석하기 위하여 레이더 다이어그램을 작성하였다. (그림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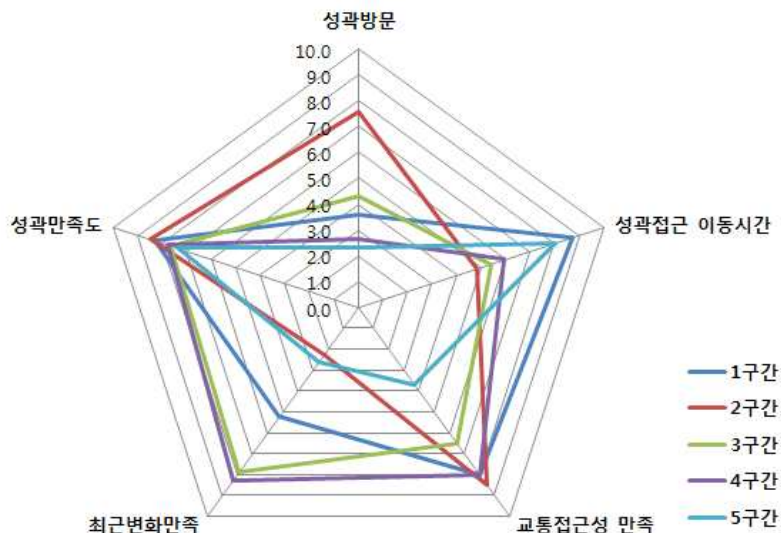


그림 6-5 방문객 구간별 이용행태 및 만족도의 차이

항목별로 분석해볼 때, 방문객의 ‘성곽방문’은 구간별로 편차가 크며 2구간만 높게 나타난 반면 나머지 모든 구간에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성곽에 접근하는 ‘이동시간’도 편차가 있는 편이다. ‘성곽만족도’는 모든 구간에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구간별 편차도 거의 없는 편인 반면에,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와 ‘교통접근성 만족도’는 편차가 큰 편으로 나타났다.

레이더 다이어그램의 형상으로 볼 때, 1구간과 5구간은 모양이 대략 비슷하나 모든 항목에서 1구간이 5구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3구간과 4구간 역시 비슷한 모양이었고, 성곽만족도와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수치도 비슷하며 높게 나타났다. 성곽방문은 3구간이 4구간에서보다 높았고, 이동시간 및 교통접근성 만족도는 4구간이 3구간에서보다 높게 나타났다. 2구간은 다른 어떤 구간과도 모양이 비슷하지 않게 나타났다.

다음은 구간별로 나타난 차이를 공간환경의 특성에 따라 해석한다.

(1) 1구간

낙산공원 주변부에 고밀로 형성된 주거지와 상업중심지를 통과하여 성곽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동경로는 경사가 심한 편이다. 주거지 외곽은 동대문패션타운·대학로 등 상업중심지가 위치하여 2000년대에 낙산공원이 조성된 후 많은 방문객이 유입되고 있다.

1구간과 다른 구간의 이용행태 및 만족도의 차이를 도출하며, 이를 공간환경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석해본다. 1구간에서 성곽만족도, 교통접근성 만족도, 이동시간은 매우 높은 편이며, 성곽방문 및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앞서 제5장에서 분석한 것처럼, 방문객이 서울성곽의 최근 변화에 만족하는 이유는 ‘자연환경’과 ‘쾌적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방문객들에게도 성곽환경의 가치가 역사보다도 자연환경으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문객의 유입은 설문조사 결과 보행 및 대중교통으로 접근성이 가장

좋은 구간으로 방문객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 주변의 상업·문화·편의 시설들과 이용행태가 연계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방문객의 성곽 이용목적으로는 산책, 성곽답사, 등산의 순이었는데 주변 시설들의 방문 일정과 연계해서 성곽을 방문하며, 그런 점에서 방문객의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곽방문 자체가 목적인 비율이 비교적 적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대학로·동대문패션타운 등 주변과 연계된 방문객의 성곽이용행태는 성곽에 이르는 주변부 보행동선 주변의 토지이용 활성화를 통한 향후 근린환경 발전을 위한 시사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논의한 것처럼 1구간의 방문객들이 성곽을 주변 도심부의 시설 이용과 연계된 산책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외에, 5구간에 이어 성곽답사 자체를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구간의 성곽 진입부가 다른 모든 구간보다 가장 인지중심성이 높아 성곽의 가장 중요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낙산공원에는 지방에서 수학여행을 오거나 그룹으로 답사를 오는 방문객들이 많은 것으로 관찰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방문객들은 성곽을 시설적 측면에서 쾌적하다고 느끼며 성곽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서울성곽 및 주변부를 역사이미지나 자연이미지로 느끼는 비율이 다른 구간보다 매우 낮았다. 이는 성곽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접근로 주변에 고밀로 형성되어 있는 마을을 보행으로 최소 10분에서 30분 이상 걸려 관통하여야 하며, 녹지율이 가장 낮고 낙산공원이 서울도심부 시가지로의 조망포인트라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2구간

혜화문 부근은 왕복8차선인 창경궁로에 의해 성곽이 단절되어 있는 구간이다. 혜화문에서 와룡공원에 이르는 서울성곽은 북악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의 시점으로 활용되며, 성북로 및 혜화로에 갤러리와 식당이 다수 입지해 있다.

2구간과 다른 구간의 이용행태 및 만족도의 차이를 도출하며, 이를 공간환경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석해본다. 2구간에서 성곽방문, 성곽만족도, 교통접근성 만족도는 가장 높으나, 이동시간 및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5장에서 분석한 것처럼, 2구간은 방문객들의 성곽방문이 가장 활발하며 성곽만족도 역시 가장 높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성곽 진입부들 중에서 가장 좋은 점이 큰 이유로 보인다.

또한 낙산의 중점과 북악산 시점이 연결되는 지점이므로 방문객들의 다양한 이용목적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 등산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은 모든 구간 중 가장 많으며, 성북초교 근처 식당 이용객들이 성곽산책과 연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즉 방문객들에게 성곽이 자연환경과의 연계 지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격적으로 북악산 또는 북악산-인왕산 등산을 하는 경우나 식당을 이용한 후 잠시 산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2구간에서 출발한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와룡공원, 낙산공원, 동대문까지 도달하게 된다. 성곽경로의 주변에는 성북동, 삼선동, 창신동, 이화동 등의 근린환경이 존재하며 성곽에까지 이르러 구릉지 주거가 밀집해 있는 형상이다. 최근 장수마을이나 창신동, 이화동 등이 마을만들기나 벽화마을 등 공공미술의 이슈로 주목받고 있어, 대중교통 지점에 이르는 경로에 마을을 둘러보는 행태가 많이 나타나며 근처의 식당을 이용하는 방문객들도 많아 성북동, 재동길 등에 최근 들어 활발한 토지이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성곽답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적은데 반하여 방문객들은 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역사이미지를 4구간과 함께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다.

(3) 3구간

와룡공원에서 북악산 정상까지의 성곽구간 안팎은 성북동 및 삼청동, 가회동 일대에 해당된다. 고급 주거지와 한옥군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북악산의 녹지가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구간과 다른 구간의 이용행태 및 만족도의 차이를 도출하며, 이를 공간환경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석해본다. 3구간에서 성곽방문, 이동시간, 교통접근성 만족도는 모두 중간 또는 낮게 나타났으나, 성곽만족도와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4구간에서와 마찬가지로 높은 편이었다.

앞서 제5장에서 분석한 것처럼, 3구간 거주자, 방문객의 성곽에 대한 이미지는 모두 다른 구간에 비해 매우 낮으며, 자연환경에 대한 이미지는 다른 구간에 비해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거주자 및 방문객 모두 성곽 주변 근린환경에 대한 특성으로 자연환경을 지목한 것과 연계하여 해석할 수 있다. 즉 3구간의 성곽 진입구인 와룡공원은 북악산의 진출입로이자 서울전망을 할 수 있는 전망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관광의 요충지이다. 따라서 방문객의 입장에서는 성곽의 인지성은 떨어지는 반면,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이 강조되는 구간인 것이다.

와룡공원¹⁾은 2007년 전면 개방된 북악산²⁾ 등산로의 시점이자 서울 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포인트로서 유명하다. 최근에 성곽정비 및 성곽로 개방 등 변화가 많았던 지역으로 방문객들에게는 변화의 모습이 크게 인지되고 있으며 만족도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주변부에서 와룡공원까지는 대중교통지점에서 보행 또는 마을버스로 다시 30분에서 최소 10분간 이동해야 한다. 이와 같은 특성은 버스노선 증가, 안내·홍보 시설의 확충 등에 대한 요구를 표출하였다.

성곽 정비 및 성곽길 개방 이후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여 북촌로 및 계동길에 고급식당, 갤러리 등 상업 및 문화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현상은 상호 행태발생에 있어 시너지를 발생시켜 성곽의 이용행태가 주변 시설의 이용과 상호 연계되어 운동·산책·성곽답사 외에도 데이트 등 다양한 행태가 창출되고 있다.

방문객의 성곽만족 이유로는 자연/조망과 운동/산책/등산 등 액티비티를 선택하여 거주자와 같았으며, 자연환경 및 그 활용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주자와 방문객의 성곽불만의 이유도 같은데, 모두 코스불편으로 접근성 미흡과 편의시설 부족을 들고 있다.

1) 2007년부터 삼청·와룡공원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2010년 3월까지 2.27km 구간의 순환산책로와 전망대 및 파고라 등 쉼터 조성을 하였다.

2) 북악산 숙정문 권역은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폐쇄되었다가 38년만인 2006년 4월 숙정문과 촛대바위까지 개방되었고, 2007년 4월 전면 개방되었다. (출처: 시정일보 <http://www.sijung.co.kr> 2010년 3월 9일 (화) 17:10:58 기사. “종로구, 삼청와룡공원 산책로 완료”. 방용식 기자)

방문객의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거주자는 이와 달라서 최근 변화에 대해 만족도가 방문객 증가 등의 이유로 다른 구간에 비해 매우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4) 4구간 이용행태 및 만족도의 해석

북악산 정상에서 인왕산 정상까지의 구간으로 성곽구간 안팎은 창 의문 주변과 주거지 내부에 갤러리·식당·카페 등이 입지하여 매력적인 환경으로 알려져 있다.

4구간과 다른 구간의 이용행태 및 만족도의 차이를 도출하며, 이를 공간환경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석해본다. 4구간에서 성곽방문은 5구간에서와 마찬가지로 낮았으며, 이동시간은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성곽만족도와 교통접근성 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서 제5장에서 분석한 것처럼, 성곽 진입부는 창의문으로서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 면해 있으며 동측으로는 북악산, 서측으로는 인왕산으로 연결되어 있다.

성곽이미지에 대한 거주자와 방문객간의 인식 차이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4구간의 성곽이미지는 역사환경이 자연환경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3구간과는 다르게 역사환경이 강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4구간 주변 근린환경 특성에 대하여도 거주자와 방문객간의 인식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성곽이미지와는 다르게 모두 자연환경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식과 만족도의 상관성 분석에서 방문객은 역사환경으로 인식할 때 성곽만족도와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성곽이미지가 역사환경이 강조된 반면 주변 근린환경 특성은 자연환경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구간의 방문객은 최근 변화에 대하여 가장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성곽 정비 및 북악산의 개방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발지 선택의 이유는 북악산 등산이 가장 커서 최근 변화에 따른 방문객 증가를 설명하고 있다. 창의문 인근 도로변 상가나 부암동 주거지의

블록 내 골목길에 최근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최근 성곽변화 및 방문객 증가와 함께 분위기 좋은 카페 및 음식점, 문화행태를 발생시키는 상가들로 기존의 생활가로 성격에서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맛집 또는 찻집이나 골목길 투어의 이유로 출발지를 창의문으로 선택한 경우도 많았다.

여전히 창의문 주변의 성곽은 도로로 인해 단절되어 있고 창의문도 원래의 위치에서 동측으로 이동한 상태로 있어 성곽의 복원 및 정비에 대한 요구를 하는 방문객들도 많이 나타났다.

방문객은 성곽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거주자 보다 방문객의 ‘매우 만족’ 비율이 더 높았다. 성곽만족 이유는 자연환경 및 조망, 성곽복원 또는 개발의 순이다. 또한 개방시간의 제한과 접근성 불리 등을 성곽에 대한 불만의 이유로 선택하였다.

또한 4구간의 근접중심성은 4순위로 매우 낮은 반면, 매개중심성과 방문객의 인지중심성은 같은 2순위로 매우 높다. 이는 근린환경에서의 접근성보다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및 인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지리적중심성은 가장 높는데 이는 주변의 중심시설들과 성곽 진입부가 가까이 위치한다는 것으로, 주변 생활가로의 활성화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5) 5구간 이용행태 및 만족도의 해석

5구간은 인왕산 정상에서 사직로에 이르며 인왕산의 녹지가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왕산의 시점으로 종로문화체육센터 인근에 성곽의 진입부가 형성되어 있다.

5구간과 다른 구간의 이용행태 및 만족도의 차이를 도출하며, 이를 공간환경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석해본다. 5구간에서는 성곽방문, 교통접근성 만족도, 성곽만족도,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가장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5장에서 분석한 것처럼, 5구간의 방문객들은 인왕산 등산과 함께 성곽 이용목적으로 성곽답사를 다른 구간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출발지 선택의 이유도 접근성이 최하위인데 반하여 성곽답

사 및 자연환경의 이용·조망이 다른 구간에 비하여 높았다. 하지만 교통접근성이 가장 열악한 구간으로, 특히 주변 대중교통지점에서 보행으로 접근하는 방문객의 경우 길찾기가 어렵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만족은 다른 구간에 비하여 가장 높으나, 화장실·매점 등 주변의 편의시설과 안내시설이 열악한 점으로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으며, 성곽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왕산 자연환경과의 관련성은 다른 모든 구간에 비해 가장 높아 근린환경의 특성 또한 자연환경이라는 응답이 매우 많았다. 이런 점에서 성곽이미지를 자연환경으로 인식하는 경우 성곽방문, 성곽만족도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나타났다. 즉 자연환경은 성곽의 이용행태를 발생시키며 만족도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5구간의 거주자의 성곽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인데 반하여 방문객은 최하위로 나타나 비교가 되는 지점이다. 성곽만족의 이유는 거주자와 방문객이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모두 자연/경관, 성곽정비 및 개방, 운동/산책/등산의 순이며, 성곽불만의 이유는 만족이유보다 소수의 의견을 보인데, 거주자와 방문객이 모두 편의시설 부족과 쓰레기 투기를 들었다.

지리적중심성은 성곽 진입부 주변에 역사, 문화시설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측면에서 비교적 높지만, 근접중심성 및 매개중심성 모두 특별히 높지 않다. 방문객의 인지중심성은 낮은 편으로 구간 내 성곽 진입부 뿐 아니라 성곽 주변 근린환경 전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인 점을 드러낸다.

종합해보면, 5구간은 사직터널의 상부에 입지한 성곽 진입부인 종로 문화체육센터를 통하여 성곽에 접근할 수 있어 외부로부터의 인지도 및 접근성이 좋지 않은 구간이나, 인왕산 및 인왕산 구릉 위에 올라 앉아 있는 성곽의 조망이 매우 뛰어나 자연환경으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구간이기도 하다. 더하여 최근 성곽길 개방으로 방문객이 몰리는 현상으로 편의시설 부족 및 쓰레기 처리 문제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성곽 자체는 남측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절되어 향후 성곽복원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구간이므로 미래의 변화가 예상된다.

제3절 소결

제6장에서는 제3장 [서울성곽과 주변부의 구간별 특성]과 제4,5장 [거주자 및 방문객의 환경인식·이용행태·만족도]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이용행태 및 만족도에 대한 구간별 거주자·방문객의 차이’와 ‘거주자와 방문객 각각에 대해 구간별 이용행태 및 만족도의 차이’에 대하여 해석하였다.

제1절에서 ‘거주자와 방문객의 이용행태 및 만족도의 차이’를 해석해볼 때, 첫째, 이용행태 측면에서 3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거주자가 방문객보다 성곽활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구간에서는 반대로 나타났다. 2구간에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가장 좋은 점에서 등산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이 모든 구간 중 가장 많으며, 인근 식당가 이용객의 성곽 연계이용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서울성곽과 주변부의 교통접근성은 좋은 편으로 분석되었고, 거주자가 방문객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으로 성곽에 접근하는 비율이 가장 많고 이동시간이 가장 길지만 거주자·방문객 모두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1구간에 비하여, 5구간에서는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거주자에 비해 보행접근 비율이 높은 방문객의 경우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곽만족도는 거주자와 방문객 전체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간별로는 2구간과 5구간에서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구간에서는 거주자보다 방문객의 성곽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방문객의 경우, 성곽방문이 가장 활발하며 성곽만족도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성곽 진입부들 중에서 가장 좋은 점이 큰 이유로 보인다. 거주자는 성곽 단절구간이 존재하며 여전히 성곽 및 성곽길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성곽으로 인하여 주거지 재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어 왔던 사정을 그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5구간에서는 2구간과 상반된 결과로 성곽만족도가 최하위인 방문객보다 거주자의 성곽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5구간은 성곽 진입부가 인지도 및 접근성이 좋지 않은 사직터널 상부에 입지해 있으며, 편의시설 부족과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하지만 인왕

산 및 성곽의 조망이 매우 뛰어나 자연환경으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구간인 점으로 거주자는 성곽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1항에서 거주자의 구간별 이용행태·만족도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로, 첫째, 거주자는 1구간과 5구간에서 가장 성곽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둘째, 거주만족도, 성곽만족도,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구간별 편차도 적게 나타났다. 교통접근성 만족도는 구간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 구간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4구간이 2구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동차보유여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1구간이 3구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자에 대한 구간별 차이를 공간환경의 특성에 따라 해석해 보면, [1구간]에서는 자동차 보유여부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다른 구간들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곽 및 낙산공원 정비 등 최근 변화에 대해 가장 크게 만족하고 있으며 성곽만족도 역시 가장 높았다. 근접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수시로 산책이 가능하도록 낙산공원으로 짧은 거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성곽까지 보행 접근이 편리하다고 만족하고 있어 거주자의 성곽 이용행태가 활발한 점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4구간과 함께 거주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거주불만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주거환경에 대한 외부의 인식과는 반대의 결과인 것이다. 인접한 1구간과 비교하였을 때, [2구간]에서는 자동차보유여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게 나타났다. 즉 이용행태도 활발하지 않으며 만족도도 1구간보다 낮은 것이다. 성곽 단절구간이 존재하여 최근 변화에 만족하고 있지 않으며, 공원녹지율이 1구간과 마찬가지로 가장 낮아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며, 성곽 진입부에 대한 인지중심성과 근접중심성이 가장 낮은 점에서 거주자들의 성곽산책 비율도 매우 낮았다. 성곽만족도도 매우 낮아 방문객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과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3구간]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용행태와 만족도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대중교통지점~집까지 이동시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거주만족도·성곽산책 및 성곽산책 횟수는 낮게 나타났다. 성곽만족도·최근 변화 만족도 등 성곽에 관한 만족특성은 2구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난

반면, 입지 특성상 주거지와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나쁜 것에 기인하여 1구간보다 자동차보유여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게 나타났다. 최근 북악산 개방으로 인한 방문객의 급격한 증가로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며, 이는 방문객의 경우와 상반된 결과이다. [4구간]에서는 이용행태 및 만족도의 모든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1구간과 비교하였을 때, 거주만족도와 자동차 보유여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비슷하지만 낮게 나타났다. 최근 북악산이 개방되면서 주변이 정비되고 방문객이 증가함으로써 주변의 활력이 높아져 최근에 마을이 좋아졌다는 인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구간]에서는 거주만족도와 외부의 인식, 성곽만족도와 교통접근성 만족에서 거주자와 방문객 사이에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최근 성곽길 개방으로 방문객이 증가하여 편의시설 부족 및 쓰레기 처리 문제 등 거주자의 불만이 나타났으며, 성곽 남측 단절구간의 향후 성곽복원 등 미래의 변화가 예상된다.

제2절 2항에서 방문객의 구간별 이용행태·만족도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로, 첫째, 방문객의 ‘성곽방문’은 구간별로 편차가 크며 2구간만 높게 나타난 반면 나머지 구간에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둘째, ‘성곽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높은 편으로 구간별 편차도 거의 없는 반면에,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와 ‘교통접근성 만족도’는 편차가 큰 편으로 나타났다. 1구간과 5구간은 모양이 비슷하나 모든 항목에서 1구간이 더 높게 나타났다. 3구간과 4구간 역시 비슷한 모양이었고, 성곽만족도와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수치도 비슷하며 높게 나타났다. 성곽방문은 3구간이 4구간보다 높았고, 이동시간 및 교통접근성 만족도는 4구간이 3구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2구간은 다른 어떤 구간과도 모양이 비슷하지 않아 다른 특성인 것으로 판단된다.

방문객에 대한 구간별 차이를 공간환경의 특성에 따라 해석해 보면, [1구간]에서는 성곽만족도, 교통접근성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또 낙산공원의 인지중심성이 다른 구간보다 높았는데, 서울 도심부으로의 조망포인트이며 보행 및 대중교통으로 접근성이 가장 좋고 주변 상업·문화·편의시설들과 이용행태가 연계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볼 수 있다. [2구간]에서 성곽방

문, 성곽만족도, 교통접근성 만족도는 가장 높으나, 이동시간 및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 방문객들의 성곽방문이 가장 활발하며 성곽만족도 역시 가장 높다. 낙산과 북악산이 연결되는 지점으로 등산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은 모든 구간 중 가장 많으며, 성북초교 근처 식당 이용객들이 성곽산책과 연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3구간]은 북악산의 진출입로이자 서울전망을 할 수 있는 전망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관광의 요충지이다. 따라서 방문객의 입장에서는 성곽의 인지성은 떨어지는 반면,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이 강조되는 구간이다. 3구간에서는 성곽방문, 이동시간, 교통접근성 만족도는 모두 중간 또는 낮게 나타났으나, 성곽만족도와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4구간과 마찬가지로 높은 편이었다. 성곽 정비 및 성곽길 개방 이후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여 북촌로 및 계동길에 고급식당, 갤러리 등 상업 및 문화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1구간과 마찬가지로 이런 주변 시설과 연계이용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4구간]에서 성곽방문은 5구간에서와 마찬가지로 낮았으며, 성곽만족도와 교통접근성 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성곽 정비 및 북악산 개방 등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발지 선택이유로 북악산 등산이 가장 커 최근 방문객 증가를 설명하고 있다. 창의문 인근 도로변 상가나 주거지의 블록 내에 최근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분위기 좋은 카페, 음식점 및 문화행태를 발생시키는 상가들로 기존 생활가로 성격에서 변화하고 있다. [5구간]에서는 성곽방문, 교통접근성 만족도, 성곽만족도,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가장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5구간의 방문객들은 인왕산 등산과 함께 성곽 이용목적으로 성곽답사를 다른 구간에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출발지 선택이유도 접근성이 최하위인데 반하여 성곽답사 및 자연환경의 이용·조망이 다른 구간에 비하여 높았다. 즉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만족은 다른 구간에 비하여 가장 높으나, 화장실·매점 등 주변의 편의시설과 안내시설이 열악한 점으로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고 성곽만족도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제7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최근 서울성곽 복원 및 성곽길 개방으로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 성곽 주변 주거지 관리의 문제는 오래된 이슈지만,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서울성곽을 등재시키려는 노력으로 주변 주거지의 환경개선에 더욱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곽 복원 및 성곽길 개방 등 최근의 변화를 배경으로 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방문객의 환경인식·이용행태·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와 구간별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거주자·방문객 등 이용주체별·구간별 이용행태와 만족도 차이가 구간별 물리적 환경의 특성 차이에 의해 나타난 것임을 고찰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하여 연구의 대상을 홍인지문~사직공원에 이르는 성곽의 북측 구간 및 주변부로 설정하고, 환경특성이 다름에 착안하여 성격이 다른 5개의 소구간으로 구분하였다. 제3장은 성곽-근린환경 레벨 분석으로서 물리적 환경요인, 중심성 분석을 통한 성곽-근린환경 관계, 구간별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구간별 물리적 환경특성의 차이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4·5·6장에서 도출된 이용행태와 만족도의 거주자·방문객 차이 및 구간별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해석한다.

성곽-근린환경 관계의 분석을 위해 구간별로 성곽 진입부의 중심성 지표-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지리적 중심성, 인지중심성-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이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1구간에서는 근접중심성과 인지중심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구간에서는 매개중심성과 인지중심성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4개의 중심성 중에 근린환경 범위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도달할 수 있는 경우에 높게 나타나는 근접중심성과 거주자의 인지중심성, 그리고 최단 경로상에 해당 노드가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 높게 나타나는 매개중심성과 방문객의 인지중심성이 서로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제4장 및 제5장의 각 2절에서 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방문객의 환경인식·이용행태·만족도는 각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행태가 환경인식과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성곽 복원 및 성곽길 개방 등 최근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이용행태를 추동하며, 활발한 이용행태는 거주만족도 및 성곽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3절에서 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의 환경인식, 이용행태, 만족도 각각의 특성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자는 성곽 주변 근린환경 특성으로 자연환경을 많이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마을의 발전을 위해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곽 이용빈도는 구간별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성곽 산책을 많이 하고 있다. 셋째, 자연환경이 좋아 거주에 만족하며, 거주만족도보다 성곽만족도 및 교통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성곽 복원 및 성곽길 개방 등 최근 변화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3절에서 서울성곽과 주변부 방문객의 환경인식, 이용행태, 만족도 각각의 특성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문객도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성곽 주변부 근린환경 특성으로 자연환경을 역사환경 측면보다 더 많이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발전을 위해 편의·안내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곽의 이용빈도는 구간별 차이가 있으나 접근성이 출발지 선택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고 등산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주변 시설과의 연계이용행태가 나타났으며 구간별 환경 특성에 따라 산책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이 가장 많은 구간도 있었다. 셋째, 자연환경 및 경관이 좋아 성곽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곽만족도와 교통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최근 변화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6장 1절에서 ‘거주자와 방문객의 이용행태 및 만족도의 차이’를

해석해볼 때, 첫째, 이용행태 측면에서 3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거주자가 방문객보다 성곽활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구간에서는 반대로 나타났다. 둘째, 서울성곽과 주변부의 교통접근성은 좋은 편으로 분석되었고, 거주자가 방문객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으로 성곽에 접근하는 비율이 가장 많고 이동시간이 가장 길지만 거주자·방문객 모두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1구간에 비하여, 5구간에서는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거주자에 비해 보행접근 비율이 높은 방문객의 경우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곽만족도는 거주자와 방문객 전체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간별로는 2구간과 5구간에서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구간에서는 거주자보다 방문객의 성곽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방문객의 경우, 성곽방문이 가장 활발하며 성곽만족도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구간에서는 2구간과 상반된 결과로 성곽만족도가 최하위인 방문객보다 거주자의 성곽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5구간에서는 편의시설 부족과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하지만 인왕산 및 성곽의 조망이 매우 뛰어나 자연환경으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구간인 점으로 거주자는 성곽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6장 2절 1항에서 거주자의 구간별 이용행태·만족도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로, 첫째, 거주자는 1구간과 5구간에서 가장 성곽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둘째, 거주만족도, 성곽만족도,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구간별 편차도 적게 나타났다. 교통접근성 만족도는 구간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 구간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4구간이 2구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동차보유여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1구간이 3구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자에 대한 구간별 차이를 공간환경의 특성에 따라 해석해 보면, [1구간]에서는 자동차 보유여부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다른 구간들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곽 및 낙산공원 정비 등 최근 변화에 대해 가장 크게 만족하고 있으며 성곽만족도 역시 가장 높았다. 근접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수시로 산책이 가능하도록 낙산공원으로 짧은 거

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성곽까지 보행 접근이 편리하다고 만족하고 있어 거주자의 성곽 이용행태가 활발한 점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4구간과 함께 거주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거주불만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주거환경에 대한 외부의 인식과는 반대의 결과인 것이다. 인접한 1구간과 비교하였을 때, [2구간]에서는 자동차보유여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게 나타났다. 즉 이용행태도 활발하지 않으며 만족도도 1구간보다 낮은 것이다. 성곽 단절구간이 존재하여 최근 변화에 만족하고 있지 않으며, 공원녹지율이 1구간과 마찬가지로 가장 낮아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며, 성곽 진입부에 대한 인지중심성과 근접중심성이 가장 낮은 점에서 거주자들의 성곽산책 비율도 매우 낮았다. 성곽만족도도 매우 낮아 방문객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과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3구간]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용행태와 만족도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대중교통지점~집까지 이동시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거주만족도·성곽산책 및 성곽산책 횟수는 낮게 나타났다. 성곽만족도·최근 변화 만족도 등 성곽에 관한 만족특성은 2구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난 반면, 입지 특성상 주거지와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나쁜 것에 기인하여 1구간보다 자동차보유여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게 나타났다. 최근 북악산 개방으로 인한 방문객의 급격한 증가로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며, 이는 방문객의 경우와 상반된 결과이다. [4구간]에서는 이용행태 및 만족도의 모든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1구간과 비교하였을 때, 거주만족도와 자동차 보유여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비슷하지만 낮게 나타났다. 최근 북악산이 개방되면서 주변이 정비되고 방문객이 증가함으로써 주변의 활력이 높아져 최근에 마을이 좋아졌다는 인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구간]에서는 거주만족도와 외부의 인식, 성곽만족도와 교통접근성 만족에서 거주자와 방문객 사이에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최근 성곽길 개방으로 방문객이 증가하여 편의시설 부족 및 쓰레기 처리 문제 등 거주자의 불만이 나타났으며, 성곽 남측 단절구간의 향후 성곽복원 등 미래의 변화가 예상된다.

제6장 2절 2항에서 방문객의 구간별 이용행태·만족도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로, 첫째, 방문객의 ‘성곽방문’은 구간별로 편차가 크며 2

구간만 높게 나타난 반면 나머지 구간에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둘째, ‘성곽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높은 편으로 구간별 편차도 거의 없는 반면에,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와 ‘교통접근성 만족도’는 편차가 큰 편으로 나타났다. 5구간보다 1구간이 모든 항목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3구간과 4구간은 성곽만족도와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수치도 비슷하며 높게 나타났다. 성곽방문은 3구간이 4구간보다 높았고, 이동시간 및 교통접근성 만족도는 4구간이 3구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2구간은 다른 어떤 구간과도 다른 특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방문객에 대한 구간별 차이를 공간환경의 특성에 따라 해석해 보면, [1구간]에서는 성곽만족도, 교통접근성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또 낙산공원의 인지중심성이 다른 구간보다 높았는데, 서울 도심부으로의 조망포인트이며 보행 및 대중교통으로 접근성이 가장 좋고 주변 상업·문화·편의시설들과 이용행태가 연계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볼 수 있다. [2구간]에서 성곽방문, 성곽만족도, 교통접근성 만족도는 가장 높으나, 이동시간 및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 방문객들의 성곽방문이 가장 활발하며 성곽만족도 역시 가장 높다. 낙산과 북악산이 연결되는 지점으로 등산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은 모든 구간 중 가장 많으며, 성북초교 근처 식당 이용객들이 성곽산책과 연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3구간]은 북악산의 진출입로이자 서울전망을 할 수 있는 전망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관광의 요충지이다. 따라서 방문객의 입장에서는 성곽의 인지성은 떨어지는 반면,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이 강조되는 구간이다. 3구간에서는 성곽방문, 이동시간, 교통접근성 만족도는 모두 중간 또는 낮게 나타났으나, 성곽만족도와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4구간과 마찬가지로 높은 편이었다. 성곽 정비 및 성곽길 개방 이후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여 북촌로 및 계동길에 고급식당, 갤러리 등 상업 및 문화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1구간과 마찬가지로 이런 주변 시설과 연계이용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4구간]에서 성곽방문은 5구간에서와 마찬가지로 낮았으며, 성곽만족도와 교통접근성 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성곽 정비 및 북악산 개방 등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발지 선택이유로 북악산 등산이 가장 커 최근 방문

객 증가를 설명하고 있다. 창의문 인근 도로변 상가나 주거지의 블록 내에 최근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분위기 좋은 카페, 음식점 및 문화행태를 발생시키는 상가들로 기존 생활가로 성격에서 변화하고 있다. [5구간]에서는 성곽방문, 교통접근성 만족도, 성곽만족도,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가장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5구간의 방문객들은 인왕산 등산과 함께 성곽 이용목적으로 성곽답사를 다른 구간에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출발지 선택이유도 접근성이 최하위인데 반하여 성곽답사 및 자연환경의 이용·조망이 다른 구간에 비하여 높았다. 즉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만족은 다른 구간에 비하여 가장 높으나, 화장실·매점 등 주변의 편의시설과 안내시설이 열악한 점으로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고 성곽만족도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 제1장에서 설정한 주요 가설 및 예비 가설들이 모두 입증되었다. 거주자·방문객의 환경인식, 이용행태, 만족도는 모두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공간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점으로, 이용주체별·구간별 차이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였다.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서울성곽과 주변부 거주자·방문객의 이용행태와 만족도에 대한 연구로, 거주자와 방문객의 이용행태 및 만족도는 서로 관계가 있으며 거주자·방문객이 거주 또는 방문하는 장소의 물리적 환경특성에 따라 이용주체별, 구간별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인식과 차이가 있었는데, 방문객·거주자 모두 성곽 주변 근린환경의 특성을 역사환경적 측면보다 자연환경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성곽답사보다 등산, 산책, 주변 조망 등의 이용행태가 더욱 많이 나타나며, 만족의 이유로 성곽의 정비·개방 등 최근 변화로 인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접근성의 개선보다 자연환경 및 경관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행태도 성곽 자체보다 성곽이 입지한 내사산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거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으며, 그 이유 역시 내사산의 자연환경에서 찾을 수 있었다. 성곽길 개방으로 접근성이 향상된 점은 자연환경과의 연계성을 높였는데, 거주자의 성곽산책, 방문객의 성곽방문 등 이용행태가 성곽 복원 및 성곽길 개방 등 최근 변화로 인하여 더욱 활성화되었고 이용행태와 거주만족도·성곽만족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최근 변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를 통하여 서울성곽과 주변부 최근 변화가 이용행태와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입증하였으므로 향후에도 있을 서울성곽과 주변부의 환경 개선이 방문객 뿐 아니라 거주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점과 이를 위하여 거주자·방문객의 환경인식, 이용행태, 만족도 등에 대한 고려와 구간별로 세부적으로 다른 환경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향후 관련 정책 및 관리계획 수립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밝히고자 하는 성곽 및 주변부 이용행태와 만족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거주자·방

문객의 환경인식에 기반하여 환경인식과 만족도, 환경인식과 이용행태, 이용행태와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밝혀, 이용행태가 환경인식과 만족도 사이의 매개요소인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연구의 구조를 설정하였다. 또한 구간별 물리적 환경 특성의 차이를 도출하여, 앞서 분석한 거주자·방문객 등 이용주체별·구간별 이용행태와 만족도 차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향후에는 연구의 결과를 보완하는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환경인식·이용행태·만족도 각각에 대한 거주자·방문객 등 이용주체별, 구간별 유형화가 필요하다. 또한 서울성곽의 역사환경 보존에 대한 향후의 과제가 크므로 성곽에 대한 관리계획과 경관 등 주변부의 물리환경에 대한 관리계획을 조화롭게 수립할 수 있도록 구간별로 거주자·방문객의 환경인식·이용행태·만족도 등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민경 · 김기호, 2009, 보전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강병기 · 최종현 · 임동일 · 강병일, 1995, 도성 주요시설의 입지 · 좌향에 있어 산의 도입에 대한 시각적 특성해석의 시론, 국토계획, 제30권, 제4호.
- 강준모 · 송규만 · 손동욱 · 조희정, 2010, 쉬운 길찾기를 위한 남산 보행안내 체계 개선방안,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제30권, 제6호.
- 고광욱, 2010, 새 접근들에 의한 신체활동 권고와 지침의 동향, 대한의사협회지, 제53권, 제12호.
- 국토해양부, 2011, 국민주택기금 연도별 조성 및 운영실적, 대한민국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서울.
- 권영상, 2003, 조선후기 한성부 도시공간의 구조 : 주요시설과 도로체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 김광중, 2003, 서울 도심부 관리의 쟁점과 과제, 도시정보.
- 김기호 · 문국현, 2006, 도시의 생명력 그린웨이, 랜덤하우스코리아
- 김봉렬 · 안샘이나, 2012, 조선시대 조정수호를 위한 성곽도시의 축성론과 도시구조,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논문.
- 김승엽, 2011, 고령화 사회의 도로정책 방향: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도로정책 BRIEF, 제45호.
- 김영욱 · 신행우, 2007, 토지이용에 따른 보행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8권, 제3호.
- 김유경 · 김광중, 2008, 서울성곽 복원에 따른 성곽 주변 시각자원 분석 연구-연속 시야와 도시 조망점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김의원, 1982, “한국 국토개발사연구”, 대학도서.
- 김지연 · 정운남 · 김세용, 2010, 서울시 도심부 근린공원의 이용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김철수, 1984, 한국성곽도시의 형성발전과정과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철수, 1985, 한국 성곽도시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청주, 전주, 대구의 인구밀도변화패턴 분석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20권, 제1호.
- 박광재 · 서수정, 2001, 산지 · 구릉지 택지개발 사례 및 계획기준 조사연구,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 박병주 · 김칠수, 1984, 한국 성곽도시의 공간구성원리와 기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19권, 제1호.
- 박운정 · 김일현, 2008, 역사도시의 구도심 상업지구 활성화에 대한 연구-수원 화성 팔부자길 상업지역의 건축계획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9권, 제4호.
- 박진수 · 김기수, 2013, ‘공공성’ 측면에서 본 현행 도시재생정책 및 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4권, 제2호.
- 박철수, 2003. 풍요로운 일상생활공간의 계획과 방향.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2.
- 박훈 · 정재용, 2009, 역사도시의 도시조직 특성과 가치에 관한 연구 : 공주시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5권, 제5호.
- 변창흠, 2009, 지속가능성과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재정비사업의 현황, 도시정보, 통권325호.
- 서울시, 2009, 서울성곽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 성진욱 · 배웅규, 2009, 도심부 노후 블록의 10년간 도시형태 변화분석 연구 :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 블록 내 소블록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손세관 · 신진희, 2003, 서울 주거지역내 주거블록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학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제19권, 제4호.
- 손인실 · 유현준, 2007, 도시공간의 소통을 위한 경계의 장소화-성곽의 단절된 경계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시정개발연구원. 2009. 서울성곽의 역사문화가치 발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안용진 · 이재형 · 안건혁, 2003, 성곽주변지역 도시공간구조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 오성범 · 허길성 · 정일훈, 2009, 구릉지 개발 설계 수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윤동건 · 정문오 · 이상엽, 2013, u-city 서비스 요소가 공동주택 거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택연구, 제21권, 제1호.
- 이성룡 · 정석 · 송경연 · 송영일, 1997,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Ⅲ,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주형 · 서의권, 2009, 공공성 확보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의 역할, 국토연구, 통권 제61권.
- 이창호, 201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과 정책 · 입법과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28권, 제2호.
- 이춘호, 2001, 수도권 신도시 거주자 주거만족도 비교 분석, 국토계획, 제36권, 제6호.
- 임덕순 · 정재용, 2010, 구릉지 주거의 특성 및 가치에 관한 연구 - 용산구 용산2가동 및 한남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임승빈 · 허윤선 · 정윤희 · 권윤구 · 변재상 · 최형석, 2011, 도시내 장소성 분포 연구, 국토계획, 제46권, 제3호.
- 장남중, 맹다미, 2013, 한양도성 연접지역 실태분석 및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2008, 여가 그리고 정책: 여가를 통해 미래사회를 바라본다, 대왕사, 서울.
- 정재용 · 박훈, 2010, 역사도시의 역사환경 특성과 가치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45권, 제2호.
- 주중원, 1998, “도시구조론”, 동명사.
- 최정민, 2011, 일본 구릉지 정비방식에 관한 고찰,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2권, 제2호.
- 추민영 · 안건혁, 2010, 재개발 구역 경계부 활성화를 위한 구릉지 아파트 계획기법,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태윤재 · 박소현, 2006, 도심역사지구의 로컬 거버넌스 형성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2008, 여가 그리고 정책: 여가를 통해 미래사회를 바라본다, 대왕사, 서울.
- 홍석기, 김인희, 2009, 서울성곽의 역사문화가치 발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

2. 해외문헌

- Abdul Ghani Salleh, 2012, Sustainable Urban Neighborhoods: the need to consider residents satisfaction, OIDA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Vol. 03, No. 10.
- Barlett, P. F., Nash, R. F., 2005, Urban Place : Reconnecting with the natural world, MIT Press.
- Bera, R. and Claramunt, C., 2003, Relative adjacencies in spatial pseudo-partitions, Spatial information theory: foundations of geographic information,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Vol. 2825.
- Bonacich, P., 1987, Power and Centrality : A Family of Measur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2, No. 5.
- Choguill, C. L., 2007, The search for policies to support sustainable housing, Habitat International, Vol. 31, No. 1.
- Claramunt, C., and Winter, S., 2007, Structural salience of elements of the city, Environment Planning B, Vol. 34, No. 6.
- Crucitti, P., Latora, V. & Porta, S. 2006. Centrality measures in spatial networks of urban streets. Physical Review E, Vol. 73, Issue. 3.
- David, J., Hammond, R., 2011, High Line, Farrar Straus & Giroux
- Dubos, R., 1974, The Biological Basis of Urban Design, Anthropopolis, New York: W. W. Norton & Co.
- Entrikin, J. N., 1991, Betweenness of Place : Towards a Geography of Modernit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Elizabeth Burton, 2000, Compact City: Just or Just Compact? A Preliminary Analysis, Urban Studies, Vol. 37, No. 11.
- European Commission, 2001-2004, Sustainable Masterplanning: Lessons learned from 2001 to 2004.
- Foley, D.L., 1964, 도시구조의 공간적 요소
- Friedkin, N. E. 1991. Theoretical foundations for centrality measur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6, No. 6.
- Giedion, S., 1973, Space, time and Architec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 Hakim, A., Petrovitch, H., Burchfiel, C., Ross, G., Rodriguez, B., et al, 1998, Effects of walking on mortality among nonsmoking retired men,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38.
- Hillier B., & Hanson, J., 1984, The Social Logic of Spa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mes C O Connell, 2013, The Hub' s Metropolis, MIT Press.

- John Ormsbee Simonds, 1999, Landscape Architecture, 안동만 역(2008), 보문당
- Kenworthy, J. R., 2006, The Eco-City : ten key transport and planning dimensions for sustainable city development, Environment and Urbanization, Vol. 18, No. 1.
- Kim, H. J, 2011, School-Community Relations, Social Capital and Children' s Walking to School Behaviors, Ph.D. Dissertation, Texas A&M University.
- King, A., Stokols, D., Talen, E., Brassington, G. & Killingsworth, R, 2002, Theoretical approaches to the promotion of physical activity forging a transdisciplinary paradigm,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3.
- Laing, A., 1987, "The Package Holiday: Participant, Choice and Behavior" , Ph.D. dissertation, Hull University
- Lukermann, F., 1964, Geography as a formal intellectual discipline and the way in which it contributes to human knowledge, Canadian Geographer, Vol. 8, Issue. 4.
- Moser, G., 2009, Quality of life and sustainability: Toward person-environment congruit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Vol. 29, Issue. 3,.
- OECD, 2012, Compact City Policies: A comparative assessment
- OECD, 2000, Transport and Leisure, European Conference of Ministers of Transport.
- Perry, C. 1929. The neighborhood unit: A scheme of arrangement for the family-life community. Regional Plan for New York and Its Environs VIII, neighborhood and community planning, Monograph 1. New York.
- Relph, Edward,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김덕현 외 공역(2005),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논형.
- Sallis, J., Cervero, Ro., Ascher, W., Henderson, K., Kraft, M., et al. 2006. An ecological approach to creating active living communities.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Vol. 27, pp. 297-322.
- Tomko, M., Winter, S. and Claramunt, C., 2008, Experiential hierarchies of streets, Computers, Environment and Urban Systems, Elsevier Science, Vol. 32, Issue. 1.
- Tversky, B., 1993, Cognitive maps, cognitive collages, and spatial mental models, In Spatial Information Theory: A Theoretical Basis for GIS.
- Yi-Fu Tuan, 1977, Space and Place :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구동희 외 공역(2005), 공간과 장소, 서울: 대운.

- Yi-Ting Yu, Dean, A., 2001, The contribution of emotional satisfaction to consumer loyalty, International Journal of Service Industry Management, Vol. 12. No. 3.
- Wasserman, S., & Faust, K.,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New York and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3. 기타

- 도성수축자료, 문화재청 지정문화재대장(사적 제10호 서울성곽)
문화재수리보고서
- 방용식 기자. 2010년 3월 9일 (화) 17:10:58 기사. 종로구, 삼청와룡공원 산책로 완료.
시정일보(<http://www.sijung.co.kr>)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서울시 문화재과 서울성곽자료
- 서울시 보도자료, 2010년 10월 9일, “202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본격 착수”, 서울시 주택정책실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III.
- 서울특별시, 서울성곽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 2, 2009.
- 종로구, 서울성곽 관광안내지도
- SRTS(The 2010 Safe Route School) 조사, 미국
- Active Living Research 홈페이지, <http://activelivingresearch.org> . 2013년 10월 5일 접속
- New Urbanism Principles 홈페이지, <http://www.newurbanism.org/>

<부록 I> 설문조사 설계 및 응답자 기초정보

1. 설문조사 개요 및 설계

1) 설문조사 개요

- ① 설문조사 일정 : 2012년 10월 27일 ~ 11월 11일 중
총 4일 (평일 2일, 주말 2일)
- ② 설문조사 장소 : 서울성곽 북측 절반구간(홍인지문~종로문화체육센터)
중 5개 구간 성곽 진입부 및 주변 주거지
- ③ 설문조사 유효부수 : 거주자 306인, 방문객 358명 (총 664인)

구분	주민	방문자	소계
1구간	62	75	137
2구간	52	67	119
3구간	61	63	124
4구간	61	75	136
5구간	70	78	148
소계	306	358	총 664 인

2) 설문조사 설계

① 설문조사 장소

성곽 5개 구간 인근 주거지에서는 거주자를, 성곽 진입부에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구간별 주요 성곽 진입부는 1구간-동대문, 2구간-해화문, 3구간-와룡공원, 4구간-창의문, 5구간-종로문화체육센터 등이다.

② 설문조사 대상

설문조사는 서울성곽 및 주변부 5개 구간 거주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그룹 총 10개 중 거주자 5개 그룹, 방문객 5개 그룹 각각 유효부수가 최소 50부가 되도록 조사하였다.

③ 설문문항 설계

본 설문문항들은 2012년 9월 한 달간 거주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심층인터뷰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거주민족도 및 성곽만족도, 최근의 변화, 그리고 성곽 및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질문하는 문항은 1에서 5까지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거주만족 및 성곽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내고자 하는 문항은 객관식으로 작성하여 1개 또는 3개를 골라내도록 하였다. 그 외 5점 척도 문항 및 객관식 문항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주관식 문항도 포함하였다.

· 기초정보

거주자 및 방문객의 성별, 연령, 최종학력, 거주지, 거주년수, 직업, 직장위치 등의 문항을 설계하였다. 설문결과 설문부수가 50부가 넘으면서 성별은 대체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설문자의 기초정보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변수로 쓰여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알아내며,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독립변수들과의 관계도 알아낼 수 있는 자료로 쓰였다.

거주자의 경우, 직업 및 직장위치에 대한 항목은 교통만족, 교통수단 등의 정보와 연계하여 구간별 입지 및 대중교통 접근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었다. 오랫동안 자생적으로 형성된 주거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주년수와 거주만족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도 의미를 갖는다.

방문객의 경우, 연령 및 거주지 등의 기초정보를 통해 서울성곽의 방문목적 및 주요 진입부 중 출발지를 선정한 이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쓰였다.

· 공통문항 - 성곽

성곽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는 문항 외에 주관식 3문항을 구성하였다. 주관식 문항으로는 성곽의 이미지(단어, 장소, 느낌, 건물, 이미지, 지역, 길 등), 성곽의 가장 유명한 장소, 성곽의 만족 또는 불만인 점(세가지) 등이다.

이 문항들로 거주자·방문객의 만족도, 환경인식, 만족 또는 불만의 이유 등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 의도하였다.

· 거주자 문항

거주자 대상 질문 설계는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환경인식·이용행태·만족도와 연계하여 그 특성과 상관관계를 알아내기 위해 설계하였다.

환경인식에 관한 문항은 주민생활과 주변환경-성곽, 산, 성곽너머 마을-의 관계, 근린환경 및 성곽에 대한 인식, 환경에 대한 요구로 구성되었으며, 이용행태에 관한 문항은 성곽산책 및 횡수, 만족도에 관한 문항은 거주만족도, 거주만족 또는 불만의 이유, 교통접근성 만족도, 성곽복원 및 개방으로 인한 마을의 최근 변화에 대한 만족도 등을 알아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방문객 문항

방문객 대상 질문문항은 성곽의 복원 및 개방 등 최근 변화로 성곽 접근성이 좋아졌고 성곽만족도가 변화했다는 가정 하에 서울성곽과 주변부 방문객의 환경인식·이용행태·만족도와 연계하여 그 특성과 상관관계를 알아내기 위해 설계되었다.

환경인식에 관한 문항은 성곽이미지, 출발지 환경특성(역사, 자연 등), 환경에 대한 요구로 구성되었으며, 이용행태는 성곽방문의 여부 및 횡수, 성곽 이용목적(성곽답사, 등산 등), 출발지 선택이유, 출발지·도착지 이용시설 등으로 구성되었다. 만족도에 관한 문항으로는 성곽만족도, 성곽 만족 이유 및 불만의 이유, 교통접근성 만족 및 보행여부, 최근 마을 변화 만족 및 이유 등을 알아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설문조사 문항

성곽 및 주변 마을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은 「서울성곽과 주변부에 대한 이용행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위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답변은 통계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며 일체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협조해주시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0월

I.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II. 귀하의 연령대는?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세 이상

III. 귀하가 거주하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시 ()구 ()동

IV.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졸 이상

1. ‘서울 성곽’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라도 생각이 나시는대로 3가지를 적어 주십시오. (단어, 장소, 느낌, 건물, 이미지, 지역, 길 등)

①

②

③

2. ‘서울 성곽’ 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3. ‘서울성곽’ 에 대한 만족도를 다음의 표에서 평가해주십시오.

만족하지 못하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한다
	1	2	3	4	5	

4. ‘서울 성곽’ 에 대해 만족하셨거나 불만인 점을 아래에 세가지만 써주세요.

() () ()

5. ‘주변 마을 거주자’ 일 경우의 질문입니다.

5-1. 이 ‘마을’ 에 거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년

5-2. 귀하는 무슨 일은 하시는 지요? ()

일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5-3. 주민 생활과 성곽의 관계를 아래 표에 표시해 주세요.

관계없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관계많다
	1	2	3	4	5	

5-4. 주민 생활과 주변 (성곽이 있는)산 과의 관계를 아래 표에 표시해 주세요.

관계없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관계많다
	1	2	3	4	5	

5-5. 이 ‘마을’ 과 성곽 너머 ‘마을’ 과의 관계를 아래 표에 표시해 주세요.

관계없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관계많다
	1	2	3	4	5	

5-6. 이 ‘마을’ 및 서울성곽의 분위기에 대해 가장 적합한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

① 역사환경 ② 자연환경 ③ 문화환경 ④ 역사+자연환경 ⑤ 역사+자연+문화환경

⑥ 자연+문화환경 ⑦ 그저 좋은 주거지 ⑧ 그저 열악한 구릉 주거지

⑨기타()

5-7. 이 ‘마을’ 이 더 발전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에 관해 세 개만 골라 주세요.

① 자연환경 보호 ② 성곽방문 활성화 ③ 성곽과 자연환경의 경관 증진

④ 주변 문화시설 확충 ⑤ 안전성 확보 ⑥ 주거 환경 개선 ⑦ 쾌적성 확보(깨끗한,조용한 등)

⑧ 동네 이미지 개선 ⑨ 기타()() ()

5-8. 귀하는 여가시간에 마을 근처 서울성곽길 산책을 하십니까?

① 아니요 ② 네 (1달에)번)

5-9. 이 ‘마을’ 에서 거주하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다음의 표에서 평가해주시고.

만족하지 못한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만족한다
	1	2	3	4	5	

5-10. 거주시 가장 좋은 점은?

- ① 교육환경 ② 자연환경 ③ 교통환경 ④ 문화 및 편의시설 이용 ⑤ 안전성
⑥ 쾌적성 ⑦ 직장과의 접근성 ⑧ 단지내 환경 ⑨ 주택 내부공간 ⑩ 없다
⑪ 기타()

5-11. 거주시 가장 나쁜 점은?

- ① 교육환경 ② 자연환경 ③ 교통환경 ④ 문화 및 편의시설 이용 ⑤ 안전성
⑥ 소음,공해 등 ⑦ 직장과의 접근성 ⑧ 단지내 환경 ⑨ 주택 내부공간 ⑩ 없다
⑪ 기타()

5-12. 택까지 도착하시는데 편리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이유는?()

5-13. 귀하는 근처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서 택까지 어떤 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십니까?

① 보행 ② 자전거 ③ 마을버스 이동시간은 얼마나 걸리시나요?()

5-14.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15. 자동차 소유의 불편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① 도로불편 ② 주차불편 ③ 기타()

5-16. 이 ‘마을’ 이 최근 몇 년 동안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표에서 평가해주시고.

나빠졌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좋아졌다
	1	2	3	4	5	

5-17. 이 ‘마을’ 이 좋아졌거나 나빠졌다면 언제부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 (왜 -)

5-18. 귀하는 서울성곽 복원 및 성곽길 개방으로 이 ‘마을’ 에 어떤 변화를 보셨나요?

()

6. ‘방문객’ 일 경우의 질문입니다.

6-1. 여기(출발지)의 분위기에 대해 가장 적합한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

- ① 역사환경 ② 자연환경 ③ 문화환경 ④ 역사+자연환경 ⑤ 역사+자연+문화환경
⑥ 자연+문화환경 ⑦ 기타()

6-2. 여기(출발지)가 더 발전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에 관해 서술해주세요.

()()()

6-3. 귀하는 서울성곽길 산책을 하십니까? ① 아니요 ② 네 (1달에 번)

6-4. 여기(출발지) 방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성곽답사 ② 등산 ③ 산책 ④ 서울 전망을 보려고 ⑤ 기타()

6-5. 다른 성곽답사지점도 많이 있는데 여기(출발지)를 선택하신 이유는?

()

6-6. 출발 전에 이 근처 ‘마을’에서 이용한 시설은 무엇입니까?

- ① 식료품점 ② 식당(도시락) ③ 은행 ④ 약국 ⑤ 문화시설(전시장, 체험장, 도서관 등)
⑥ 마을 둘러보기 ⑦ 기타(행사 등)

6-7. 여기서 출발하여 어디까지(목적지) 가실 예정입니까? ()

6-8. 목적지에서 이용하실 시설은 무엇입니까?

- ① 식료품점 ② 식당(도시락) ③ 은행 ④ 약국 ⑤ 문화시설(전시장, 체험장, 도서관 등)
⑥ 마을 둘러보기 ⑦ 기타(행사 등)

6-9. 여기까지 도착하시는데 편리하셨나요? ① 예 ② 아니요 이유는?()

6-10. 귀하는 여기까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셨나요? (중복 표기 가능)

- ① 보행 ② 자전거 ③ 마을버스 ④ 버스 ⑤ 지하철 ⑥ 개인 승용차
⑦ 기타()

6-11. 귀하는 근처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서 여기까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셨나요?

① 보행 ② 자전거 ③ 마을버스 이동시간은 얼마나 걸리셨나요?()

6-12. 귀하는 서울성곽 복원 및 성곽길 개방으로 이 ‘마을’에 어떤 변화를 보셨나요?

()

3. 구간별 응답자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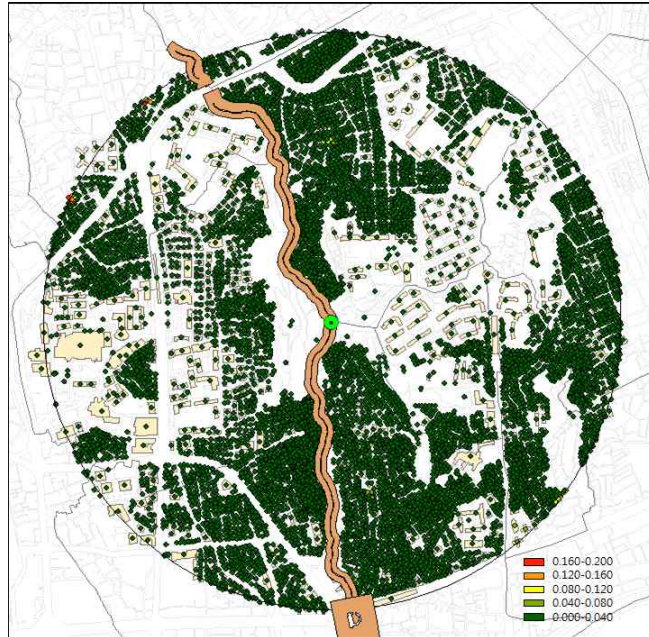
1) 거주자

구분		전체	구간				
			1	2	3	4	5
성별 (%)	남자	46.7	32.3	50.0	52.5	49.2	50.0
	여자	53.3	67.7	50.0	47.5	50.8	50.0
연령 (%)	10대	5.6	1.6	13.5	8.2	1.6	4.3
	20대	16.7	-	34.6	26.2	13.1	12.9
	30대	14.4	4.8	17.3	4.9	19.7	24.3
	40대	21.9	11.3	15.4	24.6	16.4	38.6
	50대	23.2	43.5	3.8	18.0	31.1	17.1
	60세 이상	18.3	38.7	15.4	18.0	18.0	2.9
학력 (%)	초졸	6.1	16.7	8.9	4.9	-	1.4
	중졸	14.5	41.7	4.4	14.8	1.6	8.6
	고졸	47.1	35.0	60.0	44.3	45.9	52.9
	대졸	29.3	5.0	22.2	34.4	45.9	35.7
	대졸이상	3.0	1.7	4.4	1.6	6.6	1.4
거주 기간 (%)	10년 미만	41.2	6.5	57.7	59.0	27.9	55.7
	10-20년	27.1	12.9	21.2	34.4	32.8	32.9
	20-30년	14.4	17.7	13.5	6.6	26.2	8.6
	30-40년	9.8	30.6	5.8	-	11.5	1.4
	40년 이상	7.5	32.3	1.9	-	1.6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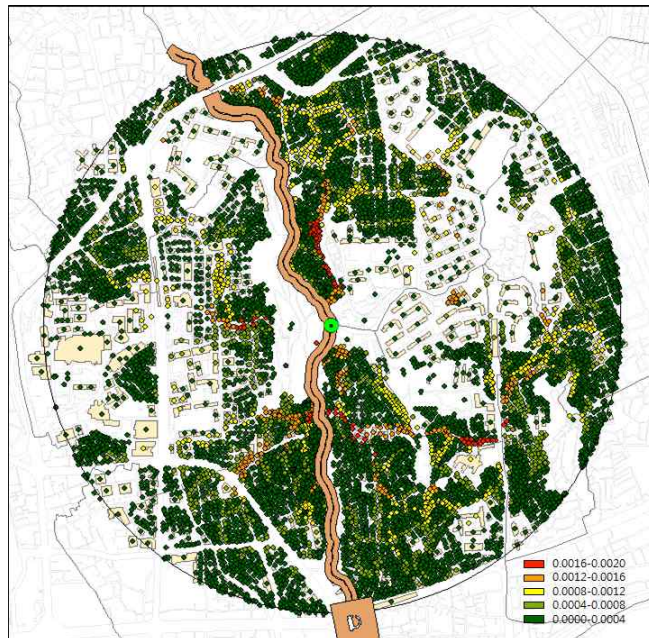
2) 방문객

구분		전체	구간				
			1	2	3	4	5
성별 (%)	남자	48.3	30.7	62.7	58.7	61.3	32.1
	여자	51.7	69.3	37.3	41.3	38.7	67.9
연령 (%)	10대	10.9	25.3	6.0	6.3	-	15.4
	20대	30.2	16.0	32.8	23.8	37.3	39.7
	30대	17.6	10.7	19.4	25.4	14.7	19.2
	40대	17.3	13.3	16.4	20.6	17.3	19.2
	50대	14.2	24.0	6.0	14.3	20.0	6.5
	60세이상	9.8	10.7	19.4	9.6	10.7	-
학력 (%)	초졸	4.7	10.7	5.3	6.3	-	1.3
	중졸	9.7	14.7	5.3	6.3	-	20.0
	고졸	35.3	32.0	43.9	39.7	17.1	45.3
	대졸	42.9	36.0	40.4	44.4	64.3	30.7
	대졸이상	7.4	6.6	5.1	3.3	18.6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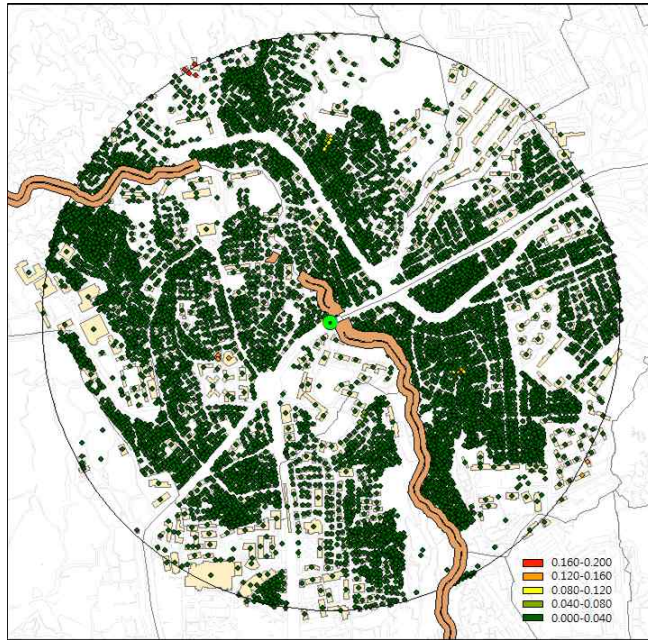
〈부록 II〉 구간별 중심성 도해 -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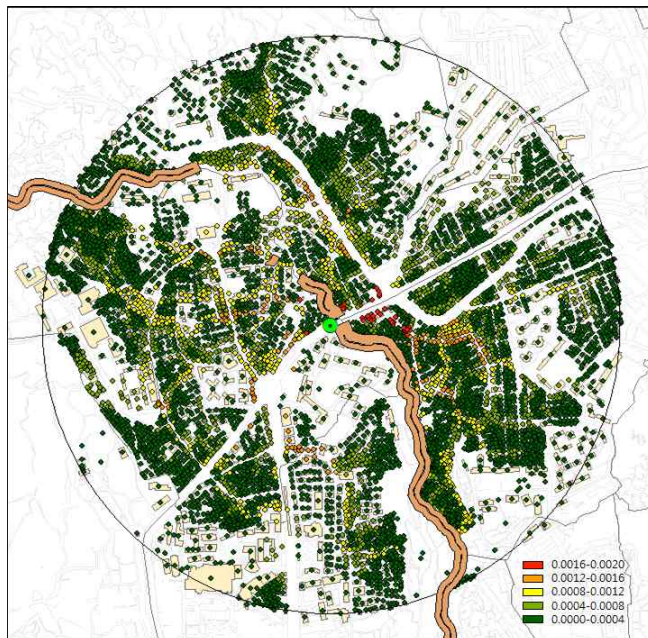
1구간 closeness centr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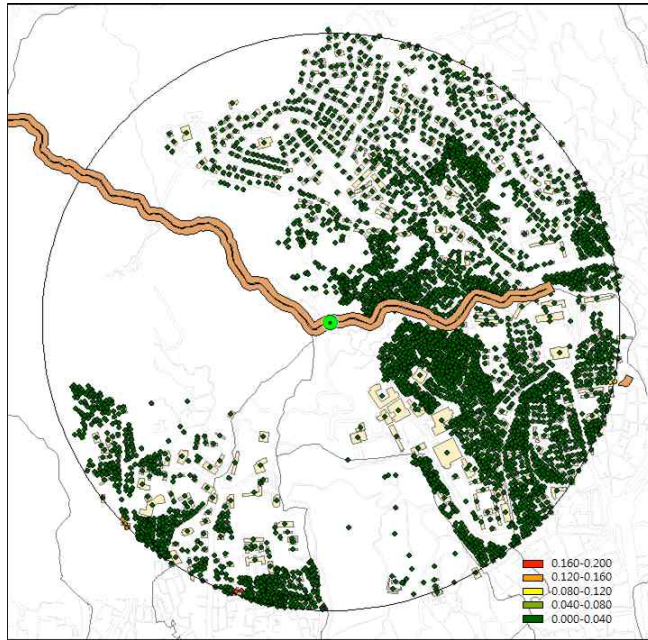
1구간 betweenness centr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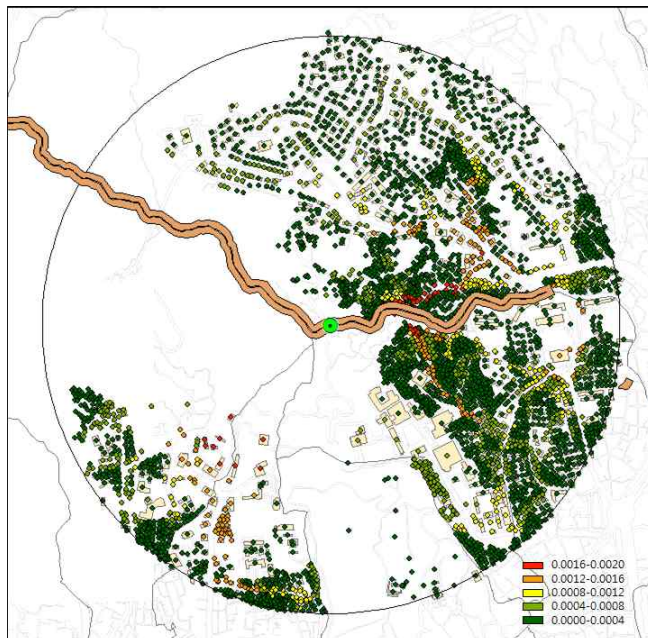
2구간 closeness centr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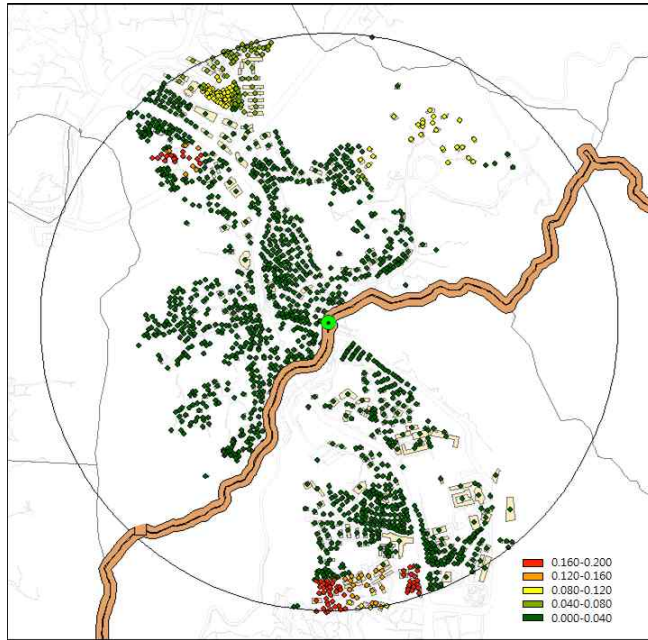
2구간 betweenness centr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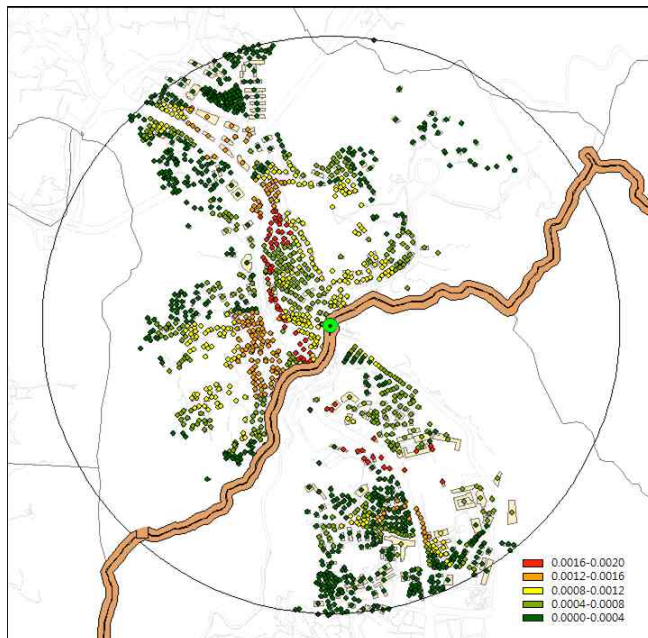
3구간 closeness centr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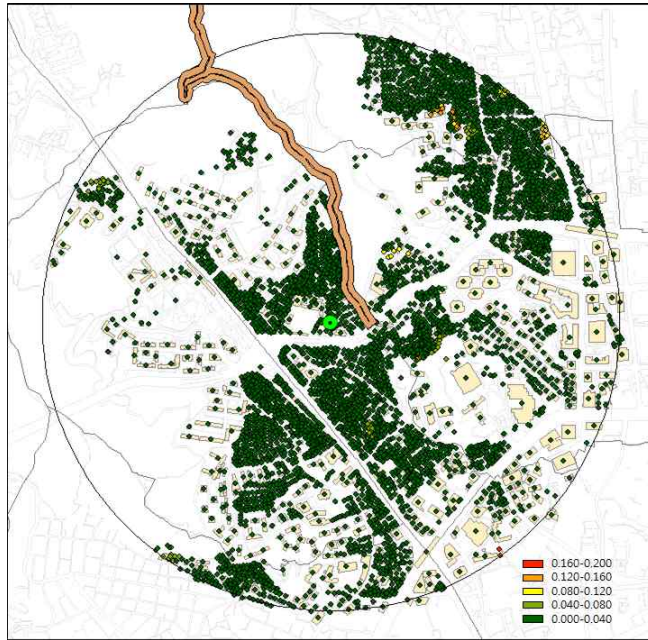
3구간 betweenness centr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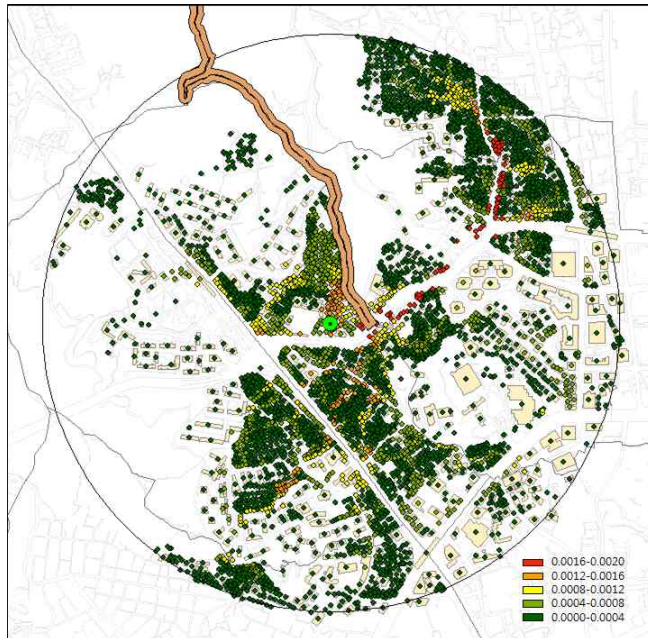
4구간 closeness centrality



4구간 betweenness centrality



5구간 closeness centrality



5구간 betweenness centrality

Abstract

Behavior and Satisfaction of Residents and Visitors on Seoul Wall and Neighboring Areas

Yoo, Suk Yeon

Graduate Program in Urba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ecause of the restoration of Seoul Wall and the opening of the promenade, leisure tourism has been increasing. Also after Seoul City Government decided in the attempt to be listed Seoul Wall as a UNESCO Cultural Heritage, it has been more important to manage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ncluding the landscape.

This study aims to divide Seoul Wall and neighboring areas into small district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hysical environment,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al cognition, behavior, and satisfaction of residents and visitors on Seoul Wall and neighboring areas in all and each district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and to interpret the difference of behavior and satisfaction between residents and visitors and among between each districts with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The results are the followings. First, the spatial relationship of Seoul Wall-neighboring areas are identified by the research of the spatial centrality and used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behavior and satisfaction with accessibility in each districts. Secondly, the relationships among environmental cognition, behavior, and satisfaction in the groups of residents and visitors are identified. Behavior has an influence on the satisfaction of residents and visitors. Thirdly, the theme of nature rather than the theme of wall or history 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neighborhood. In this view, behavior in these areas is mainly related with the natural environment-mountains- rather than the historic Seoul Wall. Fifthly, the satisfaction of residents in every small districts are high although the existing understanding of the poor residential environments.

Furthermore the recent change of the restoration and the opening in this area is the influential factor by which the behavior and the satisfaction of residents and visitors are improved. Mainly much progress in the transportation and the public accessibility through the opening of the Seoul Wall promenade invite the behavior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mountain. The behavior of residents and visitors cause the increase in the satisfaction with both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Seoul Wall.

The main results show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al cognition, behavior, and satisfaction of residents and visitors on Seoul Wall and neighboring areas in each districts are related with the difference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hysical environment. Also because this study prove that the recent change of Seoul Wall and neighboring areas affect the positive influence on the behavior and the satisfaction of residents and visitors, the future improvement of the physical environment in this area for the management of Seoul Wall as a historical heritage and the improvement of the landscape will cause the more effective effect for the satisfaction of residents and visitors. In the reflection of this study, it will be needed the more precise research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hysical environment affecting both the behavior and the satisfaction of residents and visitors in each districts for the future action in this area.

keywords : Seoul Wall, Environmental Cognition,
Behavior, Satisfaction, Centrality
Student Number : 2010-30972 ***Name*** : Yoo, Suk Yeon